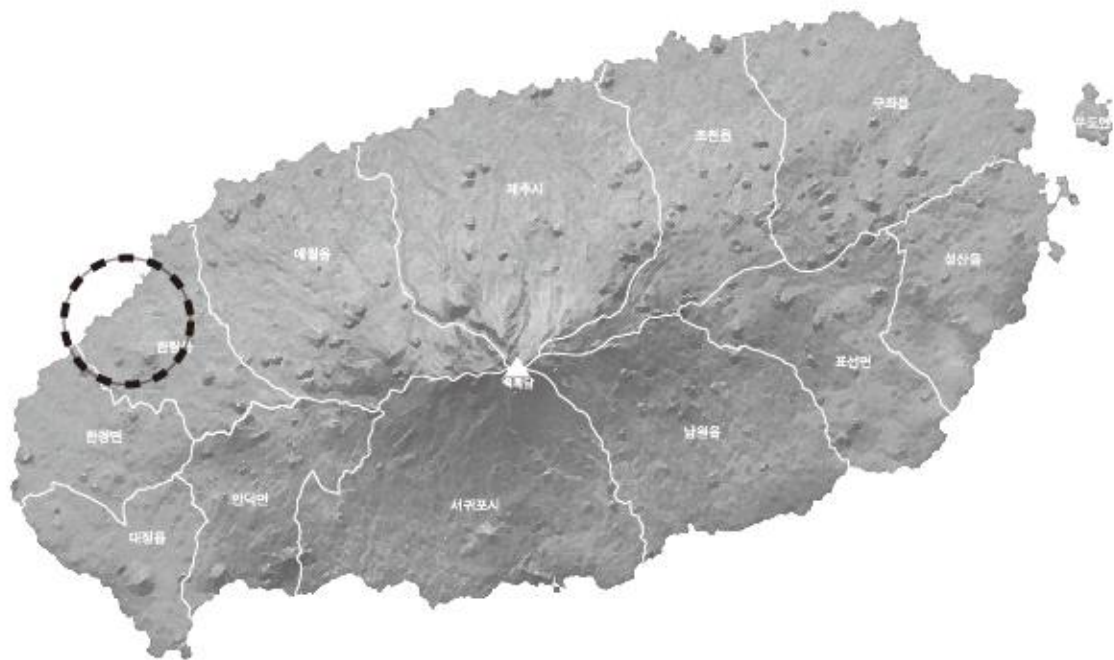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295-01

# 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안민희  
조사지점 한림읍 월령리

#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11**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7
1.2. 사업 기간 .....	7
1.3. 조사 참여자 .....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	9
1.5. 기대 효과 .....	9

제2장 한림읍 월령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	10
2.2. 조사 기간 .....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	10
2.4. 전사 .....	12
2.5. 장비 .....	12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	13	2. 제보자 일생 .....	31
3. 밭일 .....	65	4. 들일 .....	113
5. 바다일 .....	128	6. 의생활 .....	149
7. 식생활 .....	161	8. 주생활 .....	167
9. 신앙 .....	169	11. 놀이 .....	170
12. 통과의례 .....	172	13. 민간요법 .....	180

제2절 어휘

1. 인체 .....	183	2. 육아 .....	190
3. 친족 .....	196	4. 의복 .....	200
5. 음식 .....	205	6. 가옥 .....	214
7. 생업 .....	219	8. 수와 단위 .....	231
9. 민속 .....	234	10. 신앙 .....	237
11. 자연 .....	237	12. 동물 .....	244
13. 식물 .....	254		



# 제1장 사업 개요

##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제2장 한림읍 월령리 조사 내용

### 2.1. 제보자

양창부 (남, 1926년생)  
김승애 (여, 1934년생)  
박순화 (여, 1935년생)  
고상춘 (남, 1926년생)  
강춘량 (여, 1933년생)  
문국자 (여, 1936년생)

2.2. 조사 기간: 2014. 10. 28.~12. 31.

###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양창부	00:30:19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	고상춘	01:03:10	○
	구술 2. 제보자 일생	강춘량	01:41:22	○
3. 밭일	구술 3-1. 보리 농사1	강춘량	00:29:41	○
	구술 3-1. 보리 농사2	고상춘	00:39:27	○
	구술 3-2. 조, 콩 농사	강춘량	00:26:25	○
	구술 3-3. 밭벼 농사	강춘량	00:18:22	○

	구술 3-4. 고구마 농사	강춘량	00:20:05	○
4. 들일	구술 4. 들일1	강춘량	00:33:19	○
	구술 4. 들일1	고상춘	00:37:21	
	구술 4 들일2, 땀감	고상춘	00:35:21	○
	구술 4 들일2, 땀감	강춘량	00:30:21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강춘량	00:41:11	○
	구술 5. 바다일	문국자	00:19:28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강춘량	00:17:45	○
	구술 6. 의생활	문복자	00:16:02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1	강춘량	00:31:04	○
	구술 7. 식생활2	문국자	00:13:32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1	고상춘	00:20:04	○
	구술 8. 주생활2	양창부	00:27:37	○
9. 신앙	구술 9. 신앙	문국자	00:16:28	○
	구술 9. 신앙(귀향놀이)	고탁현	01:32:36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강춘량	00:32:36	×
11. 놀이	구술 11. 놀이1	강춘량	00:24:08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강춘량	00:39:54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강춘량	00:20:09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문국자	00:15:26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1	강춘량	00:25:07	○
	어휘 1. 인체2	김승애 박순화	00:21:28	○
2. 육아	어휘 2. 육아	강춘량	0:43:05	○
3. 친족	어휘 3. 친족	고상춘	00:26:43	○
4. 의복	어휘 4. 의복	강춘량	00:15:22	○
5. 음식	어휘 5. 음식	강춘량	00:27:17	○
6. 가옥	어휘 6. 가옥	고상춘	00:25:30	○
7. 생업	어휘 7. 생업	강춘량	00:39:01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고상춘	00:23:27	○

9. 민속	어휘 9. 민속	강춘량	00:25:49	○
10. 신앙	어휘 10. 신앙	문국자	00:11:16	○
11. 자연	어휘 11. 자연1	강춘량	00:17:08	○
	어휘 11. 자연2	김승애 박순화	00:23:32	○
	어휘 11. 자연3	고상춘	00:29:45	○
	어휘 11. 자연4	양창부	00:12:07	○
12. 동물	어휘 12. 동물1	강춘량	00:16:06	○
	어휘 12. 동물2	고상춘	00:15:29	○
13. 식물	어휘 13. 식물	강춘량	00:10:27	○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 제3장 전사 자료

### 제1절 구술

(@: 안민희, #1: 강춘량, #2: 고상춘, #3: 양창부, #4: 문국자)

#### 1. 조사 마을

101001 #1 (강춘량) 열매 타먹고 제일 처음에 월령서 태어나서 옛날 할망덜 말이 가문질 무사산디 무신 따문인진 몰라도 월령 어디던지.

101001 @ 이 마을은 어떻 생겨신고예?

101001 #1 어떻 생긴 것이 무싱거라?

101001 @ 마을 자체가 월령이라고 누가 이름을 지어신고예?

101001 #1 건 몰라 이름 무싱거 지은 거.

101001 @ 달하고 관첸 어신고예?

101001 #1 달? 몰라 무신 관계가 잇는 거라.

101001 @ 달 월자를 쓰거든예.

101001 #1 몰라, 아 월령이렌 허난 걸 어떻 생각 남구나이 가문질 옛날 할망덜 말이 가문질이엔도 허곡, 가문질이엔 허여 무사산디.

101001 @ 가문 가문질?

101001 #1 응 그 옛날 할망덜 곤단 말이고 월령은 이제 누구나가 이제 다 새로 나온 사람덜이영 월령.

101001 @ 원래 지명이 있덴마씨? 지명 원래 이름이 있덴마씨 원래 이름이 정말 중요한 거라예?

101001 #1 우린 가문질이엔 허주기. 옛날 사람덜은 무신 따문산디 모른디 옛날 사람덜은 가문질이엔 허는디 요새 난 사람덜은 월령이엔 허민 어디던지 다 알아.

101001 @ 월령이란 이름은 월령이렌 헤신고예.

101001 #2 (고상춘) 월령은 다 아븐질이렌 헤나서, 곳왓이라낫주게 냥이 많이 나니까 곳자왓 아븐질 경허다가 이름이 월령으로 이제 그 뉘서.

101001 @ 달허고 관계엇고예.

101001 #2 엇고 건 아니고.

101001 @ 어떤 디 리사무소에서 보난 금능리에서 여기 오젠허문 지름길이 이섯 덴 곳자왓로 동산만 넘으면 월령리로 오랏덴.

101001 #2 경 허니까 아븐질허다가 월령리로 뉘엇주기.

101001 @ 원래 금능리에 붙엇수과?

101001 #2 아니 아니. 그전인 판포에 많이 머시기 헤낫주기.

101001 #3 (양창보)이 월령리엔 허는 부락이 옛날엔 아문질이여 아문질, 막 곳 자월로 어우러진 부락이주기. 계난 우리 하르방 조상덜이 치우멍 치우멍 헤연 그 저 잣담을 이디 잣담 우알담 있지이? 저 잣 영 보든 딱 들렁 싯지 않으냐? 잣 곳자 왈 치우멍 그 이녁 츠지헌 거 아니가? 경허멍 네우멍 헌 부락이여 이 부락이. 우리 할아버지 멧대 할아버지때부터 경헌 부락인디 이디가 지금은 월령이 첨 뉘헤연 변 경되어 가지곡 다 월령 기와집도 짓고 뉘허곡, 옛날은 초가집이여. 케케묵은 초가 집.

101001 @ 계난 아문질이엔 했다는 거지예?

101001 #3 어 아문질 아문질해났져.

101001 @ 아문질의 뜻은 뉘?

101001 #3 막 곳자왈로 어우러지니까 아문질로 해난 모양이라.

101002 @ 강씨성도 많고 성씨가 이 마을은 무신 성이 만호읍네까?

101002 #1 월령 강씨도 두가지, 양씨도 싯고 무신 성씨가 한디 걸 알아져게.

101002 @ 겐 이 마을은 삼촌은 강씨잖아예 아버지가 강씨로 헨 대대로 계신거 아니예?

101002 #1 아버지 성 우리가 허난게.

101002 @ 강씨성도 많고 무신 성이 많으파?

101002 #1 월령 강씨도 두가지일꺼라. 헷불 강 이 두가지엔 허여.

101002 @ 강씨도 있고 김씨 뉘 성씨가 제일 많은 성씨가 무싱거 닻수과? 양씨 도 많지양?

101002 #1 몰라 뉘사 하신지. 양씨도 싯고 무신 성씨가 한디 알아져게 월령 강 씨도 두가지일꺼라 헷불강 두가지엔허여, 몰라 뉘사 하신디 양씨도 싯고 무신 성씨가 한디 걸 알아져게.

101002 @ 이 마을엔 성씨가 많이 잇수과?

101002 #2 고씨보다도 이씨가 많허여 이씨 에 강씨도 잇고 양씨도 잇고 다 잇 지뉘. 강씨 고씨보다도 저 이씨가 많허고 강씨가 많허고 양씨 그 다음은 벨반.

101002 @ 삼촌네 원래 제주도 고씨 멧대파?

101002 #2 오십팔덴가.

101002 @ 이 마을에 주로 성씨, 강씨여 이씨여 어떤 씨가 많아마씨?

101002 #3 나 양씨디 양씨, 고씨, 부씨, 에 아이구 또 이씨, 이칩이 만헌다. 또 김씨, 김씨도 많고, 또 에 옛날엔 이 호수가 이, 백호 미만이라났져.

101002 @ 백호미만에 월령 작은?

101002 #3 구십칠혼가 기여. 옛날은 이제는 이거 뉘 막 부락이 불어난 이제 뉘 했주마는 옛날인 구십구 백호가 못되언.

101002 @ 구십칠호, 작은 마을이라는거지예.

101002 #3 작은 마을이라났져.

101002 @ 작은마을이난 인정도 잇고.

101003 @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여마씨 ?

101003 #1 선인장 제일 먼저 나온디난이 이제 직급 선인장 타민 돈이니까 열매 타민.

101003 @ 선인장에 밧디 근디 선인장이 지금 따는 철이우파? 별경헌연.

101003 #1 별경헌민 따사 거 따민 일년에 혼 번 올라이 땃당 ㄱ만이 놔두민 또 이제 ㄱ장 피언 이제 또.

101003 @ 한동안엔 수지가 좋덴 헨게.

101003 #1 무시거?

수지가 좋덴 수입이 좋덴 헨게 이젠 또 안 해볼민.

101003 #1 혼콘타나에 오만원씩 올히 작년 올히가 지일 비싸.

101003 @ 아 그난 이젠 버리진 않겠다예?

101003 #1 아니 버려. 먹어 보명덜이 다 먹을 수 이시니까.

101003 @ 작년 올 히가 무사 비싼고예? 저 비누여 뒤여 어디서 생산허는 생이 우다?

101003 #1 몰라 그ㄱ장도 모르고.

101003 @ 한동안 중간에 막 저 가시도 그렇고 이거 저 돈 안뒤엄져 해가지고 밧디 네불엄져 허는 소문도 나낫수다게 한 번 경해도 영 수입이 뒤난 다행인게 게 난 밧디 오당보난 빨경헌게 그대로 이시킨 아이고 이거.

101003 #1 어디서 타드렌 해사 타이 탕 놔두민 썩어비는 따문이. 어디서 요청이 들어와사 그자 올린 몰라 어디서 들어왓신디 말암신디, 난 아이덜 다 쥐부난 나도 하영 했주마는이 저 산전에도 2000평 나도 싱근 거 이제 늠어부난 난 아이덜 다 쥐부러서이. 느네덜 알앙 타던지 말던지 허렌.

101003 @ 아 아이덜이 그른 아덜이 영 타레 읍니까?

101003 #1 게난 아덜이 못왕 바쁘민 그디서 담앙 보냄이라도 허곡이 아덜 두 개 딸 네 개라노난이.

101003 @ 2000평예 멧년간 2000평 농사를 지은 거 마씨 삼촌?

101003 #1 누게? 시상 나난 이렇게 농사 지으단 선인장 싱그난 선인장 햄주기 게.뵈을 허여.

101003 @ 농사 콩이여 풀이여 저 보리여 다 해낫다는거지예? 옛날 해난 일들이 제일 중요허난예.

101003 #1 게 물에도 들어나고, 바닷가에 강, 육지도 가나고, 일본도 가나곡, 안 덩긴 쳐 덩기명 잘 덩겨서 일본은 돈 벌레 물질허레 간 것이 아니곡 일본가민 식당에서 그릇 씻어이 경허민 돈 쥐이 일본은 가민 그릇 씻고 그 식당에이. 육진 가민 이제 저 물질해나서이 우리 젊은 때.

101003 @ 아 출가 물질?

101003 #1 우리도 물질은 해낫주기 젊은 때 이제 늠으난 안헌다.

101003 @ 아이구야 이 마을사람들은 주로 여자는 물질?

101003 #1 응 물질 다해여이.

101003 @ 거의 여자덜은 물질을 허곡 농사도 짓고 그른 농사는 무슨 농살 옛날엔 지어났수과?

101003 #1 응 옛날 덜 보리도 허곡 감재도 허곡이 이젠 다 선인장 싱경 선인장 탐주마는 옛날은 그런 것덜 행게.

101003 @ 보리, 감재 특히 잘 되는 농사가 무슨 농사였수과?

101003 #1 그거 제일 중으로 하영 해낫주기에. 이젠 선인장 싱그난 그것이 돈이 하기 때문에 펜안허곡게.

101003 @ 보리 감재, 감재 고구마 그 주정공장이 어디 이서신디 빼테기만 올리 고 이런 거 해낫잖아예?

101003 #1 빼테기도 반양 해영 나고이, 보리도 허어나고 바당에.

101003 @ 용흥이나 이런디허곡 가까우난 마농 그런 거.

101003 #1 마농도 뭐 허주게 쪼금 해근에 그것도 풀고, 땅에 싱경 흐는 건 다 해 나서.

101003 @ 콩 뭐 조 산디?

101003 #1 다 해난게 산딘 이디도 된다. 밧디 허는거라노난이. 나룩은 물신디 허는 거고 산딘 이제 그냥 밧디 허는거난이 산디허민 뭐 썰때도 콩밥이라고이 쓰고 보리밥은 안돼지 뭐 썰뎌 게민 집이.

101003 @ 식게때도 쓰고예 그른 거기 산디에서 나오는 뭇파 그거? 짝 짝이렌 험니까? 뭐 즐기?

101003 #1 거 무신 말? 산베떼기 뭐?

101003 @ 산디에서 나오는 그으.

101003 #1 뭇시라?

101003 @산디로 짚신도 삼고.

101003 #1 아 짝 짝 으 짝 그거.

101003 @ 그것도 중요하잖아마씨예.

101003 #1 아이고 다 써낫주기에 전인게.

101003 @ 멍석도 그걸로?

101003 #1 으게 걸로 허곡 노도 꼬고 신도 삼고.

101003 @ 노도 꼬고예.

101003 #1 게 짝으로 짝도 안 내물어낫주기에.

101003 @ 물질도 다 여자들은 헛고예?

101003 #1 여자덜 이 해각에 사는 사람은 물질도 허곡, 또 피 많이 배왕 어디 흐뎌 산전덜에 사는 사람덜은 또 못해여 제주도에도. 우리 그때 육지도 가나고이 물질허연 일본은 가민 식당에 그릇도 씻으명 일본도 가나곡이 젊을 때 게 돈 나는 디른 어디라도 가주기에.

101003 @ 이 마을 사람은 무신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은?



101003 #2 무신 일을 허여 농사 짓주 농사도 지금은 옛날엔 보리허고, 그저 보리만 허다가 그루후제 이제 선인장 난 게 선인장 그 빛이 한다고.

101003 @ 선인장 현 거는 오래 안뻗지예?

101003 #2 오래 안뻗서. 지금이야 이거 멧해 뵈 거 뿐이주.

101003 @ 옛날에는 무슨 일을 허명 농사 보리 조 모멸 고구마 감채 콩 산디, 담배, 유채.

101003 #2 그자 그건디 조 모멸은 벨로 안허고 그자 고구마, 콩도 벨반 안뻗주 산디도 벨반 안뻗서 유채도 베랑 안허다가 중간에 허다가 그만 때려치와볼곡 보리는 그자 죽장 계도 식량이 모자라 가지고.

101004 @ 그른 주변에 오름, 내, 바위, 굴 이런 데 있수과 오름은 여기 없잖아 예 금능 여기?

101004 #1 이 알러렌 어서.ㅎ김 영 요 산간더레 가사 오름 싯주.

101004 @ 냇창은 이름이 무신 냇창?

101004 #1 내창이 ㄹ만시라 ㅎ뽀 어딜로 내 느리는디 월령도 내 내린다마는이 이 밧으로 느린다게 물은 막을 수가 엇지 바당ㄹ지 느려 가사 되니까.

101004 @ 도근내니 무슨 외도에도 경 ㄹ릅데다마는.

101004 #1 게 그런디 일름을 지왕 실거여마는 물 터진 때 월령으로 영 내려온 다. 가운데로 허여정 바당더레 가야 뵈니까 막을 수가 엇지.

101004 @ 무슨 내렌 현지 기억 안남수과 무슨 내 내 이름?

101004 #1 아 월령은 몰라 무슨 월령산디도 몰라이. 월령이고 이제 그자 가문질 옛날이 가문질이엔 혼다 옛날 사람덜. 무사 가문질이엔사 허연디 말제라가난 월령.

101004 @ 바위덩어리 뭐 고벵이바위여 무신 바위이름덜 고레소여여 바당이름도 다 이십데다?

101004 #1 바당 이름 이디도 납닥이 즈룩꺨지 버랭이알 바당에 이레 요디 나간 딘 즈룩꺨지, 막 나간디가 즈룩꺨지 ㅎ뽀 남은 딘 납닥해연 이제 물싸도 납닥허게 나오난 납닥이 또 저펜이 또 질딱흔 연 진여, ㅎ뽀 넘어가민 검은여, 또 무싱것사 신디 몰라 그 넘어가민 즈작여, 월령선 즈작여허민 어디 지방이로구나. 또 즈룩꺨지 ㅎ민 요디로구나 뭐 다 알지 월령선.

101004 @ 물질허는 분이예 이름을 다 그걸 알아야.

101004 #1“어딜로 가게” 허민 이녁 물질허는 사람은 다 알지. 아니 들어난 사람은 몰라도.

101004 @ 이름이 옛날 그대로 오고생이 남으난 이 이름 조차도 중요한거라예.

101004 #1 맞아 우리 것던 우리 낫술사람은 “어디감쨌”허민 흰하게 알지. 새로 온 사람은 몰라도.

101004 @ 누가 나중에 그것이 이름이 있었던 걸 알쿠가?

101004 #1 밀어져가지 아니 불르민 밀어지는 거. 우리 낫술엔 다 알주마는이 새로 난 사람덜 알만한 사람은 다.

101004 @ 이것도 역사 기록 안허민 안돼여 어서저 부는 거 경허난 이런 작업을  
햐수다.

101004 #1 맞아 맞아 아.

101004 @ 굴 무슨 동굴 잇수과?

101004 #1 어서 동굴은 엇고.

101004 @ 동굴은 엇고예 바당에도 막 굴덜 일본 사람덜.

101004 #1 굴은 아니고 나 꺫사 꺫았지이 즈룩꺫지 뉼 납닥이 버랭이알 진여  
요것덜 그냥 영 요레 검은 득꺫리 검은 득꺫리이엔 허여 요렌 뉼산디 무사산디 몰  
라이 또 바로 우리 이 바른디 개창 이 배메는 디난 개창, 흐뵼 더 가민 나 꺫사 꺫  
았지 즈룩꺫지, 또 흐뵼 가민 납닥헌 여 시난 납닥이, 또 흐뵼 더가민 진여, 저펜더  
레 검은 여 글로더렌 금능꺫을이난이 늬으 꺫을꺫지 알 필요가 엇쥬기 경허민“아무  
디 감져 물질허레 가게” 허민 흰허게 알지 월령 사람은 바당이름을 지우니까 계난  
거 바당 이름도 잘 지와서 어디 개꺫이여만 허민 모를 건디 어딘 어디고 어딘 어디  
고 흰허게 꺫르민 이디 사람덜 다 알아 우리 낫슬엔이 아니 들어난 아이덜은 커도  
모르쥬만게 물에 들멍 “아무디 감져” 허민 그레덜 와이 물에 들레이.

101004 @ 이 마을에 내창?

101004 #2 내창 이것도 냇창인디 우로 막아부러서 이젠 내창 어서.

101004 @ 그른 이 꺫실 주변에 오름, 내창, 바위, 굴 등이 있으면 소개해 쥬십  
시오.

101004 #3 오름이엔 헌 건 월령 우이 오름 정월이오름꺫기 엇다.

101004 @ 정월이 오름 그른 이 정월이 오름은 어느 마을에 위치해 잇수과?

101004 #3 우리 해당된 거여 그 저 지경이.

101004 @ 옛날에 지경이 그른 거기에 삭다리도 허레도 가고 슬읷도 글그레 가  
고.

101004 #3 삭다리도 해 왔고 그 며 옛날 집 일젠 새도 허레 그디 가꺫 게 모든  
거 다 헤세.

101004 @ 무사 이름이 정월이 오름이과?

101004 #3 거 모르지게.

101004 @ 그냥 정월이오름 막 높기도 높아마쥬 높으지 안허여?

101004 #3 경 높으지 판포오름마니헌다.

101004 @ 판포오름마니예 지금은 정월이 오름이렌 지금도 흠니가?

101004 #3 으 지금도 정월이 정월이 경 혼다.

101004 @ 걸영 멧분정도 걸립니까?

101004 #3 걸어서 우리 그 옷대 할아버지 그디.

101004 @ 벌초햐구나예?

101004 #3 아니 모시고 있쥬기 묘제 때 1년에 한번 그 묘제헌다. 할으부지가  
그 할으부지 옛날엔 새 확 실런 강 허쥬만 옛날은 문딱 경 넡겨났져 음식을 정 넡

겨나서 지민 혼 40분 50분 걸린다. 거짐 1시간 잡아야돼.

101004 @ 내창은 무신내창 이섯수과?

101004 #3 내창은 이디 옛날 이디 내창 어셔났져 계난 이디 새로 맨들안덜 절로 물내려온디 섯지이 올레길 뻘디 섯지 았느냐 그 옆으로 이제 넷창은 맨들아 잇는디 옛날엔 그 없엇거든.

101004 @ 맨든 내창이로구나예.

101004 #3 응.

101004 @ 아주 옛날에.

101004 #3 어 옛날엔 어섯져.

101004 @ 내가 어섯수과? 옛날에는 내창이 어섯수과 아예?

101004 #3 아니 그 무사 내창어셔게 내창허든 이디 막 물 영 집덜도 ㅍ서 가고 막 해낫져.

101004 @ 그 내창이름을 기억해점수과?

101004 #3 내창이름 그냥 무꿏덜로 내려온 내창이엔 경만 해낫주기. 무꿏덜로 내려온 내창예.

101004 #3 응.

101004 @ 계난 그 물이 막 바당으로 막 내려왔수과?

101004 #3 응 바당더레 이 집 앞으로 다리 앞이 섯지이 글로 밋밋 내려간다.

101004 @ 아아 그게 내창이엇수과? 바다슈퍼 앞에예?

101004 #3 으 바다슈퍼 이디 시내 가게.

101004 @ 앞예가 내창예 그 뚫어진디엇구나예.

101004 #3 으 그거 물이 무진장 느려간다.

101004 @ 경허난 동산 집들이 다 동산우이 잇구나예?

경허연 우리 집덜엔 동산.

101004 @ 거기가 내창자리엇구나예 그른 바위 멧진 바위라든가.

101004 #3 바위 이 바닷가에 가민 멧진 디 섯져 그디덜 왕 구경덜 안 올레길 사람덜.

101004 @ 바위 이름 멧진 바위 잇수과?

101004 #3 안덕 상코지가 잇고 판포 월령 경계가 판포 경계가 저 뭐시엔 혼다 이 경계허고 조끔 시나오민 으게 시리여 시리여엔 헌건 시리모냥으로 똥그랑허니까 시리여여 옛날 하르방덜이 헤난 모냥이라.

101004 @ 예 이게 바위파 이게? 지금도 잇수과?

101004 #3 으 그냥 물싸민 멧진 똑 시리 답나.

101004 @ 아 물싸믈예 판포허고 월령 경계예.

101004 #3 바로 이디 바로 이 아래여.

101004 @ 아 월령 아래예 월령 아래 시리여가 잇고.

101004 #3 으시리여가.

101004 #4 월령아래 이장님네 집 아래게.  
101004 @ 이장님 집 아래.  
101004 #3 도리소가 잊져 도로소 도로소엔 현 건 바당물인디 동그랑허게이 영 동그랑허게 바우로 돼가지고 영 강 보른 참 멋져.  
101004 @ 아아 도로소예.  
101004 #3 도로소엔 한다.  
101004 @ 원담은 아니고.  
101004 #1 으 도로소엔 한다.  
101004 @ 바위에 바당물이 들어오민.  
101004 #3 으 멋져 아주 참.  
101004 @ 멋져마씨?  
101004 #3 으.  
101004 @ 도로소 이름은 무사 도로소파?  
101004 #3 드로 동그랑허니까 도르소렌 생각이 들어가 동그랑허게.  
101004 @ 가 봐야돼켜예.  
101004 #3 어 강 보라게.  
101004 @ 상코지 시리여 도로소 또?  
101004 #3 이디 여엔 현 거 삼형제가 이섯져. 삼형제가 싯당 큰형은 오갓 파도에 썰어가부런 이제 형제뻘이 없어.  
101004 @ 아아 큰형은 파도에 썰어가부런.  
101004 #3 그거 삼형제렌 늘 해왔거든.  
101004 @ 언제 썬어가부런신고예?  
101004 #3 태풍에 게.  
101004 @ 무슨 태풍 사라호 태풍?  
101004 #3 으.  
101004 @ 아이고 세상에 것도 이름이 이서실건디예.  
101004 #3 저 그 그 그때 삼형제 삼형제 저건 큰성 이건 셋성 이건 죽은 성 경막 늘 영 헤낫주게.  
101004 @ 큰성은 물러가도 아쉬와도 어쩔 수가 엇다예.  
101004 #3 부딪형 도망쳐 부난.  
101004 @ 셋성이여 죽은 성은 이름은 엇수과?  
101004 #3 싯져.  
101004 @ 이름은 엇수과?  
101004 #3 이름은 어서.  
101004 @ 삼형제 여 삼형제 여다 두 개백이 엇다 또 다른 바위는 마씨?  
101004 #3 이제 글로 이레 가당보민 저레 코지 있지 코지 이디서 아장 보민 질게 나가지 안혜샤 저건?

101004 @ 아 이름이 뭐과?

101004 #3 저 월령 즈룩궤지엔 혼다. 즈룩궤지가민 나 생각엔 호미즈룩이 질지 않으나 게난 호미즈룩궤치룩 길게 해서 즈룩코지 즈룩코지해난 모양이라.

101004 @ 아아 게믄 즈룩코지가 지금도 잇고?

101004 #3 지금 강 보라 그디 강 관광손님덜도 다 그디덜 올라 그레갓당으네 나온다 막 경치 좋은 디여.

101004 @ 예 경치가 아주 좋구나예? 게믄 굴은 엇고예?

101004 #3 굴은 엇다. 동굴은 하나 잇져.

101004 #4 잘 헤영 가라. 공연 잘 올려사.

101004 @ 책 나올 거 마을 책이.

101004 #3 건디 그 굴이 우리 월령에 굴이 하나 월령경에 굴이 이셨는디 그거 강 월령 수신덜 파보니까 힘들영 허질 못허연 그냥 잇져 이제. 굴이 장손 그냥 잇어. 파봐시민 어떤 굴인지 알 수가 있는디 힘이 들언 돈도 많이 들거고 허난 그냥.

101004 @ 월령 굴이 하나가 이서마씨?

101004 #3 으 이 우에 월령경에 이 우에 하나 잇져 굴이.

101004 @ 바당에 말고.

101004 #3 아니 저 육상에.

101004 @ 육상에 육상에 굴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파? 곳 자왈이난.

101004 #3 으 자연적으로 생긴 거.

101004 @ 근데 그 구멍은 알아마씨?

101004 #3 아이 크 알주 모르느냐게 응 게난 원체 경비가 하영 들거난 이제 안행 덜 궤만이시네.

101004 @ 그 굴의 이름은 뭇지 모르고마씨? 어릴 때부터 하르부지가 이건 굴인디.

101004 #3 이거 월령경 바로 월령경이여 월령지경 지경을 말하는 거주기.

101004 @ 월령지경에 동굴은 하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을 팔 생각을 안헌다. 근데 어느 쪽 위치해 잇수과?

101004 #3 이거 바로 요거여.

101004 @ 사람 사는 이 저 집 잇는 디 동굴이 구멍이 이서마씨?

101004 #3 아이 저 혼참 올라가야 돼긴 웬다. 이제 그레덜 집덜 다 짓엄서라덜.

101004 @ 그쪽에 집덜도 지서불엄수과?

101004 #3 으 이제 영 텡기명 밧디 텡기명 보믄 집덜 다 지션 서.

101004 @ 동굴 잇는 것도 다 몰람구나 다들.

101004 #3 몰람실꺼여.

101004 @ 응. 어디로 뺨어 있는지도 모르고예.

101005 @ 이 마을에는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101005 @ 옛날에엔 무슨 여기에 향사당이라든가 이런 무슨 옛날 건물덜은 엿수과? 학자덜 공부했던 사당덜이라던가 이런 것도 엿고?

101005 #1 사당에엔 흐끔 곤는 것이 그냥 이제 사람덜 허여근에 뉘생 그르민 웰 철이고 사당에 허든 그 무싱거렌 그르민 웰 철이고 그런디 셔난디 이 옛날 사람덜 이젠 어서게 이제.

101005 @ 월령에 마을 잔치도 합니까? 경로당엔 사람이 어십테다.

101005 #1 그런거 다 잊지 회장은 안해보곡. 그자 월령에.

101005 @ 월령은 마을 잔치 그런 것도 합니까? 경로당엔 사람이 어십테다에 폰 마을엔 막.

101005 #1 어서 모이렌 혈 때 가끔 잊나. 어디서 오랑으네 부녀회에서 무시거 맥인다. 뉘한다. 게민 방송해여. 뉘시에 나오라 해영.

101005 @ 경해도 어떤 마을은 매일 심심헌 노인들 아침부터 나왕 밥 먹고 허는 디 아무도 어신거라.

101005 #1 월령 어시니까. 영 모이게 되언 어디서이 그런 거 영 맥이렌 허는 거 아니맥이민 아니 나온덴 허멍 혼 들에 두 번인디 혼 번인디 가끔.

101005 @ 일허레 간다는 거 아니예?

101005 #1 일허레가 아니고 그디 강 먹으른 아무시간으로 밥맥인다 행 맥여준다. 그거 아니민 아니 나온덴.

101005 @ 계난 집이서 펜안허난 경협신가 판 마을엔예 딱뉘허게 경로당 막 회사들어온 것들도 많고 점심에 밥도 해 먹고예 화토키기도 허곡 경허는디 여긴 어서.

101005 #1 안가 아니 어디서 영 나오는 거 가끔 신생이라 부녀회에서나 어디나 허민 가끔 모여이 월령서 똑 혼 들에 두 번은 모이렌 해도 혼 번이라도 모여이 아니민 아니 나온덴 허멍덜 계도 가끔 모일 때 잊나 혼번씩.

101005 @ 옛날에는 이 월령에 무슨 기관이 이섯수과? 노인당, 무신 리사무소 이런 거 이섯수과? 부녀회, 어천계, 청년회 다 이션마씨? 옛날에도 리사무소도 이섯고?

101005 #3 으. 옛날엔 우리 리사무소 멋지게 신계 아니고 옛날은 초가집이여.

101006 @ 이 마을에는 어떤 계(=집)들이 있습니까?

101006 @ 옛날에 무슨 계 집 마을 집 이런 것들 저 해녀 어촌계렌 허지예? 어촌계 당연이 잇지예?

101006 #1 계 어촌계잇주게. 그거 집도 지서지고.

101006 @ 계도 많이 잇고?

101006 #1 계가 뉘고?

101006 @ 어촌계 이런 식으로 계.

101006 #1 아 그것이 그치 붙은 거난.

101006 @ 집 무슨 집 상여 무슨 계 무슨 여자들끼리.

101006 #1 안 들어봤져 어촌계 정도 ㄱ치 붙엉 거 말을 굳는거난 알아지는데 다른 건 몰라.

101006 @ 부녀회 부녀회도 잇고예 청년회.

101006 #1 그런 건 다 잇지 저디 ㅁ을회관에 가민 청년회.

101006 @ 삼촌은 부녀회장이나 이런 것도 해봣수과?

101006 #1 회장은 안 해보고 그자 그디 월령에서.

101006 @ 이 마을에는 어떤 계(=접)가 있습니까?

101006 #3 계엔 현건.

101006 @ 접 옛날 옛날엔 무신 상여계여 무슨.

101006 #3 옛날 그 저 사름이 돌아가믄이 그런 거 셋져.

101006 @ 그런 걸 뭐렌 험니까? 상여계.

101006 #3 응. 저 우리 사람 들어와가민 사람을 거 뽑양 젊은 사람덜 뽑양으네 이제 곱으민 저 차로 싣거당 다 뭐 햄져마는 옛날엔 저 뭐해낫져 상여로 이제 그거 다 싣져.

101006 @ 아 어디셔마씨?

101006 #3 부락에게.

101006 @ 아 부락에 그 상여가 잇구나예 옛날 상여 그대로.

101006 #3 으게 거 이제 안 썩 네부난 삭암실꺼여마는 다 이셔.

101006 @ 리사무소에 잇수과?

101006 #3 아 이셔 뜰디 집 짓엉 다 보관해봣돏져.

101006 @ 아 그 집 이름을 뭐렌 험니까?

101006 #3 아이 이게 상여집이엔 허여 그거 뭐 그거 알앙 뭐헐티 네볼라.

101006 @ 아니 이걸 마을에 잇는지 없는 지 조사를 책이 나와야 됴마씨.

101006 #3 으 싣져.

101006 @ 상여집 이게 언제부터 이셔낫수과? 멏 백년 쉼 거지예?

101006 #3 으게.

101006 @ 삼촌 어릴 썩에도 그 집이 ㄱ만이 그테로 이션?

101006 #3 아이 저 집은 혼 요만이 맨들아 보관해 놔돏져.

101006 @ 건 언제 맨들언마씨?

101006 #3 그거 맨든지 우리 욱안 맨드난 한 7~80년 쉼지.

101006 @ 아아, 7~80년 쉼 초가집은 아니고 줌.

101006 #3 으게 영 저 맨들안 놔된 보관 창고지게.

101006 @ 옛날엔 어떻허엇수과? 그거 누구안테 보관허연? 아주옛날엔 어렸을 때.

101006 #3 아 저 부락 그 소미라고이 그 잇져 그 말아그네.

101006 @ 부락 뭐마씨?

101006 #3 소미라고 저 이 부락에 일보는 사람 잇다.

101006 @ 아 부락 일보는 사람? 그 사람네 집에 놔둬마씨? 마을 창고 그러면?  
 101006 #3 으으. 마을 창고 그런디 강 창고 맨글안 그거 장사나가게 되민 그 양  
 반달이 다 꺼내영 집 앞더래 다 ㄴ져다 놓곡 한다.  
 101006 @ 아 그 옛날에는 상여소리 잘 하는 사람 이서났수과?  
 101006 #3 나 잘해났져 나백이 었다.  
 101006 @ 삼촌 상여소리도 해마씨?  
 101006 #3 응. 나 인정도 많이 들영 젊은 아기덜 돈덜 다 해똥그네 여행시경 행  
 놔두난 돈이 땃 천은 똥신가부똥 해보난 다덜 훔쳐먹언 예이 나쁜 녀석덜 나 욱 많  
 이 해똥.  
 101006 #3 삼촌 언제 낮에 좀 몸 풀어지민 어디 밖에서라도 불러줍서예, 그거  
 녹음허면 큰 자료가 똥마씨 이제는 아무도.  
 101006 #4 (문국자) 이 하르방백이 어서 월령도 문.  
 101006 #3 상제덜이 눈물이 질질 나게시리 막 똥겨시네.  
 101006 @ 상여계가 이섯다는 거지예.  
 101006 #3 으 거 부락 동골 셋골혼다.  
 101006 @ 동골 셋골 다 합쳐근에.  
 101006 #3 경허문 이 동골에서 죽으문 동골사람이 책임이곡, 셋골에서 죽으문  
 셋골사람 책임 아니가게.  
 101006 @ 이 죽은 마을에서도 참 세상에 책임이곡예? 셋골사람 돌아가시문 셋  
 골사람 게도 상여계의 상여는 같이 쓰는 거고.  
 101006 #3 으 부락내에서 ㄴ치 쓰는 거.  
 101006 @ 계는 또 이거 말고 무슨 계가 도 잇수과? 그릇계.  
 101006 #3 으 그릇계도 잇지.월령 이젠 하영덜 안허는 모냥이라라. 옛날 그릇계  
 행으네 큰일 때이 다 젓그릇 ㄴ져당 해났주기 이젠 식당으로 간 똥덜 해 노난 그릇  
 도 사용도 안허곡 그릇덜 어디 다 실꺼여 보관헤영 실꺼여.  
 101007 @ 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101007 @ 할머니덜 당 구덕 정 돌레떡 가정은예 당 그런데도 이섯수과?  
 101007 #1 어서 경헌것덜 셔났구나 다른 므을엔 구덕정 어떻 돌레떡 폴레 똥건  
 어떻헤연.  
 101007 @ 돌레떡 돌레떡.  
 101007 #1 게메 돌레떡은 알아지는다.  
 101007 @ 돌레떡 숲양으네 마을 할망당에 강.  
 101007 #1 할망당 할망당이엔 헌디 들어났져 그런디 강으네 할망당에 강 똥 올  
 령 절허는가?  
 101007 @ 옥돔하나 저 이런 과일도 하나 놓고 쟁 강 비는 거주기게 우리 집에  
 즈순덜 잘 똥계.  
 101007 #1 할망당이엔 들어났져 우리 어멍네덜 잘 똥겨났져 우린 안 똥겨났져.



101007 @ 어딘지도 모르고예?

101007 #1 어디 영 판포펜더레 길건디 안텡겨나난 몰라이.

101007 @ 판포쪽으로 갔구나예?

101007 #1 으 할망당이엔이 우린 안텡겨나난 잘 몰라 우리 어멍넌 할망디 가노  
렌 헨다. 할망디 할망디엔 허멍 간다 이것저것 헤영 간다 춤계 경해낫찌.

101007 @ 예게 게믄 떡도 먹고게 갔다오민 아침 동새백이 갖다 오잖아예.

101007 #1 이칙겨니게. 경헨 가난.

101007 @ 인척이 가지갈라 온 당이 월령엔 어신가 어디 가지갈라 온덴 험니다  
게 판포에 할망당이 멀어되민 이쪽으로 영 행 하나 팽나무 폭낭아래 영 모시거나  
경 허는 디 월령은 분명 이실건디예 본향당이렌헨.

101007 #1 몰라 월령당 엇다. 요 판포텡겨나세. 즈꿏디난 이 다음 마을이난.

101007 @ 아 판포가 다음 마을이난.

101007 #1 이 다음 마을이난 그디 텡겨난 할망디라고이. 얼른 ㄹ찌조케 ㄹ르민  
할망당이렌도 흐곡 할망디엔도 흐곡 우리어멍넌 잘 텡가서 우린 커가난 잘 안텡기  
곡 우리어멍넌 잘 텡가서. 그디 강 빌민 어멍 흐꿈 애기덜이영 펜안허난 텡겨실거  
라.

101007 @ 이 마을 풍습이 있습니까 마을에 옛날에 포제도 헤낫덴 험디다 지금  
은 어서져불엇수과? 마을포제.

101007 #1 으 허다가 거 끊어져서.

101007 @ 무사마씨?

101007 #2 몰라 거 어뎡헡 끊어져불엇단 말이여.

101007 @어틸 때까지 헤낫수과?

101007 #2 우리 육은 때ㄱ지 헛어 허다가 뭐 끊어져불언.

101007 @ 포젯당은 잇수과 어디 지금도 모양새도?

101007 #2 포젯당은 요 아래 저디 모양새도 엇고 다 사라져부런 그디 다 메파  
부런.

101007 @ 멧살 때쫂م 어서진 거 답수과?

101007 #2 우리 혼 일고 여덥술에 떨어져실겨여.

101007 @ 당도 어섯수고? 당 어렸을 적에 할머니랑 쫂앙 어디 판포당이라도 영  
가고 판포당 어머니 텡겨낫수과?

101007 #2 으 판포당에 월령사람덜은 판포당 다.

101007 @ 쫂아가본 적 업지예?

101007 #2 당에 가 본적은 엇고.

101007 @ 떡 가정왕 돌래떡 그런 거 먹어 난 기억은 엇수과? 옥돔이영.

101007 #2 거 그디 가젠허민 무싱거 가정 가 가지고 헤나민 그디 다 바쳐뎡오  
곡.

101007 @ 게도 먹을 거 가정 읍디다 월령엔 당이 엇고.

101007 #2 어서 월령엔 당이 었고.

101007 @ 사모님도 당에 탕겨났수과?

101007 #2 안 탕겨봤져 어머니대만 탕기고 안 탕견.

101007 @ 마을제 포제가 었엇던 험디다예?

101007 #3 포제 므을제가 셔났져. 우리 어린 때 집터가 바로 이 밑엔디 근디 우리 욱은 때ㄱ장은 제를 지내 온디 이제 우리 욱은후제는 그 하르방덜 다 돌아가부니까 제 이젠 다 끊어부런 이젠 끊언 제 안헌다.

101007 @ 욱은 후제면 몇 살쯤이과?

101007 #3 그때 나 일곱살 요섯살쯤 된때여.

101007 @ 일곱살 요섯살쯤 된때에 포제가 어서져다는거다예 몇 년에 었어진 건 모르고? 계난 여서 일곱 살에.

101007 #3 나 요섯살 일곱살에 일본에 가부렀거든. 일본 벌언살젠 일본 강 오란 보난 다 어서져부러서라 해방 후에 들어왕 보난.

101007 @ 해방 후에 어서진 거마씨? 스물여섯 스물일곱 일본 갔당 왕 보난.

101007 #3 다 어서전.

101007 @ 와보니가 어서져다 4.3전에는 이섯다는거지예.

101007 #3 으게 이섯져.

101007 @ 4.3사건때 못헛고.

101007 #3 4.3사건때 시끄러와근에 그 큰일날라고 그 때 중지되곡 해났져.

101007 @ 4.3사건 이후엔 허당.

101007 #3 그 전엔 해났져. 제도 지내젠 를 몸에 한 일주일 이녀 할망신디 할망네 ㄱ치 자지도 안허곡 따로 강 자명덜 일주일 정성들여그네 제 지내는 날은 다 옷덜 관복 입영 나왕 제덜 지냈져.

101007 @ 아 보기만헌것과 삼촌은 거기에?

101007 #3 으 봄만 우리 어명행 그덜 가질꺼꼬.

101007 @ 남자덜만 가고.

101007 #3 으 젊은 사람덜.

101007 @ 남자만 가고 거기엔 어떤 음식을 올렸는지 봐난 기억이 잇수과?

101007 #3 아 저 제 지내는 거 돼지 삶는 디도 다 있고,지 벌이는 집터도 다 셔져 이제.

101007 @ 지 벌이는 터도 지금 잇고예 돼지 삶는 디도 거기서 삶아? 생으로 험디다. 포제 보통 저 소고기는?

101007 #3 저 우린 저 그 땐 삶양덜 해라.

101007 @ 삶양 험디가? 삶양 뭐뭐 올립디가?

101007 #3 돼지 올리곡 무신 뭐 뭐 빵 떡덜 행으네 올리고 다 헌다.

101007 @ 떡은 무신 떡 올립디가? 흰떡?

101007 #3 으게 흰 거 즘쫄떡 무신 떡 그거 다.

101007 @ 밥이영 과일이영 옥돔이영 돼지고기도 올리고예?

101007 #3 으 돼지고기도 온채 다 딱 온채 올린다 칼로 그치지도 않혀영.

101007 @ 온채로 올리고 여자덜은 뒤에서 저 음식 만들고 남자덜이 강.

101007 #3 여자덜 잘 못봐 제 끝나민 제 끝났젠 허민 여자덜 강으네 뭐 설르고.

101007 @ 여자덜이 강 설르고예.

101007 #3 으.

101008 @ 이 마을의 특산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1008 @이 월령이라는 마을 이름이라던가 무사 선인장은 옛날부터 경.

101008 #1지일 처은 낫젠허여.

101008 @ 태어나서 보면 월령이 선인장이 경 하영 이십디가?

101008 #1 경흐난 옛날 처음에 월령 바는디 선인장 이파리 하나 터왔젠 바당에 서. 쟁 그걸 싱금 시작흐난 막 번졌젠 경 곶아이. 그거 터 와난거 우리가 당추 몰라 이, 전설ㄱ치 옛날 처음에 선인장이 뭐처린 모른디 이파리 하나 바당에서 터 오난 어디서 와신디 그걸 싱건 이제 막 번짐시작허난 그디 올매 전 올매 타먹고이. 우린 몰라 그런 거 우리 나도 올매 먹으매 빨강헌 거. 가시영 헤영 헤여도 먹으민 먹어 전근이 경허매 제일 처음에 월령서 선인장 태어났덴 허주기게 옛날 번전 오만디 다 번졌주만은 선인장이.

101008 @ 이 마을에는 특산물로는 옛날에 무싱거고 지금은.

101008 #2 특산물로는 옛날에는 없지 금능이나 한림에 비해 떨어져 지금은 선인장으로 좀 부락마을이 괜찮아.

101008 @ 그른 이 마을의 특산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인장?

101008 #3 선인장 특산물이지. 쟁 이제 우리 하르버지덜이 이제 살아오멍 이 선인장덜 헌지가 이거 멧해 안됐져. 나 나 육은 후제사 시작을 했거든. 옛날 이 옛날 당동하르방이렌 현 하르방이 이섯서. 게난 바당에 강 보니까 이상헌 물건이 올라 왔거든.“아 이거 뭐인고” 허연 이 하르방이 반 가시도 싯곡 헤연 그걸 바당에 올라 온 걸 ㄱ져다 낱 그걸 올레담우에 잣우에이 그거 세왕 놔둔 모양이라. 세왕 놔두니까 그거 자란 장성허영 막 켌 이제 월령이 그런 선인장부락이라고 지금 허고 잇주 기.

101008 @ 백 멧십년 되긴 됐주마는 칠 팔십년 백기 안돼.

101008 #3 으 선인장 특산물이지.

101008 @ 아까 그 말한 선인장의 들어온 내력이 그렇다는 거지예 음 그 아까 음 선인장이 들어온 일이 당동 하르방.

101008 #3 당동 하르방이 저 바당에 갔당 그거 봉가당 심영와세 거 게 그 하르방이 심영왕, 불리등이 이상허거든. 그거 웅겨 웅겨 허멍 이렇게 쟁 이제 다덜 돈덜 별업세.

101008 @ 들어온 얘기가 당동 하르방이고 당동 하르방을 볼 수는 없엇잖아예? 옛날 이야기로 들은 거 아니예?

101008 #3 아니여 그 하르방 나 욱은 후제 돌아갔져.

101008 @ 기파? 무사 당동 하르방이렌마씨?

101008 그거 몰라 어떻 당동 당동했져.

101008 @ 욱은 후제 멧살 때 돌아가션마씨?

101008 #3 해방후에 들어오난 왕 보난 그 하르방 살양셔라.

101008 @ 나이 드시난 돌아가신거예?

101008 #3 나이 드난 돌아간.

101008 @ 게른 선인장이 들어 온게 막 오래뒀진 았았다예 언제?

101008 #3 한 이 백멧십년 뒀긴 뒀지만은, 우리가 이제 밧디 심영 수확 보는 건 한 칠 팔십년백이 안뒀여.

101008 @ 칠 팔십년에 수확 보는 건예 그른 그냥 마을에 처음 난 거는 백 멧십년?

101008 #3 으 그자 한 200년 가까이 뒀겨지.

101008 @ 그 할아버지가 본 시점에서 그 할아버지도 욱아실 때 발견헌거난예.

101009 @ 이 마을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1009 #1 4.3때 피해도 어섯고.

101009 @ 선인장은 옛날에 이름을 뒀렌 핫수과?

101009 #1 그냥 선인장 월령 나 굿사 글아져나.

101009 @ 어릴때부터.

101009 #1 제일 먼저이파리 하나 태왕 싱그난 커가난 열매도 열고 월령 제일 먼저 선인장 태어났젠 헌다게 경 행 그 열매 뒀단보난 우린 모른다 그거 나올 시절에 이 막 그 열매도 허고 오죽 번져시냐게 선인장을.

101009 @ 여기 자랑거리도 선인장?

101009 #1 뒀 다른 건 모른다.

101009 @ 자랑할 수 잇는 것도.

101009 #1 몰라 어서 자랑 할 수 잇는 게 뒀산디.

101009 @ 바당이 멋있다.

101009 #1 거 무신 말 바당이사 우리 물에 들곡 해나난 이.

101009 @ 경치가 좋다.

101009 #1 모르켜 그런 건 어떻사 허는디 우리 물에 들 땐 물에 드니까.

101009 @ 땅은 어떻힙니까? 토지 땅은 좋아?

101009 #1 토진 우리 토지니까 나가 벌곡게 살아나난 좋아뒀져.

101009 @ 아니 게난 동쪽엔 돌멩이가 많안.

101009 #1 으. 산전들에 작지나고이 월령 그런것도 흥깁 싯져 그런 지방에 쪼금 요디도 작지라고 그만허민 뒀 이녁동네 지일 좋아부러 놈의 동네.

101009 @ 거기는 금릉이나 쪼끗디서 보민 그딘 협재해수욕장이 이시난 거기는 돈도 벌곡 거기에 비해선 월령은 또 예 우리도 여기도 모래가 이서시민 좋아실 걸

그런 건 없잖아예?

101009 #1 허허허허 모래 꼭 씻는다 씻주기 아무디나 서게 옛날 그 모래가 그 바당으로 올라왔젠 허여 바당에서 밀령밀령허는것이 막 우트레ㄱ지 브름에 밀려왔젠 옛날 할망덜 글아이. 모래가 아무디나 안 올라오주기 올라오느디로 올라와 경헌덴 허여이.

101009 @ 마을 자랑거리.

101009 #2 뭐가 좋다허든 춤 엇지 좋다는게 엇지 월령 살기가 곤란헤노니까 그런 거 뭐 인심은 좋앗지 부락이 영 죽아노니까 월령리엔허민 모르는 일이 엇지 학자도 많고 나쁜 사람이 어서 그것만은 월령이 상당히.

101009 @ 인심도 좋고 죽으난.

101009 #3 인심 나쁘덴 안헌다 널르지도 안허는 부락이주마는 다 뭉쳐근에 잘행 살아온 부락이여.

101009 @ 인심도 좋고 또 이렇게 4.3때 피해도 없었고.

101009 # 3 으 4.3때 그 총으로 피해 안봐세 경 안해시민 역볼로 문딱 불 부껴 그놈덜 다 불 부껴불엇져.

101009 @ 죽아도예 음 자랑거리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 났거나 이런 뭘 엇수과? 자랑거리 막 자랑혈만헌.

101009 #3 우리 자랑거린 그 당시에 한청단장 우리 형 해났져.

101009 @ 한청장단예.

101009 #3 으.

101009 @ 한청장단이든 4.3때파?

101009 #3 으 4.3때 그때.

101009 @ 형님이 양.

101009 #3 창순.

101009 @ 양창순씨가 한청장단허난 피해가 어서수다 한청장단이든 경찰이파 뭐 파?

101009 #3 경찰은 아무것도 아니여.그 한청 그냥 부락내에서 침 경찰따위 경찰이 그 뵈고?

101009 @ 아아 청년단장이란 말 아니?

101009 #3 청년단장이주기.

101009 @ 한청단장인디 월령에서는 한 분이 이섯구나예?

101009 #3 으게 우리 형님 이섯져 그 당시 전투할 때 헨 나 저.

101009 @ 여덱명중에 아까 한 명이쫘다예 그 저 담 쌓아가지고 지키는.

101009 #3 우리 4.3사건 당시에 우리 부락엔 도치가를 많이 쌓앗져 도치가에 헌건 이 부락내에서 성을 둘렀주기 만리성.

101009 @ 만리성?

101009 #3 그 성을 둘런 헨 폭도덜 들어오지 못허게 방지허게 성을 둘런시난

이젠부락들에 들어오젠 허믈 도치까엔 헌건 영 싸고 영 싸고 이디에 강 영 경비 딱 사났져.

101009 @ 아아 경비 셋었구나예.

101009 #3 으 까딱어서 어디 사람이라도 깎딱 들어오지 못해여.

101009 @ 거기에 형님이 삼촌보다 멧살 우이파?

101009 #3 나보다 아주 우이난 아홉술이나 우이난.

101009 @ 아 열일곱에 아홉 더하면 스물여섯이난 아이 여기도 위험했겠다예 스물여섯에 제일 대빵이다예 형님과 그리고 삼촌하고 일고여덟명이 지켰덴 헛잖아예? 청년부락.

101009 #3 위용대라고.

101009 @ 위용대.

101009 #3 으. 위용대렌 현다 특기부대.

101009 @ 무슨부대?

101009 #3 특기부대.

101009 @ 특기부대렌 형님이 군대갔다운 형님이파?

101009 #3 아니 아니 못가왔져. 겐 그루후제 우리는 군인 나가버리고 군인가문 그때 다 죽어불엇거든 게난 성님이 날 보내명 기가 찼주기. 보내지 말젠 허였자 이 녀 동생이렌 헤그네 빼불민 돼느냐게 에이구.

101009 @ 그렇지 게난 양창순씨하고 삼촌하고 또 다섯명이 또 또래덜이 있어젼 네예마을청년?

101009 #3 부단장 이춘반이.

101009 @ 부단장 이춘반 또 삼촌 또 기억나는 사람들 잇수과?

101009 #3 기억나는 사람사 많이 잇주 뭐 노력 많이 헌 사람.

101009 @ 다 모여라 헌거 아니예?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101009 #3 으 마을 지키는 청년도 참 하 부락은 죽아도이 다 지키젠 사나난 청년이 그렇게 많허연.

101009 @ 그믈 월령은 월령 청년들이 지키고 금능은 금능대로 다 지키고 마을 마다 그런 위용대가 있었다는거잖아예? 아 그믈 다른 금능이나 판포나 이런테보다도 월령도 월령 청년들끼리 힘이 다.

101009 #3 으 거 우리 총 멧들안 그 아까 이방윤이 총 멧들앙 그걸로 헤영 우리 성공했젠 허지 안 헤냐.

101009 @ 양창순 형님이 다른 데도 막 아울령 대장노릇을 헌거파? 한림이나 이런데.

101009 #3 한림 거기도 왕왕 허주마는 우리 부락내에 한청단장리엔허믈 거 세어나서 지금글으민 뭐 경찰관덜 아무것도 아니여.

101009 @ 한청단장은 월령리 한청단장이파? 한림 다 합청은 아니고?

101009 #3 어 월령리.

101009 @ 월령리 한청단장 계문 다른 마을에도 다 한청단장이 있다는거다예.  
 101009 #3 으.  
 101009 @ 마을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는 거네예?  
 101009 #3 응.  
 101009 @ 겐 양창순 형님은 여기서 살명 다 오랫동안 살으셨수과?  
 101009 #3 으게 응.  
 101009 @ 겐 여기서 결혼행 애기도 지금 다 있다는 거다예.  
 101009 #3 애기 어서 다 무위돼불언.  
 101009 @ 돌아가셔불언?  
 101009 #3 계난 나가 우리 집이 아덜놈 큰아덜이 그 아방네 하르방네 물 걸여  
 남세.  
 101009 @ 형님이 두 번째파? 삼촌은 그 양창순분이 큰아덜?  
 101009 #3 아니 나하고 사촌살게.  
 101009 @ 아 사촌형님? 친형이 아니고?  
 101009 #3 으 사촌형.  
 101009 @ 큰아덜이 메 걸여놓는다는거지예.  
 101009 #3 우리집이 큰아덜이 그 아방네 하르방네 메 걸여 논다 제사헌다 멩절  
 이나 제사.  
 101009 @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뵈구나예, 음 참 역사가 나왓수다예 월령리 이  
 거 삼촌 어시민 이거 어느 누가 얘기헐거파?  
 101009 #3 허허허 무사 헐 사람덜 하영 싯주기.  
 101010 @ 이밖에 이 마을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101010 @ 멩질은 똑같이 허고 이 월령에 마을 잔치 같은 것도 험니까? 경로당  
 엔 사람이 어십테다예?  
 101009 #3 어서 모이렌 현때 가끔 싯나 어디서 오랑으네 어디 부녀회에서 무싱  
 거 백인다 뵈헌다 계민 방송허여 멩시에 나오라허영 아무시간으로 허영 밥백인다.

## 2. 제보자 일생

102001 @ 월령에서 태어나고 월령서 계속 자란 어떻헿게도 월령분허곡 만난마  
 씨?  
 102001 #1 뵈 이디서 알안 어떻월령에서 태어나고 월령서 시집 가고 연애 연애  
 가 아니고 하영 그냥 무싱거 허여 주문허영이 뵈셴허느니 것 곺아.  
 102001 @ 중매.  
 102001 #1 중매 하하하하 외방일은 몰라이 월령이나백이.  
 102001 @ 성함부터예?

102001 #1 나 성함 ㄹ라줘?  
102001 @ 예 나 핸드폰에 적었수다마는.  
102001 #1 강춘량이고 어뎡허난 나 핸드폰 알아.  
102001 @ 그땡 그 이사무소 직원이 경헨.  
102001 #1 ㄹ아쥬.  
102001 @ 예 성함은 입력을 헛고예? 강춘.  
102001 # 강춘량.  
102001 @ 강춘량예 응 연세가예 몇년생?  
102001 #1 나 팔십네살이라 몰라 멏년생인지 그건 ㄹ를 ㄹ출 몰라.  
102001 @ 삼촌은 ㄹ나비띠과?  
102001 # ㄹ.  
102001 @ 여든 네 살 올허 멏질떡으믄예.  
102001 #1 ㄹ나비띠라.  
102001 @ 가족이 아들?  
102001 #1 아덜 두 개.  
102001 @ 아덜 둘 딸?  
102001 #1 네 개 다 살레 가부런 하나도 어서.  
102001 @ 제주도예 다 살암수과?  
102001 #1 응. 제주시에덜 다 살암서 부산도 ㅎ나 살고 딸.  
102001 @ 딸 딸은 가까운디?  
102001 #1 딸 말췌년 부산 ㅎ나 살암서 그디.  
102001 @ 말췌딸은 부산예 가부렀고나게.  
102001 #1 그디 그냥 알안덜 살아가난 지녁 살디 살렌 네불주 올라가라 안허쥬  
계.  
102001 @ 계도 영헨 제주도 ㅎ 번 놀레 올땡 암만헤도예.  
102001 #1 올 땡 오쥬기.  
102001 @ 삼촌은 태어낭.  
102001 #1 학교도 안뎡겄져게 밤 야학헨계도.  
102001 @ 4.3땡.  
102001 #1 ㄹ 경허난이 학곤 안 텡기고 하이고 야 호적초분이영 그 어틸 때 강  
믄 헤어와도 학교 아니시켜쥬라 아기 들렌 우리 아시 못허게 헛져 씨발늚의 새끼덜  
뮘.  
102001 @ 어머니 아버지가 큰 딸이고 일 시키젠도 허곡?  
102001 #1 아기들렌게 ㄹ라 계난 우리 아시 못허게 헛져 딸은 아덜은 그냥  
허는 양 네부난 고등학교선생ㄹ지 허영 공부 잘헛췌마는 딸은 못허게 헛췌게 나도  
못허는디 어디 버릇어시 아시 공부 못헨땡 허난 아니 시겨쥬라게 계도이 옛날은 밤  
야학 허영이 강 오는 이 운문은 다 안다게.



102001 @ 딸 넷을 다 학교 안보내뵈데가?

102001 #1 부애똥싸정 아니 건 이 나가 낭건 보내주마는 나가 곤는 건 우리 어머니 난 나 동기간은 못 헛게 헛찌게 게도 글은 다 안다게 옛날덜은 그냥 밤야학덜 행으네 이제 강 오논이 그런 건 끝이 이신거니까 한문은 몰라도.

102001 @ 원망스러웠겠다예 원망스러우커라 아덜은 무사 경 학교 보내고

102001 #1 아이고 고등학교ㄱ정 덜 다 가는디 그건 아덜이니까 ㄱ치 놓지 말고 똥은 못허게 헛져 부애난 사람 나도 안 보내 주고 경해도 운문덜은 다 안다게 밤이 덜 다 튼영이.

102001 @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건 원망스럽지 않헛데가?

102001 #1 아니 경허난 나가 못허게 헛지 나도 못허는디 호적초분ㄱ지 그 어느 뜰에헤논걸 무사 못허는디 하영은 못허커라라 곧 해방똥비난 혼들이라도 흐루라도 보내줄 거 아니? 아기 들렌게 날 ㄱ라게 답답이라.

102001 @ 애기는 멧이나 들앗수과 그림?

102001 #1 아이 멧개라.

102001 @ 멧살 밑에 터울이?

102001 #1 난 지일 우이라노난, 이 나아래 아기라노난 난 아기만 들렌 원 북부기 똥싸전, 아시도 ㄱ딱 못허게 게난 아덜덜은 고등학교덜도 허곡, 대학교도 다 헛져마는 난 아시 못허게 허난, 그자 옛날더렌 거 밤이 야학 허연 운문은 안다게 끝이 신거난.

102001 @ 남동생이고 아시고 다 돌아가셔불언?

102001 #1 아무도 엇다 우이도 두 개 아래도 둘 다 죽언 나 흐나 살앗져.

102001 @ 우이가 들은 아들들 오빠네예 오빠가 고등학교를 다 나완마씨?

102001 #1 나 아래 오누이 나 우이 아덜 성제 난 가운데 신디 나 흐나 살앗져 문딱 죽어부러져 다 아기덜도 짓고.

102001 @ 아덜성제 오빠가 들.

102001 #1 나 우이 오빠 두개 큰오라방 셋오라방 나 아래 이제 오라비 흐나 아시 하나 나 가운데 거 흐나 살안 문딱 죽어부러져 우리 동기간이 아덜셋에 딸 둘 나 금냥이 오빠 둘에 큰오라방 셋오라방, 아래가 우리 창주.

102001 @ 아우 동생덜 돌아가시고 혈때 가슴 아팠겠다예.

102001 #1 게 다 경허는가헛 경 살앗주이 그때 못살암직해도 막 요디 누게넨 이젠 우리 아시 아덜은이 하도 성질도 너무 중앙 살앗주게 지네 어명은 아광 죽영 묻엇주마는 이제 이모가 큰일이렌해도 ㄱ치 죽지도 못허는거이 나가 암만 앗앙 울어도 아시 경 아까운 아시 죽어도 나가 ㄱ치 죽지도 못허는거라라게 자 늬도 다 영허명 살암주기 허난 살안.

102001 @ 아시 하나가 벗이 똥시커라.

102001 #1 이 벗만 똥샤게 스똥 흐루헤원 전화를 헤도 마땅치 못해영 꼭 만냥 덜이 허곡 헤연 우리가 살아왔져 하도 좋안 게 늬은 막 이제 우리반 막 불루와났져

게 그디 씨삼춘할망 잘도 씹는거라 어명에 딸에 아시에 살명 우리 보명 불루왕 우리 성제라 요 금냥이네 ㄴ치 살라해도 에 게도 죽어도 살아지는 거.

102001 @ 멧살에 돌아가션는데마씨?

102001 #1 우리 아시 일흔 둘 ㄴ진 살안 이제 그 나머진 또 오십도 못살안덜 올라비네영 다 죽어도이 멧이 메기민 혈 수 엇는거라라게 나 질 오래 살암찌 우로 두 개 알로 두 개 다 죽언.

102001 @ 칠십이세난 멧살차이파 들이?

102001 @ 우리 아시 일곱 술 차이가 모르켜 일곱 술 차이가.

102001 @ 삼촌이 팔십넷이난 일곱 살차이면 삼년전에 돌아가셔신게 게도 삼년 전이른 적적히지 않행 잘도에.

102001 #1 오래 살았지.

102001 @ 아이고야 많이 충격이었겟다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땐 몰란 뭇 헛덴허드라도 어머니 아버지는 멧살 때 돌아가션마씨?

102001 #1 우리 아버지가 멧에 돌아갓젠 헨다마는 우리어명은 흐끄 오래 살고 이 마흔 시에 돌아갓젠 허든가 아킨 하영 받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명은 여든둘 인가 멧 나도록 살고 우리 아버진 경 자게 돌아가부런게.

102001 @ 삼촌 멧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거마씨?

102001 #1 거 몰르켜.

102001 @ 결혼흐곡 한참.

102001 #1 게 결혼.

102001 @ 제일 슬펐던게 어쨌든 남편 바람 피고 그런 건 어섯지예?

102001 #1 브름 안 피완게 고정헌 사람이라노난 씨어멍 말 들언 돌아나는 걸 심어당 문 증가난 아이고 걸지 못헤영 닷세씩 뉘낫져 육지 ㄴ지 소문가렌 아이고 답답이라. 아이고 시상.

102001 @ 스물아홉에 돌아와신게예? 스물아홉에 돌아오난 어멍 웬것파? 그때 애기도 하나뿐이고.

102001 @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허여마씨?

102001 @ 성함이 어뎡웬수과?

102001 #2 고상춘 구십.

102001 @ 몇년생.

102001 #2 1926년생 구십이라.

102001 @ 여기 주소가 멧번지파?

102001 #2 주소 월령리 산길 28.

102001 @ 새번지로구나예 옛날 번호는 마씨?

102001 #2 월령리 267번지.

102001 @ 그른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시는 일은 농업이파 어부파?

102001 #2 아 농업이지 농업 바당에도 들어가고 저 피기는 안 잡아보고 요디

육지서 배 타가지고 거의 6년 땡겨나고.

102001 @ 4.3사건 터져부난 글공부는 어떻?

102001 #2 서당에 땡년 땡기니까 이 한글글은 건 잘 알지 한자.

102001 @ 4.3때가 땡살때엿수과?

102001 #2 17살쪼에 4,3 터졌단 말이야.

102001 @ 병력은 군대갔다 온 것과?

102001 #2 군대갔다 왓지 군대가서 아과가지고 멘제받아왔어 몸이 약행 바로 그때 나왔어.

102001 @ 사모님은 언제 돌아가셨수과?

102001 #2 땡개월 안땡서 혼 일년쪼 일년 브땡 땡서.

102001 @ 그른 2013년에 돌아가셨마씨? 아이고 세상에 사모님은 땡살차이?

102001 #2 나보다 혼 살 우이 구십에 돌아가서.

102001 @ 옛날 태어난 디도 이 집이엿수과?

102001 #2 이집이라 옛날 태어난 디도 여기.

102001 @ 계난 삼촌이 1926년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면서 이런 걸 곱아줍서 땡번째 아덜로 태어났수과?

102001 #2 큰아덜로 태어났지.

102001 @ 삼촌은 무슨 띠파?

102001 #2 범띠고 태어나면서 나가 몸이 약해서.

102001 @ 어린시절 친구로는 양창보 어르신?

102001 #2 응 이디 양창보씨영 둘백이 어서 또 우리 우에 사람도 엿고.

102001 @ 역사가 두 분안티서 책이 나오쿠다게 세상에 계민 두 분이 살아온 세월이 쪼 틀리기도 허켜예 곱으기도 허곡.

102001 #2 세월이 틀리지 곱으기도 헌덴헤도 양창보씨는 일본 가가지고 혼 땡헤 더 살았주.

102001 @ 삼촌은 일본도 갔다 왓고 땡년 갔다 왓수과?

102001 #2 일본에 갔다 오건디 혼 두 어번 갔다오랏주. 1년 살았지 공장도 아 니고 침 그때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공부허레 나가 나서 셋아버지가 거기 일본에 사니까 그저 공부허기 전이 어디 쪼 땡길라고. 그디 스촌 성님이 일본에 살아났주. 그 아방 줄음에 사니까 간 보니까 배 해가지고 바당에 짐 실러 땡기고, 이서게 헤 서 그 배에 2년 허다가 일본 망헤가지고 무시거헐 때 총 맞아지카부텐 경 행 이디 오라부럿지.

102001 @ 역사에 증인인게마씨 학교가 어섯쫘다예. 한림초등학교 이서신가?

102001 #2 한림학교도 잇고 금능 서당이라고 이섯어 금능 서당 서당에 나가 땡겨났주게 그 때 나가 일곱 여덟살 열 살쪼 땡겨서.

102001 @ 그른 월령리에서 한명 한림서도 오곡 금릉이영 협재영.

102001 #2 협재 옹포기도 서당에 오라났주게.

102001 @ 서당선생이름은.  
 102001 #2 서당선생 양군철이 선생님.  
 102001 @ 서당이름은?  
 102001 #2 금능서당.  
 102001 @ 자리는 뭐가 돼들어신고예?  
 102001 #2 그 자리 지금도 있어 집도 이서. 요센 뜰어부러신가 하 요센 그거 안 보니까.  
 102001 @ 금능서당 자리 이것도 역산디예 멧살짜리들이 거기 갑니까?  
 102001 #2 멧살짜리보다도 그딘 연세 높은 사람도 가고 우에 사람도 가고 아랫 사람도 가고 길이가 업써 그 뭇이.  
 102001 @ 무사 1년만 땡겅수과? 좀 더 땡기지 않허영.  
 102001 #2 나 그디 땡기단 그 저 한림에 학교 그 뭇시 땡어가니까 그 서당이 그만 그리땡어.  
 102001 @ 서당에 사람덜이 다 학교가부러구나. 1년 다년 삼촌은 글은 배와신 디 학교는 안보내줍디가? 아버지가 한림초등학교.  
 102001 #2 으 학교에 땡길랴고 했주마는 그땨 어떤 디 나도 그런 것에 정신이 뭇시 헤가지고 안갓지.  
 102001 @ 그문 여기 삼촌또래 학교 땡겅던 친구덜 있지예.  
 102001 #2 업써 어려와가지고 안 땡건 다 돌아간.  
 102001 @ 겐 삼촌은 학교는 안갓지만 그문 여기서 뭇 허멍 지넷수과?  
 102001 #2 나 뭇을 허여게 그자 농사나 짓주 아버지 딱랑 땡기다가.  
 102001 @ 게문 조팏 헐 때 워러러러러 허멍 소리도 헤보고.  
 102001 #2 소리 허멍 밧도 불리고.  
 102001 @ 소리 그런 것도 헤마씨?  
 102001 #2 아 소리 밧디 거 뭇 뭇 헤가지고 쇠영 영 헛지.  
 102001 @ 헤환마씨 아버지 허는 거 기억 남수과?  
 102001 #2 기억나주기게.  
 102001 @ 한번만 헤 봅서.  
 102001 #2 워워워워 헤가지고 그 저 돌아땡기멍 소리허멍 헤낫주게.  
 102001 @ 쉼는 그문 어릴때부터 물땡영 오라 허문 멧살때부터 물땡영오고.  
 102001 #2 어린 땨 그거 뭇 그런 건 춤 이 잘 헤써 쉼나 뭇이나.  
 102001 @ 뭇도 키와낫수과?  
 102001 #2 으 뭇도 키우고.  
 102001 @ 이 집이서 어디가 쉼왕이고 뭇.  
 102001 #2 쉼왕은 저디 셔난는 디 뜰어불엇주 이문간 옆에 집 지섯다가 거 뜰 어땨 이젠 일로 질이 그전인 일로 영 헤나지 안허고 질리 일로 나나서 경흔디 질 막아땨 집 창고 지서땨.

102001 @ 한림초등학교는 안 가도게 계난 어머니 아까왕 일 시겨젓수과?  
 102001 #2 계도 어땡 나가 보면서 아니홀 수가 이서계 이 저 농촌 일이란게.  
 102001 @ 몸이 약허믄 맛있는 걸 허믄 뭘.  
 102001 #2 내가 그 병이 위병 위병 먹어도 새기질 못해가지고 어릴때부터 지금  
 도 약을 먹고 이서 위장약.  
 102001 @ 잘 먹질 못헛구나 계도 구십까지예 공든 아들이니까예 삼촌 하나 낱  
 고 밑에도 아덜 잇지에 살아 잇수과?  
 102001 #2 시에 살아 이서 아덜 하나.  
 102001 @ 어째튼 월령이라는 곳에서 열살 때 금능 걸영다녔수과?  
 102001 #2 걸영텅기주 무슨 그 댜 차탐도 어려와.  
 102001 @ 월령서 금능까지 지름길이 이섯뎡 험디다?  
 102001 #1 굿디길로 영 가민 가까워.  
 102001 @ 쉼 길리고 뭘 길리는 건 태어나서부터 쉼 뭘은 이십데가?  
 102001 #2 으 ㄹ치 해난 건 아버지네가 다 해낫주.  
 102001 @ 그믄 쉼가 뭘 먹고 이런 거 다 알갓다예 쉼출 놀도 이렇게 일고.  
 102001 #2 다 알지 나가 욱은 때 자꾸.  
 102001 @ 그믄 형제가 형제 멧살 밑에 마씨?  
 102001 #2 두 슬.  
 102001 @ 두 살밑에 그믄 누나가 멧 살 우에 누나파?  
 102001 #2 누님은 예 좀 더 위에라나서.  
 102001 @ 돌아가섯구나예.  
 102001 #2 응 돌아가고.  
 102001 @ 월령엔 아무도 안 살아 자순덜.  
 102001 #2 업써 또 우리 누님도 아덜이 하나라신디 베에 이디서 피기 잡으레  
 시에 간 시에서 죽엇어 시에 날씨가 돌아오다가.  
 102001 @ 누나 완전 충격받앗갓다예.  
 102001 #2 다 돌아가부난 아무도 어서 집은 양재안티 주난 먼디 벌초허곡 서귀  
 포 사난 서귀포에서 다 풀아가부런.  
 102001 @ 삼촌 밑에 여동생은 엇고 2남 1녀로 남동생은 잘 살암수과?  
 102001 #2 아 시에 잘 살암서.  
 102001 @ 계도 의지 뵈꾸다게 형제 의는 좋아마씨?  
 102001 #2 좋아. 여기 동생 밧이 하나 이서.  
 102001 #2 얼아이 날 때도 별반 어서서 내가 객지로 나가 가지곡 저 그때 나가  
 가지고 여러 반디 구경도 베 타멍 하근디 다 구경 헛주게.  
 102001 @ 배탓수과? 몸도 약한데 원양어선? 거기는 아니고 그냥 욱지 배 고생  
 많이 하는데 배는 몸도 좋아야 뵈곡.  
 102001 #2 몸도 건강하게 좋아야 뵈는디 험 수 어시 거기라도 텅겨낫주 객지로

많이 땡가서 육지 많이 나고.

102001 @ 육지 땡년 땡것수과? 그문 여기서 사모님이랑 얘기키왕 다?

102001 #2 집 사람은 여기 살명 저 물질도 물질 혼 육지도 육지물질도 가고.

102001 @ 삼춘은 돈 벌른 일로 보냈수과? 돈도 보내고.

102001 #2 어 경허니까 배깃딜로 나간 땡것주 살젠허니까.

102001 @ 집사람이 밧일이여 물질이여 시어무니 씨아버지 다.

102001 #2 ㄴ치 살았주.

102001 @ 음 겐 결혼헿 얘기를 낳으는 동안 땡 살 때 군대는 갓당 일년 허지도 못 헿 그냥 완 땡살이파? 스물 결혼 헿 다음 해.

102001 #2 결혼 해가지고 다음 해.

102001 @ 스물 혼 살에?

102001 #2 에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강 석들 살아 저신가 두 들 살아 저신가 혼 련갔다가 몸이 약헿 혼련 받아가니까 땡도 먹도 문허곡 막 쑥허게 빠지데. 슬 빠지고 무싱거 허니까 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허니까 힘이 어시니까 그냥 보내 버렸 주 집이 가라고 제대증 반양.

102001 @ 겐 제대증 반양 와신디 또 살젠 허난 또 그때부터 육지로 강 배일을 헿구나 몸 좀 회복 헿.

102001 #2 몸이 이젠 오란 무싱거 헤가니까 몸이 회복땡 가지곡 허니까 또 육 지 올라가 가지고.

102001 @ 육진 어디 갓수과?

102001 #2 부산 많이 갓주.

102001 @ 부산 간 땡년?

102001 #2 부산서 부산에서 산 것이 아니고 부산 배를 탔는디 배에서 이레갓다 저레갓다 허면서 많이 돌아다녔주.

102001 @ 세계 각국을.

102001 #2 세계각국이 아니고 육지서 그레 많이 땡것지.

102001 @ 배 타레 강 무싱 거 낚앗수과?

102001 #2 낚은 게 아니고 무신 짐 실렁으네 이디가고 저디가고.

102001 @ 아이구 몸도 약해도 살젠허난 그걸 땡 년 헿 마씨?

102001 #2 그거 혼 5~6년 헤서.

102001 @ 5~6년에 아이구 여기는 전화연락도 안땡곡 펜지로 헿 거파?

102001 #2 편지로 허주.

102001 @ 편지로 허곡 일년에 한 번은 못오곡.

102001 #2 못오고.

102001 @ 세상에 겐 그 때가 얘기 하나 낳고.

102001 #2 하나 낳고 들ㄴ지.

102001 @ 경헿 얘기 둘 난 경 5~6년 잇당 다시 돌아완 그 때가 아직 서른이

안 될 때잖아예.

102001 #2 서른이 안 될 때 또 여기서 살다가 농사 좀 짓다가 또 나갓주기게.

102001 @ 또 부산으로 간 또 거기서 몇년 또 삼십대를 살다가.

102001 #2 또 삼십대를 살다가 완 그루후젠 안가고.

102001 @ 거기서 한 5~6년 또 잇다가 다시 완예 완 이제는 무슨 농사를 다 지  
엇갓네예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고.

102001 #2 아버지는 돌아가시곡.

102001 @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어릴 때?

102001 #2 어린 때.

102001 @ 아 기억남수과? 막 상여 설배 메고 경 험니까 공동묘지가 잇수과?

102001 #2 공동묘지 아니 그때 옛날 공동묘지가 뭐여?

102001 @ 문중묘도 엇고 아버진 어디 그른 돌아가신.

102001 #2 여기 묻엇주 지금도.

102001 @ 여기도 공동묘지 있는 거 아니 지금 어디 월령쪽에.

102001 #2 월령쪽이 있는디 자기 밧디.

102001 @ 자기 밧디 그때는 무덤 헨 지금도 그대로 이신거예 봉분이 게른 어머  
니도 그 옆에 자기 밧데에 게른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섯을 때가 막 울고 어머니  
그런 거 기억남지예.

102001 @ 그 때가 멧살마씨?

102001 #2 아버지 돌아가섯을 때가 혼 열 멧에 돌아갓주.

102001 @ 좀 일찍 돌아가섯다예? 아부지가.

102001 #2 젊을 때 돌아간.

102001 @ 4.3 때고 뒤고 어머니가 막 걱정 많이 걱정헿갓다예?

102001 #2 어머니가 많이 걱정헿지.

102001 @ 육지 돌아다녀가난 그것도 걱정 게난 아이덜 커가난 마음대로 안 돼  
는 거다예? 큰아덜도 경 일본 가불고 두 번째도 형 따랑 또 일본 가불고 경허명 살  
젠허난 살당보난 일본에서 살아 불곡 경헌거로구나예 아이구.

102001 #2 경돼가지고.

102001 @ 게른 삼촌은 제일 가심 아픈게 그런거갓다예?

102001 #2 가심아픈 게 이제 아덜도 일본 간 소식이 웃지이 그 버금 아덜도  
일본 귀화해가지고 어서부니까.

102001 @ 선인장도 심어 보고.

102001 #2 선인장도 싱 경 보고 선인장 밧디 싱 경 잇져 다 이젠 늙어 노난 싱  
거도 관리 못허난 딸이 아덜 시에 강 살아노난.

102001 @ 이 집은 옛날옛날 집이고예 경허곡 지금 농사는 안 지엄지예?

102001 #2 늙은 디 농사는.

102001 @ 멧살부터 설러부럿수과. 널어지고 허른 큰일나난 게도 팔십술 7지.

102001 #2 농사 지어 보건 디가 혼 이십년 이상이라.  
 102001 @ 선인장이라고 허믄 도와주곡게.  
 102001 #2 그런 건 헛지.  
 102001 @ 어머니 성함?  
 102001 #2 최 양 어머니는 물질도 하고 밧디 일도 허고.  
 102001 @ 아버지 이름?  
 102001 #2 고재학.  
 102001 @ 삼촌이 낳고 자란.  
 102001 @ 군인 갓당 해방되난.  
 102001 #3 군인 갓당 해방되난, 이제 한국 왕창왕창 오란 또 한국군인 걸령 경  
 웨불어세.  
 102001 @ 오자마자 군인을 갓수과?  
 102001 #3 4.3되디 전에.  
 102001 #3 4.3되영게 4.3스건.  
 102001 @ 열일곱살에 4.3 지나고 나서 군인은 바로 갓고 계민 일제시대 45년  
 이니까 세상에.  
 102001 #3 나 막 어릴 때 군인가세계 일본놈덜 겐 나 그때 싸우고 헤세.  
 102001 @ 열네살에 여기에 왕 여기서 한 멧년은 여기서 살았다예.  
 102001 #3 혼.  
 102001 @ 3년.  
 102001 #3 으 경 되실꺼여.  
 102001 @ 3년은 여기서 뭘 헛수과?  
 102001 #3 아 게 농사게.  
 102001 @ 농사허멍 4.3 또 닥쳐불멍 뭇허당 바로 끝나자마자 그믄 군대 간게  
 1948년 9년 10년 50년?  
 102001 #3 이제 우리 군인 갈 때 팡 팡 이디 다 뭇 험 때 2차 후퇴때 우리덜  
 다 가세계.  
 102001 @ 6.25사변을.  
 102001 #3 으 게 6.25사변 우리가 다 뭇 해세 인천상륙허고 우리 육군.  
 102001 @ 아이고 세상에 인천상륙작전 말로 들었던 거.  
 102001 #3 저디 싹져 싹지 안으냐 다 싹져.  
 102001 @ 맥아더 장군이여 뭇여.  
 102001 #3 으.  
 102001 @ 멧년 제대행 온 거마씨 6.25 전쟁 터진 후에 온 것과 살아 남은 것  
 만.  
 102001 #3 간 보난 우리 대통령이 이승만이여 그다음엔 박정희.  
 102001 @ 그다음엔 박정희 이 승만 험 때 전쟁 터진 때까지 군대 이섯수과?



102001 #3 으 군대 간 사람 다 죽영 아무도 어서.  
102001 @ 삼촌만 살안마씨?  
102001 #3 멧사름뿐.  
102001 @ 아이구 세상에 전쟁도 진짜 나간마씨?  
102001 #3 에이구 전쟁 나가주 텔레비전도 안보느냐 총알이 비오듯이 날아온다  
이 총알 거 피허멍 어뎡어뎡 살아져세.  
102001 @ 삼촌 대단한분이다예.  
102001 #3 응 비오는 건 이유도 아니라 총알 날아오는 거 상상상상.  
102001 @ 장개도 안 가고?  
102001 #3 장개 가긴 갔져.  
102001 @ 그믐 멧살에 장가간것파?  
102001 #3 스물 셋 스물흔살에 아기 나세.  
102001 @ 스물흔살에 아니 열일곱 슬.  
102001 #3 이제 가이가 스물흔살에 난 거 돌아가불엇주마는 그 다음 건 이제  
열 여덟인가 기여.  
102001 @ 계난 삼촌이 멧살에 장가를 간거마씨?  
102001 #3 스무살에 스물 흔살에 아기 난.  
102001 @ 스무흔살에 아기나난 스무살에 장가를 간 거예.  
102001 #3 해방웨난 들어완 그때 장개가세.  
102001 @ 아 그난 군대에서 제대헨 오자마자 장개간 거마씨?  
102001 #3 아니 장개간 한국군인 갔젠 허난.  
102001 @ 해방웨난 완 해방웨난 일본서 오고 겐 장개를 스무살에?  
102001 #3 장개스물 흔살에 아기 난 사람 아나가 장개 일찍 가세.  
102001 @ 일찍 간예?  
102001 #3 으 큰아덜이니까 우리 부모네가 장개를 일찍 가렌 막 뤄헨져.  
102001 @ 겐 아기낳고 어디 군대를 간거라예?  
102001 #3 응.  
102001 @ 스물 흔살에 애기 난 스물 흔살 이후에 군대 간거파?  
102001 #3 스물 흔살에 그냥 바로 군인 갔져.  
102001 @ 바로 군대 간 군대 간 거기서 3년 4년?  
102001 #3 7년 살았져 7년.  
102001 @ 아이고 군대 장 7년을 살안예?  
102001 #3 나 계급도 높은 사람이여.  
102001 @ 무슨 것까지 났수과?  
102001 #3 중사, 상사.  
102001 @ 표창까지 받아시켄게? 살아온 돌아온 자체가.  
102001 #3 나 유명한 사람이여 이 이승만안티 등뎡이 왕 독독 두드리멍 우리

한국도 기술자가 있느냐고 나 누구한테 교육받았 차 운전한 사람이여 우리 한국사람도 기술자가 없던 미 고문관도 대령이라고 벨자리 들안 그 사람오랑 영어로 써가난 나 그 통역관보고 저것도 글썽 막 칠판에“예 글이우텐”미안허지마는 저 밑에 당신 저 한글로 적아 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허니까 겐 한글로 적어주멍 헨 배완 나 교육받았 나완 차 끌어세.

102001 @ 아 운전수가 그추록헨 타고.

102001 #3 운전수가 2기생.

102001 @ 2기생.

102001 #3 1기생은 전쟁에 나간 오꽃 죽어병리고 2기생.

102001 @ 2기생예? 스무여덟에 이제 고향에 돌아온것과?

102001 #3 스무여덟에 들어온 철인가.

102001 @ 7년만에.

102001 #3 8년만에 와서난 8년 햇수로 8년만에 왔져.

102002 @ 부모님은 어떤 일을 허연마씨? 농스짓고.

102002 #1 농스짓고게 물질허곡 그자 월령서 태어나고.

102002 @ 어머니는 무슨 성씨마씨? 삼촌네 어머니.

102002 #1 박씨 아버진 강씨난 나도 강씨고.

102002 @ 그른 아버지는 바당에 강 어부 배 보재기.

102002 #1 흐뎡 해낫져게.

102002 @ 흐뎡 해나고예, 농사도 짓고예.

102002 #1 농사도 짓고.

102002 @ 어머니도 박씨디 이 동네서 태어나고.

102002 #1 으게 물질도 허곡.

102002 @ 아부지도?

102002 #1 응. 다 월령서 태어나고 또 나도 월령서 태어나고 월령서 시집가곡이.

102002 @ 게른 일찍이 다 돌아가섯수과? 삼촌 멧살 때 어머니 아버지?

102002 #1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마흔 원도 못난 마흔 아홉에 돌아가고 우리 어머은 오래 살았져. 여든 두술 나도록 살아서이.큰 오라방도 여든 둘에 돌아가고 우리 어머이 여든 둘 흐뎡 더 난 거 닳다. 우리 아버진 막 젊은 때 돌아가도 아긴 여러 개 봤져 우리 아버지가 경했져게.

102002 @ 그른 형제는 삼촌네 형제 아버지가 멧남멧녀를 두션마씨 강씨 집안?

102002 #1 우리형제가 이제 여자가 우리 네 개, 아덜이 두개.

102002 @ 그른 삼촌은 몇 번째?

102002 #1 나 큰똥이여게.

102002 @ 헤 큰똥로 태어난 똥이 넷, 아덜이 둘.

102002 @ 똑같네? 하하 어머님이 난 자녀수랑 삼촌이 난 자녀수가 똑같아.

102002 #1 아 경허냐.

102002 @ 삼촌 형제 이모네는?

102002 #1 이모네 나 아시 흐나 신겨 저디 이제 아덜 흐나 난 거 아신 죽고, 이 우린 큰오라방도 죽고 셋오라방도 죽고 나 우에 나 아래 아시도 죽고 오라비도 죽고 다 죽언 나 흐나 살았져. 나 아래 오누이 죽어 불고 나 우이 오라방 두 개 죽어 불고 나흐나 중간에 살았져. 어떻게여 지맹이 거 메긴디게.

102002 @ 큰뜰인디 밑에 동생들 다죽어부런예.

102002 #1 응 아랫 것도 우에 것도 죽고 다 죽어불었져. 아무것도 었다.

102002 @ 세 명 다 아관?

102002 #1 후손들은 짓지.

102002 @ 그렇죠. 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시난 이추록예 월령에 사는 유일한 진짜 뭐구나예.

102002 @ 아버지의 형제들은 몇 형제였수과? 사촌?

102002 #2 다 돌아가부니까 삼형제라낫지 고모님은 흐 분.

102002 @ 게민 어머니는 그 겨울 뒤편 쉼 물도 데왕도 주곡 아버지가 헛수과 어머니가 헛수과 다같이?

102002 #2 ㄴ치 허주 뭐 이디 흐 집이 신 거니까 아멩해도 어머니가 많이 헛지 물끓은 것도 영주곡.

102002 @ 거른 아버지는 뭐.

102002 #2 바다에 어부로.

102002 @ 어머니 해녀.

102002 #2 해녀도 허곡 뒹이 헛주마는.

102002 @ 아버지 어부 뺨 어섯수과?

102002 #2 아 배도 셔나서.

102002 @ 부자라나신게.

102002 #2 게메 아덜이 나가 혼자라노니까.

102002 @ 배도 잇고 월령에선 부자라나꾸나게도.

102002 #2 ㅼ듯 살만 헤나서.

102002 @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2002 #3 우리 아버지는 저 농사일 헤나세. 옛날 행 떡영 살젠이 배 헤영 저 몹 비어당 옛날 걸름도 경 없어. 비양도 있지 저디 강 네를 저스명 “이어싸 이어싸” 허명 네 젓영 강 몹 비영 이빠이 식경 오랑 금방 물령 이디 왕 거 평 물려아정 금방 밧디 깔아 놔사 보리밥도 먹었져.

102002 @ 아이고 그게 걸름이 뒹엇구나예 세상에.

102003 @ 어머니 고향도 월령?

102003 #1 월령서 태어나곡 월령서 시집가곡.

102003 @ 삼촌 어머니 성씨는마씨?

102003 #2 우리 어머니 최씨고 저 신창에서 여기 완.

102003 @ 아버지는 원래 원령이고예 삼촌 멧살 때 돌아가셨수과?

102003 #2 나 열 다섯 안 똥 때 돌아가서 4.3 돼기전에.

102003 @ 어머니가 멧살 삼촌이 멧살 때 돌아가신거라.

102003 #2 어머니는 오래 살았어 팔십까지 나 오십때쯤 돌아가서.

102003 @ 어머니 멧살에 시집왕으네 첫애길 낳은 것파? 신창에서 왔구나예.

102003 #2 응. 신창에서 왔져. 에 어머니이 혼 연세가 많을 때 낳 낳았는데 그 때는 아덜이 못나니까 상당히 뉘해서 누나 낳고 나 나서.

102003 @ 어머니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102003 #3 아 금능.

102004 @ 어린 때는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랐습니까?

어린 때 무신 거 막 잘 놀았지예? 뭐 오자미나 잣놀이 뭐 이런 거 무싱거 허멍 놀았수과?

102004 #1 우리 클 때 사 영 짜는 거이 실 짜는 것도 짜고 심심허니까 또 흐뎡 젊은 때 물에덜 들곡. 그자 밧디 검질도 매곡게 일이 거주게 뵈을 허여?

102004 @ 공기 노는 거 아이덜?

102004 #1 것사 허엿주게 존존헌 들싸기 행으네 거 누구나마 다 한다. 공기라고 이 본전 본전이엔 한다 옛날 그거허영 헐 때.

102004 @ 공기허는 걸 본전이렌 허여마씨?

102004 #1 본전이엔 한다 본전이엔도 곧고. 우리 어릴 땐 그걸로 방둥이 뭐 헐 거 셔게 방둥이 흐는 것이 본전.

102004 @ 아 방둥이 흐는 것이 본전이고 자파리엔도 허곡?

102004 #1 게메 자파리는 어른덜 곧는 말이곡 거 본전허젠 허민 이거 다 알아 들어. 우리 어린 때이 어른덜 곧는 건 자파리.

102004 @ 방둥인 아이덜 곧는 거고.

102004 #1 건 아이덜 곧는 거고게.

102004 @ 갹 뭐 심방말축 심영으네 뭐 저 산더레 꼬박꼬박허는 이런 거.

102004 #1 장난게 영 쥐민 꼬박꼬박 한다게 발 디더근예.

102004 @ 그런 노래 엿수과?

102004 #1 몰르켜 노랜 뵈산디.

102004 @ 저 산더레 절 꼬박꼬박 뭐 이런 거?

102004 #1 아니 뭐 노랜 모르고, 심영 영 발 디더지민.(손으로 흥내냄)

102004 @ 꼬박꼬박예.

102004 #1 응. 한다게.

102004 @ 경허면서 놀고예?

102004 #1 게 그거 장난 허는 거 보멍 놀곡게.

102004 @ 심방말축, 풀각시 놀이 뵈이 뵈이도 뵈앙 먹곡.

102004 #1 심방말축 하하, 아 거 해 냈져 뽕이.  
 102004 @ 뽕이치기.  
 102004 #1 아니. 그 뽕이라고 것ㄴ라 뭐센 허느니? 저 새왓 어린 때 강 빠당 먹  
 어났져. 뽕이렌 혼다 어른덜이.  
 102004 @ 경허곡, 무슨 동지 양과동지덜 꺾영 먹고.  
 102004 #1 으 그런 것도 꺾영 잘 먹고.  
 102004 @ 삼동타레 가곡 탈 타레.  
 102004 #1 삼동도 타당 먹고 했져.  
 102004 @ 삼동타고 탈타고.  
 102004 #1 으게 삼동도 타고.  
 102004 @ 다리세기 혼다리인다리 거청개 이런 거.  
 102004 #1 혼다리 인다리 것도 허곡 하하 우리 놀멍 그 장난으로 굳는 말이주  
 혼다리인다리께.  
 102004 @ 혼다리인다리 한 번 노래 그런 거 기억남수과?  
 102004 #1 기억은 몰르고 그거 영 행 허멍 혼다리인다리 해났져.  
 102004 @ 생각나는데로.  
 102004 #1 아이구 참 그거 옛날 해났주기 어뎡 아느니께. 이젠 안허니까.  
 102004 @ 혼다리인다리 거청개 주너오녀 버문개.  
 102004 #1 혼다리인다리 흐뎡 알아점져 어린 때 놀멍 일 어서노민 그쟈 누게사  
 ㄴ라쥬신디사.  
 102004 @ 다리세기도 하고 실가정 또 이렇게 오자매 썬 실뜨기 실로 이렇게 실  
 장난.  
 102004 #1 실로 그쟈 오게 영해근에 허곡 것고라 뉘생사 굳는 지 몰르켜. 해났  
 자 그것도 영영 톱 뵈실락도 허곡 그때 뉘 헐거 어서노민 손장난덜께.  
 102004 @ 아아 실도 허고예, 또 그럼 들멍이 가정으네 뉘 영.  
 102004 #1 본전이라고이.  
 102004 @ 이런 디 올려놓곡.  
 102004 #1 건 몰르켜마는 톱허게시릭 쉼여근에 허엇당 본전이엔 현다.  
 102004 @ 손에 올리고.  
 102004 #1 응게 경헌거 해났져.  
 102004 @ 삼동 타레가곡.  
 102004 #1 삼동 타레가곡.  
 102004 @ 또 인동고장.  
 102004 #1 인동고장 타레가곡.  
 102004 @ 인동고장 타레가곡.  
 102004 #1 삼동은 타당 먹고 인동고장은 물리민 사간다게 돈 나는 거렌 경헌다  
 게 아이고 시상.

102004 @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했수과?  
 102004 #3 우리 커 올 때 우리 커 올 때이 조끼차기 저 신도 어성 조리 삼양 탱기명신었져 조리, 짝으로 허는 거 잊지 않으나?  
 102004 @ 짚신?  
 102004 #3 짚신. 그거 신영 탱겨났고 걷고.  
 102004 @ 멩글양 탱기고 자치기?  
 102004 #3 자치기엔 헌건 영헌다, 영 특허게 올리민 착허게 그거 자치기 경헨.  
 102004 @ 그거 자치기헨 때 영 그저 영 영 구덩이에 놓는 거, 이름은 뭐고 영 차는 거 이름은 뭐고 막대기 이름도 다 이십디다.  
 102004 #3 그 그 저 작대기 그거 다 이십거여 게난 우린 뭐.  
 102004 @ 그냥 작대기렌 했수과?  
 102004 #3 자치기.  
 102004 @ 자치기에서 그 나무를 뭐렌 했수과?  
 102004 #3 그 막대기.  
 102004 @ 막대기렌 했수과?  
 102004 #3 응. 영 노른이 영 특허게 넘영 착허게 멀리 나 간다.  
 102005 @ 일본놈덜 와가지고 공출 해난 거 생각남수과?  
 102005 #1 무사 아니라. 우리 어린 때 거 막 집돌멍 오죽 해사게 할당을 하영 나오민 채우지 못해영 공출이라고 그놈의 새끼덜.  
 102005 @ 무슨 걸 공출 해 간마씨?  
 102005 #1 밧디 나는 거 다 아무마니 할당허렌 흐민 거 채우지 못해영 오죽 애 먹여사게 그 씨밭놈의 새끼덜 왜놈의 새끼덜이 못전디게 맨들았져게.  
 102005 @ 그때가 삼촌 멧살 때 마씨?  
 102005 #1 몰라 멧살산디 어린 때라 우리 어멍네이 허는 거 다 봤져. 공출이라고이  
 102005 @ 보리도 밧테 나는 거 모든 거 다?  
 102005 #1 응게, 감재나 감재도 썰영 빼떼기로 다 사가나고이.  
 102005 @ 빼떼기로 바치렌 헨 마씨?  
 102005 #1 바치렌 해났져. 모르켜 다른 므을은 어떻사 헨디 그냥도 받아 갈 수 있주만은 그 썰영 빼떼기도 해영 바치곡 경 해났져게.  
 102005 @ 공출 뭐 내라 헤가지고 그런 거 기억남수과?  
 102005 #2 그거 뭐 공출이 농사 지어도 이넉 쓸도 제대로 먹도 못해서 공출 네라고 해부니까.  
 102005 @ 무슨 보리 허믄 보리 내라.  
 102005 #2 보리 허믄 열매 조허믄 열매 딱딱 그 저 공출이 나오라낫주기 일본놈덜.  
 102005 @ 아이구 그 밥 먹는 것도 어려웠겠다예.

102005 #2 어려웠어. 이녁 농사지어도 먹도 못했으니까 어떨꺼라.

102005 @ 그런 때 희생당허곡 저 일본사람한테 끌려가고 이런 거 기억 안남수과? 마을에서 소문이나고.

102005 #2 그런 건 아직은 월령사람덜은 경 끌려간 거 엇고.

102005 @ 그믐 일제시대 순사라든가 칼찬 순사라든가 몰탄 순사라든가 봐났수과?

102005 #2 하 봐났주.

102005 @ 기억 남수과? 무서웠수과?

102005 #2 아 므소왔주기.

102005 @ 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아는 바를 그라줍서.

102005 #3 공출 오죽해샤게. 공출허단 보난 우리 영 못살아시네.

102005 @ 일제 강점기 오난 바로 군대가부렀다예.

102005 #3 왜놈군대도 강 오랑 해방되언. 오난 또 한국군인 가게 웬 경 뉘세 나 우리가 커 올 때 제일 고생헌 사람이여. 나 왜놈군대도 강 오죽 얼 먹어샤?

102005 @ 일본군대마씨? 허 일본은 멧년간 군대생활 헛거마씨? 살양 온 건만 해도 다행이다예?

102005 #3 일본 간 군인 허연. 내일은 이제 간 혼 달간 훈련 받아오전 내일은 이젠 나갈거다 이렇게 웬 준비해영 딱 시난 그날 저녁 오란 왕창 뉘해부난 그냥 손 변쩍 들러부러시네.

102005 @ 바로 해방?

102005 #3 응 게, 바로 해방 뉘언. 이젠 한국을 이제 오렌 웬 오란 보난 또 한국군인 또 이제 걸령 들어갔주기.

102005 @ 아 세상에. 게도 흐김만 일찍 헤시민 정말 일본 거기서 죽을 수도 이션. 아 세상에 경험 일본에 강 한달만에 해방뉘부난 다시 돌아온 거 마씨?

102005 #3 으.

102005 @ 아 게민 어떻헤연. 일본에 망하기 전에 가게 뉘마씨?

102005 #3 아니 어린 때에 갔져. 대역숫살에 아니 일곱술에.

102005 @ 4.3끝난?

102005 # 아니 4.3끝나지 안헿 4.3끝나기 전이.

102005 @ 아 맞아 4.3이 1948년이니까 그믐 1945년이민 열 니살?

102005 #3 열 시살에 가져실꺼라, 열 시살에.

102005 @ 열 시살에 일본에 무사 간마씨?

102005 #3 못 사난게 아주 어려워 매형 일본 강 살앗져. 나 증명 끊어 왕 나 데령 강 이제 일본 살암시난 또 군인에 연령도 해당 안 뉘겉 해당뉘헿허연.

102005 @ 열 다섯 살에 거믐 열 네살 뉘 아이를 세상에.

102005 #3 으. 나 막 그때 오죽 싸와샤. 나 일본말도 착착 잘 헛때주기. 게난 왜 연령이 지금 해당도 안 뉘엇는디 나가 군인에 잡혀가난 말이지.

102005 @ 무사 잡아간마씨 거기 일본 사람덜이?  
102005 #3 으게. 그 거시기 허난게 그 사람덜 오갓 다 망가져 오죽해사.  
102005 @ 잡아 사람덜 조선인 조센징이렌 걸 데려갑데가?  
102005 #3 으게.  
102005 @ 삼춘은 방어도 못하고 그냥 글라 허니까 갈 수 밖에 어선 일본 살명?  
102005 #3 으게 거 어떻 방어 어떻 헐 말이고? 일본놈 말 안 들민 썩불꺼고.  
102005 @ 그른 열 세 살에 매형네 집이 강 고생했겠다예 뭘 일 했수과?  
102005 #3 배타져 배탄.  
102005 @ 세상에 열 세 살에 헤 초등학교 6학년.  
102005 #3 배탄 웃긴다 웃겨. 춤말로 얼마나 나 요망지게 헤 뎡겨난.  
102006 @ 사삼 사건 때 소개 등 생활 전반과 겪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102006 @ 4.3 때는 삼촌이 몇 살 될 철이파?  
102006 #1 몰라 사삼 때 몰라게 열세살 네 살 아닌가 길꺼라.  
102006 @ 열세살 네 살 경허난 허주 흐끔 더 나이 많으믄 4.3 서칭덜허고도 걸 혼도 허곡예 경도 현 사람도 이십디다게. 나이가 딱 어릴 때라부니까 차라리 몰랏 주 경해도 불나고 이 마을에도 피해는 이서실꺼 아니예?  
102006 #1 아이고 그놈의 새끼덜 들어왕 불 부쳐부런게이, 아이고 오죽해나사 오랑 불 부쳐부런게 아이고 씨발놈이.  
102006 @ 그렇 거 봐났수과?  
102006 #1 경허난 우리 어릴 때 계난 막 보초 사낫져게 영 성도 다 둘러났져.  
102006 @ 월령에 성이 이서마씨?  
102006 #1 담 닿은 것고라 성이엔 허주게 빙 둘러났져게.  
102006 @ 아 환해장성 그런 4.3때 만든 거 허렌 헨?  
102006 #1 성이엔 해여근에 으 둘러허렌헨.  
102006 @ 지금도 자리가 잇수과? 성 다와난 자리가 잇수과?  
102006 #1 그 이제 필요어시난게 그 때 성 쪽 둘러났져게.  
102006 @ 모양은 어디 남아 이실거다예?  
102006 #1 어디 저영헌 구석더래 흐끔씩 실거여. 성덜 다운 거.  
102006 @ 성 다우렌 헨 삼춘도 갔다 완마씨 그기?  
102006 #1 그 어릴 때 돌덜지명게 돌덜지명.  
102006 @ 열 식살에?  
102006 #1 열 식살썩일거여 그때가.  
102006 @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 다 강?  
102006 #1 게 어른덜이 그 돌 해당 다우주 어령 거 해지느냐게.  
102006 @ 동생덜도 가고.  
120006 #1 동생은 더 어련이 나 아래도 두 개 잇고 나 우이도 두 개 잇져마는.  
102006 @ 멧살부터 거길 간 그 돌을 지언 날라 마씨?



102006 #1 열 식살썸에 난이 나 우엔 흐뎡 커도 나 아래 어린 그 돌 저 지느냐  
게 열 살 아렌디.

102006 @ 삼촌도 간 돌 전 마씨?

102006 #1 지지 았허영 어느 정도 계도 보고 다 했지. 부모덜 땡기니까 월령 돌  
이 하노난이 돌로 다 성 쌓아났져.

102006 @ 아침부터 땡시부터 땡시까지?

102006 #1 몰라. 땡시에서 해신디. 하여튼 불근안 강 해실꺼여게 다 저당 성 쌓  
았져.

102006 @ 불 타는 장면이나 이런 거 봐난마씨?

102006 #1 불덜 다른 디서 오랑 막 캐와불곡, 하여튼 저펜더레 강 불질러서 저  
느려왕 허지 좋은더레 이런 알러렌 오지 못흐곡이. 그놈의 새끼덜 폭도라고이 것덜  
고라 폭도렌 했져게. 우리 오랑 불질러불고. 경찰 것덜 심으레 땡겨샤 어떻해샤?

102006 @ 폭도는 산에 올라간 사람.

102006 #1 산에서 내려오니까 폭도엔 했져게. 오랑 불질러 불곡.

102006 @ 경찰덜도.

102006 #1 경찰 것덜 심으레 땡겨샤 어떻해샤?

102006 @ 경찰은 심으레 땡기곡 경허명.

102006 #1 경했지이. 우리 어린 때난 스물안에 열다섯 안에니까.

102006 @ 막 어렸을 때 무스왕 어디 도망가고 막 그런 생각은 엇수과 4.3때?

102006 #1 도망가진 안해보고 부모덜 이시니까이.

102006 @ 어디 소까이렌 해가지고.

102006 #1 소까이엔 들어났져. 어디 가오진 안 해진 생이라.

102006 @ 집에서만 숨영 그 옛날엔 이 집은 아니었지예?

102006 #1 이거 시집 온집이여. 나 이 스물 하나에 시집 온 집 아이덜 다 집 상  
나가부난 이제도록 살암쳐게.

102006 @ 위치가 동산우에다가 잘도 좋은게예?

102006 #1 으 어떻산디 나 사난 좋지 늡의 집보다 질 좋아 이녁집이난이, 집덜  
상 시에 다 나가 비난이 딸은 폴아 불민 가불고 아덜은 시에 집덜 상 나가불고.

102006 @ 여기도 외지사람덜이 많이 왕 살암지예?

102006 #1 흐뎡 완쳐게 지네 필요한 사람덜 완.

102006 @ 계난 요 밑에도 집 빈집 막 곱닥헌 집 이션게예, 그런 디는 풀지 자  
손덜이 그냥 놔두는 생이라 빌려주지도 못허곡.

102006 #1 경 햄실꺼여게. 그디 살 사람이 와서 빌려 주주만 빌려준 것사 어디  
가느냐마는.

102006 @ 저기 풀 쥬 내논것과?

102006 #1 몰르켜 어떻사햄신지 늡의 집 허는 거 나가 아느냐게. 어떻사 햄신지  
다른 사람이나 왕 살민 아이구 오랑 살암구나 허주마는.

102006 @ 맞아 아델이나 이제 만나지 못하민.

102006 #1 모른다 어떻게 걸 모른다 우리 ㄱ라 곧느냐게.

102006 @ 누가 살당 돌아가셔버린거지예 부모가?

102006 #1 누게 어떻게는 걸 모른다 몰라 살당 죽어불민 누게 풀른 판 사람이 살 주마는이 풀지 안행은 ㄱ만이 싯느냐게. 이 알려레 이거 우리 셋아방네 집이란 거 풀아부난이 풀아도 오란 살지 않으난게이.

102006 @ 다른 외방사람한테 풀아부렸구나?

102006 #1 모르켜, 어드레사 풀아신디 몰라. 이딘 우리 시아방네 살당 나 시집 온 집이고, 이 땅이 우리 씨아지방은 요거 요디고 요 올렌 우리 시누이곡 그 이제 아니 사는 집은 셋씨아방네 집이라난디 풀아 먹어비난 어디 사람덜 사신디 빈집이 곡. 흐끔 올레렌 또 죽은 아방네 집이라난디, 그것도 풀아부난 어디 사람이라산디 몰라. 우리 이디 영 살아난디 우리 씨아방네 동기간덜이 이제 나 흐나뻘이 우리씨 누이 올리 살암져. 우리 씨아지방 요거고이 경헛져이 옛날덜은 집덜 잘 물러줘.

102006 @ 4.3 사건 때는 또 피해는 어서수과?

102006 #2 월령은 피해가 업써. 춤 흔 사람도 안 죽고 춤 4.3 사건 땀 그 저 폭도덜 이디 오라갓주마는 그 저 불질르고 혈떼 월령은 불도 안 질르고. 춤 그 많이 살아 나서 흔번 오라났주.

102006 @ 그때 어디 이섯수과? 봤수과? 폭돌 봐 봤수과?

102006 #2 폭도 이까지 오라났주기.

102006 @ 이 집이?

102006 #2 아니 아니 이 질에.

102006 @ 왓다갓다 착착착착.

102006 #2 경혜 가지고 월령 그 저 뵈고 폭도 온다고 허니까 그 이디 질이 어 디로 간 철이도 몰란 어디 중간 중간 막 쌓아부니까 돌로 쌓아가지고.

102006 @ 돌로 쌓앗덴 헵디다예. 거기서 돌도 날라 낫수과 삼춘도?

102006 #2 으.

102006 @ 그 돌멩이 돌담 그런 거 흔적이 남아 이신가에 어디?

102006 #2 업써.

102006 @ 흐낌이라도 남아 잇지 안은카예 바당이라도.

102006 #2 저 거시기 밧디.

102006 @ 밧디 잇지 곶으차 줍서예. 4.3때 쌓앗던 성이렌헛지에 성은 무사 쌓 안마씨?

102006 #2 폭도들 들어오지 못허게 거 쌓앗주. 부락에서 자진해가지고 이런 길도 다 막아불고 경해도 그놈덜이 들어와.(불싸쿠다예 불싸카?)

102006 @ 그 놈덜이 들어왕 뵈 내노렌 헵데가?

102006 #2 아 들어와도 만나보진 안헛주만은.

102006 @ 아 얼굴은 안 만나보고 지나가는 것만 봤수과? 뵈 명정도가?

102006 #2 곱아근에게. 혜영 뭐 저 신작로까엔 올라가지고 저 쓸털이영 무싱거 영 다 털어갓서 그런 건 으져가고.

102006 @ 사람 죽이거나?

102006 #2 응. 그런 건 안허고.

102006 @ 말 소 이런 거 가져가진 안코 쓸 털어가고 경찰덜은 그때 서북청년단 이나 이런 무서운 건 안봤수과?

102006 #2 서북청년덜 올라가지고 월령 모여산 올라네 저 혼 반디 사람덜 월령 사람덜 다 모여와가지고 그 때 죽진 않해서 사람덜.

102006 @ 아오야 다행이다예. 여기 경찰출신은 어서수과? 경찰이시믄 좀 도와 주고 헛덴 해도.

102006 #2 경찰 우리 아시가 경찰로 땡겨나서 아시가 동생 이제 살았주마는.

102006 @ 올 해 살았수과? 그 아시.

102006 #2 이제 살아서 제주시에 살아.

102006 @ 경찰 몇년 헛마씨?

102006 #2 혼 5,6년 헛실거라.

102006 @ 아시가 이시난 도움도 좀 잇엇겠다예. 게도 그때는 경찰이 아니엇잖 아, 아시가 애기엇주. 4.3땐 열 다섯?

102006 #2 아. 경찰로 땡갓주, 아니아니 경찰 땡길 때

102006 @ 4.3 지낭.

102006 #2 4.3지낭 땡겨신가. 4.3때 땡가신가 4.3 지난 땡갓구나.

102006 @ 4.3 때 열일곱살인데 삼촌이.

102006 @ 군대 갓다왕 간거구나.

102006 #2 군대 갓다와가지고.

102006 @ 그땐 동생도 발발 떨엇주게.

102006 #2 떨고 말고 하이고.

102006 @ 서청덜이 왕 한 번 딱 왕 어디에 모이렌 헛디가?

102006 #2 저 우이. 그 부락회관이 이제 곁에 전부 메와 낫주게.

102006 @ 응. 경헛 산사람덜 오민 동조허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그믄 서북청년 단도 므스왔지예?

102006 #2 아이고 거시 무수왔주 그거.

102006 @ 그난 막 다른 디션 엄청 죽여십디다.

102006 #2 즈그만 허민 그냥 폐 죽이렌 허곡 그 놈덜이 무서와서.

102006 @ 어머니네가 그런 말 헛지예 피해는 어성 다행이다예?

102006 #2 피해는 없엇어.

102006 @ 뭐 빼사가고 이런 건 업고?

102006 #2 빼사간 건 업고 저 폭도덜 오랑 저 신작로 저 곤 들어오는 디 오란 쓸헛곡 저 무싱거허고.

102006 @ 폭도덜은 어디 한라산에 살명 그 떡을 꺼 구허레.  
 102006 #2 어 떡을 꺼 어선 그때덜 오란.  
 102006 @ 혼 번씩 백이 안 완 잘 넘어갓다예.  
 102006 #2 혼 번백이 안 오라 간.  
 102006 @ 어머니 아덜 걱정에 곱으라 헤싯갓다예, 산이라도 데려갈 수도 있고.  
 102006 #2 이디 우리 이진 우영이라는 밧디 우영인디 우이 모살이라 모래 파  
 경허니까 그디 강 곱음도 허곡. 이디 집이 들어오지 오라근에 올년지 몰라가지고  
 아이고 것이 무스왔주기 밤이가.  
 102006 @ 밤이 사 오년은 잘도 스무살이른 제일 젊영 왕성혈땀디.  
 102006 #2 그때 제일 무서와 뒤 또 부락에 또 지키레 나오렌 허곡.  
 102006 @ 게른 젊은 청년덜이 그때 여러 명 이서시쿠다예? 다 월령리에 어머니  
 네는 그 젊은 청년덜을 다 숨키고 게도 어디 산 사람으로 간 사람 어시 잘 뒤했다  
 예 아이고 여기 죽은 마을이난 경 살아 남아신가?  
 102006 #2 부락이 죽으난 아마 폭도덜도 잘 아니오랏주게.  
 102006 @ 젊은 여자덜도 겁나실건디.  
 102006 #2 아 젊은 여자덜도 그 땐 다 겁나지 안햐샤게 다 겁나 가지고.  
 102006 @ 겐디 별일이 없었다는거지예?  
 102006 #2 응. 별일은 어선.  
 102006 @ 그런 일 다 지나고 4,3지낭 멧살에 결혼허신것파? 중매로.  
 102006 #2 이 중매로 연락헤연 중매 헛주기 스무술에.  
 102006 @ 게른 스무술에 4.3지낭 바로 지낭 위험할 때다예 빨리 결혼헛네예.  
 102006 #2 위험혈 때.  
 102006 @ 경헤연 아까같은 양기철이라는 서당의 선생님 소식은 들엇갓다예? 어  
 평행 돌아가시고.  
 102006 #2 일본에 간 이제 돌아가실거여. 4.3사건때 므스우니까 일본덜에 가냇  
 주 이제.  
 102006 @ 근디 이제는 이런 쪼그만 쪼그만 집덜도 외방사람덜이 다 사부난 마  
 을이 다 어디로 가불 건지.  
 102006 #3 4.3사건 당시에 4.3사건 느 알아지느냐?  
 102006 @ 예게.  
 102006 #4 가이 어떻 압니까?  
 102006 @ 우리 어머니 열 살 때 우리 어머니가 지금 범띠 우리 어머니가 같이  
 살아마씨. 저 거로라나서 저쪽 동쪽 어머니가 얘기하는디, 얘기때라부난 불나고 이  
 런 거만 얘기하더라고예.  
 102006 #3 어 월령 이디 저 산폭도덜 내려왕 혼 번 식겁을 당해났주기. 이 월령  
 예.  
 102006 @ 삼촌 열일곱 살 썸이지예.

102006 #3 열일곱 열여덟 그때 그 알로 군인 가부러세 이디서 겁난.

102006 @ 거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만해도 정말.

102006 #3 으 그때 어떻했느냐문, 경해연 우리 부락사람이 이방윤이엔 헌 사람이여. 이방윤이가 일본서 살단 오란 거 몰라 무싱거 불총을 어떻행 맨들아 이 사람이 우린 뭐 허는 출도 몰르고, 아 이젠 월령이 식겁을 당할거난 우리가 위용대 8명 위용대 8명이렌 헌건, 8명 이 난박이 부락내에 신 것이 아니고 난박이 돌아댕기명 폭도 와 가문 전투 부뜨는 거지. 전투 이젠 그 당시에 뭐허든 그 불총을 맨든 때문에 월령은 집도 하나도 안 캐와먹고 집덜 지녔냥으로 불 부쳤당 이디서 총소리 나가난 다 도망쳐 불어세.

102006 @ 불총을 맨드난 피해가 없었다는 거?

102006 #3 으 피해었다.

102006 #4 하난 죽언 갔주기에 저.

102006 #4 3총맞안 죽어신디, 하난 죽언 간 뒷날 아침보난 저디간 길바닥에 내비연 죽은 놈.

102006 @ 그 죽은 사람은 월령 사람?

102006 # 아니 아니 그놈덜 세계.

102006 @ 아아 산폭도? 총맞안?

102006 #3 으게. 우리 총 맞안 돼전.

102006 @ 아고야 세상에. 한 명 죽었고 무서웁들.

102006 #3 게 즉시 아이구 이거 이왕이문 군인 강 죽어버리지 이거 헐 짓은 아니엔 헨.

102006 @ 산폭도렌해도 제주도 사람이라부난.

102006 #3 으. 나 오죽 허연다.

102006 @ 서북청년단이 또 막 나쁜 짓 많이 했었던 행계.

102006 #3 으. 그 군인 나가도 이“이 폭도놈의 새끼덜 왔네” 경 다 얘기헨 참나 눈물 많이 흘렀다.

102006 @ 역사가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사주예. 아 그 이방윤이라는 사람이 총을 만들언 그 사람은 여기서 그냥.

102006 #3 으. 이젠 돌아갓져 옛날 그냥.

102006 @ 돌아가신거로구나예. 살아있을 때 이런 걸 조사해야 되는데 세상에.

102006 #3 그 양반 참 머린 좋은 양반이라. 그 양반 그거 맨들아 아정 저 뭐헤시 월령 살려세.

102006 @ 세상에.

102006 #3 금능은 집 하 일흔 멧채 캐와부러세게.

102006 @ 금능엔 금능엔 피해가 많아신디 이 사람 때문에 마을을 지킬 수 있었던 거로구나예.

102006 #3 응.

102007 @ 중매결혼을 하셨습니까? 연애결혼을 하셨습니까?  
 102007 @ 삼촌 중매결혼을 헨거지예?  
 102007 #1 으게. 중매결혼 계난 월령서 태어나곡 월령서 시집가곡.  
 102007 @ 신창은 어머니고 월령양씨렌 헛지예, 양창보 어르신네 친척이파?  
 102007 #2 으. 친척이라 그디도.  
 102007 @ 아 경흐난 딸이 거기 갓구나. 귀양풀이우에 예 웨쪽이난 영 연결이  
 웨는구나. 경헨 중매로 계민 어털 때부터 혼 살 위난 얼굴 많이 봐시켄게게.  
 102007 #2 하 얼굴이야게 자꾸 매일 이디난 봤주게.  
 102007 @ 누님이렌헨단 계난 어른덜이 결혼시키난 어쩔 수 없는 거, 마음에는  
 또 든 거 아니예.  
 102007 #2 으. 서로가 좋아뵈니까 결혼도 허고.  
 102008 @ 사주 팔자 이런 것들도 어디강 봐 실거 아니?  
 102008 #1 게 보안 덜 다 허주. 그냥 안허여 이젠 어뎡 헐지 몰라도.  
 102008 @ 사모님은 무슨 성씨엿수과?  
 102008 #2 양씨.  
 102008 @ 거믄, 이 마을 분이엿수과? 사모님은?  
 102008 #2 응.  
 102009 @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로는 어떤 거를 가져왔수과?  
 102009 #1 그 때들이사게 어뎡헨 거 ㄴ정 와게, 그때 그자 오정오는 것덜 헝끔  
 헨다게.  
 102009 @ 퀘 기억나는 거 잇수과? 지금 남은 거 엿지예? 퀘, 퀘라든가 이불?  
 102009 #1 퀘 퀘허곡이, 우리 저건 아덜네 풀멍 허영은 거여. 이 찻잔허곡 요거  
 영 경헛져게. 그뎡게 이불허영오곡 건 이불은 꼭 헝영온다. 시집 갈 때 부모덜이 헤  
 주는 거니까.  
 102009 @ 부모가예 이불 헤영오고.  
 102009 #1 허영온다.  
 102009 @ 이불 헤영오고 퀘도 허영 왔수과?  
 102009 #1 오즘단지 으정오고, 요강이라고 이 요강 으정오고 경헨다게.  
 102009 @ 요강 생각나는 거 뭐 잇수과 또?  
 102009 #1 몰르켜. 뫼사 애 와신지.  
 102009 @ 퀘 가정 왔수과?  
 102009 #1 퀘 허영 오곡, 요강 으정 오곡.  
 102009 @ 계도 잘살아난 쟁이우다.  
 102009 #1 몰르켜 어뎡사헨디. 부모가 해 주니까.  
 102009 @ 계믄, 사모님이 퀘랑 무싱거 가정 읍디가? 이불이영.  
 102009 #2 이불 그뎡 그 이불 끝은 거, 퀘 끝은 거, 전부 ㄴ져 오주기.  
 102009 @ 전부 ㄴ져오곡 잘 살아난 집이파?

102009 #2 으. 괜찮안 집이라낫지.

102009 @ 거기도 큰딸?

102009 #2 아니 중간에. 딸 계도 한문선생이라나고, 아버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라낫주.

102009 @ 계든 장인 어른도 아껴주곡 마을이난예. 계든 스물 하나에 이주록 결혼허연 멧살나난 일년 뒤에 큰 딸 낳고 아덜 낳고. 계난 삼촌은 첫딸 낳뎀 어떻허곡 아덜 두 번째 낳뎀 어떻허곡 기쁨은 어떻협데가? 아버지 어머니가 웬다는게.

102009 #2 어떻허여게 기쁘지이게. 기뻑허고 형제 경허니까 나가 곤란해 가지고.

102009 @ 그든 아버지 어머니 어디 살고.

102009 #2 아버지 어머니 저디 밖꺼리 서낫주기계.

102009 @ 밖꺼리로 결혼허든 글로 가불고, 어떻 아방은 삼촌은 안꺼리로 읍니까? 결혼허든 그렇게 웬는구나.

102009 #2 응. 그렇게 웬여. 경험 살명 어서노니까.

102010 @ 멧살에 시집가신것파?

102010 #1 나가 스물하나에 시집와져실거라. 이 집이 시집 온 집이여 이거.

102010 @ 늦게 왓수다예 계도?

102010 #1 모르켜 계난 오물락사니로 사난 복 좋지. 이레저레 이동 안헤부난 아이덜은 집 상 나가부난 ㄱ만이 살암져.

102010 @ 결혼식은 여기서 헛수과? 어디 친정?

102010 #1 친정에서 해사 이디오랑 사는 거주기. 이디서 허는거라 나가.

102010 @ 친정은 멧번진지 모르고 지금도 그 집터가 잇수과?

102010 #1 아 친정 몰르켜 멧번인지 모르켜. 번지가 멧산디.

102010 @ 결혼식은 친정에서 해가지고 그 남동생 다 돌아가셔 불엇지예? 그 집터가 잇수과?

102010 #1 집터 싹져마는 이제 밧디 뭐 벌지도 안헌다 저디 싹 거.

102010 @ 밧 뉘불언마씨?

102010 #1 계에 내불지 안해영 뉘 벌어이. 전이 집 지서난디 집 뜯어뉘 이젠이 것덜은 저 중간에 강 집 상 살암고 전이 나 시집가고 헤난 집은 이젠 저디 밧 뉘엇져 집 뜯어으네.

102010 @ 결혼사진은 찍엇수과?

102010 #1 나? 아니 찍엇져게. 말제사 그냥 둘이 찍은 사진 싹져 아방이영 나영 결혼사진 안 찍고.

102010 @ 그러니까마씨, 인연이다예. 결혼식 험 때 사진이나 이런 건 엿수과?

102010 #2 어디 싹꺼여.

102010 @ 기파. 거 좃앙 놔듭서예, 것도 다 그것이 옛날예 결혼식 험 때 족두리 쓰고 사모관대 허고 경 험 헛수과?

102010 #2 사모관대 쓰고, 으.  
102010 @ 이 집에서 결혼헌거안예?  
102010 #2 이디서게 이디.  
102010 @ 경헨 상 폐와놓고 닭 날리고 경헨 그 뿔짜 박세기로 이렇게 술 먹고 호오호오 허멍으네 가매도 탓수과?  
102010 #2 가매로 거 헛주기게 바로.  
102010 @ 집 가까워도?  
102010 #2 집 가까와도 그 저 가마 타가지고.  
102010 @ 계도 집이 이시난.  
102010 #2 응 하인 그 전인 하인싯주기 영 들러 간.  
102010 @ 뭐 가져 옵데가 보통 여자들은?  
102010 #2 여자덜은 뭐 가정오지도 안허고.  
102010 @ 결혼은 여자집이서 험니까 남자집이서 험니까?  
102010 #2 남자집도 허곡 이 저 여자집도 허곡 허주기.  
102010 @ 가문잔치는 경 허는 디 그 상 폐와놓고.  
102010 #2 가문잔치보다도 잔치 제라헌 잔친 양칩이 양칩에서 허주기.  
102010 @ 그 상 폐와놓곡 술 이렇게 먹고 허는 건 여자칩이서 헿 데령오는 거 아니짜?  
102010 #2 여자칩이서도 허고 이디서도 허여. 오랑 여자칩이서 먼저 여기 말 탕 강 허영 들양 오랑 또 이디 집에서 허주기.  
102010 @ 또 집에서 해서 마씨 마을사람덜은 거기 갓당 일로와 그믐 상은 두 개를 폐와.  
102010 #2 으 상은 춤 두 개도 식개도 무싱 거 허고 강 오믐 확 허게 출려 가지고 그디.  
102010 @ 마당에서 큰 상 폐왕허는 거는?  
102010 #2 마당에 그런 땀 사람덜 부락사람덜.  
102010 @ 그건 여자집이지예? 건.  
102010 #2 남자집도 허여 똑ㄹ치.  
102010 @ 남자칩도 똑ㄹ치.  
102010 #2 똑ㄹ치 남자칩이 더 크게 허주기.  
102010 @ 더 크게 당연허지예. 경헨 잔치헤난 다음 남자집에서 첫날밤은 자고 그 다음부터 여자집은?  
102010 #2 아 므음대로게 그때.  
102011 @ 응. 둘이 찍은 사진예, 게믐 싯혼살림은 여기서 이 집?  
102011 #1 건 무싯말고?  
102011 @ 처음 결혼해서 이 집으로 온 거마씨?  
102011 #1 그냥 오랑 이제도록 살암져.



102011 @ 아. 씨어머니도 이디서 같이 살고?  
 102011 #1 그냥 씨어명덜이 셔도이 ㄴ치 안 살았져. 그뎨 그냥.  
 102011 @ 아들 결혼하면서 이 집을 사 온 거마씨?  
 102011 #1 아니 물려준 집이주기.  
 102011 @ 큰 아덜이난 바로 물려췌구나예. 그믄 그 씨어머닌 어디 사는거라?  
 102011 #1 아 우리 씨어명은 요디 영 뱃췌디 밧거리 살당 죽은 아덜 해뵤 췌뵤 죽엇져게 췌뵤 밧거리 살았져.  
 102011 @ 밧거리 살당 시아버지는?  
 102011 #1 옛날은 시아방도 ㄴ치 살당 죽고게 아이고 누게고게?(#1전화)  
 102012 @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102012 @ 계난 아덜도 딸도 다 강씨 집안에 거믄 다 살아계셔마씨?  
 102012 #1 죽진 안헤연. 남편덜은 가끔 흥나췌 두 개 죽은 거 췌져마는 딸덜은 그냥 살고 아덜도 살고 그냥 살았져 다.  
 102012 @ 다 월령서 살텐?  
 102012 #1 월령서 시집보냉 놔두난 부산도 사는 거 있고 말췌년 흥나 이. 이제 제주시덜 다 살암져 아덜 두개영 딸덜이영.  
 102012 @ 네 번이 부산이곡 세 번이 남음이곡 두 번이?  
 102012 #1 두 번이 우리 누게고? 큰딸이 귀덕 이 셋딸이 애정이 어디고 잇어불 어췌져 애정이가 어디고 잇어불언. 모르켜 나 어디사.  
 102012 @ 애기덜도 다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거지예?  
 102012 #1 응. 그쟈 이제 막 폴아도 사난 좋다게. 그쟈 심으멍 폴앗주기에. 봉금 만허민 닐 말아도 무사 말암딘 안허커메, 나 앞이서 결혼이나 행 말켄허연.  
 102012 @ 다 연애덜 헤가지고예?  
 102012 #1 지네덜 봉그민 무조건 폴아노난, 그냥 살암췌 아덜이고 딸리고.  
 102012 @ 봉그민.  
 102012 #1 시집갈 뎨 곱앗주게 아덜이고 딸이고 나 폴앙 놔두커메.  
 102012 @ 다 살아 있고 애기덜도 낳고 영 잘 사는 거잖아예. 아이고 얼마나 좋은 것파게.  
 102012 #1 그냥 그냥 살암져. 폴아주난.  
 102012 @ 얼마나 좋으파게. 계믄 애기덜 키우멍 가슴 아픈 사연도 많고 계도 보믄 옛날 어르신덜은 애기 나믄 꼭 어릴 때 애기덜 누구 하나 톱 애기도 잃어 불고 막 그런 것도 많고 사연도 많드라고예.  
 102012 #1 그런 사람도 췌지. 계난 이 그쟈 폴앙 뒷날 무사 만난덴 안허커메 폴앙이네 말켄허민 다 살암췌 폴아주민.  
 102012 @ 계도 왕 울고 막 시집살이 힘들덴 곱고.  
 102012 #1 경도 안하곡게.  
 102012 @ 아오야.

102012 #1 막 그런 거 다짐 반양 풀주기 안허커메 널 말아도 무사 말암던 안허 커메 시집만 가라 장개도 가곡계.

102012 @ 딸은 물질이나 어멍한티 안베왔수과? 물질.

102012 #1 뭐 물질 허는 딸은 어서 큰 딸도 안헤여 셋딸도 안헤여 말쑤딸도 딸 안 했져 메누리도 안허곡 나 우리 시절엔 물질 안허질 안흔다게.

102012 @ 아들허곡 딸은 곶이 검질도 메레 가고 영 했수과?

102012 #1 게게 농술 하도 지어노난 전이.

102012 @ 초등학교는 어디들 다님니까?

102012 #1 처음엔 저 판포.

102012 @ 판포 이제 어서젓잖아예.

102012 #1 어서저사 몰르켜. 나 어디 애기 학교뎡기는 거 어시난 어서젓구나.

102012 @ 폐교가 뉘불언.

102012 #1 경해샤 몰르켜 난.

102012 @ 다른 사람이 들어 강 헛텐허곡.

102012 #1 경해였구나.

102012 @ 경헛텐 허곡.

102012 #1 다 이제 다 학교 뎡기는 체 허곡계.

102012 @ 가족사항은 어떻웁수과?

102012 #2 딸 둘 아덜이 셋.

102012 @ 딸 하나는 여기 사는 거마씨? 월령에?

102012 #2 딸 하나는 점빵, 옆이 이시난.

102012 @ 삼촌은 제일 먼처가 딸을 낫수과 아덜을 낫수과? 제일 먼처 난 아이 가?

102012 #2 아기가 큰 딸이주기계. 이것이 큰딸이여계.

102012 @ 아 점방이 큰딸이파? 거기가 멧살이파?

102012 #2 이제 혼 칠십.

102012 @ 점게 보이던데 아오야 물질험수과?

102012 #2 게도 젊어. 물질허다가 안헤여.

102012 @ 큰딸이 칠십이고 두 번째는?

102012 #2 두번째는 여수에 사는 디 이제 쉰 둘인가.

102012 @ 그믄 세 번째가 아덜 난것파? 다섯 오누이 중에?

102012 #2 아니 두 번째 난 아덜이 이서. 일본가가지고 연락이 업씨.

102012 @ 지금마씨? 어떻게. 언제쯤 연락이 어서전 마씨?

102012 #2 1년 뉘쨌, 1년. 이제 걱정이 그건디 그거 일본서 살당 등록어성 걸령 들어왕 멧년 살당 또 가신디, 작년부터 연락어서. 딸 하나 이서.

102012 @ 아이고 춤. 게민 세 번째가 딸 여수 살고?

102012 #2 아니, 두 번째 아덜이. 일본에 또 살아 살안 그 놈은 일본각시 해가

지고 제주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귀화해부렀어. 거기서.

102012 @ 귀화해부런. 삼촌도 춤 계도 연락도 허곡? 놀러 오렌도 허곡?

102012 #2 가끔 연락도 허곡, 오렌도 허주마는 난.

102012 @ 여긴 와보기도 허곡.

102012 #2 으. 어땜 살 때 집이 할망 산때에 아팠젠허니까 오랑 가서 죽엇젠 허니까 아니 오고.

102012 @ 세상에 겨른 여수 사는 딸이 네 번째가 뤼겠다예.

102012 #2 어.

102012 @ 다섯 번째가 아덜 세상에.

102012 #2 아덜.

102012 @ 세상에 막넌게 여기가 시에 사는 거예 큰아덜 역할을 허켌게.

102012 #2 모두가 그디 땀겨 부러주게 뭇시던지 손지도 농협땡기고 이서.

102012 @ 잘 들어갓수다게. 여수간 딸도 잘 살고.

102012 #2 자기 살긴 펜안하곡 잘 살아 웨순지도 오누이라.

102012 @ 큰딸은 월령신랑 만난 생이우다예. 점방도 허고예.

102012 #2 그건 예초로 허곡 사위가 일본 강 땡기당 오란 농사지어.

102012 @ 계도 그 딸이 이시난 삼촌.

102012 #2 으. 이제 딸이 이시난, 펜안허게 이거 식사같은 것도 다 거기서 헤와.

102012 @ 아이덜은 어떻게 됩니까?

102012 #3 그루후제 아기덜 막 나세 이제 아홉오누이이여. 큰어땜에 아기 여섯 오누이 고 이 할망도 나 만난 서 오누이고.

102012 @ 아홉오누이예.

102012 #3 으. 손지덜이 바로 세지도 못헌다. 이름도 모르고 하도 월체 하노난. 왓작왓작흔다. 한 해에 육남매씩 난 딸덜이 싯져게.

102013 @ 때려분겨우다게.

102013 #1 몰르켜그걸. 어땜 알아게. 아이고 답답이라. 우리 그놈의 할망이 진짜로 죽어도 즐바로 못가실꺼여게. 난 그거안티 배왕 큰일난덴 단도리 했져 단드리했져.

102013 @ 씨아지방도 경협디가?

102013 #1 경 안허. 스물땡개 작산 조상을 허는 할망을.

102013 @1 날르는 거.

102013 보통 일은 아니였주게.

102013 #2 맞추기게.

102013 @ 일은 열심히 했나?

102013 #1 몰르켜게. 아이고 답답이라 그놈의 할망이. 죽어도 즐바로 못가실꺼여.

102013 @ 너네 딸은 아끼고.

102013 #1 나 그냥 사람가 스물셋개 물 걸여놓는 즈순이 아니고 작산 조상 며  
능일 따리렌 흐민 될걸까? 우리 아덜성제 잘못했찌 안돼라게. 사촌 막 똑똑해 아기  
도 흐나 못 낳는 것이 어디 메뉴리 때리렌 시 막 걷지 못해노난 고문이 동네에 다  
난 걷지 못해노난 이딘 일어서도 대강이 때려 골 흥글었젠 흐는 것이 그건생이라게  
경해도 애기 아까완 나가질 못해라.

102013 @ 씨어명은 아광으네 밥은 누가 멕.

102013 #1 어떻 내불어지느냐 집이으랑으네 우리도 풀아쫓져 게. 내부러지느냐.

102013 @ 거넘했마씨?

102013 #1 난 씨어명은 젊을 때 돌아가 부난. 게난 욱했져 아기 흐나 못 낳는  
것이 췌막애. (전화)아이고 시상.

102013 @ 게른 아저씨는 무슨 성씨마씨?

102013 #1 박씨.

102013 @ 아오야. 어떻 어머니 성씨?

102013 #1 아니여. 난 강씨?

102013 @ 게난 엄마가 박씨였다며?

102013 #1 으. 어명이 박씨고이.

102013 @ 신랑도 박씨?

102013 #1 맞다 맞다 으게 으게.

102013 @ 신기허다예.

102013 #1 난 강씨난 우리집이 우리 친정아방은 강가지 맞다게. 동네에서 그자  
외방일은 모른다 월령에서 태어나곡 월령에서 시집가곡해노난.

102013 @ 신랑은 나이차이가 어떻 뵈수과?

102013 #1 나보다 혼슬 위.

102013 @ 게른 잘 씹기도 헛겟다예?

102013 #1 어떻사 해전디 모르켜게. 어떻사 살아져신디 싸와전디 아니 싸와전  
디.

102013 @ 게도 어진생이우다예.

102013 #1 옛날은이 아이구 시집 안 살민 죽을 걸로 알앙이, 저궤지 돌아당 강  
심어당 문 덕경 막 아이고 우리 동세 요재기 곱아라 저 서귀포 살당 욱지 강 인천  
도 살아나고 그궤지 소문 나난생이라. 돌아난 거 심어당 막 아이고 소문 들궤렌 이  
제 궤치 살암쨌. 영 오랑 요디 살고 그 욱지궤지 다 소문 가서렌. 아멩해도 어떻허  
느니 우리 씨어명이 우리 난 씨어명은 죽어부난 이제 말제 온 시어명은 아기도 안  
나본 사람인디 경 무사 시기느니게. 난 씨어명한테 배왕이 아덜성제딘 궤딱 너네  
메누리 때렛당 큰일난텐 막 시겨져라게. 아니돼라게 고정헌 사람이라노난 아이고.

102013 @ 삼촌을 마씨?

102013 #1 으. 우리 동센 곱아라. 막 욱지궤지 소문 나렌 경험젠 전화가 뭐 헤  
난생이라. 게난 우리 씨할망이 나신디 완 이 우리 난 씨어명 어떻 아니 “실프민 그

냥 내쳐볼주기” “아이고 다리 꺾어져 불콰게 실뜨건 다리라도 곱게 내쳐사 동냥질 해 먹을꺼 아니젠” 글아났져. 우리 씨할망 경해도 아기 아까왕 못나가라게. 우리 셋 딸은 이제 좇 먹이고 우리 큰 딸 큰아덜 그 우이꺼 어린거난이 어멍네 집이 요디여 우리 친정어멍 그디가당 아이고 아이고 오랜 안행 불쌍행 오른 나가 죽어져도 아기 밥해 줄꺼 아니 이제 셋딸은 좇 멕일때고 아이고 어가라 들어와났져 못살커라라. 아기아까왕 아기 때문에 살림사는 거라라게. 그 매 맞으멍도이 게 살암시난 살아전 게. ㄱ만이 살암져게. 경흐민 못 살 사람 하나 어실거여. 그 매 맞앙 사난이.

102013 @ 계난. 세상에 아저씨는 멧살에 돌아가섯는데마씨?

102013 #1 쉬흔 아홉에.

102013 @ 에 아이고 무싱것이 경 답답허여그네 경.

102013 #1 고정현 거라 고정현 사람이라노난 딱리렌 헤노난게 어멍허여?

102013 @ 아니 씨어멍도.

102013 #1 배왕 우리아덜성제이 너넨 메누리 손땃당 큰일난텐 흐건 살젠 애기 나멍 흐는 거 ㄱ딱 딱령 큰일난텐 난 드르 시겿져 아덜네ㄱ라.

102013 @ 아이덜도 그걸 보고자란네예?

102013 #1 경흐난 이제 우리 아이덜은이, 우리 아덜성제신디 각씨 딱리는 걸 딱 렷당 큰일난텐헿져. 난게 딱령 웨느냐 나가 경 살아나난.

102013 @ 가슴아픈 거를?

102013 #1 그걸 아이덜코라 시겿져게. 나가 우리 시어멍안티 배완이, 우리 아덜 은이 ㄱ딱 각시 안 딱려났져 딱령 웰겿가?

102013 @ 못 삽니다.

102013 #1 야. 경 맞아도 못나가라. 아기 아까왕게.

102013 @ 계난 거난. 아이가 훌룡하게 웬 게도 영 사는 거주게. 어멍 어신 아이 덜이 요즘.

102013 #1 다 알앙 우리 큰딸 글아라게. 또 먹을 것도 어성 그땐 이 막 그냥 구 해당 으네 주콰 우리 큰딸 경 글아라 질고라 밥 허렌 헤뵤, 옛날엔 보리낭으로 불 습쭈게. 밥 허렌 헤뵤 또 쓸 구허레 나가렌. 풀 브른 구덕 으정 지네 배 고프겐 안 헤렌. 거 흐나 기분 좋안게. 경 쓸 구해당 지넨 밥 헨 먹으렌헤도 밴 고프겐 안헤렌 씨어멍헌티 욱 들으멍 “밥 하영 헤영 먹엄젠” 남기는 밥도 잇고 식은 것도 잇주기. 계난 이제사 나가 아척에 아기덜 하루헤윈 먹을 걸 흠치 해진 생이라. 경 헤났져 계난 그거 흐나 기분 좋안게. 큰딸이 이제 살암져 시에.

102013 @ 신량은 큰아덜이우파?

102013 #1 으.

102013 @ 아이구, 경흐난 더 득헿게 했구나. 씨어멍이 시집살이를.

102013 #1 첼 우리 아지방이 살암져 이디. 시누이 올레 살암고이, 우리가 큰아 덜이여게.

102013 @ 아이고 그른 큰아덜에 또 형제가 멧인 거라? 씨누이허콰 씨아지방이

멧명인 거?

102013 #1 하나 씨아지방 흐나 우리 씨누이 요거 흐나 서오누이 우리 씨어멍 난 죽언.

102013 @ 아이고 서오누인디 그추룩 막 경 세계 경 막 큰아덜이난 더 막 경헛 구나게.

102013 #1 아기도 안 나본 씨어멍이 우리 난 씨어멍은 죽어불고이, 저 젊은 때.

102013 @ 두 번째가 온 거로구나.

102013 #1 또시 얻어온 사람이 애기도 하나 못난 윤씨 할망이엔 허연, 막 지네 권당안티 욱들으멍 공중이라고 이 월령 똑똑해낫져. 손은 끊어져도 아니 아기도 어 선.

102013 @ 멧개라.

102013 #1 에이구 답답이라 벨디 다 살아 다 신다. 우리 신랑에 씨어멍.

102013 @ 친어머닌 일찍 돌아가셔불엇구나예?

102013 #1 우리 친어멍? 으게.

102013 @ 아저씨삼춘 저기.

102013 #1 우리 씨어멍.

102013 @ 신랑에 씨어멍.

102013 #1 으게 으게.

102013 @ 멧살 때 돌아가션마씨?

102013 #1 서른셋에 돌아갓젠 현다. 게도 아기 서오누이 난 서른셋에도.

102013 @ 아오야.

102013 #1 우리 씨누이 살암고, 우리 씨아지방 요디. 이딘 큰아덜이고.

102013 @ 겐 그 다시 온 그 씨어멍은? 씨할망이렌 불러신디.

102013 #1 아니. 다시 온 어멍은 윤씨라고 어떻허느니. 얻어오난게 경 못된 마 음은 덕어도.

102013 @ 그 분은 살아계셔마씨?

102013 #1 엇다게. 이제 살아지느냐 죽엇저게.

102013 @ 돌아가션예, 제사도 허여마씨?

102013 #1 제사 흐주게. 영흐나정흐나 제사 안흐느냐.

102013 @ 계난, 영흐나 정흐나.

102013 #1 이제 나 늙영 제사 안허니까 다 허당 이젠 큰아덜 죽은아덜신디 쥐 부난 험저게.

102013 @ 진짜, 씨어머니 제사 그 분 제사 합제도 안하곡 그냥.

102013 #1 응. 딱로 혼다게.

102013 @ 아 착허다예.

102013 #1 씨왓 끝지 못흐는생이라이 무사 끝질 허지 안험저게.

102013 @ 남편하고 각시는 또 영 합제도 현데는 험디다마는.

102013 #1 헌데는 해도 씨왓 두 개는 안흐는 생이라 드로헌다. 난 이제 늙언 안 허여, 아이덜 다 허여 큰아덜이여 죽은아덜이여.

102013 @ 착허다게도 게도.

102013 #1 으당이 허는 걸 지네덜이 다 이제 아니까 나 서른 멧해 식계 멧질 우리 큰아덜 곱아라. 나도 어멍마니 해 딸성제나똥 말제 나노난, 나도 어멍허는 햇술 세사 아덜 물러취지켄 곱아라 우리 큰아덜.(#1전화)

102013 @ 그른 서른 세 살에 그 씨어멍이 죽으민 애기가 멧살에 돌아가신 거라?

102013 #1 몰라게. 서오누이 난 죽엇저게.

102013 @ 그른 신랑이 열 살도 안 똥.

102013 #1 몰라게. 어멍사 열시살에 돌아갓젠 헌다 우리 신랑 그거 들엇저.

102013 @ 그난 새엄마가 드리왕 어쨌든 경 구박받으멍 살아시쿠다예.

102013 #1 으이그 진짜로이.

102013 @ 게난 몽니가 쟁기고.

102013 #1 아기가 어신 시어멍이주기에.

102013 @ 불쌍하게 신랑이 불쌍하게 어쨌든 크난. 각시한티 포마시허곡.

102013 @ 씨아주방허고 씨누이는 괜찬앗수과?

102013 #1 게. 아껴주는 사람은 좋추게 살기도이.

102013 @ 씨아주방허고 씨누이는 괜찮고?

102013 #1 괜찬으니까 이제도 ㄱ만이 살암져.

102013 @ 씨어멍에 비해서 자기 형제니까 삼촌한테 막 구박허곡 이런 것들은 기억 안 남수과?

102013 #1 구박헌 거 아니샤 구박해시냐마는 어멍허여 어멍헐거라.

102013 @ 게도 들만 이시난 다행이우다.

102013 #1 맞아 맞아.

102013 @ 그 씨아주방 장개 보내곡 시누이들 시집 보내곡.

102013 #1 게 게 ㄱ만이 흐디덜 이제 즈꿏디 사난 막 좋나게. 요딘 씨아주방 요 올렌 씨누이.

102013 @ 친구처럼.

102013 #1 응 잘도 좋아. 우리 동세 나 어시민 벗 어성 못 살켄.“씨끄러와 작산 것이 벗 무싱거 뭐”진 하나만 어서도 못 살켄. 나만 어서도 못 살켄. 나만 어서도 “시끄러와이”

102013 @ 씨누이 다 살안마씨?

102013 #1 으. 씨아지방 살고 씨누이 이디 살고 딱 서 오누이 나똥 우리 씨어멍 이 서른 셋에 돌아갓젠 헌다게.

102013 @ 자식덜안티는 막 해꼬지 그런 건 안 하고?

102013 #1 나 어멍 안 한다. 무신 해꼬질 허여게?

102013 @ 거기도 자식덜 낳고 잘 살고예?

102013 #1 응. 큰아덜이나 서른 셋에 죽은 아덜은 고등학교선생이고, 큰아덜은 이제 뭐 그거 선생혜영 마땅치 안허덴 막 배달 하도 하도 저 서귀포까지 다 배달허 곡덜 현다. 그 무싱거 풀멍 이 밧에서 난 거 다 풀멍 경헌다.

102013 @ 경해도 자랑스러우쿠다게. 선생허나 되는 것도 어디라.

102013 #1 그자 지네 몰라게 그 고등학교 선생허는 중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 허는 거 아니라이?

102013 @ 예.

102013 #1 죽은 건 그거 선생이여게.

102013 @ 계민 거기도 다 저 어쨌든 박씨집안이네예. 씨동생 씨누인?

102013 #1 계. 아덜덜도 다 박씨고. 우리신랑이 박씨니까.

102014 @ 자식들의 결혼은 어떻게 하셨습니다까? 제주도에 살았수과?

102014 #1 제주시에덜 살뎌. 부산도 하나 살고. 말쨌년 부산에 지네 살 때 오라 가라 안허주.

102014 @1 그 그 자식들이 결혼은 지금 일곱형제렌 헛지예?

102014 #1 나.

102014 @ 응.

102014 #1 딸이 니게 아덜이 두 개.

102014 @ 계 멧살 때 또 결혼덜 일곱형제 다 시킨 거?

102014 #1 계. 옛날들은 다 경허는 거여게.

102014 #1 시집 아니 뉘고 장개 안 가든, 사람으로 안 헛주게. 살던 말던간에.

102014 @ 오십 구세에 돌아가실 적에, 일곱형제 다 보내뉘 갠 거마씨?

102014 #1 계 그자 허끔만 헤가민 그자 그 으당이 부모덜이 허는 걸로 알앗쥬 계.

102014 @ 다 보고 가난 아저씨 여한은 어서시쿠다.

102014 #1 맞다 맞다 .

102014 @ 육십세 넘는 게 어려운 거라예 남자들.

102014 #1 맞아이 경헌생이라이.

102014 @ 겨른 자식덜 결혼헛 때 큰아덜은 여기서 헛 마씨?

102014 #1 이디서 헛지이 나가. 시집 온 집이서 난 이제도록 ㄱ만이 사니까. 가 문잔치?

102014 #1 경허난 다 시에덜 집덜 상 나가비난, 난 아직 ㄱ만이 사는 거라.

102014 @ 큰아덜은 지금 연세가 저보다 좀 우에갯다예, 오십멧?

102014 #1 ㄱ만시라보져, 오십멧개고. 나영 돌아온 그 무싱거여마는 잊어부런. 이 이제 준다비 띠여 나영 ㄱ튼.

102014 @ 사십 팔이 준다비난 육십뉘겻는데, 이제 육십되커라.

102014 #1 벌써 육십뉘샤 경해샤? 띠만 알아져 답답이라 죽은 아덜이. 또 돌아



온 또 우리 곁은 띠고이, 죽은 아덜이 고등학교 선생이고.

102014 @ 죽은 아덜도 존나비띠예?

102014 #1 돌아온 띠 꺾치 거 멧살난산디 모르켜.

102014 @ 사십 팔.

102014 #1 몰라 잊어부런 멧술산디.

102014 @ 사십 팔되는데예. 멧살에덜 스무살 넘으난 결혼덜?

102014 #1 모르켜 멧술에사 헤져신디. 거 어떻 아느니? 결혼은 다 나 헤준디 살  
암져 착해여이.

102015 @ 딸 사위덜은 다 착해마씨?

102015 #1 으게. 그자 살암져 정해준디. 나 앞서서 결혼만 행 내부켄 행 네부난.

102015 @ 큰딸사위는 어느 지방 사람이파?

102015 #1 귀덕. 큰딸사윈 스님이여 큰 스님.

102015 @ 두 번째 사위는?

102015 #1 낚음.

102015 @ 낚음. 세 번째 사위는?

102015 #1 말젯년 부산.

102015 @ 부산사위. 네 번째는?

102015 #1 아, 네 번이 우리 애행이 세 번이 낚음 낚음이로구나. 우리 애정이가  
딸이 네 개여게.

### 3. 밭일

#### 보리농사

103002 @ 밭일로 들어가 보쿠다.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  
까?

103002 #2 보리농사 무싱거. 뭐 옛날엔 그 저 통지에 걸름내영 불러가지고 그걸  
로 씨뿌렁 물로 시껴가지고 이제 밭디 가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씨뿌렁 그거 이제  
병뎡이로 멘들아가지고 밭디 이젠 그거 실려간단 말이여. 그거 또 이제 갈 때는 또  
영 영 손에 비비멍 뿌려가지고, 그 씨니까 씨 막 뿌리거든. 다덜 밭드레 게민 그 저  
쉐로 밭을 갈아야 돼.

103002 #3 밭 보리농사 지을 때 폐롭긴 헐다. 옛날 지금은 비료시난이 거름 비  
료시난 비료 작작작작 뿌려으정 보리씨 빼어으정 다니든 보리가 갈아지는 거주만은  
옛날에는 우리 멜 있지이 멜.

103002 @ 예.

103002 #3 바당에 신 멜. 그거 헤여당 그 들렸당 거름헝곡, 밍 있지 밍 바당에  
뜨는 밍.

103002 @ 예.

103002 #3 그거 비어당도 그 물렁 걸름 하곡 경허난, 이젠 기계로 다 갈주마는 옛날 소로 갈아나세 소로. 흔 고지씩 갈양허든 그거 덮어으정 붉으멍 살멍 경 힘들게 살아왔져.

103003 @ 썩이는 거 메칠 걸러마씨? 쉼막에(전화) 보리농사?

103003 #1 툇걸름 내영. 나 말 들어보라. 도새기 질황 도새기 걸름을 내영 이제 도시 그레 이제 씨빠영 마당더레 걸름내영 막 즈그즈근 즈근 불황 밧디 망탱이에 시꺼 강 두망두망 비우는거라. 요디 하나민 저디 하나 비왕 그걸 이제 붙어그네 즈주룽이 치정 밧더레 저 걸름을 놓는거라. 경허민 이제 그 걸름에 붙어으네 보리씨가 모드락모드락 난다게. 경헤연 농사지어 낫져게. 이젠 허지 좋안 작작 보리씨빠연 갈아났져마는 경행 농스지어났져그 댜 걸름 경행 갈아났져. 게민 그냥 뵤 것보다 흐끔 걸름이 들어가니까 흐끔 좋아났져게.

103003 @ 아 그든 해마다 그렇게 헨연마씨?

103003 #1 그디 허는 일이 그거라노난 그땐 그땐 말제라가난 그냥 빠니까 허기 좋곡 비료만 하영 잘 놔주민.

103003 @ 걸름도 추울 때.

103003 #1 게, 그땐 내영으네 그땐 꼭 쉼 질화냥 쇠 걸름을 동시에 담양냥 이제 썩으민 또시 내어근에 그것에 씨 빠어근에 불황 게민 걸름에 요만씩 걸름에 꺼라고 이 그냥 쉼씨 갈양은 잘 안뵤어 라게 경헨그때 해났져.

103003 @ 그든 돏통시에 걸름만이 아니소 쉼 길러난 것도?

103003 #1 동시에 담양냥 꺾치 쉼영 즈주룽이 찢영 경행 이제 작작 허는 일이 그거라노난 아니게, 으게 걸름내영 허대경 즈근즈근 허턴 즈근즈근 두망두망 무두락 이제 그냥.

103003 @ 쇠 물.

103003 #1 이제 꺾치 요만씩 그냥 가는 건 쉼씨 그냥 잘 뵤라게.

103003 @ 그땐 마당에 뿌런, 씨 밝을 때 쉼나 물이나 이런거 꺾치 붉진 앓고 사람덜이 다 발로 붉안예? 아 다 정성이다예.

103003 #1 경허민 이제 그것에 꺾치 씨에 머물러지민 걸름에 다 붉을 때 붉양 요만씩요만씩 다 뿌려노민이, 그것에 붙영 씨가 나오민 흐끔 걸어라게. 그냥 가는 건 쉼씨, 그냥 걸름 아니행 그냥 씨빠영 가는 건 그것엔 걸름이 들어가난 흐끔 잘 뵤어라게 밀랑밀랑하게.

103003 @ 게민 쉼왕에 있는 것도 걸렁 돏통시에 놓고, 걸름도 쉼꺼영 물에 있는 거영 다 돏통시에 낵.

103003 #2 쉼걸름이라도 쉼 통지에 낵다가, 보리라도 갈게 뵤며는 마당더레 다 네쳐서 거기에 그 이제 말려서 씨를 뿌렁 불려야 밧디 가기 전이 씨 들어가게 불렀다가 거 이제 다 뵤시민 다 모여가지고 밧디 실러간단 말이여.

103003 @ 저 마을에서 막 걸름 잘 네는 사람 빌영예, 그게 일이주게 밧디 뿌렁.

103003 #2 뿌령 밧디강 갈젠허민, 손으로 그걸 다 뿌려놔가지고 쉼로 간단 말이여.

103003 @ 소로 가면 보리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직접 빠지는 않고 다 걸름에 뿌린다는거지예?

103003 #2 어. 걸름에 뿌려 놔서 뿌린 거 실려 가가지고 손에 영영하면서 영 글루루 놓는다.

103003 @ 보리밭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아까 말 한 것처럼?

103003 #3 거름? 거름은 많이 주면은 농사가 잘 돼곡.

103003 @ 예. 그 거름은 아까처럼 뚫통시에꺼나 소왕에 꺼나?

103003 #3 소에 끼는 짝 그것도 거름헌다. 그 저 나왔디 거름헌연 간다. 거 퇴비엔 헌다 퇴비. 그것도 나 허곡이 옛날엔 통지 도세기 통지에 길랐져. 이디 영 거 집집마다 다 했어 건.

103003 @ 통지 통시?

103003 #3 통지 통지 담으로 쌓아아정 거 돼지 거기 떡 집어놔.

103003 @ 예. 도세기 어릴 때 저도 받마씨.

103003 #3 어. 그거 경행 키우멍 그디서 걸름내영, 행 그 걸름으로 찌멍 보리씨 통지에서 내어 놔 그거 찌멍 헤영 보리갈멍 다 경 살았져.

103003 @ 잘 글아줍서. 쉼쩍허곡 통지에 그 걸름을 마당에 어떻헉니까? 그걸 촌근촌근.

103003 #3 아 저 통지에 이젠 쇠시랑으로 걸름 내어 놓주기 마당더레 내어 노른 이제 또 이제 씨 뺏다 씨 막 걸름 우트레.

103003 @ 마당더레 걸름을 내어 놔 보리씨를.

103003 #3 보리씨 우트레 뺏어노민 이제 또 섞으주기 딱딱 막 영 쇠시랑으로 조시멍 섞어노른 그 밧로 이제 쉼로 불린다. 불려으정 다 뚱거 닻으민 그때 딱 재어 놔 둥그렇게 재어놓주기 이 거름을.

103003 @ 아 걸 글체에 담양 저.

103003 #3 둥그렇게 마당 한가운데 재어 놔, 재어놓으면은 이제 밧디 갈텐 쉼에도 시경 가고 구루마에도 시경가곡, 경허멍 헨 보리 갈아나져.

103003 @ 밧디 갈텐 쉼나 구루마에 시경으네 이제 강 이젠 그 다음엔 어떻헉니까?

103003 #3 그 다음엔 가른 이제 밧디서 보리 아정 이제 뿌리주기.

103003 @ 그 걸름을?

103003 #3 그 보리씨 섞어진 집에서 해 놓은 거. 그 푸는체에 막 손 곱양이 막 평장헌다. 그때 장갑이 시냐 뭐시 시니.

103003 @ 추운날이라부난.

103003 #3 으. 경 막 손 곱으멍 헤영 불 추멍 그 걸름덜 다 뿌린 다음에 이젠 소로 이젠 갈꺼 아니가. 이젠 다 뿌렸젠허민 이제 소메왕 소 밧갈른 이젠 또 밧가

는 뒤에 고량 이 고량 나온다. 이 밧고량이엔 흔겨. 게문 그레 영 거 툃툃툃툃툃 줍아 낱 그건 고량에.

103003 @ 고량에 뭘 줍아놔마씨 씨를?

103003 #3 보리씨게.

103003 @ 일차로는 하고 또다시 씨를 또 고량이든 이렇게 들어간디피 들어 간디 또 줍아놔.

103003 #3 거 저 거시기게. 땅 남아시카부덴 해연 여비로 경 땅 행으네, 그량에 낱 곡석 잘 나온다. 또다시 땅 남아 시카부덴 경현 땅 고량에 낱, 거름 잘한 밧들은 보리밥덜 먹고 거름 못헌 밧은 보리 안돼영 배롱배롱해영으네 뉘허주기.

103003 @ 못 먹영 배롱배롱허고예. 저 거름을 이렇게 배롱배롱허든 것 먹으고 이 만약에 몸이나 뭘 그런 거는.

103003 #3 그거 허든 잘 쉰다.

103004 @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 감네까? 보리는 가을에 겨울에?

103004 #1 아, 보린 겨울에 가랑 겨울 내낭되언 가민 비곡.

103004 @ 겨울에 갈앙예.

103004 #1 응. 겨울 들어가민.

103004 @ 보린 겨울에 갈앙.

103004 #1 쉰 질화낱 동시에 담아낱 러낱게 내어그네 동시에 담아낱 걸름에 요만씩 거라고, 그냥 쉰씨 갈앙 잘 안돼. 나은 게메그거 돛통시에 걸름허곡 쉰영 바당 더레.

103004 @ 흔 줍씩 씨빼어낱 뽕앙 흔줍씩.

103004 #1 골체에 그런 건.

103004 @ 그런 건 남자덜이 아저씨가 했수과?

103004 #1 안허민 뉘을 해영 헐꺼라게.

103004 @ 그든 십이월들에 보리 그 걸름을 해신가예. 보통 멧월달 뉘니까? 겨울이면 12월?

103004 #1 십이월까지 아니고이 음력으로이 말허민 그만시라. 그 경 걸름 헐때가 칠 팔월 아니가?

103004 @ 칠 팔월이민 여름 구월달에예.

103004 #1 구월 시월인가?

103004 @ 음력?

103004 #1 응. 양력은 못 곤나마는.

103004 @ 10월은 뉘 거우다.

103004 #1 게메이. 경허연 영영 허연 요망씩 요망씩 걸름을 해영 그디 씨들어강 거 영 방 벌영해사 보리가 돼어라게. 말제라간예 그냥 씨로 뿌렸져마는이.

103004 @ 옛날식.

103004 #1 옛날은 경 해낱져. 걸름에 그냥 쉰씨에 갈민 아니 쉰덴허연 꼭 걸름

에 석언 꼭 경혜연 같아났저게.

103004 @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갑니까?

103004 #2 보리 음력으로 허주기. 음력 11월 돼가민 보리 갈기 시작허거든. 보리 갈아가지고 게서 삼 사월에 거두와 들인다.

103004 @ 걸름내고 허는 거 남자들이 주로허곡 이렇게 보비멍허는 건 여자들이 험니까?

103004 #2 남자는 거름내가지고 불리고 실러가고, 여자덜은 보비멍 뿌리고.

103005 @ 보리 빨땀 어떻 빠어마씨?

103005 #1 어떻허여. 전인 걸름해영 영영 뿌렸주마는, 이젠 뺨다덜게 요새 보리 갈젠 허는 사람덜.

103005 @ 그믐 모든 씨를 다 걸름에 낱으네?

103005 #1 옛날엔 경 해났저게. 걸름에 갈앙 그냥 빠민이 잘 아니뵈영게. 이젠 가는 사람덜 말제라가난 씨만 빠었저마는 옛날에 걸름에 썩 이 쉼 질루왕 걸름 통지에 담앙 낱 썩연 네여그네 마당에서 이젠.

103005 @ 썩이는 건 메칠 걸러마씨?

103005 #1 거 무신 말고? 오래 마당엔 그거 다 썩어논 거 내치고 이 쉼막에 쉼 걸름을 (전화벨)오래 통시에 놔사 썩나게.

103006 @ 보리 종류는 어떤 것이 잇수과?

103006 #1 슬오리, 맥주보리 나 그거 두가지 배끼 다른 거 모른다. 더 싱가 어떻사.

103006 @ 밧 불리는 거 보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잇습니까?

103006 #2 슬보리, 맥주보리 그거주게.

103007 @ 보리 밧 밟기, 보리밟기, 밧 불릴 때 보리 밟습니까?

103007 #1 아 밧불릴 때 그 저 보린 아니허곡이, 저 줍씨 빠영 불려났저 우리 전이 아니 밟으민 아니뵈연게. 똑똑해영 밟아줘사 줍씨 빠영은 불려났저게. 이게 딱딱해사 땅을.

103007 @ 보린 새싹이 나민 또 불랐지예.

103007 #1 안 블라도 되어. 게메 블라줘사 든든해영 굽이 든든해영 웬텐 해나도 응 블라줘사 좋덴 해났저게.

103007 @ 일부러 강 막 허지 앓고예?

103007 #1 아니해봤저. 아니해도 뵈니까 불른 사람은 블라났쨌.

103007 @ 즈근즈근 들룰 때 발로 밟아마씨?

103007 #1 아니게. 그 밧 갈앙 아 이디 이디 씨할 때 걸름내영 이젠 영 해대겨 진듯 허게 혼 짐씩 즈근즈근 막 모여논건 안뵈곡. 마당에 널영 씨 허텡 즈근즈근 불황 그걸 이젠 망탱이로 하나씩 밟디 경 강 두망두망 뿌려이, 그걸 이제 영 손에서 보미멍 뿌리민 걸름에 그 씨가 붙영으네 이제 두멍두멍두멍 이제 이만씩은 나오 주기 무드락무드락이. 게민 걸 보리 갈민 그냥 쉼씨에 갈아근 잘 안뵈렌. 그 걸름

그디 들어가니까 그건 웨여 옛날에 이젠 그냥 막 빼영 갈아붙어.

103007 @ 두 가지에 밧 불기는 어떠케합니까?

103007 #2 밧 불리는 건 조 혈 때 불리는 거고.

103007 @ 조 혈 때 불리는 디 보리혈 때는?

103007 #2 안허여.

103007 @ 나중에 보리 퍼렁허게 나민 뵘으민?

103007 # 그건 불릴 수 이서.

103007 @ 그건 어떻게 불립니까?

103007 #2 불려주민 더 좋아 .

103007 @ 해랏수과? 멧솔때부터 헛수과?

103007 #2 우리가 좀 커가지고 봐가지고. 불려 불린 것이 더 곡식이 좋추기.

103008 보리밧 김매기는 멧번 헉니까?

103008 #1 흐 번 매고 두 번만 매가민 좋나게. 보리커부러.

103008 @ 아, 초불 두불까지?

103008 #1 말재 두불 흐뵘 주서취사 밧이 흐뵘 깨끗해여이. 흐불 때민 좋나마는 경해도 두불까지 주서취사.

103008 @ 초불이엔 안헉 흐 불 두 불?

103008 #1 으. 초불매고 말재 매젠흐민 두불은 그자 영 기영이라도 해여취사 깨끗해낫저게.

103008 @ 보리밧 김매기는 멧번 뵘니까?

103008 #2 검질 흐번 뵘때도 두 번 뵘때도 있고.

103009 @ 그러면 어떤 검질들이 자람니까? ㄱ란지 대완지.

103009 #1 아이고 검질 ㄱ랏은 여름에 조에 나는 거고이. 또 저울에 이제 보리 왔다 나는 건 대우리엔 허는냐 잊어붙어졌저. 그디 진풀 곁은 거, 또시 이제 또 흐나 무싱거렌 헉게 이름잊어붙영 모르켜. 소쟁이도 잊주마는 건 하영 안 나고이, 진풀이영 개자리 그것들 낭으네 매낫저. 여름엔 또 재완지 여름에 나는 건이 고랏이 조에 나는 것덜, ㄱ랏 재완지 다 검질도 지철에 나 나는 거 이. 겨울에 나는 건 겨울에 나고 여름에 나는 건 여름에 나꼭 응 경허는 거라이.

103009 @ 보리밧던 어떤 검질이 자람니까?

103009 #2 검질 뵘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대오린 그건 막 보리 케 가사 뵘아붙고게.

103009 @ 다른 검질 기억나는 거 잇수과?

103009 #2 보리 대오리 말고 무싱거고. 보리 나올 때 재완지 곁은 거. 이런 풀 곁은 거 막 막 나오주기.

103010 @ 보리수확은 유월초 예?

103010 #1 아니 수확하는 거? ㄱ만시라보져. 어느제 해져시 ㄱ만시라보져.

103010 @ 초여름 늦봄?

103010 #1 보리 빌 때 7만시라보져. 보리 빌때가 스월 음력 스월 오월 음력으로 양력 모른다. 그 정도 돼실거여 아메도.

103010 @ 어떻비영 어떻뭉언? 어떻.

103010 #1 보리 빌때가 5월, 비어 낱 들령 뭉언 이젠 클로 흘탕 집이 오랑 경해 영 영 도깨로 두드려났쨌. 옛날덜은 이제 말째라간에 그냥 기갱이로 다 장만했쨌마는 말째라 가든 또 비는 거영 다 기계로 해낫져 우리 처음엔 호미로 비어당 이 비어놓앙 그디 영 패와낱 몰랑 뭉언 왕, 이제 또 클에 흘탕, 경 도깨로 두드려났쨌게. 옛날 말째라 가난 기갱이로 다 비고 그냥 장만행 내려와낫쨌게. 말째라 가난 처음엔 경 비어근에 해낫져마는 말째라 가난 기계로 비영 그냥 그디서 또 장만해정 이제 내려받았져. 게 보릿댄 알러레 홀타지고.

103010 #1@ 보리비레 꼭 다녔었고 보리 그거 안행 무싱거 행 살아 거 해사 아 이덜도 먹고 우리도 먹고 행 살 거 아니라.

103010 @ 풀 이름들 기억 나는 거예 것도 다 옛날 제주말이라부난. 그든 보리 수확할 때는 베고 묶고 흘트고.

103010 #2 묶어가지고 실러다가 흘탕.

103010 @ 벨 때는 호미로 베고예.

103010 #2 호미로 베고.

103010 @ 뗏 살때부터 베봤수과?

103010 #2 우리 어릴 때 커갈 때.

103010 @ 묶으는 건 못으로 못으로예?

103010 #2 거 보릿대로 영영 행 묶으주게.

103010 @ 보릿대로 영 꼬아 가지고 뭉으네 그걸 어떻 헛수과? 어디 가져가 집이?

103010 #2 집이 실러다가 흘탕.

103010 @ 보리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10 #3 보리를 수확허젠허민 보리 비명 뭉으네이 밧디서 흘탕 다 장만했왔지마는, 지금은 밧디서 그냥 막 장만허명 기계가 서라 큰 거 참 지금은 농사할 만허여.

103010 @ 옛날 했던 거 굴으쳐 줍쨌? 호미로 베고.

103010 #3 호미로 비영.

103010 @ 묶고.

103010 #3 영 호미로 비명 즈근조근 다 허여 나가주기.

103010 @ 예.

103010 #3 경허든 이제 므른 다음에 이제 묶는다. 묶은 다음엔 딱딱 데메으정 집이 집에 막 시꺼온다. 집이덜 시꺼당으네 보리 영 놀 뵙 “어 그건 보리 이 집은 많이 비였구나”놀 허는 거 뵙 놀 눈 거 뵙 얘기헌다.

103010 @ 아 놀 뵙 여기 많이 허였구나, 놀 허는거라예.

103010 #3 응.

103011 @ 보리 불리고.

103011 #1 으게. 두드렁 도깨덜 두드렁 마당에서 흘탕.

103011 @ 메타허곡예?

103011 #1 으게. 말제라간안 편안해연.

103011 @ 다음 훑기 도리깨질까지 헨예.

103011 #1 으게. 장만해났져.

103011 @ 꺾테기 벳기지 못헌 건 그냥 손으로.

103011 #1 아니여, 손으로 못 벳긴다. 기쟁이에 강 지고 이 방앗간 셔났져. 응 방앗공장에 강 저당 쫄 해여근에 그레에 또 곶앙 그냥 그 저 통채 허젠허민 밥 오 래난 이 경허멍덜 해났져.

103011 @ 흘탕 클이엔 허지예. 흘탕 보리클.

103011 #2 보리클에 흘탕.

103011 @ 보리클에 흘탕 다음 타작 도깨질?

103011 #2 도깨질 도깨질도 허곡 몰로도 불리고 곶.

103011 @ 몰로도 불리고예, 몰로도.

103011 #2 불림도 허곡 마당에서.

103011 @ 마당에서예, 게민 도깨로 멧명 영.

103011 #2 도깨로 두들림도 하곡.

103011 @ 아버지 어머니 다 그치.

103011 #2 응. 다 그치.

103011 @ 그른 보리를 집이 가정 강, 보리타작을 도깨질헙니까 홀터?

103011 #3 저 홀트주기. 홀팅으네 이제 장만헨댄 기계에 담앙 막 쫄 나온다. 기계 영 돌아가명.

103011 @ 기계담기전이 도깨질?

103011 #3 도깨질 허는 사람도 싯주마는, 도깨질 거 얼마나 허는 짓고. 그 경 엿다마는.

103011 @ 삼촌 멧 살때부터 기계가 나왕 헛수과?

103011 #3 나 기계가 나온 때가 군대 강 오랑 뒤 헨 때난 오래 뒤서. 기계 나온 지가.

103011 @ 도깨질 헨때는 옛날에 헤난 거지예.

103011 #3 으 옛날이고.

103012 @ 그레에 곶앙 연자매는 연자매도 이섯수과?

103012 #1 연자매가 뭐꼬?

103012 @ 돌그래, 돌방애?

103012 #1 으. 돌방애도 셤. 그거 쉼 해영 등글이멍 이제 그레 낡 이제 돌방애 로 방애 청.



103012 @ 물방애가 월령에는 멧개 이섯수과?  
 103012 #1 요라개 셔났져. 저디도 흐나 요디도 하나, 저 말상아래 한질 네 개나  
 알아점져. 네 개 셔난 거 등글이멍 그디서 쳐져이.  
 103012 @ 어서 아무것도.  
 103012 #1 엇나게. 걸 뵈허레 허느니게.  
 103012 @ 아오야 그거 어떤 마을엔 오고생이 보관웬디도 이서예, 신엄도 있고.  
 103012 # 엇날 꺼렌이.  
 103012 @ 덕수도 하나 잇고예.  
 103012 #1 아이고 거 잘 놔뵈져. 모른다게 요새 사람덜은.  
 103012 @ 계난마씨. 마을에도 명물이 뵈가지고.  
 103012 #1 아이고 거 봐. 우린 보민 알지이. 옛날 우리 봐나난. 새로 난 사람덜  
 은 모른다게. 거 잘 놔뵈져.  
 103012 @ 물방애가 네 개가 이섯구나예?  
 103012 #1 월령 으게. 네 개가 말땅아래 한질에 무긋디 네 개 알아점져. 네 개  
 나 셔났져.  
 103012 @ 저 그레로 곶아?  
 103012 #1 그레로 근백이 어떻허여게.  
 103012 @ 쟁 그루를 체 칭 어떻행 먹었수과?  
 103012 #1 어떻허여 그루 물에 탕먹고, 개역이라고.  
 103012 @ 밥에도 비병먹고 우미에도 낱 먹고? 우미?  
 103012 #1 아 우미. 아 난 우유엔 햄젠 먹는 건 그치.  
 103012 @ 요즘은 우유에도 탕 먹주마는.  
 103012 #1 맞주 요새 우유가 어디시니 엇날.  
 103012 #1 개역해영 그자 밧디 강으네 물에도 탕 먹고 밥에도 부병먹고.  
 103012 @ 그 보리썰은 어떻게 장만헐니까? 물방애로 어떻.  
 103012 #1 아니 저 이디이 이 이디 방애도 이제 두 개백이 엇다마는, 옛날에도  
 우리 방앗간에 안 강 이 물방애렌 현 것이 싯져. 돌멩이 영 행 빙빙돌멍 허는 그거  
 물방거리엔 현다.  
 103012 @ 이 때는 연자매 멧돌에 장만을 합니까 보리썰을?  
 103012 #2 아 거 다 장만해영 이젠 물령 이젠 먹게 뵈야 곶주기 저거.  
 103012 @ 먹게 뵈야 곶에 낫당 먹게 뵈민 여기가 물방애가 멧개 이섯수과?  
 103012 #2 물방애가 하나 둘 네반디 셔나신가?  
 103012 @ 월령엔 물방애가 네반디예, 거기는 저 초가 지붕도 영 싯와났수과?  
 네 개 다?  
 103012 #2 어 싯와서.  
 103012 @ 다 네 개다. 물방애가 네 개 이섯고 거기에 참여허젠 허민, 다 즐섯당  
 삼촌네 많이 헛엇수과?

103012 #2 많이 허주.

103012 @ 많이 행 거기 어머니 뜨랑 강 어머니가 험니까? 아버지가 험니까?

103012 #2 뵈을?

103012 @ 뵈방애가 허젠허든 아버지?

103012 #2 뵈방애가 허젠허든 식구가 전부 가도 뵈여. 전부 그디 가가지고 뵈뵈 그 저 뵈 헤가지고.

103012 @ 삼촌은 어렸을 뵈 어떤 걸 도왔고 나중엔 나이 들어그넨 뵈을 이렇 게?

103012 #2 뵈을 영 헤영 뵈뵈 돌리게시리 뵈에 사가지고 영 뵈뵈.

103012 @ 뵈뵈 험니까? 뵈시끼 이런 식으로 뵈뵈 험니까?

103012 #2 돌아가주기게 뵈뵈.

103012 @ 뵈뵈 말한테 때립니까?

103012 #2 아 말 안 들민 두두림도 허곡, 어러려 소리도 허곡.

103012 @ 소리로 혼 번 해봅서.

103012 #2 와야“혼저 가자 영 헤영으네 말도 허곡 “워러러려”허주기 워러러려.

103012 @ 말이 험니까? 소가 험니까? 뵈방애니까 뵈이?

103012 #2 뵈이 허주기.

103012 @ 무사 손 안허곡 뵈이?

103012 #2 소도 허여.

103012 @ 겐디 뵈이 말을 더 잘 들은 뵈 험디다예?

103012 #2 뵈이 좀 재주기.

103012 @ 재여 게민 밥 보리밥 먹고 허곡 보리쌀을 방앗간이, 없을 때는 어떻 게 뵈들로?

103012 #2 뵈들로 곶앙.

103012 @ 어머니가 허는 거 뵈수과?

103012 #2 뵈들로 곶앙으네.

103012 @ 삼촌은 안헤뵈뵈아예?

103012 #2 응, 안헤뵈뵈주기.

103012 @ ㄱ레는 안 곶고?

103012 #2 안 곶고.

103012 @ 어머니가 허곡?

103012 #2 어머니가 허곡.

103012 @ 뵈방거리?

103012 #3 뵈방 뵈방.

103012 @ 뵈방?

103012 #3 으. 이 뵈뵈이 동그랑헌 거 거 안뵈난?

103012 #3 예 뵈뵈수다. 뵈방애렌 험니까? 뵈방.

103012 #3 물방 물방한다. 그걸로 그디 강 쇠메왕 빙빙 돌아댕기멍 찌주기.  
 103012 @ 쇠메왕 빙빙돌아지멍 찌민, 그 보리쌀을 걸 술보리렌허지예?  
 103012 #3 으게, 쓸보리.  
 103012 #3 마레 마망을 뭐렌 험니가? 마레 이걸 마레즈룩이엔 험니까? 마레즈룩.  
 103012 #3 마레즈룩.  
 103012 #3 그리고 찢르는 나무를 뭐렌허고?  
 103012 #3 마레즈룩게.  
 103012 #3 여기 가운데 저 웃착하고 아래착 찢르는 거 그거 이름 모르쿠과?  
 103012 #3 그 저 뭐 뭐엔허.  
 103012 #3 조똥이렌 헛덴 허드라고예.  
 103012 #3 찢르는 거?  
 103012 #3 거 옹크레 들어가사 마레 곱아질꺼 아니가?  
 103012 #3 게메. 그거 뭐 이름 뭐시라?  
 103012 #3 이름 엇수다. 그자 마레렌 허주.  
 103012 #3 할머니가 좇똥이렌 헛덴허멍.  
 103012 #3 좇똥은 싯져 좇똥은 그 가운데.  
 103012 #3 가운데 찢르는 거?  
 103012 #3 으. 그거 보고 좇똥이렌 현다.  
 103012 #3 구멍은 이름은 모르쿠과?  
 103012 #3 구멍 이름은 난.  
 103012 #3 흑이엔 현다. 그거 마라 흑 저.  
 103012 #3 남방애.  
 103012 #3 남방애 그거 저.  
 103012 #3 들러가가른 영영 영 들어치곡 영영 들러 강 따로 영 들어치곡 헤가  
 든 흑?  
 103012 #3 마레흑.  
 103012 #3 마레흑 마망을?  
 103012 #3 들어가는 거 흑 쓸 들어가는 거영 흑이엔 영 이만허주기 이만허문  
 이디 영영.  
 103012 #3 옛날엔 그 마레글멍 제사 돌아와가민 건덕허영 부경으네 식계해나고  
 해나세.  
 103012 #3 아 게난예 이런 말을 모르는 할머니고 아는 할머니고 그런 것들  
 때문에예 보릿짚 보릿대렌 현다.  
 103012 #3 당그네?  
 103012 #3 아니 마레 영 노민 이디 보리 낱 술술 그레 영 드물리지 안허느냐  
 아구리 아구리똥센 곱아?

103013 @ 보리쌀로 개역을 하면 비올 때 개역해영.  
 103013 #1 으게. 그 보리 해영 볶양이 골민 개역웬다게. 쟁 밧디장 거 카먹고  
 먹기 좋게시리행.  
 103013 @ 겨민 밥 행 먹고 밥 해봣수과? 보리밥.  
 103013 #2 밥 해보주기게.  
 103013 @ 어머니 밧디 가불민?  
 103013 #2 밧디 가불민.  
 103013 @ 누나덜 있고 허난 뉘.  
 103013 #2 누난 뉘 농사덜 짓고.  
 103013 @ 개역은 어떻 행 먹엇수과?  
 103013 #2 개역.  
 103013 @ 보리개역 만드는 거 봐봣수과 비 오민?  
 103013 #2 으. 비오민 슬뚜쟁이 낱으네 볶양 볶아가지고 그거 이젠 그 저 맷돌  
 거시기에 낱 곶아 곶양으네 줌질게 곶아 가지고.  
 103013 @ 채청.  
 103013 #2 치영 ㄹ져오곡 헛주.  
 103013 @ 쟁 우미에 낱도 먹고 물에 칸 먹고.  
 103013 #2 물에 칸 먹고.  
 103013 @ 보리 그거 개역 당원 그런 거 낱 드난 가루도 먹고 당원도 놓니까?  
 103013 #2 설탕.  
 103013 @ 설탕 옛날에 옛날 설탕이 어실 때도 이섯주.  
 103013 #2 아니 당원 겐 설탕 안 헛 설탕 놓는 거야.  
 103013 @ 그니까 들게예?  
 103013 #2 들게 멘든 거.  
 103013 #3 그거를 개역을 맨들거나.  
 103013 #3 응. 개역은 또 이제 그 개역 맨들젠허민 방애 강 거 찌지 안행 보리  
 물리왕, 강 저 방앗간에 강 개역 ㄹ는 기계에 강으네 개역 곶아 당 먹는 거 아니가  
 이. ㄹ레에도 해낫져 ㄹ레 개역 먹젠허민 영영 둘앙.  
 103013 @ 개역.  
 103013 #3 볶양.  
 103013 #3 콩도 섞으네.  
 103014 @ 보리ㄹ시락 보리ㄹ시락에 얽힌 거 잇수과? ㄹ시락.  
 103014 #1 ㄹ시락 괴양 브름이 알러레 가게 불령 사람시레 오지 못허게 사람  
 쫄러부령 살아지느냐. 항상 브름 알러레 가게끔 해사 불려근에 브름 우이 오지 못  
 허게 허지. 브름 우이 왕 뉘느냐 브름아래 가사 저래 영 배겼떠레 내치곡 사람시레  
 안오지.  
 103014 @ 보리낭쟁이는 어디 놀 핫수과?

103014 #1 응. 놀어났져.

103014 @ 놀어난예. 보리 낭쟁이 놀영 거기서 얘기날 때 북덕자리.

103014 #1 그것도 아정당 끝안 나고이, 보리낭쟁이 얘기날 때 방에.

103014 @ 멧 번째까지 그축 행 낫수과?

103014 #1 몰르켜. 우리 ㄴ자 경 해실거라.

103014 @ 부엌에가 아니고 방에 걸 깔앗수과?

103014 #1 게. 그것도 ㄴ자 부엌에 아니고 방에.

103014 @ 방에 북덕자릴 끝안?

103014 #1 보리낭. 우리 어릴 때 그것이 보통 허는 일이니까.

103014 @ 피도 나오곡 태반도 나오곡 허는 보리낭에.

103014 #1 게 그거 문딱 해당 불 캐와불고게.

103014 @ 불 캐우고예. 어느 번째 아이가 날 때 아팠디가?

103014 #1 야이 문딱 아프쥬게. 아니도 아프느냐.

103015 @ 그난 멧시간 동안 막.

103015 #1 몰르켜. 멧시간사 틀류와신디게. 그거 아기 나본 사람 침 또 낱첸은 안허주마는 또시 그거 경 생겨근에 또 나오곡 나오곡. 나도 아홉 개를 나세게. 여섯 갠 커도이 딸이 네개 아덜이 두 개 이제 컷져. 나긴 아홉 겔 낫져 그때게. 아이고 답답 답답 아이젠 하나 두 개난 설른다마는 아이고 답답이라.

103014 @ 아기 낱단도 뭐허고예. 아홉 개 낱텐허난.

103014 #1 아홉 개 난게.

103014 @ 게난 세 갠?

103014 #1 죽어불곡, 세 살난도 죽고 그 안에도 죽고 여섯갠 컷져. 아홉 개 난.

103014 @ 보리 고시락에 대한 그런 거 어릴 때 막 이룬디 두드레기 나곡.

103014 #1 무사 아니라게. 까락까락 춤 그거, 허영 좋을 사람 흐나 어실거여. ㄴ시락 어릴 때덜은 그거.

103014 @ 고시락 보릿짚 보릿고시락 얘기라든 가, 기억나는 거 잇수과?

103014 #2 아아, 그런 건 안 허주마는.

103014 @ 보릿놀 놀 때 어떻 도움광?

103014 #2 놀 아아 보릿놀 놀 때 그거 머.

103014 @ 아버지가 험니까?

103014 #2 영 아버지가 허면은 아레 상 올려줘야.

103014 @ 게민, 올려주고 나중에는 아덜덜이 건 도와줍니까?

103014 #2 아덜이 도와줘야지.

103014 @ 느람지는 누가 험니까?

103014 #2 느람지는 아버지가 다 하지.

103014 @ 그거는 뭘로 험니까? 새로?

103014 #2 새로 새로. 영 그저 영 느람지 멘들앙.

103014 @ 누람지를 우에 더끄는 이유는 비완 젓지 않게?  
 103014 #2 비완 젓지 않으게시리 허는 거주기.  
 103014 @ 보릿눌은 버리지 안행 다 그추룩 몽땅 그걸로 저 부엌에서 정지에서 불도 습고.  
 103014 #2 옛날은 보릿대로 전부 밥을 헛주게.  
 103014 @ 밥을 허고 또 통시에도 저 바싹허게도 허곡, 소하고는 관계엇수과?  
 보리낭 깎아주지 쉼왕에.  
 103014 #2 무사 양 깎아줘게, 질락질락 허거든 깎아주거든.  
 103014 @ 질락질락하면예 먹진 않허고예. ㄴ시락은 ㄴ시락 들어봤수과?  
 103014 #2 ㄴ시락 옛날은 이 저 ㄴ시락해영 뭐 해낫주기게. 불때영 이 저 구들  
 에 득시게 굴묵행으네, 저 그디 낳으네 불슬황 딱딱시.  
 103014 @ 쉼똥 똥똥 주서난 경험도 잇수과?  
 103014 #3 그런 것덜 때문에 보리빠영 현다. 옛날 보릿대로 해영 우리 밥도 행  
 먹어나세.  
 103014 @ 보릿대는 어떻 헛수과?  
 103014 #3 밥 헤먹을 때 늘게 지들케.  
 103014 @ 지들케로 늘 놀영.  
 103014 #3 놀엇단 이 소도 잇잖아 소. 소에 문치지 말렌 그 거름 거름허게끔 그  
 저 영 허게끔 곁아준다 복삭허게. 통지에 돼지소곱에도 담아주곡 돼지소곱에 곁아  
 준다 딱시게 허영.  
 103014 #3 ㄴ시락은 다 불케와분다.  
 103014 @ ㄴ시락은 굴묵 지들 때도 허고.  
 103014 #3 굴묵도 고시락은 잘 안현다. 잘 고시락은 잘 부트질 않허여 잘 써지  
 질 안허여. 게난 똥 똥똥덜 싣지 않으냐 금방 가민 금방 주서당 그런 거.  
 103014 @ 똥똥으로 굴묵을 짓고예?  
 103014 #3 으.  
 103015 @ 오빠덜은 공부허레가곡?  
 103015 #1 으게. 딸이나 우린 난 큰딸이곡 부지런히 마당에서 흘탕 두들렁 그거  
 쳐당.  
 103015 @ 삼춘은 그렇게 어머니영 일만 일만 헛구나.  
 103015 #1 게민 무싱걸 허느니.  
 103015 @ 거난 아이구 사연이 잇더라고예.  
 103015 #1 그뎌 무덤 이녁애긴 영흐나 정흐나 죽으면 생각나는 거 죽어분 건  
 잘도 고와라마는 덕행이렌 이름도 지와나곡이, 또 여덱 들마니 죽은 스나이 놈도  
 경 셔나곡 이제 여섯젠 컷져. 딸 니개 아덜 두 개, 아홉 겐 난 아이구 거 못살앙 먹  
 을 것도 어시명 이젠 하나 낭 설른다마는 아이고 답답이라.  
 103015 @ 어떻 얘기무덤도 해줍니까? 그냥 묻은 걸 몰라?

103015 #1 옛날은 묻었따허민 어디 묻은 건 몰라.  
 103015 @ 어머니 그거 피눈물 나는 거시 그 말이지예?  
 103015 #1 아니 그자 아긴 죽으민 물어부는 걸로 가곡허니가 어디간 무더분지 몰라이.  
 103015 @ 슬프잖아 어쨌든.  
 103015 #1 흘 수 엇쭈기. 죽어분 거 살릴 수도 엇고. 옛날은 잘 죽언이 아기덜 이. 춤 약이 어서나신가이.  
 103015 @ 약도 없고예.  
 103015 #1 이젠 하나 두 개 나민 안 난다.  
 103015 #1 정성을 또 그만큼 허곡 병원의술이 엄청 발달허곡. 얼마나 열악했수 과?  
 103015 #1 맞다게. 약도 좋곡이. 그 먹을 건 어서도 아긴 하영하영 난.  
 103015 @ 계난 어떻 생겨불민 어쩔 수가 어시난.  
 103015 #1 계메 말해주게. 사람덜이 어리석언 거라이. 이제들은 하나 둘 낭 설 러부는네게.  
 103015 @ 보리용시 혈 때 어떤 추억이나, 보리피리 불엇던 거나 보리 뭉 분덴 햄수과? 주냉이 그런거나 아니면 아이가 ㄴ시락에 막 두드레기 헛거나 추억 엇수 과?  
 103015 #1 (웃음)아이고 모르켜마는 보릿대에 무싱거 불명 해난 건 알아점져.  
 103015 @ 그 이름 알아지쿠과?  
 103015 #1 모르켜. 일름은 뭉센사 해신지.  
 103015 @ 아이구, 보리는 누게나 다 지엇지예?  
 103015 #1 누게나마 거 안 지영.  
 103015 @ 걸로 살앙 먹고 살아야 하니까.  
 103015 #1 으게. 누게나 거 안허민 먹을 것이 어신디.

### 조 농사

103016 @ 에구 조농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어마씨?  
 103016 #1 줍씨 빼영 불량.  
 103016 @ 조농사는 보리농사보다 쉬웠구나예.  
 103016 #1 으 쉽나 으.  
 103016 @ 겨른 조농사로 감수다예. 조농사를 할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헉니까?  
 103016 #2 준비는 무싱거 셔. 준비 무신 저.  
 103016 @ 아까 걸름내는 것처럼 보리농사처럼 준비.  
 103016 #2 그런 거 어서. 씨만 잘 놔뒀당 밭 갈아 가지고 빼여 경헤영 불려.  
 103016 @ 여자가 뿌리고 남자가 뿌리는 건 엇수과?  
 103016 #2 무사, 남자가 다 뿌리쭈기.

103016 @ 여자가 안 뿌립니까?  
 103016 #2 여자도 뿌리는 사람 있어. 허지만 남자가 대강 다 빼여.  
 103016 #3 삼촌은 조농사 할 때 그 저 흥애기소리나 이런 것도 그런 거 나중에 불러줍서예 기억해냈당예.  
 103016 @ 조 농사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16 #3 조농사허믄 상당히 힘들어. 저거 물 비집헌 밧도 잘 안되고 물왔디도 안되고 물 비집헌디도 잘 안되는 거여.  
 103016 @ 물 비집헌디가 뭇파?  
 103016 #3 물 땅 개지락허지 안허느냐게.  
 103016 @ 물 많은 디.  
 103016 #3 응. 그런 것이 그런 밧들은 잘 안된다. 조가 겐 조농사 해노믄 그 옛날엔 우리 흐린 좁쌀이엔 혼다. 그걸로 행으네 막걸리 행 먹으민 참 좋나.  
 103016 @ 아 흐린 좁쌀로 밥행 먹으민 맛좋아.  
 103016 #3 아니 술 술 막걸리.  
 103016 @ 아아 막걸리에.  
 103016 #3 아주 참 되게 좋나.  
 103016 @ 그게 맛이 좋다는거지예?  
 103016 #3 응.  
 103017 @ 멧월달 걸름 조팍검질도 똑같아마씨 걸름?  
 103017 #1 아니여게. 존 걸름 안흐곡.  
 103017 @ 조밭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17 #3 거름 거름은 경 뭐 안헌다. 이 보리끄르에 허는 거난 조 게믄 그 보리끄르에 다 거름 해져세. 게난 이제는 조 혼 번 비려보난 비료도 흐꿈 주곡 허는 생이라.  
 103017 @ 비료 옛날에는 뭤이나 몹 이거 했수과?  
 103017 #3 으. 어디 경 성으네 그걸 조 혈때ㄷ정 다 줄 말이고. 그것도 으성 허영 이젠 저 비료덜 살기 조난 저 비료도 강 혼 멧통 ㄱ져당으네 깔앙으네 쥬.  
 103017 @ 옛날엔 조팍 걸름이 별로 어섯다예?  
 103017 #3 으. 벨반 엷다 보리갈젠허믄 막 거름 헤낫져.  
 103018 @ 응 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18 #3 조게 유월들에 유월에.  
 103019 @ 씨를 잘 뿌려야 뤼겠다예?  
 103019 #1 그냥 씨를 빼영 이 요만씩 세와줘사 조가 고고리 나오지 좇이민 안웬다게. 걸 메어줘사 해여게. 글갱이 드물앙 방 벌영 세와줘사 조가 뤼주이 복작허영 안웬다게.  
 103019 @ 그 좁씨 뿌릴 땐 어떻허여마씨?  
 103019 #1 조씨 뿌령 영영 조 씨로 뿌려이. 흐꿈 낭 요만이허민 방벌령 세와줘



사 글쟁이로.

103019 @ 아 조가 나민 또 방 벌렁 다.

103019 #1 으게. 응 다 검질매취사게. 그거 검질이영 조영 두망두망 세와취사 조가 크주이 그 복작허영 안웁다.

103019 @ 속은덴 허지예?

103019 #1 으 속아취사 헨다게.

103019 @ 멧 월달에 조를 줍씨를?

103019 #1 줍씨가 그만시라. 유월 칠월에 뿌리는 거 아니가, 잊어불어졌져?

103019 @ 봄에 뿌리지 앓고마씨?

103019 #1 유월 칠월에 뿌렁.

103019 @ 가을에 낱젠허민 여름에 뿌리는 거 아니? 보리농사다음?

103019 #1 으게. 그 보리 허여똥 보린 겨울에 똥는거고 조농사는 여름에 똥는 거 아니가? 경헨다게. 지철이 똥사주이 거꾸로 헥은 안웁다게.

103019 @ 지철에 줍씨는 아까처럼 일단 뿌려서 한다.

103019 #1 꼭 뿌려사 방도 이만씩 세와취사 똥주, 좇이민 안똥여. 조 존 좇이민 안똥여.

103019 @ 어떻 똥니까?

103019 #2 그냥 손으로.

103019 @ 착착 글루 글루.

103019 @ 그른 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조똥 걸름은 어떻게 마련헥니까?

103019 #2 조 걸름 걸름 앓어.

103019 @ 걸름은 앓고 오쭈이라든가 똥통시 그런 건?

103019 #2 어서.

103019 @ 줍씨 똥영.

103019 #2 줍씨 똥영 물로 블러.

103020 @ 조를 밟을 때는 물테 남테 돌테 꾸게 이런 거 다?

103020 #1 경헨난이. 똥아취사 존이 똥지 안으민 굽벌러정 안웁다게. 옛날엔 믱 쉬로덜 막 블러났져. 똥똥돌똥 게난이 복삭허민 안똥니까 딱딱 블화취사 조 보린 그냥 물어만 주민 똥꼭 걸름에 섞은 거난.

103020 @ 딱딱허게 블러취사 겐디 말도 잇수과?

103020 #1 물도 셔났져게. 막 그걸 블르젠허민.

103020 @ 물도 잇고 쉼도?

103020 #1 쉼 밧 같고.

103020 @ 블를 때 안허고?

103020 #1 블를 때도 허주마는 물이셔사지 딱딱 블라취사 똥났져게.

103020 @ 물 멧므리.

103020 #1 물르켜게. 멧므리나 셔 나신지.

103020 @ 멧뜨리정도 새끼영 막?  
103020 #1 새끼 나민 드러 나와나고이.  
103020 @ 열뜨리 봐났수과?  
103020 #1 열뜨리뜨정은 선디 말안디 원 멧뜨린 모르켜 잊어불언.  
103020 @ 서너마리?  
103020 #1 하여튼 멧뜨린 댓뜨리뜨장은 셔사 밧을 불려이.  
103020 @ 댓뜨리가 멧뜨리파?  
103020 #1 다섯개여 응.  
103020 @ 그른 사람도 한 식구덜 다?  
103020 #1 사람도 ㄹ치 조차 텡경 불려사.  
103020 @ 그 른 늑 빌영도 경 같이 수눌양도 허고?  
103020 #1 그거 수눌명 잘 블라줘사 옛날은 조 안블랑은 안웬덴 현다.  
103020 @ 한 열명정도는 열명 다섯명?  
103020 #1 뭐생 ㄹ람시? 몰르켜. 걸 어떻 세느니게. 이녀 혈 만큼 게.  
103020 @ 어쨌든 가득해영 고지대로 막 뵙아야.  
103020 #1 그냥게 으. 대각허게 블라줘사 존 뵤났져게. 아니 불르민 북삭정 아 니뵤여 곱들러정.  
103020 @ 블라줘야 뵤고 말태, 남태 돌태, 끽게? 무슨 말이 알아지쿠과? 남태 나무로 뵤거 아니 선포?  
103020 #1 선비 선비 남태가 아니고 선빈 끽셔사 게사 씨도 감춰지꼭 이제 허 여 낵 이제 불르다게 선빈 꼭 이셔사.  
103020 @ 선빈 꼭 이셔사에 선포 뵤로 만들어마씨?  
103020 #1 저 선비낵이 잇나 배겼디 저 선비낵이라고이. 그거 해영당 영 허여근 주둥이 묶영 영영 곱로로 곱로로 앵혀줘사 이제 낵작허영으네 선포거. 그 우이 둘 두어 개 놓고 행 끽셔주민이 맨드락허연 불르기 존나. 우이 낵작허게 열건 요 우트 레 둘 두어개 낵 끽셔주민이 그 저 무시거 혁이 낵드락허연 불르기 좋나게 그냥은 불르기 곱언게.  
103020 @ 흙덩이도 부쉬야 뵤는가?  
103020 #1 게. 곱베라고 거 부수는 거. 곱베라고 곱베.  
103020 @ 곱베 여자도 해마씨?  
103020 #1 게게, 요만이헌 거. 이레 영 즈룩부쨌근에.  
103020 @ 곱베로.  
103020 #1 혁 두드려사 냅쨌헨.  
103020 @ 씨 뿌리기 전에 곱베로 먼저 두드리고.  
103020 #1 경허난이. 그 씨 뿌리기 전엔 선포로 끽시민 맨지랑 현다게. 맨지랑 허민 그디 이제 병에 나시민 두드려사.  
103020 @ 아 씨 뿌려낵 선포질 허는 게 아니고?

103020 #1 저 무싱거꼬. 씨 뿌려놔도 해실지도 모르다마는, 어땡튼 고지 멜사놔사 씨 뿌려사 잘 간다게.

103020 @ 아 고지 멜사놔사예. 그문 흑병이 바수기 흑병에 허기 전에 설피부터 허여마씨?

103020 #1 설피해놔사 땅이 맨지락해근에 침 저 씨뿌려이?

103020 @ 흑병에 해난다음 설피해 난 다음 흑병애를 두드려 난 다음.

103020 #1 설피 허여놔사, 저 씨 빼영이 블라가명.

103020 @ 흑병애부터 하고 설피하카마씨?

103020 #1 거 식가진 해사게.

103020 @ 뭐가 먼저 흑병애가 먼저? 설피가 먼저?

103020 #1 설피 해사 이제 땅을 골라지, 납닥해연. 경 행 씨뿌려이 경해연 씨 뿌려 놔 모쉬발로 블와이. 걸 이 블르민 소곱더레 들어도가곡 땅도 맨짜하고. 경 행 든든해사 존 돼는 거. 그냥은 곱들러정 안웬텐 현다게. 보린 그냥 씨 묻어만지민 뉘도.

103020 @ 흑병애하고, 설피하고 모쉬로?

103020 #1 곱베 곱베 서사 그디 병에 두드려 주곡.

103020 @ 아 설피하고 흑병애하고.

103020 #1 흑병애가 그냥 저 무싱거로 따리는거주기.

103020 @ 곱베하고 설피하고 곱베하고?

103020 #1 것만 시민 갈아논 거 잠대로 쉼로 갈아논 거 설피 꼬서줘사 혁이 맨지락해그네 씨도 잘 먹고게, 그 고지 성은이 가는 딴 가곡 안 가는 딴 안 강이 경헨 현다게 맨지락허게 해 놔 씨뿌려 블라주민이 걸로 난다게.

103020 @ 아아, 난 설피질은 나중에 허는 줄 알아신디. 선비질이 먼저?

103020 #1 고지 멜라정 웬안허영 씨뿌려 블라주민이 이제 무싱거 현다게.

103020 #2 줍씨 빼영 물로 블러.

103020 @ 아아, 그거 듬성듬성 또 영 싱거야 웬텐 누계가 곱디다마는. 저기는 줍씨가 나민 아아 일단 먼침 블령 물로 블릅니까? 사람도?

103020 #2 사람으로도 블르고 소 물 어신 사람은 발로도 뽕으는다.

103020 @ 다 동원허영으네 어땡 행 고지마다 득근득근 어땡?

103020 #2 빙빙허게 돌주기. 영 빙빙허게.

103020 @ 아아 빙빙 돌명예?

103020 #2 겐, 블러지민.

103020 @ 그 밧 갈 때 흑덩이 바수는 거든가 설피라든가 이런 거 썰수가? 곱베로 흑병에 바수명?

103020 #2 밧갈민 병텅이가 나가던 거시기 나면은 거 곱베 두드려 까지게시리 경해연 그때엔 선비로 쪽 바닥을 골르게시리 골랑 경해연 이제 씨뿌려 가지고 블러.

103020 @ 씨 빼여난 다음 또 선피로도 허지 안헤마씨?  
103020 #2 경허질 안허고.  
103020 @ 경허지 안고 바닥을 굴랑 씨빼영 뽀아 불러 불리는 것이 수눌영덜 험  
니까? 동네사람덜 다 오랜 행 멧 명.  
103020 #2 동네사람덜 수누는 사람도 있고 안 수누는 사람도 있고 아마도 췌  
덜 없는 사람은 다 저 수눌영 허주기.  
103020 @ 그러면 블라난 다음 조가 나면?  
103020 #2 조가 나면 검질 너무 좇아도 메불고.  
103020 @ 좇으면 메주고 검질은 무슨 검질이 싯고예?  
103020 #2 재완지도 싯거고 무신 검질 여러 가지 나오주기.  
103020 @ 말테 남테 돌테 끄게 뭐 남테도 아까 밧 불릴 때 남테도 헤낫수과?  
103020 #2 남테 뭐여?  
103020 @ 나무로 만든 이렇게 둥글락 둥글락헌 건디.  
103020 #2 어. 그것도 허는 부락이 이서 것도 여기는 안허지.  
103020 @ 아 섬피만 허꼭 남테는 안하고. 아아 말테나 돌테?  
103020 #2 그런 것도 안허지.  
103020 @ 유월에예 조밭은 어떻게 밟습니까?  
103020 #3 췌로 불르지 어려하랴 허멍.  
103020 @ 물은?  
103020#3 물허여근에 영 선수 잡양 어려하랴, 돌돌돌돌.  
103020 @ 췌도 뽀고 물도 뽀고?  
103020 #3 췌 밧 가는 거고 이제 조 어염은 선비로 영 꺾나 췌췌허게. 땅을 췌  
췌허게 선비엔 헌거 느 모르지.  
103020 @ 알아마씨.  
103020 #3 으. 그 선비로 췌췌허게 꺾어 논 다음엔, 이젠 물 데령 물대여섯개  
데령어어영허 허멍 밧덜 불려가주기.  
103020 @ 아 췌는 안 뽀고예?  
103020 #3 췌도 헌 췌는 괴로왕 뷌느냐 밧도 같지 못헤영허는디, 그거 강.  
103020 @ 그믐 물때, 남테나 돌테, 끄게 이런 거 이섯수과?  
103020 #3 그건 다.  
103020 @ 선피만 이섯수과? 남테나 이런 건 안헛수과? 돌테, 남테, 물테, 끄게  
이런 건 어섯수과?  
103020 #3 뭐 감태 말헛다, 바당에 나는 감태.  
103020 @ 남테 남테. 나무로 췌 거. 이런 거 선피만 헛수과? 이렇게 굴를 때 밧  
굴를 때 선피로.  
103020 #3 아 선비로 헛 때 그 선비낭으로 허는 거 아니가?  
103020 @ 곱베 곱베로 흠.

103020 #3 곰베도 낭으로 팡허고.  
 103020 @ 흑병에?  
 103020 #3 으. 혁 따리는 그 곰베엔 한다 거.  
 103020 @ 곰베로 먼저 하곡?  
 103020 #3 으게. 영 불리명도 밧 멀리 안 강 어어하랑 불리명도 곰베로 헤영 특  
 툅 때리명 때린다게 비짜허게.  
 103020 @ 때리고 그 다음엔 선편?  
 103020 #4 병탱이 나와시민게 혁병탱이 나와시민, 영 흐썰 폐문 북삭허주گی게.  
 그거 선비 요영 허영 요거추룩 뉘영으네, 어깨메연 막 일로갔닥 저레갔닥 막 끄서  
 간다게.  
 103020 @ 선편?  
 103020 #3 끄서가민 마지막이여 거.  
 103020 @ 아 조는 언제 뿌려마씨?  
 103020 #3 뿌렁 헤세게.  
 103020 @ 그믄 선편가 씨 뿌린 뒤에 험니까?  
 103020 #3 으게.  
 103020 #4 씨 구쳐지렌 밧디 씨부리명 밧디 끄시명.  
 103020 @ 어떤 사람은 씨뿌리기 전에 쁘쁘하게 선편를 먼저 헤야 쁘텐 글습디  
 다.  
 103020 #3 난 그렇게 안 헤밧져.  
 103020 @ 아, 게민 제일 먼저 허는 건 밧을 갈앙.  
 103020 #3 으게 갈앙.  
 103020 @ 첫 번째 밧 갈고.  
 103020 #3 같은 이.  
 103020 @ 그 다음 흑병탱이.  
 103020 #3 선편로 혼 번 꺄나.  
 103020 @ 선편로 꺄고.  
 103020 #3 밧ㄹ량이 들어 강, 영 들어 갈거 아나가. 쁘쁘하게 혼 번 뿌려쥬. 거  
 멩케 돌 낱 거멩케 돌 낱 휘휘 끄서노민 씨뿌리기가 좋추기. 쁘 씨뿌려 으정 이젠  
 물로 불리명 형 허멍 불려가믄 이제 혁병탱이 나오민 곰베로 때리명도 허곡 이젠  
 마지막엔 선비로도 확 끄성 땡겨 불고게.  
 103020 @ 게난 동시에 험다예. 그냥 흑병에 허멍 선편허멍 씨뿌리명 또 이제  
 선편도 험 거 이시민 곰베도 허곡 경 안하민 말고 경헌다.  
 103021 @ 그믄 조팍검질은 멧번 땡수과?  
 103021 #1 아이구 옛날은 식불꺄지 맨 땡 헌다. 경헤야 편칙허영이 거츰은 조  
 북삭헌거 병탱이 풀영 어느정도 북삭허게 나주گی게. 씨 뿌리민 혼번에 쁘안허게 헤  
 지느냐게 기사 밧이 식번꺄지 매사 땡져게 그다음엔 하나씩 세와 낱 말젠 막보리라

고이 경해사 맛이 판칙헌다게.

103021 @ 그른 여기도 여름 조작벧디 조팍 검질 제일 어려워라. 식물검질 멜뎀 조가 막 커정 막 뭐파? 그거베여불고 막 조로 베여가지고 막 따잡게. 계난 막 힘들더라 얘기덜 있잖아예?

103021 #1 아니 메민 안웬다. 안웬다 영 방울방울 아니 세와주민 조가 아니웨여이, 보린 갈양 어느 정도 웨는다. 존 꼭 방벌령 세와취사 웨여. 경해사 고고리가 이만씩 홀고 복삭행은 고고리가 요만씩 허영 안웨여.

103021 @ 고고리가 덩더렁마께만씩.

103021 #1 으. 고고리가 덩더렁마께 혼다게. 흥알흥알 홀근다. 방벌령 세와사 그 때부터.

103021 @ 그른 조팍 김메기는 몇번 합니까?

103021 #2 두 번 두 번메지 식번 메카?

103021 @ 식물검질 검질도 메봤수과?

103021 #2 검질도 메보지.

103021 @ 언제 무슨 검질이 어려와마씨? 보리검질 조검질?

103021 #2 조검질 아맹해도 딱신 때니까 건 준다.

103021 @ 계민 그 저 조팍 검질멜 때는?

103021 #3 검질멜 뎀 괴롭나게. 하이고 대여섯번씩 메어야.

103021 @ 대여섯번예.

103021 #3 으.

103021 @ 식물검질 두불검질 초불검질.

103021 #3 네불검질 다섯 번까지 매여.

103021 @ 다섯 번까지마씨?

103021 #3 다섯 번까지도 매여. 검질 신 밝은.

103021 @ 아이고 세상에 조만마씨? 보리도?

103021 #3 보린 경 검질 잘 안 나온다. 이 저 겨울이난 경사허는지.

103021 @ 조검질이 제일 어렵구나.

103021 #3 조검질이 막 어렵나. 조혜영 잘 슈아취사 이거이 조 비짝허게 나오주 기. 땅골업시 경 나오민 씨 잘못 뿌리민 씨 잘 뿌려주는 사람은 어랑어랑허게시리 손 보기 좋게 헤영 허는 사람이 드물어.

103021 @ 아.

103021 #3 경헨 나 씨도 하영 뿌려 주레 덩겅주.

103021 @ 씨는 어뎡 뿌립니까?

103021 #3 굴ㄴ루에.

103021 @ 굴ㄴ루에 슈아취야 웨는거로구나.

103021 #3 경허른 이제 바짝 솟나. 한 메칠시민 경허른 강 영 이제 텅기명이 조 부드락 헌디가 싯나. 못 강 부드락 부드락헌디가 이서. 씨가 잘 못 뿌리민 그것도

검질도 굵으레 땡기곡 검질도 뽑아주고 경허는거 아니가.

103021 @ 굵으레 땡기고예. 게 속아주고 싱거주고 검질은 무슨 검질덜이 잇수과?

103021 #3 검질 그그 재완지 뭐여?

103021 @ 재완지여? ㄹ라지여 쇠비늬이여.

103021 #3 으.

103021 @ 췌비늬이여. 기억나는 검질덜 잇수과?

103022 @ 흥알 흥알 밧도 좋아야돼곡, 검질은 식불검질 어떤 검질이 이신지 아까 ㄹ라지 재완지?

103022 #1 아이고 진풀도 나곡 이 또 개자리라고 겨울에 나는 거고이.

103022 @ 개자린 겨울에 나마씨?

103022 #1 겨울에 나 개자리영 진풀이영이 보리왔디 또 이제 저 무시거꼬 대우리 보리왔디 나는 거 흥끔 영 커가민 대우리라고 보리답은 거.

103022 @ 조팠디 나는 검질은?

103022 #1 고랏이여게. 고랏에 재완지에 여름에 나는 거. 거 겨울에 나는 거 여름에.

103022 #1 나는 거 지철에 뜰랑 나 이.

103023 @ 검질들 조 수확은 언제 헤마씨? 가을?

103023 #1 가을에 헐 거여. 아맹해도 겨울 들기 전이 이 허영.

103023 @ 게른 조 수확은 어떻 험니까?

103023 #1 9월에.

103023 @ 9월에 묶영.

103023 #1 호미로 툃지않느냐, 호미 허지 안허느냐?

103023 @ 밧디서 조코고기 툃양 경헐 그거를.

103023 #1 그걸 집이 시꺼다 낱으네 방애에.

103023 @ 도깨 안허곡 .

103023 #1 아니 안헤여. 막 튀영 좋지 안헌다. 저 저 물방거리 이 이 물방애 싣지 않느냐. 영 췌메영 둘러메영 그거 행 많이 뽏나.

103023 @ 그건 다 순번들을.

103023 #1 다 싣져. 월령도 거 여섯반디나 싣져.

103023 @ 여섯반디마씨?

103023 #1 여섯군데.

103023 @ 여섯군데 이서난마씨. 세상에?

103023 #1 으.

103023 @ 즈작벧에 어럽주게. 거기도 이 조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23 #2 수확.

103023 @ 예. 조를 비영.

103023 #2 비영, 고고린 호미로 톨앙.  
 103023 @ 비영, 묶영, 호미로 톨앙.  
 103023 #2 톨앙.  
 103023 @ 그 다음.  
 103023 #2 그 저 고고리만 이제 딱허게 봉허여. 아니 저 이 거시기에 담앙.  
 103024 @ 베고 묶고 이삭만 따마씨? 이것도.  
 103024 #1 으게. 집이 오랑 호미로 영영영 해여근에, 이제 조 코고리이 톨아낱으네. 톨아낱으네 옛날엔 이디 도깨로 두드리나, 들방애에 강 등글이나 해사 걸 까 좌사게. 졸 도깨로 두드리나 경 해영 들방애에 강 등글이나이. 그 큰 들방애 씻지 안허느냐 그것에 낱 등글이나.  
 103024 @ 그든, 막 마을에서 그거 츠지허젠 줄 서겠다예?  
 103024 #1 멧반디 월령도 멧밭디 요만이도 하나 셔 나고, 셋동네도 하나 셔 나고 니개 시민이 츠레츠레로그냥 경안허민 마당에서 도깨로 두드려도 웬다.  
 103024 @ 밤에도 막 허곡예.  
 103024 #1 거 지 허지. 기리운.  
 103024 @ 새벽에도 허곡.  
 103024 #1 응. 도깨로 두드림도 허곡, 들방애에 강 등글임도 허곡.  
 103024 @ 아아, 비닐 그런 거에 푸대에.  
 103024 #2 담아아정 으져. 오랑 방애에 낱 이제 들방애에 낱으네.  
 103024 @ 타작 안해마씨? 타작 도리께.  
 103024 #2 아 도깨질은 잘 안하곡, 조는 방애에 놔가지고 등글여.  
 103024 @ 아아 그추룩 푸대에 담앙 등글여?  
 103024 #2 푸대에 이제 담앙 오랑, 방애레 이제 퍼 낱 영 등글영.  
 103024 @ 퍼 낱 등글영, 그든 조가 들방애가 필요하다예. 보리보다예 타작은 안허고 별로?  
 103024 #2 타작은 안허여.  
 103024 @ 들방애가 여기서 중요허구나.  
 103024 #2 등글이는 거.  
 103024 @ ㄱ실 들민 들방애 등글영 경허연 썰어담앙 맥에예.  
 103024 #2 맥에 딱 담아다가 이젠 그 이젠 불리우고, 뒤에 해야 돼거든.  
 103024 @ 불리우고 이제 고평애 다 담습니까?  
 103024 #2 이제 맥 해당.  
 103024 @ 씨 혈거는 조 ㄱ고리체 놔듭니까?  
 103024 #2 아니아니.  
 103024 @ 아 좁쌀 따로 좋은 걸로 조푸게기에 담앙.  
 103024 #2 좋은 걸로 놔 뒤 놔 뒷다가 씨 허주게.  
 103024 @ 덩더렁마께로 두드리고?



103024 @ 그거 다 언제 어서저 불었수과?

103024 #3 으, 아니. 해방된 것이 아니라 새마을 사업허멍 치우지 말렌 행 놔두난 치왕대껴부런.

103024 @ 신엄은 지금도 하나 이십디다게?

103024 #3 으 실꺼여. 신 부락 셔.

103026 @ 좁쌀로는 무엇을 합니까?(조밥, 떡, 감주, 술 등)

103026 #1 조쓸만도 조팝이라고, 거문 조 거무룽흔거 더 맛중나.

103026 @ 흐린조.

103026 #1 게메 흐린 것이 거문 거여. 다시 노랑 것도 흐린거 췌나. 무싱거예 딱랑은예.

103026 @ 모인조?

103026 #1 모인조. 노랑헌거 거 죽 췌먹고이.

103026 @ 죽 췌 먹는거?

103026 #1 죽도 췌 먹나. 그 모인 조.

103026 @ 아이덜도예, 애기 아플 대 베게도 허곡?

103026 #1 응. 베게도 거 조 낱 흔다.

103026 @ 어렸을 때 거 어른덜 말이 경 험디다게.

103026 #1 그 모인조 베게도 조 낱 흔다.

103026 @ 어른 덜 검은 조가 맞셔라, 어느 조가 맞이서마췌?

103026 #1 아 그건 저 무싱것고, 다 맛있젠해도 검은 조가 맞셔라. 이 노랑해도 또 검은 것이 췌저 또.

103026 @ 흐랑흐랑헌게 오매기 허는 건가?

103026 #1 오매기도 현다. 그 저 오매기해영 췌영 술도 행 먹고게, 오매기이 막 걸리.

103026 @ 술을 뭐헨 험니까? 고소리?

103026 #1아 고소린 닭으는거고, 영 오메긴 영 고망도 췌고 물 놔그네 숨아가민 그레 건 고소린 그 술 닭으는 거고. 이 오마긴 또 떡 멘들안 가운디 고망 딸랑 숨으민 익으민 또 걸로 막 이제 찌어근에 이 팽으로 허나 어떻허영 그걸 헤연 술 닭는 거고. 오마긴 오마긴 떡이여게.

103026 @ 해뵤수과?

103026 #1 아이고 허곡말곡. 우리 어멍네 허는거 ㄱ치 보리 곱은 거 봐나난 다 알암주기게.

103026 @ 감주도 해 봐뵤수과?

103026 #1 거 무싱 말고 곱감주, 곱감주헨 현다게.

103026 @ 곱감주는 보리로 허는거꽈? 조감주과?

103026 #1 아니, 그 저 무싱거고. 그저 곱감준 그저 곱 이 낱 그거 행으네 허민 든다게. 곱감주라고 곱 낱 그저 빨낭으네 빨나민 곱이라고이 든다. 보리 보리 물컷

따그네 영 놔두민이 빨난다 빨나민 그것이 꼴이라고이 든다게. 경해그네이.

103026 @ 보리 싹나는거아니예?

103026 #1 으, 싹난다게. 경허민 그거 이젠 들류와근에이 곶아근에 곶감주 멩글 주기. 감주 멩글양 게문 든다. 그거 짜그네.

103026 @ 그것도 헐 줄 아는 구나예?

103026 #1 어릴 때 다 해나세. 이젠 안한다마는.

103026 @ 조팝도 행 먹고, 조떡은 무신 오메기 침떡?

103026 #1 좁쌀로 오매기도 허곡.

103026 @ 조떡, 조떡은 오마기 침떡 조침떡?

103026 #1 오마기도 허곡, 침떡도 허곡계.

103026 @ 조침떡 거기에 뭘 놓네까? 감채도 놓곡.

103026 #1 감채도 넣으네 가운데레 놓곡이, 경허곡 무신 풀이나 녹디나 행으네 그 무싱걸서터줘사 된다게. 쉬라고 경해사 두 개 어우러 붙으지 앗허영 야야 요만 싹행으네 이 우터레 놓곡, 그거 또 놓곡 해사 된다.

103026 @ 흐랑흐랑해부난예.

103026 #1 딱 그디 그거 안허민 떡이 안돼여 건 하나 혼덩어리 돼언. 그거 헤영 놓아 뒤사 글로 탁탁 떼어내어근에 혼빋 두 빋허멍 떼어네는 거여계.

103026 @ 게 좁쌀론 뭐 해 먹습니까?

103026 #1 어떻허여 저 보리밥 허영 영 빨어가민 우이 영 허텅으네도 허영먹고 그냥 조팝만 행 먹고 좁쌀만도 밥 웬다게. 조팝이라고.

103026 @ 조팝에는 어떤 종류가 이서마씨?

103026 #1 아이고 검은 조도 싹고 거무룽헌 거 더 마신나. 것도 싹고.

103026 @ 모인 조?

103026 #1 죽도 쉬 먹나.

103026 @ 좁쌀은 무엇을 해서 먹습니까? 조팝?

103026 #2 조팝. 조팝도 행 먹고, 그 저 보리쌀에 넣으네 섞영 잘 먹어.

103026 @ 섞영예 그리고 감주 술 오메기떡 뭐 어떤 거 떡은 무슨 조침떡?

103026 #2 오메기떡이렌 현 거는 조로 멩들거든. 오메기떡을 멘들아가지고 술 을.

103026 @ 무사 오메기떡이렌 햄신고예?

103026 #2 오메기떡 멘들민 방도글락하게 멘들아가지고 가운데 그 저 터지게 멘들아. 자지게 멘들어 가지고 그 저 뭇고 술 곶은 거 허젠 술.

103026 @ 오메기라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예?

103026 #2 오메기 오메기떡이라고 허주기게. 그계.

103026 @ 오메기가 무슨 말인지는? 오메기.

103026 #2 오메기떡 그 저 뭇고. 술 만들 때 허는.

103026 @ 술 만들 때 오메기술예. 오메기술 감주도 조로 만드는가 고소리는 조

아니지요?

103026 #2 어. 고소린 술.

103026 @ 고소린 술이고 감주 들코름헌 감주도 조로 만들어.

103026 #2 응. 조로 멘들어.

103026 @ 그거 어머니가 해주는 거 만들어 보진 안허고.

103026 #2 만들어 보진 안허고, 그.

103026 @ 그거 좋아해낫수과? 감주.

103026 #2 감주 들거든. 들게 멘들아.

103026 @ 그난 언제 건 험데가? 멩질허곡.

103026 #2 멩질 제사때 주로 허주기. 그거.

103026 @ 오메기떡 옛헤가지고도 영 해주고, 어머니도 영 해줘낫수과? 어머니도 술 멘듭디가?

103026 #1 술, 에펜삼춘도.

103026 #2 으. 우리집 할망은 안헤보고, 어머니 산 때 헤연. 그.

103026 @ 아버지가 술 그렇게 해서 먹고 삼춘도 먹어보고?

103026 #2 아니. 본래 술 암 먹으난 몸 아파가지고 술 배우질 안헛주.

103026 @ 떡 뭐가 조로 만든 거 맛좋은 거 뭐가 생각이 남수과? 조침떡?

103026 #2 침떡. 조팍.

103026 @ 뭐가 제일 맛좋아마씨? 곤밥?

103026 #2 아멩헤도 곤밥이 낫긴 나신디이.

103026 @ 곤밥 먹젠허민 제일 제주도에서는 어렵헛헛디다.

103026 #2 어려와낫주게.

103026 @ 보리흐는 거 똑같다예?

103026 #1 씨만 딱 낳으네 웨느냐 아무나 그난 갈아짚으네 벳나고.

땡 속에 들어가사 흙 속에 꼭 들어가사 혁 우에 성 된다. 계난 지철에 산디 나룩 마니 안나와도.

103026 #1 연날엔 물컷당 맞다게.

103026 #1 어려운거엔 맞다. 맞다 딸도 아덜 보리밥만 어려운거렌 들어본 아니여. 어려운 거여. 베도 꼬고 무사 여잔 입 어서 어려 손에 갈라줘낫쨌. 아덜이영 딸이여 이 (전화)나신디 말글암쨌. 꿍어불엄쨌.

103026 @ 감주 조팍 조떡 조침떡 오메기술?

103026 #3 오메기술은게게, 조로 행으네 오메기 무사.

103026 @ 막걸리.

103026 #3 그거 봐나실건디. 오메기 헛 동그랗게 고망뜰랑 오메기떡 멩글앙 막걸리 담는 거 그게 오메기 아니가?

103026 @ 그게 맛좋아마씨?

103026 #3 으. 그것이 막걸리 담는 거 그거 오메기떡 아니가?

103026 @ 무사 오메기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쿠과?  
 103026 #3 저 그거 고망딸라지난 오메기간 생각허주기. 오메기 오메기.  
 103026 @ 오물락허게 들어갓덴?  
 103026 #3 오메기 경헌 모양이라.  
 103026 @ 음 이게 제일 맛좋아마씨? 고소리허곤 또 틀리고?  
 103026 #3 고소린 거 소주 닭으는 거고, 이진 막걸리 담양 먹는 거 고소리 술.  
 103026 @ 이게 어머니가 만들어줘 봤수과? 아니믄?  
 103026 #3 우리 어머니도 그거 맨들아낫져. 고소리 다 잇고.  
 103026 @ 그믄 좁쌀 흐린 조로 허는거예.  
 103026 #3 응. 흐린 조로 춤 먹기도 좋넨 저 감자 빼대기혜영 물령, 그거 행 소 주 뽑주.  
 103026 @ 조깡마기? 고고리가 아니고? 깡마기렌 험니까?  
 103026 #3 조 들러냥 그거, 깡마기주기.  
 103026 @ 깡마기? 조코ㄹ리가 아니고?  
 103026 #3 조코고리 다 털어낸 다음에 그 깡마기엔 현다. 그 깡마기 소 잘 먹 어.  
 103026 @ 좃대를 깡마기렌 험니까?  
 103026 #3 좃대말고 그 고고리, 영 허지 안으냐. 조 털어불믄 깡마기 별도로 나 온다게. 그거 조깡마기.  
 103026 @ 조 털어분거예.  
 103026 #3 그거 잘 먹은다. 그거.  
 103026 @ 조깡마기 잘 먹는다고예.  
 103026 #3 응.  
 103027 @ 조짚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27 #1 조허여난 짚이여게. 쉼 맥이고 현다.  
 103027 @ 아, 쉼맥이고?  
 103027 #1 쉼 맥이고 조짚은 조 해여난 짚이여. 쉼 맥인다 조짚이라고이 조 비 어나민 고고리 토다나민 조짚이여게. 나무.  
 103027 @ 뭐 만들진 안코예?  
 103027 #1 아니 만든다.  
 103027 @ 높은 늡니까?  
 103027 #1 늡엇당 쉼맥인다게 그거. 그냥은 놔둘 수 엇지. 비 맞아불영.  
 103027 @ 그난 보리늡은 쉼 안 맥영 불 습고, 조짚은 쉼먹고.  
 103027 #1 조짚은 쉼먹고, 조짚은 쉼먹나게 빠닥빠닥흐영 쉼 잘 먹어. 보리냥은 쉼 안먹나게 불이나 습은백이.  
 103027 @ 계민 무슨 농사가 경 어려웁데까?  
 103027 #1 어떻허여. 그뎨게 산디도 허곡.

103027 @ 거른 조침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조짚.

103027 #2 소 맥이주게.

103027 @ 소 맥이고예. 다 늘 늘영.

103027 #2 늘었다가.

103027 @ 늘었다가 이거 누는 거는 보리하고 달라마씨?

103027 #2 게 일반이주게. 거 늘었다그네 혼못 빵으네 쉼 주고.

103027 @ 몰도 맥이고.

103027 #2 몰도 맥이고 허주게.

103027 @ 게른 늘때는 조꺾고리쪽이 안쪽으로 다 보리하고 똑같아마씨? 고고리 쪽이 안으로 들어가게.

103027 #2 응. 안으로 들어가게 늘었다가 등챙인 베갯디레 영 나오게시리.

103027 @ 그때는 무사 경혜신고예. 경혜야 비 올때라도 것도 잘도 과학적인 거 답은디.

103027 #2 빠기 좋고.

103027 @ 예. 그른 조짚은 어떻습니까?

103027 #3 소 주는 거여 소. 먹는 거 잘 먹나 건 이 집이 시꺼당 그거 늘영으네 영 작두 쏠지.

103027 @ 예.

103027 #3 작두로 막 썰어으정 숲양으네 뭐 무싱거 버무령 주꼭허는거여.

103027 @ 아 숲양 버무령 줍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103027 #3 그 영 썰믄, 그거 이제 큰 가마에 낱 숲주기. 보그랑케. 숲아지민 그 ㄱ루 무신 디덜ㄱ루나 보리ㄱ루 그거 허영 허텅 소 주꼭허느네.

103027 @ 아아, 허텅예.

103027 #3 응. 소 출 허는 거 아니가. 좇댄 좇댄.

103027 @ 예.

103027 @ 조하고 콩 다 잘 먹어?

103027 #3 으게. 좇대.

103028 @ 빠기 좋고 조농사에 얽힌 뭐 조 검질메당 뱀을 봤다던가?

103028 #2 아. 그런 거 뱀은 옛날도 하나니까 그게 뭐 밧디 갓당이라도 봐지니까.

103028 @ 녀 나 난적은 어섯수과?

103028 #2 아 그런 거 녀도 날 때가 쏘고, 그 앞에서 어틸 땀 겁이 문딱허게 날 때도 쏘지.

103028 @ 조팍 보리밥허곡 조 섞은 게 맛좋고.

103028 #2 아멩헤도 조가 들어가사 맞아서.

## 콩 농사

103029 @ 콩은 마씨? 콩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29 #1 콩도 갈곡계.  
103029 @ 콩씨 받아 났던 거 집에?  
103029 #1 응. 것도 콩씨. 것도 일 년 넘어가민 안 난다. 일 년 넘어가민.  
103029 @ 청태영 무신 거?  
103029 #1 청태가 뺏고?  
103029 @ 푸리롱 푸리스름흔 콩.  
103029 #1 푸린 콩도 있고, 허지 거 청태렌 허느냐?  
103029 @ 청태렌 험디다. 시장에서.  
103029 #1 흠땀 들어난 듯 햏져.  
103029 @ 그 콩은 보통 노랑콩이나.  
103029 #1 노랑콩도 있고 푸린 콩도 있고.  
103029 #1 쥐눈이 콩 검은 약콩도 있고.  
103029 #1 응. 땃가지 싣주기계.  
103029 @ 근디 거의 누렁 걸로햏지예?  
103029 #1 노란 거 지일 주류로 햏영 하는 거. 노랑 거.  
103029 @ 자, 이제 콩으로 감수다. 콩농사를 햏 땃 어떤 준비가 필요햏니까?  
103029 #2 콩. 그거 땃, 준비 무싱거.  
103029 @ 이것도 똑같이.  
103029 #2 어. 똑같이 그냥.  
103029 @ 계난, 콩농사 산디농사 감저농사 이제.  
103029 #3 그거 다 햏가지여계. 거 무슨 산디햏 철나민 산디햏고, 콩 갈 철나민  
콩 갈곡. 그거.  
103030 @ 콩농신 언제 햏마씨?  
103030 #1 ㄹ실에 갈아근에 영 봄 나감은 빈다.  
103030 @ 그믐 조 끝나가민?  
103030 #1 ㄹ찌 ㄹ찌 땃간다계. 조영 콩이영.  
103030 @ 보리 끝나면 콩이영 조영.  
103030 #1 응계. 보린 겨울에 햏는 거. 보릴 햏영 갈아사 먹지.  
103030 @ 어느 걸 더 잘 갈햏수과? 보리 끝난 다음?  
103030 #1 ㄹ찌 못햏는거여계. 봄에 햏는 건 봄이, 겨울 햏는 건 겨울 경햏는  
거여.  
103030 @ 조를 갈까 콩을 갈까 중에 선택을 햏햏햏햏야예?  
103030 #1 그건 이녁. 이녁 햏지 지려운냥. 콩도 갈민 그거 슣으민 메주도 땃영  
장도 답양 먹고.  
103030 #1 아니여계. 콩은 그냥 갈고.  
103030 @ 콩은 그냥 갈아예, 콩은 언제? 조가 먼저과? 콩이 먼저과?

103030 #1 ㄹ자ㄹ자 끝아간다게. 조영 콩이영, 보린 겨울거난 건 또시.  
103030 @ 콩농사허고 조농사는 시기가 비슷하곡?  
103030 #1 응. 그자 끝으다.  
103030 @ 좁쌀허곡 콩은 시기가 언제 어떻게 갑니까? 조허고 비슷합니까?  
103030 #2 응.  
103030 @ 이거는 봄?  
103030 #2 응. 봄.  
103030 @ 봄 멧월달쯤 웰 건고예?  
103030 #2 조 갈 때 콩허는 거난.  
103030 @ 똑같이 그른 어떻게 선택을 헤마씨? 조도 허고 콩도 허고?  
103030 #2 으게. 콩이랑 딱로 같고.  
103030 @ 딱로 같고 나름 뭇 혈까를 고민헤야잖아예?  
103030 #2 조영도 ㄹ치 같아 섞어지게.  
103030 @ 무사마씨?  
103030 #2 다르게도 허주마는 딱로 허는 게 나아.  
103030 @ 딱로 같면 콩은 빼여마시?  
103030 #2 응. 콩도 빼여 그냥.  
103030 @ 콩씨를 좁쌀처럼 뺐다?  
103030 #2 좁쌀모양으로 빼여 가지고 갈아.  
103030 @ 다른 방법 없이 똑같아 똑같고?  
103030 #2 똑같아.  
103031 @ 아까 보린 햇고예, 콩농사 할려면 걸름준비 안해도 돼곡?  
103031 #1 건 그날 빼여.  
103031 @ 그건 걸름은? 그른.  
103031 #1 그건 거름 안해도 웬다. 콩은 이 이 보린 걸름 안헤영은 잘 안돼여  
이, 쉘씨라고 그냥 집일멍.  
103031 @ 콩농사를 하려면 어떻게야 돼마씨? 이건 걸름 필요어서마씨 콩?  
103031 #1 건 어느 정도 건 걸름 안나도 보리 끝은 건 걸름 안행은 안돼여이.  
게도 이젠 쉘씨라고이 그냥 씨빼영도 비료만 하영 허믄 웬다.  
103031 @ 짓도 그냥 부러마씨?  
103031 #1 아니. 이젠 쉘씨라고 그뻬 쉘씨 안웬덴 헤났져.  
103031 @ 옛날 걸로?  
103031 #1 옛날 거는 걸름에 섞영으네.  
103031 @ 콩도?  
103031 @ 콩은 이것도 빼고 걸름은 이것도 걸름은 어떻게 합니까?  
103031 #2 건 비료나 시민 비료나 줌백이.  
103032 @ 콩씨는 어떻게 뿌릅니까?

103032 #2 콩씨 그냥 그대로 뿌려주기.

103033 @ 이것도 식물검질 메야돼어마씨?

103033 #1 검질 메주지 않으민 안웬다게. 다 메줘사.

103033 @ 식불예 이건은 조팻검질보다 똑같이 어려와? 콩?

103033 #1 아니 콩도 메어줘사 해여. 아니멘덴 해도 덜 멘덴 해도, 어느 정도 메사 검질에 줄령은 안웬다. 뭐시던지.

103033 @ 조팻검질 때는 게 어려워마씨? 콩밭검질 때는 게 어려웬니까?

103033 #1 콩밭이 쉽나게. 조팻이 혼불 더 메주고게. 존 요만씩 조는 스뭇 좇지 만 안허민 어느정도 웨도, 조팻은 꼭 방벌여사 웬다게. 경 안허민 즐앙 안웬다게. 응. 요만씩 딱 해주고 블라주곡, 조가.

103033 @ 조가 까다롭구나예?

103033 #1 으게. 보기답지 안헌다.

103033 @ 안허는 이유가 그거로구나.

103033 #1 모르켜마는 콩이 쉽나 조보다.

103033 @ 응. 콩밭엔 어떤 검질덜이 이신고예? 똑같은가?

103033 #1 아이고 그런 거 여름 나는 거 거자 비슷헌다. ㄱ랏 끝은 거. 응. 그런 거. 그자 여름 나는 검질은 여름에 나곡이, 겨울에 나는 건 겨울에 나고 경헌다. 지 철 들령 다 난다 검질덜.

103033 @ 콩밭 검질은 몇 번 맵니까?

103033 #2 혼 번쭈 멜꺼여. 콩밭은.

103033 @ 한번쭈 이건 쉬운가보다예. 검질은 이것이 조팻보다도 메기도 쉽다.

103033 #2 어, 쉬워.

103033 @ 검질들은 어떤 것이 잇습니까? 콩밭디는 쉼비눔.

103033 #2 쉼비눔도 싹고, 것도 여러 가지 셔.

103033 @ 콩밭디 검질.

103033 #3 검질 안 매영.

103033 @ 콩은 조하고 비슷허게 싱금니까?

103033 #3 으게. 조 헐 때 콩 허는 거 아니가?

103033 @ 콩은 검질은 조보다는 팬찰아마씨?

103033 #3 으, 쉽나. 콩 가는 건.

103033 @ ㄱ라지 여름검질 겨울검질도 틀린덴 험디다.

103035 @ 콩수확은 어떻험니까? 꺾는덴 허는 말은 뉘우짜?

103035 #2 무시거?

103035 @ 콩수확은 호미로 베는 게 아니고.

103035 #2 꺾어.

103035 @ 꺾어? 호미로?

103035 #2 호미로 영 호미 데영, 영 영 툽툽 꺾어지주게.



103035 @ 꺾은다고 하드라고예. 꺾으고 도깨질을 허는가, 도깨질예. 이게 진짜 제라헌 도깨질이지예, 마당에 낱.

103035 #2 마당에 낱 두드리거든. 도깨로.

103035 @ 어떤 노래 흔 번 헤지쿠과?“어야도 흥”

103035 #2 거 소리헤난 사람도 싯고, 아니 허는 사람도 시난 거. 여자덜 헐 때 어야도 흥 어야도 흥 경 헛명 치지.

103035 @ 아버지는 이런 노래부르명 헛디가? 경은 안허고? 게문 아버지 어머니 다 마당에 들엉들 막 그냥 두드리는구나예?

103035 #2 도깨도 아버지가 만들고마씨 도리깨.

103035 #2 멘들주게 저.

103035 @ 낱이 중요한 것이 이싱생이라?

103035 #2 낱 가운데 궁기 딸라 가지고, 그디 영 헤당.

103035 @ 만들어 봤수과?

103035 #2 아, 만들어 보진 안헛주마는. 그 만든 거 허우치당 부쳐주는 거 보문, 다 경허여.

103035 @ 콩은 무사 꺾는덴 험니까?

103035 #3 비엄주. 그거 비어도 꺾어꺾어 햐주기.

103035 @ 도깨질은 콩허지예?

103035 #3 으 도깨질 현다. 콩 때릴 때 원체 우리 많이 헐 때 도깁 험들엉 못헤 연 다. 기계로 해났져.

103036 @ 필요한 거잖아예?

103036 #1 들류민 곶앙 죽도 썰먹고 국 끓영 먹고 콩.

103036 @ 두부도 해났수과? 둥비도 해났수과?

103036 #1 그 둥비도 먹을 때나 현다게. 제사때나 이.

103036 @ 제사때나예 해판마씨?

103036 #1 게.

103036 @ 콩국도 콩가루도?

103036 #1 콩꺾루해영 또 승키 낱 허텅 영 국 끓이민이, 잘도 돌아. 콩국이라고.

103036 @ 승키 낱예 녹물 배추녹물 놓는 거 아니?

103036 #1 배추녹물도 돼곡, 무수도 썰어놔도 웬다게.

103036 @ 무수도 돼고예. 그 메주도 해 봤수과?

103036 #1 메준 이제 그거 행으네 으 티와사 장담는 거여긴 건.

103036 @ 티왕 장 담그고.

103036 #1 거 티왕 물려사.

103036 @ 콩나물롤 뭇웬 험니까? 콩주름?

103036 #1 응. 콩주름이엔현다. 콩녹물꺾라.

103036 @ 콩주름도 행 먹고?

103036 @1 응. 제사땀 꼭 해나세 건.  
103036 @ 콩주름 제사때 꼭 해난마씨? 아아 딱땃헌 방에서?  
103036 #1 으. 걸 띄와야쥐사게 딱땃허게 행은에.  
103036 @ 띄와야 되는 거지예. 딱땃허게예?  
103036 #1 저 무시거꼬? 그 떡 치는 거 뭐고? 시리에 그거 낵으네 물 자꾸 쥐 쥐사 큰다게.  
103036 @ 아주 옛날부터 콩주름은 꼭 했다는 거네예?  
103036 #1 그건 꼭 해사. 제사 때.  
103036 @ 제사 때 고사리 콩주름 저 퍼렁헌 거 뭐헛수과? 시금치 아니문?  
103036 #1 시금치. 신디 말안디 모르켜마는이.  
103036 @ 콩주름허곡, 저 고사리는 꼭 올렸다는거다예?  
103036 #1 고사린 어딜가도 올려사.  
103036 @ 고사린 꼭 올려야 돼곡, 자손을 번창헌덴 헛디다예?  
103036 #1 게메 어떻사허는디. 하영튼 고사린 꼭 제사때 올려사 헌다게.  
103036 @ 콩으로는 또 무싱거 인절미 헛 때 뿌렁도 그런 걸 인절미 안 먹엇지 예?  
103036 #1 인절민 안허고, 콩은 글앙 콩ㄱ루 행으네 국 끓영 먹고.  
103036 @ 콩ㄱ루 국이 중요하다예.  
103036 #1 콩은 콩주름 낵 먹나. 제사때에 으 그거이.  
103036 @ 콩주름예.  
103036 @ 게믄 콩으로 무엇을 헛니까?  
103036 #2 무엇을 헤여게.  
103036 @ 먹는 거 무엇을 만듭니까? 둠비도 만듭고?  
103036 #2 둠비 두부 멘듭고, 글아가지고 죽 썰도 먹고 콩죽이 좋지.  
103036 @ 콩주름.  
103036 #2 콩주름도 낵 먹고.  
103036 @ 어머니 허는 거 봐봣수과?  
103036 #2 나 그런 콩주름 글은 거 놓는 건 안 봣주마는 콩죽은 많이 먹어봣서.  
103036 @ 콩국도?  
103036 #2 콩국도 많이 먹어 보고.  
103036 @ 콩주름은 멥절 때 콩주름헤야 돼지 안헛니까?  
103036 #2 콩주름 콩주름은 그 딱로 잘 벨도로 해서.  
103036 @ 콩나물이렌 허잖아예?  
103036 #2 어, 콩나물.  
103036 @ 벨도로 헛때는 멥절 아니면 제사?  
103036 #2 제사 때나 허주기.  
103036 @ 제사 때 고사리 올리듯이 콩주름도 꼭 올렸수과?

103036 #2 꼭 올려.

103036 @ 꼭 올련예. 계민 그 방에다가 낡으네 시루에 낡으네 봐놨다는 거지 예? 어머니도 허고 저 예펜삼춘도 하고 계민 콩가루는 맷돌로 이렇게 허고 메주 주는 것도 봐왔지예? 그 저 밧파? 된장 만든 거.

103036 #2 된장 만든 거. 저거 멘들앙 거시기.

103036 @ 솥앙 솥으른?

103036 #2 솥아 가지고 그게 막 메주 멘들아 가지고.

103036 @ 톱왕?

103036 #2 톱와 가지고, 담으거든 저게.

103036 @ 음. 걸영 공장에 걸영 공장에 걸든가, 허연 그걸로 된장 멘들고 간장 멘들고?

103036 #2 간장 멘들고.

103036 @ 장항은 어디 이섯수과?

103036 #2 장항 뒤에 낡으네 어디 놔가지고, 그걸로 된장 담아 오면은 거시기가 거 물. 이거 간장이 돼는 거.

103036 @ 메주 쓸 때는 저 콩 솥은 거 먹기도 허고?

103036 #2 응. 먹기도 허곡게.

103036 @ 깡이에 또 콩 헐 때 반찬도 행 먹고, 우럭 낡도 지정 먹고 콩 콩국에 녹말 낡도 행 먹고?

103036 #2 어. 녹말 놔도 행도 먹고 하간거 놔도 좋아.

103036 @ 늑뻘도 낡?

103036 #2 늑뻘 놔도 좋고.

103036 @ 그게 몸에 좋텐예?

103036 #2 콩ㄹ루엔 춤말로 아무거 들어가도 좋아.

103036 @ 콩ㄹ루예. 근데 미숫가루 먹는다 콩가루 물에 탕 먹진 안허는거 닷아 예? 무사 비린가?

103036 #2 아니. 콩ㄹ루도 그 저 보릿ㄹ루에 섞언.

103036 @ 건 이제야주게. 옛날에는.

103036 #2 옛날엔 없어노니싸 거 뭐시.

103037 @ 콩찍은 또?

103037 #1 으게. 췌도 먹곡 현다.

103037 @ 콩찍도 췌떡 이것도 신기허여예. 딱딱헌디예.

103037 #1 췌 먹나 콩각지라고 거 먹나. 췌게, 경 딱딱해도.

103037 @ 콩각지렌 헐 마씨?

103037 #1 조찍이 조해난 것도 췌먹고, 콩해난 것도 췌먹고.

103037 @ 것도 늘 늘고예.

103037 #1 어떻허여. 그냥 낡은 아니웨곡 비 맞이민.

103037 @ 콩농사나 조농사에 무슨 비가 왕 뭘 썩어부러뜨렸던가?  
 103037 #1 경해난 늘어줘야지. 묻어 줘사 비 안 맞게 우이 뭘 텃영 비 맞이민 다 썩어부는 따문게.  
 103037 @ 콩짚은 어떻힙니까? 콩짚 콩짖?  
 103037 #2 아, 콩대.  
 103037 @ 콩대렌 험니까? 콩대는?  
 103037 #2 뭘 어떻 허여게  
 103037 @ 이것도 조짖하고 똑같이 쉼하고 돌 먹어예? 근데 이견 어떻 먹어마 씨?  
 103037 #2 것도 그냥 침 저 조짖 늘 듯 늘어도 뤼고.  
 103037 @ 늘어야 뤼예, 늘어야.  
 103037 #2 불도 습고 남은 건.  
 103037 @ 콩은 늘 이것도 쉼택입니까?  
 103037 #3 으게, 쉼 잘 먹나.  
 103037 @ 잘 안 먹어마씨?  
 103037 #3 잘 먹어.  
 103037 @ 콩은 콩잎은?  
 103037 #3 콩은 저 콩대도 잘 먹어나서.  
 103039 @ 산디도 해봣수과?  
 103039 #3 으게, 산디곶은 거 안허볼 일 시냐. 농사렌 험 건 다.  
 103039 @ 게민. 산디는 또 어떻 산디?  
 103039 #1 뭘시라. 산디 산디도 그거 저 무시거꼬? 여름에 허는 거 아니가?  
 103039 @ 거른 이제 산디로 감수다예. 산디는 밭벼농사를 할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39 #2 산디.  
 103039 @ 산디 곤밥 먹는 거?  
 103039 #2 어. 그건 이제 잘 안허주마는, 옛날에 그 일반이여. 가는 건 씨 행 가는 거.  
 103040 @ 언제 어떻게 갑니까? 산디는 봄에?  
 103040 #2 봄에, 나룩힐 때.  
 103040 @ 나룩힐 때 물에 어신디 허난, 산디 허는 거잖아예. 이것도 땅 그냥 밭 갈양 씨뿌렁?  
 103040 #2 씨뿌렁, 갈든 뤼주기.  
 103040 @ 밭낫수과? 헤낫수과?  
 103040 #2 안헤봐서. 우린.  
 103040 @ 듣기만 허연.  
 103040 #2 어. 듣기만 허연.

103040 @ 산디는 멧월달에 갈아마씨?  
 103040 #3 산디 저 뭐헌다. 산디 갈젠허믄 막 뭐 혜연. 잘 안 이 저 두모 신창 더레 산디덜 잘 해낫져. 이렌이 잘 안혜.  
 103041 @ 근데 이진 거름 안해도 돼곡.  
 103041 #1 비료 흐뎡 더 줘야지이.  
 103041 @ 씨 박양.  
 103041 #1 씨만 딱 낵 사 돼느냐. 아무거라도 흐뎡 걸류와 줘사, 것이 돼는 거 주.  
 103041 @ 그믄 거름을 홀트 영 던져주는가예?  
 103041 #1 걸름을 알더레. 비료도 돼난게. 어떠튼지 걸류와 줘사. 아무걸 돼도.  
 103041 @ 거난 아까 보리처럼 속에 낵으네 허진 앓고?  
 103041 #1 그냥 갈아 쥘으네. 이제 그런 건 이 어떠튼지 씨 우에 논 건 안됐다. 우에 논 건 안돼곡, 벳나곡 허는 때문에 안돼곡. 하영튼 땅속에 들어가야.  
 103041 @ 거름 먼저 허고 그럼 ?  
 103041 #1 경허난 거름 ㄹ치ㄹ치 허영, 그 거름이나 씨나 땅에 들어가사 혁속에 들어가사 돼주. 이 혁우이 이성은 안돼는 거여.  
 103041 @ 아 거름 먼저 하고 그 다음 씨를 부린다던가 그런 방법을?  
 103041 #1 으. 영흐나정흐나 ㄹ치 땅속에 들어가사 쥘다게. 혁 속에.  
 103041 @ ㄹ치 씨랑예?  
 103041 #1 혁 우이 성은 안돼는 거여게.  
 103041 @ 혁 우이 거름이 이성은 안돼고, 섞어줘야 쥘다는 거지예?  
 103041 #1 혁 속에 똑 들어가사.  
 103041 @ 밧벼가 걸름은 어떻 네고? 쥘 어떻 뿌리고?  
 103041 #2 걸름은 허지 안허여. 그냥 씨뿌령.  
 103043 @ 이것도 검질 싱경 똑같은가예?  
 103043 #1 게. 검질은 다 매사줘사주. 검질성은 아무것도 안돼여.  
 103043 @ 이것도 가을에 아마 나룩이 가을에 나는 것처럼 산디도 가을에 나는 거?  
 103043 #1 게, 지철에 혜줘사 쥘다.  
 103045 @ 이것도 똑같이 베곡 도깨질 허곡?  
 103045 #1 으게. 홀타주곡 해사.  
 103045 @ 클로 홀타주곡 보리허는 거 똑같다예?  
 103045 #1 으. 보리허는 거 닻나.  
 103045 @ 이것도 베영 도리깨허고 똑같은가예?  
 103045 #2 어. 일반.  
 103046 @ 추석때 씨야 쥘니가예?  
 103046 #1 응, 계난. 지철에 꼭꼭 지 들어가는 거 들어가사주이.

103046 @ 계란 산디로는 곤밥이 중요하잖아예?

103046 #1 계 것도 쓸 나온다게, 곤밥 나와.

103046 @ 많이 안나오지예?

103046 #1 나룩 마닌 아니 돌아도, 이 계 나오긴 험다게.

103046 @ 겨믄 떡은 무신 떡 돌래떡?

103046 #1 떡도 그냥 지네 허기 기로운 냥 허주기게.

103046 @ 옛날은 물컷당 뽕상 해났져.

103046 @ 뽕상에, 뽕상.

103046 #1 흐뎡 물커나민 뽕사진다게. 남방애라고 경혜연 떡덜 해났져.

103046 @ 이게 저 모인 찹쌀하고 산디는 또 틀리지예?

103046 #1 뭐 찹쌀 어떻 게 찹쌀도 찹쌀허곡 츠진뿐이주. 이 아멩헤도 걸 뽕사  
취사  
 찹쌀떡을 뉘나. 밥은 또 그냥 할 수도 잇주마는 출진 거.

103046 @ 이거 진짜 멩질 아니민 먹지 못헤어서예?

103046 #1 맞다게. 어려운 거여.

103046 @ 산디 곤밥 먹젠허민 진짜로 경 숙구락 여자아인 안 주곡 아덜만 주  
곡? 뉘.

103046 #1 경혜나샤? 여잔 무사 먹지 앗헤나샤?

103046 @ 아니 경헤도 밤이 여잔 한숙구락씩만 정말 먹언마씨?

103046 #1 지랄험다. 아니 무사 여잔 무사 입어서 아달만 입셔? 두령청헌 말궤  
람져. 게민 먹지 말렌 말고? 여잔 더 곱으라 보져.

103046 @ 겨난 말도 안뉘는 소리라.

103046 #1 어떻헌 말고 두령청헌 소리. 여잔 안 주고 아덜만 뉘 어떻헌 말고?

103046 @ 아이 그렇친 앗은 디, 한숙구락씩 그 제사 지난 끝나난 다음 경 귀험  
덴.

103046 #1 아 어려운 거엔 끊어 주멍 갈라 췌구나. 앗야 손에 끊엉 손더레 갈라  
취났져게. 보리밥쓸만 보리밥만 먹주 거 어려운 거엔 맞다 맞다게. 뉘도 주고 아덜  
주고 허지 안험 난 들어보도 안헌 말이여. 끊어준 건 알아지는 디, 삼방에서 말덜  
곤당 말 곱앗뉘 흐난 들구 우리 큰 뉘 들구 우시멍 끈어불엄세.

103046 @ 곤밥 제사 때 곤밥 이 산디쌀로 헤 먹습니까?

103046 #2 산뒤 간 사람은 이녁꺼 놔뉘당 헤도, 으신 사람은 사당.

103046 @ 으신 사람은 사당 나룩은 여기 어섯지예? 사당허고.

103046 #2 어서.

103046 @ 이녁 꺼 간 거는 어디 뉘당 막 귀허게 췌지예?

103046 #2 이녁 꺼 간 사람은 그 이녁집이궐로 헤여.

103047 @ 뉘짚으론 뉘험수과? 산디짚으로.

103047 #1 옛날덜은 그궐로 신도 삼고이.

103047 @ 찢신?

103047 #1 찢신이라고 노도 꼬고 베도 꼬고.

103047 @ 노도 꼬고 베도 꼬고 질빵예?

103047 #1 쓰젠허민 경헛저게. 으게, 경헛저게.

103047 @ 산디찍으로는 뭘 헛수과?

103047 #2 멩텅이도 맥도 즐고 명석도 즐고 짚신도 삼고 노도 꼬고.

103047 @ 베도 꼬고 베는 뭉지?

103047 #2 베 베, 그 저 찍으로 영 정 덩기는 베.

103047 @ 베도 꼬고 산디도 산디찍이 헛일 많앗다예?

103047 #2 어.

103047 @ 이 찢신 이런 거 삼아받수과?

103047 #2 노도 꼬고 헤 봐서 허여 보고 망텅이도 영 즐아보고.

103047 @ 아이고 누가 가르쳐 쥘마씨?

103047 #2 그 허는 사람이. 그 땀 많헛주게. 그런 좇는 사람덜.

103047 @ 마을예?

103047 #2 마을예.

103047 @ 지금은 없잖아예?

103047 #2 이젠 없어.

103047 @ 허렌 헤도 못허갓지예?

103047 #2 이젠 허렌헤도 그런 거.

103047 @ 망텅이도 좇고예?

103047 #2 어. 망텅이도 즐고 짚신도 삼아보고.

103047 @ 짚신도 삼아보고 게민 어쨌든 산디 누가 허면 그 찍을 어떻 얻어신고 예?

103047 #2 찍을 그 산디 간 사람네 집이서 돈 강 사당.

103047 @ 사당 찍을 사는구나 이거는.

103047 #2 어. 사주게.

103047 @ 응. 비싸진 앓고예?

103047 #2 응. 비싸진 앓고.

103047 @ 게문, 이것도 다 놀영 폼니까? 놀영뵈당 풀민 흐뵈씩 쓰고 짚신도 자기가 삼양 자기가 신어마씨? 가족들.

103047 #2 가족들게 이녁냥으로.

103047 @ 그든 모두가 재능이 어신 사람 짚신 다 허는 건 아니다예? 잘 허는 사람 이실거 아니?

103047 #2 잘 허는 사람 이서.

103047 @ 거기서 뵈기도 허고?

103047 #2 어 뵈기도 허고.

103047 @ 사기도 허고?

103047 #2 어. 잘 허는 사람은 이녁냥으로 풀주기. 옛날에는 신이 어서노니까 짝신이 많이.

103047 @ 찢신이 아니 짝신이렌 험니까? 산디찌이렌 험니까? 산디짚이렌 험니까?

103047 #2 찢.

103048 @ 곤밥에 얽힌 추억 뭐 제사혜난 다음 곤밥을 뭐 숟가락으로 먹엇덴 허곡, 사발로 한 사발 다 먹음니까? 12시까지 과제 기다렸당?

103048 #2 하영도 먹고 죽게도 먹는 사람 싯고허주기. 그거 식계 뎌 곤밥이 식계 때 저 멩질때 춤 곤밥이엔 행 먹어보주.

103048 @ 뭐가 제일 맛좋아마씨? 삼촌은 옥돔이영 곤밥이영.

103048 #2 식계때는 아멩헤도 식계 때는 고기.

103048 @ 고기 무슨 고기? 돼지고기?

103048 #2 돼지고기도 싯고 바룻레기도.

103048 @ 적 그런 게 맛좋아. 옥돔국 맛좋고.

103049 @ 고구마용시 감재?

103049 #1 감재 짓도 잘해낫저게.

103049 @ 감재는 또 언제 혼번만 하지예? 이것도.

103049 @ 한번 갈지예?

103049 #1 일년에 혼 번.

103049 @ 겨울내내 드뚝헌 방에 영 낫당?

103049 #1 으게. 언디 노민 썩어부런 게.

103049 @ 아이고 우리 할머니 춤.

103049 @ 고구마로 감수다예. 감재예 감재는 언제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49 #2 감제도 조 혈 때.

103049 @ 조 혈 때 똑같아예. 감자를 뜨뚝헌 디 놔뒤당?

103049 #2 놔뒤다가 그 옛날에느 저실에 ㄱ지 땅 파가지고, 속에 그 저 묻엉 놔뒤다가 거시기 혈때마다 안네멍 먹고.

103049 @ 빠네멍 먹고 저도 경혜나신디. 우린 이런 저 방에 죽은 방에.

103049 #2 이딘 몰래팡에도 묵엇당.

103049 @ 경헨 그걸 싱경 봄에 싱경.

103049 @ 아 잘 안혜예 감재는 많이 헛수과?

103049 #3 응 고구마 해낫저 고구마.

### 고구마 농사

103050 @ 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50 #1 경 안허민 물어도 낫저. 땅에 물어그네 이 영 헉 덕경으네. 그레 무



싱것덜 낱 보릿낱이나 무싱거던지 놓양으네, 혁 덕경 경행덜 옴파내명 먹어났져게. 이젠 영 방에도 놓주마는 흐꿈 시민 뒤향주마는이. 전이사 큰일로 햇주기에. 큰 양 석으로 떡꼭게.

103050 @ 큰일로 햇주게 고구마는 언제?

103050 #1 고구마 ㄱ만시라. 어느제 겨울에 언제 봄나민 허는거까 몰르켜. 잊어 불어졌져.

103050 @ 이젠 멧월달에 싱것수과? 봄에?

103050 #1 이제 그 저 봄에 행 싱경, 구월나가든 감제 파는 거난.

103051 @ 고구마가 걸름은 마찬가지?

103051 #1 게게 것도 잘 놔두지 않으민 안들어.

103051 @ 아아 그 든 어떻 돛거름을 놔예?

103051 #1 연날이사게 그레 쉼 질루당 통지레 담아 낱, 이 내쳐근에 이젠 흐꿈 영 시들시들허민 밧드레 시꺼간다게.

103051 @ 걸름은 안허고?

103051 #2 걸름은 안허여. 저것도 저 비료나 주고 이젠 허주마는. 옛날사 비료가 서서게.

103051 @ 고구마도 돛걸음 그런 거 췌수과?

103051 #3 으게 거름 잘 줘사 그것도 잘 췌다 거.

103053 @ 고구마도 검질 세 번 메고예?

103053 #1 거 나오는 낱 매사주기에. 이 세 번 메민 판착허지이. 초불 두 불 뒤향던지 거 두불만 매도 거 줄 더꺼질꺼여. 감젠 줄 더꺼지민 검질 안 나니까.

103053 @ 음 줄 더꺼지면?

103053 #1 으 아니난다게. 그늘치민 안나는 거여. 감재줄 탁 더꺼지민 검질 안나. 그전엔 매어줘사 허여.

103053 @ 그늘지면 검질이 안나?

103053 #1 아니난다. 그늘지기 전이 매줘사. 거 다 메는 거 아니여. 검질씨 아진 밧은 안난다. 검질 씨진 밧은 박삭 나곡 걸류와 놓곡 헤노민이 감젠 그냥 싱거도 안돼난 비료 췌 싱겨줘사 헨다게. 게문이 검질씨 신딘 잘도 나 매줘사 아니 메민 안돼여. 검질에 즐령.

103053 @ 비료를 줘사 감재를.

103053 #1 못싱근다게. 경혜사 감재 들어.

103053 @ 비료 없던 때는 걸름을?

103053 #1 걸름도 주고, 또 걸름이 어시민 비료만 줘도 췌니까 그냥 싱근 건 안뻬어 들어. 요 손구락ㄱ치 감재 얼마 들지 안허여. 잘 곱려줘사 췌다게.

103053 @ 이것도 고구마도 검질메고?

103053 #3 그 검질메주.

103054 @ 고구마밧디 검질은 멧번 뻬니까?

103054 #2 그것도 혼번 아니든 두 번 메주기. 감재 혈뎀 혼 번쫘 땀겨여.

103055 @ 고구마 싱거? 그냥 내불민 그거 나면 고구마줄 걷으민?

103055 #1 응. 그 안에 소곱엔 감재가 시난이, 고구마 거 침 파나 가나허민 싹 나오민 그 허여그네, 그냥 놔두민 썩언어. 이젠 딱신 방 시난 해도 옛날인 땅 똑 팡 물어났쨌게. 땅 팡 문영 그.

103055 @ 고구마 줄 나민 고구마 줄을 또 찢라가지고 싱거났지예?

103055 #1 응. 것도 메 놓나고이 메 모종 노민 고구마줄 난다게. 거 쫘랑 요만 썩 해영 싱경 놔주민 감재든다. 철이 다 있져게, 허는 철이. 아무 때나 안뒤여.

103055 @ 팔 때가 언제파? 파게 뒤민?

103055 #2 파게 뒤민 구 시월에.

103055 @ 구월 시월 조보다 일찍?

103055 #2 응. 아니 조나 일반.

103055 @ 일반예. 구 시월에 팡?

103055 #2 영.

103055 @ 줄을 베영 파?

103055 #2 가는 사람도 싹고 파는 사람도 싹고 허주게.

103055 @ 가는 사람 파는 사람 어떻게났수과?

103055 #2 파났주기. 같기도 허곡 소 신 집인 다 같아게.

103055 @ 소 신 집은 다 같아예? 빨리 하나까?

103055 #2 빨리 하나까.

103055 @ 고구마 많이 심언예?

103055 #3 응. 고구마 막 받지 못헤영으네 공장에 강 막 시켜다 놔 찻데기로 쓰지도 안행 무데기로 헤영 막 풀멍 해났져.

103056 @ 계난 보리늘은 영 늘어 놔, 코짱코짱 영 늘엇던 거 닥고.

103056 #1 보리, 보리도 묶어.

103056 @ 묶영 늘어마씨?

103056 #1 묶어근에 이제 그 보리 신건 안트레 가객허곡, 이 보리 그 비어난 디 배결디로 오게 허곡. 경헤영 우이 텃으민 소곱에 물 안들어 비 맞지 말젠.

103056 @ 우엔 늘 이렇게?

103056 #1 늘어놔 그 위랑 뒤 텃어줘야 소곱더레.

103056 @ 느람지?

103056 #1 느람지. 잘암쨌어. 아하하하 기영 안허민 아니 뒤다게. 젓으민 썩는 거라부난.

103056 @ 젓으민 썩으난.

103056 #1 으게. 비 안 들게 해줘사. 옛날엔 그것이 일어주게.

103057 @ 절간고구마 씨고구마 절간?

103057 #1 절간도 해어나고 절간해연 오죽 하영 바쨌나샤. 썰영 들류왕.

103057 @ 절간감재렌 험니까?

103057 #1 감재절간해영 잘도 바껴났져. 그냥 역불 받아간다게 절간해영 물리민.

103057 @ 절간헌다는 말이 빼대기?

103057 #1 감재빼대기. 감재 써는 거. 절간이 거 물류민 막 받아 가났져.

103057 @ 씨감제는?

103057 #1 씨감전 늘 한에 놔사게 땅에 묻어 된 문영 이 땅에 묻어 이 비닐이라도 더끄민 이 뜨상 잘나 씨감저 낱.

103057 @ 땅에 묻어 씨감제를 낱 비닐이라도?

103057 #1 비닐에 더꺼 줘사, 뜨상 잘나 씨감저가 낱 경행 더꺼줘사.

103057 @ 절간고구마가 뭇파?

103057 #2 절간고구마 믈른 감재.

103057 @ 빼대기?

103057 #2 빼대기.

103057 @ 빼대기 많이 해낫수과? 여기도?

103057 #2 월령 사람덜 많이 해나서.

103057 @ 많이 해난예. 게 그거 감재빼다기도 숲양 먹고?

103057 #2 숲양도 먹고 그냥.

103057 @ 비왕으네 옥들어 본격은 엇수과? 들이지 앗행으네 어머니한티.

103057 #2 들이지 그거 들이지 앗으민 뉘여게. 들여야주게.

103057 @ 갑자기 놀레 갓당 씨고구만 잘 놔두고.

103057 #2 씨감젠.

103057 @ 소 말 다 잘먹고예?

103057 #2 잘 먹주이.

103057 @ 감재빼대기 엷힌 추억이라던가? 어디다 널엇수과? 마당에 감재빼대기는.

103057 #2 빼대기. 빼대기는 놀지 안행 집안에 놔뒀다가.

103057 @ 어디다 주정공장에다 풀앗수과?

103057 #2 다 풀앗주기. 메칠날 공판헌다 허문, 그때 실어 가가지고.

103057 @ 저 어렸을때도 해나신디. 이거는 멧년에야 빼데길 해신고예? 나 어렸을 때 칠십 년도도 해시난. 이제 막 옛날엔 안해낫던 거 아니?

103057 #2 옛날엔 우리 옛날도 가끔 해 나실 거라게. 우리가 좀 옥은 때니까.

103057 @ 감자빼대기?

103057 #3 으게 고구마 싯지 안으냐, 그거 막 썬다. 그거 물류왕 그걸로 행으네 빼대기 행 소주덜 맹글암세 옛날.

103057 @ 주정공장이여 무싱거여 했구나예.

103057 #3 으.

103057 @ 응. 이것도 절간고구마여 이거 다 주정공장에 바쳤구나예?  
103057 #3 응.  
103058 @ 찰랑 나민 가을에?  
103058 #1 싱거근에 이 으게. 게민 철에 싱그민 고구마가 든다게.  
103058 @ 고구마가 들민 이걸 크민 그 줄은 뭘해 마씨?  
103058 @ 묶어 가지고 늘 늘땀 좀 다르다예? 보리하고예 뭉텅이로 묶엉 어디  
늘을 하나씩 하나씩.  
103058 #2 늘어.  
103058 @ 또 늘어 경험 감젓늘 줄 베영 그 줄을 또 늘 낱 팡 그거 보관허고 감  
젓늘?  
103058 #1 뽕해여. 뽕류왓당 쉼도 뽕이곡.  
103058 @ 줄덜은 이것도 다 쉼 뽕이는거예?  
103058 #1 게, 므쉬 먹어 것이.  
103058 @ 돼지도?  
103058 #1 흐뽕 저 물렁 물앙 돼지도 그냥 젓은 때 흐뽕 주민 씹영 먹어났져게.  
103058 #1 또 사람도이 그거 흐뽕 거 저 톨앙 숲으민 먹어났져.  
103058 @ 옛날에는 우리 제주도에선 그건 잘 안 먹엇주기. 지금은 막 감재줄  
떡자나예?  
103058 #1 아니. 그거 숲앙 이.  
103058 @ 감재줄 아니민 이파리?  
103058 #1 감자 땡구리라고 혼다 것고라게 이파리가 아니고. 감재줄은 말고 감  
영 나온거 감자땡구리렌 허느디, 무싱거렌 허느니. 감재줄은 질경 못먹고 이파리 말  
고.  
103058 @ 푼럿푼럿 감재줄기.  
103058 #1 영 나온 거 그거, 그거 먹어났져.  
103058 @ 감자땡구리.  
103058 #1 으, 감자땡구리.  
103058 @ 꺾테기 벧경?  
103058 #1 벧기민 더 좋주만, 아니 벧겨도 뽕여. 복짱 썰민.  
103058 @ 숲앙으네?  
103058 #1 벧경은 더 좋아 벧경도 먹고 아니 벧경도 먹고.  
103058 @ 된장에 무칩니까?  
103058 #1 으게, 든다게.  
103058 @ 응. 감저줄기.  
103058 #1 감저 줄거리엔 허지. 우린 감자땡구리 감재땡구리엔 흐민 다 알아.  
하하하.  
103058 @ 어떻 행 뽕 귀도 꿩영 먹고?

103058 #1 모르켜. 국은 안 끓여 보고, 거 숯안이 된장에 무청 먹어놔져.

103058 @ 된장에예. 툇무치듯이예.

103058 #1 으게. 툇무치듯 버무렁.

103058 @ 근데 더꺼주지 않아도 허고예?

103058 #1 웨긴 웨는다 더꺼준 것이 딱시고 잘 낭 나가민 견어불지 말앙, 이 그 순나는 디만 쪽쪽쪽쪽 영 영 트루싸주민 글로 나왕 잘 크다. 확 견어불민.

103058 @ 고망 툇러준다는 거지예?

103058 #1 으 고망툇라주민 잘 커놔져. 경 행 막 크민 싱경 끓으멍 게 두불줄이 라고 초불 싱경 또씨 놔두민 또 나왕 크다게. 게민 또 그 말제 싱근 건 두불줄이라 고 이 것도 싱그민 웨놔져게.

103058 @ 두불줄예?

103058 #1 음.

103058 @ 게민 첫 번째 난 건 싱경 또 나고 잇고?

103058 #1 그건 또 밧디서 크꼭게. 싱겨주니까.

103058 @ 혼달째?

103058 #1 게난 몰르켜. 거 나 아는 것이 혼이주 거 혼달이고 반달이고 거 나근 에 해가민 또 끓영 싱그민 또 웬다.

103058 @ 아 그 나는 걸 또 끓영?

103058 #1 그레. 나온다게 순이게. 끈어난 딜로 끈어난 굽으로 또 나민.

103058 @ 감제 파불지 않으면?

103058 #1 메불지만 말민 또 나 게. 그걸 또 싱그민 또 난다. 그거고라 두불줄 이렌 혼다. 하영 배웁다? 아니 봐나샤?

103058 @ 두불줄 예. 하영 배웁수다. 고구마 즐기는 쉼벡이고?

103058 #1 으게, 그거.

103058 @ 물렁예?

103058 #1 으게, 그냥.

103058 @ 이것도 놀 입니까?

103058 #1 놀어사지. 그냥 놔두민 비오민 썩어부니까. 물리왕 감재줄이라고 이 쉼 잘 먹지.

103058 @ 음 등글등글허난 안웬 그냥?

103058 #1 등글등글이 뭇고?

103058 @ 이게 기난 지난.

103058 #1 질어도 몰르민 이제 무수를 멩들아 거 혼번에 놀민 웨느냐게. 그 빠 내기도 어렵고 등글락등글락시리행으네 영 빠도 혼 빠지게.

103058 @ 혼 뭇음씩 빨 수 있게?

103058 #1 으. 경 행 쉼준다게.

103058 @ 아 아. 놀 헐 때는?

103058 #1 으게. 동글락동글락 행 넣어줘사지. 거 그난 막 밀면 어떻 헐 것고. 동글락동글락허게 넣어줘사 썩 빠민 혼 덩어리씩 빠질거 아니가? 혼끗씩 감자줄이나 조찍이나 거 다 쉐맥여 낫져 쉐양석.

103058 @ 그른 감젓놀은 어떻 무싱거 헛수과? 감젓놀.

103058 #2 감젓놀.

103058 @ 이것도 감젓줄기로 놀을 힘니까?

103058 #2 놀 감재. 영 광으네 문엇당.

103058 @ 응. 감젓줄기로는 쉐 맥입니까?

103058 #2 소 맥엇주게.

103058 @ 것도 놀 해야겟다예?

103058 #2 아니 놀 놀엇당.

103058 @ 건 어떻 놀 눕니까?

103058 #2 것도 일반게. 영.

103058 @ 똥글똥글 말앙?

103058 #2 물앙 요망씩 묶으주게. 그게 또.

103059 @ 감재빼데기 ㄱ루로 무싱거 행 감재범벅해 먹고.

103059 #3 으 으 기여. 으 경덜 헤세 거 막 좋은 기여. 춤 범벅 감재빼데기 행 으네 곱앙 범벅허민 춤 맛중나. 그거 고급이라.

103059 @ 우리 어렸을 때 진짜 고구마나 감재 어시민 못 살아예?

103059 #1 으게 으게.

103059 @ 감재범벅.

103059 #1 으게.

103059 @ 거 어떻행 먹어낫수과? 감재범벅.

103059 #1 으게 아이고, 감재 썰영 물렁 썰영 물렁근에 ㄱ루 맹글앙 범벅도 행 먹고 해낫저게.

103059 @ 무슨 ㄱ루마씨?

103059 #1 그 감재빼다기. 영 무싱거 허민 ㄱ루 나온다게. 경헤여근에 감재 슌 앙 버무리민이 감재범벅 웬다게. 옛날이사 먹을 꺼 셔사게.

103059 @ 맛 좋아예?

103059 #1 아무거라도 먹는 거 허영으네 배고파 노난덜이, 아무거나 잘 먹어 옛 날은.

103060 @ 수박도 해낫수과?

103060 #1 수박도 흐깁 싱거낫저마는. 먹을 꺼 경 크게 안허주گی게. 감젠 크게 해낫저.

103060 @ 야 수박도 그 씨를 심는거지예? 싱그는

103060 #1 으 싱그른 먹을 것덜게.

103060 @ 수박용시 즈외용시 이런 건 안헤 봤수과?

103060 #1 수박도 끝은 거 이렌 안헤여.  
103061 @ 참외도 씨 싱그고?  
103061 #1 으, 씨 싱그민 난다.  
103061 @ 참외.  
103061 #1 참외 쪼금 낱 먹고 거.  
103061 @ 참웨?  
103061 #1 참웨도 안허고.  
103062 @ 호박이나 고추?  
103062 #1 으게 으게. 다 씨 싱그민 나는 거여. 게민 들어봐두민 잘 든다.  
103062 @ 고추?  
103062 #1 으 고추. 그냥 집이서 먹는 거난 흐뎀.  
103062 @ 고추?  
103062 #1 고추는 그 집이 먹을 꺼 그자 흐뎀씩 해난 뿐.  
103063 @ 배추도 흐뎀?  
103063 #1 배추 흐뎀 행 먹는 거난.  
103063 @ 배추?  
103063 #1 배추 끝은 것도.  
103064 @ 무우도 흐뎀?  
103064 #1 으 그것도 다 집이서 먹는 거난.  
103064 @ 집이서 무시 늬뻬?  
103064 #2 늬뻬끝은 거도 거 하나씩 허주마는 다 사당 먹엇어.  
103065 @ 지실 감재?  
103065 #1 그것도 흐뎀씩 흐뎀씩 그자.  
103065 @ 감재 지실?  
103065 #1 지실도 지실 끝은 건 이디 잘 안웨여.  
103066 @ 피농사도 헛수과? 수수 피?  
103066 #1 피는 안해뵈쨌. 핀 안해뵈쨌 들은만 헛주.  
103066 @ 안웨여예 피농사?  
103066 #1 피도 잘 안허고.  
103067 @ 메밀?  
103067 #1 믱멸끝은 거 흐뎀 해뵈쨌. 우리 젊을 때.  
103067 @ 메밀은 또 늬게 하잖아예?  
103067 #1 지일 말제 건 잇어불민 아니웬덴 헌단다 지일 말제 흐는 거난이 모  
떨은 지일 말제 허는 거. 아이구 옛날 잘도 해뵈쨌마는, 이젠 늬으난 안헌다마는.  
또 뵈이 윈체 널르게 저 조수아래 시난 그디.  
103067 @ 조수아래, 모멸.  
103067 #1 그디 강 살명 해뵈쨌. 모멸도 헤나곡. 막 농사 헌덴 허는 건 다 해뵈

저게. 경허른 지네 일헤 텡 우리 밧디 오믄 어디간 그 날 일당을 나가 꼭 주주기.  
썩 세냥 애야 저 반찬 값 벌영 오켄허멍 이 쇠 사람 벌영 놔두민 열사람 더 올라가  
는 거 아니 저 조수아래 밧 막 널르게 벌어났져. 우리 그디 살멍.

103067 @ 모멸도 안허고?

103067 #2 응.

103068 @ 담배?

103068 #1 담배도 흐뎡 헤나고이, 흐썰 헤여근에.

103068 @ 다 해낫수과?

103068 #1 게 다 흐뎡씩 해낫져게.

103068 @ 조수아래?

103068 #1 응 경허난이. 우리 밧디 올라오믄이 돈은 어디 강 헤당이라도.

103068 @ 거기 밧이 이서마씨?

103068 # 밧 막 흐 만평도 더 벌어났져게.

103068 @ 헤 잘도 일헤나시쿠다예?

103068 #1 경허난. 그디 살멍 아기 키우젠 아기 그디 아장 허젠 집 흐뎡 지성  
허난, 이젠 딱시 그기 우인 더끄난 우리 조켄 가네 저 아래 딱시게 방을 놔줘라게  
이. 불때민 그레 딱시게 그디 누멍 헤낫져 우리.

103068 @ 자기 집 자기 밧?

103068 #1 우리 밧디. 원체 널러노난 막.

103068 @ 계난 지금은 또 이서마씨?

103068 #1 아이고 그냥 풀아부러져게. 저 옷트렌 흐뎡 썩져 우트레. 흐뎡 놔 뵤.

103068 @ 지금 이서시민 때부자 뵤실건디?

103068 #1 아이고 난 거 놔뵤자 출왓뵤 안 뵤다게. 밧은 벌고 집은 사람이 살아  
사 뵤는 거여. 이젠 아니 헤영 쥘 네불엇져. 죽은 년 주난 트멍에 가근에 선인장은  
나가 싱그고 선인장 타온다게. 게도 흐뎡 핫져. 아아 게도 우트레 한 이천평.

103068 @ 아이고 부잔게마씨?

103068 #1 응 죽은뵤 알러렌 문 풀곡 안뵤커라라게. 밧은 벌지 앓으민 출왓뵤부  
는 따문에 벌어질 때.

103068 @ 땅값이 막 올라가난예?

103068 #1 맞주기.

103068 @ 그거 얼마나 뵤헝수과게?

103068 #1 아이구 벌지 앓을 뵤 풀아부러사주 놔두민 안뵤여. 밧은 벌어사 뵤는  
거난.

103068 @ 담배?

103068 #1 담배도 안 헤보고. 아, 담배 일년썩 이디서 싱거봐실거라. 일 이년.



#### 4. 들일

##### 소 기르기

104001 @ 쉼도 키와났수과?

104001 #1 으. 쉼도 막 키와나곡, 뭐 옛날에야 그런 거백이 돈 나올 게 서게. 쉼  
키왕 일년이민 새끼나니까 것도 키울 만헌다게. 암컷.

104001 @ 아이구 안헤난게 엇구나예. 소는 어떻게우민 돼마씨?

104001 #1 어떻허여. 풀을 허당 몰렸당.

104001 @ 무신 풀을 출헤영?

104001 #1 아니. 출나는 밧이 싯나게 이 조침도 먹주마는이, 이 새풀이라고 밧  
디강 비여근에 몰황으네.

104001 @ 새풀?

104001 #1 새풀이엔헌다게. 저 밧디강 비영 그거 비영 몰령으네 놀어듬서 맥여  
사주기. 조쩍도 조헤난 것도 먹주만은.

104001 @ 놀헤영?

104001 #1 놀영 놔뒤사. 헤당 몰리왕은네 묶으명.

104001 @ 게른 쉼 한 다섯무리까지도 키와났수과?

104001 #1 하영 키와났져. 밧디 살 때. 그디 새끼 나민 이 쉼가 식 술 넘으민  
새끼나는 거난, 그거 허영 막 돈도 벌어났주기. 쉼 키왕.

104001 @ 쉼 키와났덴 헛잖아예. 쉼은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지릅니까?

102001 @ 그른 쉼 몰 다 멧무리까지 질러났수과?

102001 #1 몰이 서너모리. 소는 혼무리 헤가지고 세무리까지 질루왓지.

104001 #2 어떻게 질루와게.

104001 @ 이견 뭐 특이헌 거 엇수과?

104001 #2 어.

104002 @ 쉼은 털색깔 털모양에 따라서 쉼가 종류가?

104002 #2 거 쉼 빨 안나는 쉼도 엇고, 이 깔 안 나는 쉼도 엇나. 검은쉼도 잇  
고 노란 쉼도 잇고 엇나게 누런쉼 그건 색깔이사게 검은 것도 태어나곡 노랑것도  
태어나곡 키와나곡 소로 간다. 사람 조름에 상 잠대 쉼가 가가민 졸졸졸 밧갈아 진  
다게.

104001 @ 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헤 주십시오. 빨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틀리  
덴 허고?

104001 #2 노랑쉼은 황쉼라고 허거든. 저게 노랑쉼가 검은 놈은 혁 검은 쉼 혁  
쉼.

104001 @ 검은 놈은 역쇠?

104001 #2 혁 혁쉼.

104001 @ 혁쉼?

104001 #2 응.

104001 @ 검은 높은 혁 이름이 황쇄하고 얼룩쇄예?

104001 #2 또 저 얼룩배기도 싯고.

104001 @ 얼룩배기는 무싱거렌 헛수과?

104001 #2 얼룩쇄.

104001 @ 얼룩쇄. 저 이 흰 것도 싯고 섞어진 것도 싯고 흰 거?

104001 #2 흰 거영 그 저 검은 것도 섞어질 때 싯주기. 쇠가 그거 얼룩쇄엔 허 주기.

104001 @ 섞어지민 얼룩쇄엔 허여예?

104004 @ 쉰 말들음니까?

104004 #1 사람 조름에 상 왕 허민 가당 사고, ‘형’허민 가곡.

104004 @‘형’ 허민 가곡?

104004 #1 으. 형 허민 그거 영허여근에, 쇠 양쪽으로 베 메영 형허민 왕 허민 사곡 허들락 허민 가곡. 왕 허민 사곡.

104004 @ 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

104004 #2 어떻게여.

104004 @ 밧 갈땐 길 들일 때 밧 갈때 길들이는 거?

104004 #2 그 저 밧가는 것도 거 쇠 그르치젠 허민 메칠 그르쳐사 밧을 갈고.

104004 @ 어떻 그르쳤수과?

104004 #2 상당히 그 저 괴로워 저거. 그거 그르치젠 허민 그걸 그르쳐 놔사 그 것 밧도 갈아지고 무싱 허는 거니까. 혼 메칠간.

104004 @ 머렌 험니까? 돌아사라 뭐?

104004 #2 돌아사라. 영 등그는 줄이 싯주기. 등기는 줄 느단착더레 등기는 거 원착더레 등기는 줄.

104004 @ 등기명 뭐렌 헛수과?

104004 #2 웨셴허여“왕”허여근 돌아사 영허고.

104004 @ “돌아사”,“가라”허민?

104004 #2 “가라”허민 가주기.

104004 @“가라”허민 가고“형”허민?

104004 #2 “형”허고.

104004 @ 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 질들입니까? 말듣게 허여? 질들여 사람 말 잘 듣게시리 밧 갈 때?

104004 #3 질이 익숙해져, 웃어른한티 배와.

104004 #3 으. 그르칠 때 말하는 거로구나. 그 저 상당히 힘든다. 멩에 곁은 거 썩우지 안행 놔비난 겐 잘 붙잡아근에 혼 사람이 셔야돼여. 갱 붙잡앙 멩에 썩와 낡 행 그때 쟁기 행 매와으정 처음 메른 소가 와당탕와당탕 막 들러퀸다 밧디서. 마냥 첫판에서 막 들러퀴주기 들러켓던 말앗건 쇠 뜯아멩기명 쟁기만 부서지지 않

을 정도로 뭐 허주기. 겐 행 놔두민 이 소가 이제 혼참 뉘헤가문 이 소가 혁신혁신 한다. 그때부터 쟁기로 딱 짚엉 밧 감시작허주기. 쟁 그때 ㄴ르치는 거 아니가?

104004 @ 쉼 갈땐 노래도 잇수과?

104004 #3 밧 블릴땐 노래싣주마는. 무신거 이쭈마는. 헉 으씩 헉 좌우로 좌우로 우로 경허명 간다.

104004 @ 밧블릴 때는 ?

104004 #3 허랑하랑 돌들 좋다 저 밧디 사람덜. 다 알아듣게 아이고 저 하르방은 소리 좋다. 경 헤낫주.

104005 @ 소의 나이 멧 살까지 사는고예? 소 키울 때 멧살 뉘민 폴아 불고.

104005 #2 아 그 이녁 므음.

104005 @ 1년에 혼번씩 새끼납니까?

104005 #2 새끼나는 دن.

104005 @ 멧마리 납니까?

104005 #2 하나게.

104005 @ 하나 일년에 혼 번?

104005 #2 일년에 혼 번.

104005 @ 그믐 야이네는 우리는 열달 애기가 뉘속에 잇수게. 야이네는 한 달.

104005 #2 혼 들?

104005 @ 강생이는 혼 들이면 납테다. 강생이는.

104005 #2 게, 개는 그거 뭐 혼 들뉘에도 나곡 허주만은 이것도 일반 사람이나 일반 일년.

104005 @ 뉘은 멧살까지 삽니까? 소는 멧살까지 살고?

104005 #2 소는 멧살까지 혼 삼십.

104005 @ 소는 메슬까지 삽니까?

104005 #3 거 사는 건 혼 멧슬ㄱ지. 다섯 여섯만 뉘가문 소 늙엇젠 허연 잘 사가질 안헌다. 늙어으네 힘 못쓰주기 소가.

104005 #3 힘 늘거근에 힘 못쓰주기.

104006 @ 쟁기는 뉘렌 험니까? 잠대?

104006 #1 으 잠대게. 거 허여사 거 허영 쉼 멍에 썩와근에, 영 허민 조름에서 밧 갈아간다. 쉼 잡아 뉘겨주곡.

104006 @ 일년에 혼 번 그 쉼왕에 잠대렌 험니까? 쟁기를?

104006 #2 쟁기.

104006 @ 예. 쟁기?

104006 #2 쟁기.

104006 @ 잠대들런 안으로.

104006 #2 잠대ㄴ라 쟁기엔 허주게, 이디선.

104006 @ 잠대 쟁기들런?

104007 @ 췌질메가지?

104007 #2 췌질멘 저 무시거 집 무시거 헐 때 이 췌질메쓰고 밧갈 때.

104007 @ 멩에 췌질멧가지?

104007 #2 멩에 이디 야게기에 헿은 밧 가는 거 멩에.

104007 @ 췌 야게기에 이렇게 바트는 거예? 멩에 췌질멧가지?

104007 #2 췌질멘 뒤에 이 등멩이에 낵 허는 것그라 질메.

104007 @ 길마의 부분 멩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7 #3 앞가지 뒷가지 오그라진거 싿져. 질메 고랭이줄.

104008 멩에의 부분 멩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8 #2 그냥 저 잠대에 멩에만 허민 영 잡아멩기민 밧 갈아진다게. 멩에 멩에 밧 갈 때 허는 건 멩에.

104008 @ 등멩이에 낵 허는 거. 그믄 멩에를 해서 어떻게 거를 그믄 이 잠대를 거허고 연결해 가지고서.

104008 #2 멩에에 줄드라메서 뒤에 이젠 쟁기레 줄라메영, 쟁헿 이제 밧덜 메영.

104008 @ 밧 가느거라. 밧 갈 때 그믄 멩에 줄 허는 거랑 다 헐 줄 아는 거 아 니예? 삼촌은예?

104009 @ 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목장은 없엇잖아예?

104009 #2 으.

104009 @ 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104009 #3 목장은 저 우리 월령은 목장이 엇고 개인에게 엇고, 저 금악우이 새 별오름 우에 그 목장이 개인목장이라. 게믄 그디 췌 올렛당 이제 내려올땐 집이서 간섭헐 때 출도 해난 것도 다 놀어놋당 싿멍 싿는 기계, 작두알지 작두로 싿어으정 콩각지도 싿고 경혜영 물 팔팔 끓이는 디 헿 놔둔 거 허영 끓영 주믄 잘 먹나. 경헿 소 키와와세.

104010 @ 풀아부러?

104010 #1 오래 못잘라. 양쪽으로 베 매영.

104010 @ 늣으믄 잡아먹기도 허곡?

104010 #1 너미 늣으민 것도 안뵤여게. 식살 나가민 일헿시작허연 췌가이 뵤곡 풀아부러 게 풀아부러.

104010 #1 일년에 혼번 새끼나는 따믄 하영 질라놋져. 일년에 혼번씩 난다. 꼬박꼬박. 그믄 풀곡 것도 돈 뵤고.

104010 @ 암커 키우는 게 좋겠다예?

104010 #1 암커나 수커나 다 지네 필요헌.

104010 @ 멧마리 키왓수과?

104010 #1 모르켜, 잇어불언. 멧마리나 키와져신디. 우리 산전에 사니까 췌키우 기 좋아라게.

104010 @ 쉼왕?  
104010 #1 쉼왕 그디서 큰 거 멘들양 허곡이.  
104010 @ 어디 어디 살안마씨?  
104010 #1 저 조수에 가는 디 산전이라고 이 그디. 아기 그디서 키우젠 집을 지  
시난 우리 조켄 갔단 방을 놔줘라게. 아래 영 불 숨으면 뜨시게 그디 살명 해낫져.  
104010 @ 여기도 집 잇고?  
104010 #1 이건 영행 놔두고, 쉼는 그디 밧디서.  
104010 @ 밧디서?  
104010 #1 무시겨 해다주느니게. 밥 행 먹고 밥허당 보민 뜨신 거 들어 강 살명  
해낫져. 뜨시난 애기덜.  
104010 @ 소는 여기서 안키우고?  
104010 #1 쉼 그디서 밧디서.  
104010 @ 조수에서 쉼 키와났다는 거지예?  
104010 #1 조수도 아니고 올라가는 중간에.  
104010 @ 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 소가 말 잘 들음니까?  
104010 #2 소가 말 시기민 잘 듣주게. 거 저디 네비는 쉼덜은 말 안듣주마는.  
집이서 질루는.  
104010 @ 그믐 소허고 몰허고 뭐 다른 점이 잇텐허면 어느 게 아까와마씨?  
104010 #2 아멩헤도 소가 밧가는 딴 몰로도 갈긴 갈아 허주마는 쉼가 낫주게.  
밧가는 딴.  
104010 @ 키우는 거는 먹는 가나? 뭐가 틀리지 않음니까?  
104010 #2 먹는 거 쉼가 틀리주기에. 몰이엔 현 건 집이서 아니 저을이고 거시  
기고 들에서 많이 살주게. 소는 항상 겨울엔 뭐 집 안에 메야.  
104010 @ 겨울엔 집 안에 이시난 식구같다는 생각?  
104010 #2 응 식구.  
104010 @ 게도 그걸로 풀아 불기도 하고?  
104010 #2 응 풀아 불기도 하고. 또 다른 걸로 또 바파도 먹고.  
104010 @ 걸로 또 잡아도 먹고. 겐 그렇게 해서 또 병에 걸령 죽고 이런 것들  
은 경험 안헤 밧수과?  
104010 #2 안헤봐서.  
104010 @ 겐 소에 대한 얽힌 추억 송애기 나는 거 거 봐밧수과?  
104010 #2 송애기 집이서 길루민 뭐 나는 거 보주기.  
104010 @ 나단 실패행으네 뭐 그런 경우라든가?  
104010 #2 실패허는 건 안 밧주마는 집이서 그냥 나.  
104010 @ 쉼에 대한 어떤 물뻘이레 가민 어디레 강 물 뻘입니까 여기서?  
104010 #2 요디 저 물통에.  
104010 @ 이름이 뭐우과? 물통 이름이.

104010 #2 이딴 물통 저 무꿍디 무꿍물.

104010 @ 무꿍디 무꿍물 사람은 안 먹고 마씨?

104010 #2 안 먹고. 무꿍물 옛날에 먹어난 물 그 옆이.

104010 @ 아 옛날에 먹어난 물은 이름이 뭐 마씨?

104010 #2 그디도 무꿍물인디.

104010 @ 무꿍물 두 군데가 잇구나예? 두군데가 있는디 하나는 사름 먹는 물?

104010 #2 하난 이쪽엔 사름 먹는 물.

104010 @ 무꿍물 둘 다 무꿍물. 아 둘 다 무꿍물인디 하나는 사름 먹는 물 하나  
나는 쉼 먹는 물?

104010 #2 우 아래 잇주기.

104010 @ 우 아래 계민 옛날에 목욕해난 다음 몸 행구는 물도 잇수과?

104010 #2 쉼먹는 물에 목욕허여.

104010 @ 사람덜 물 먹는 건 아경 놔두고, 쉼먹는 물에 무꿍물에 사람덜 목욕  
허여?

104010 #2 목욕도 허곡.

104010 @ 목욕은 여름에 바당에 몸 행굴뎀 어디강 다 무꿍물?

104010 #2 무꿍물에도 해야주게. 집이 물 질어당도 허곡.

104010 @ 바당에서 이렇게 물 솟아나는 물은 어섯수과? 다 저 어디 험재랑 이  
런 데는 물이 이수게.

104010 #2 어. 그딘 잇주마는 월령엔 비나 하영 올 땐 저디 내리는 물이 이서  
나서.

104010 @ 비 오면 내리는 물 잇엇는데?

104010 #2 메칠만 뉘민 끊어져 불어.

104010 @ 이 무꿍물은 물이 계속 이섯수과?

104010 #2 어. 무꿍물은 물통이니까 그냥.

104010 @ 그믄 그것도 싸고 들때마다 물이 그런 건 엇고?

104010 #2 엇고.

104010 @ 아 바다에 용천수가 물 몸 보시 허는 디가 이실건디?

104010 #2 어서.

104010 @ 것이 어서마씨? 그믄 해엄치당도 해너들이 물을 저 목욕허젠허민 어  
디로 가?

104010 #2 어디로 가게.

104010 @ 무꿍물로 가야돼여?

104010 #2 바깳딘 어서.

104010 @ 집이서는 옛날 수도 안 나올 때?

104010 #2 물 질어당 놔 둔 거게.

104010 @ 바당에도 물이 엇구나?

104010 #2 없어.

104010 @ 신기하다예? 여기에 그믐 무꾼물이 지금도 보관돼 잇수과?

104010 #2 아, 잇어.

104010 @ 어어.

104010 #2 먹는 물도 이제 물은 그디도 이제 터불엇어.

104010 @ 터불곡 보관을 해야 텔건디예?

104010 #2 먹는 물은 수도가 나오니까.

104010 @ 수도는 어디 한림에서 끄서당 먹엄수과?

104010 #2 한림.

104010 @ 무꾼물이라는 말은 삼촌안티 처음 들엄져. 그믐 무꾼물에서 그거 먹고 그믐 하루에 멧 번 물을 맥엿수과?

104010 #2 흐루에 흐번 맥이주게.

104010 @ 그믐 거기 이 동네에 친구들이나 누군 다 거기 목욕도 허곡 물도 먹이곡?

104010 #2 물도 먹이곡.

104010 @ 여자탕 남자탕 이서사주 쉐도 먹여야 웨고?

104010 #2 아 여자탕도 이서 도밧디.

104010 @ 여자탕 남자탕 이서마씨? 그믐 쉐 물맥이는 탕은 남자쪽이파?

104010 #2 응 남자쪽.

104010 @ 응 그믐 쉐 많이 키우는 사람은 멧시에 밥 물 맥이레 갑니까? 보통 아침 일찍도 가고?

104010 #2 일찍도 가곡 거 비교 없어 시간이 없어.

104010 @ 여기 동네 형이라든가 막 괴롭히는 건 어섯수과?

104010 #2 없어.

104010 @ 사이 좋게덜 다 먹고 먹을만큼 먹고 겨믐 집이왕 쉐왕에 묶으고 흐루 흐번 꼭 가야웨마씨?

104010 #2 꼭 가야웨주 흐루에 흐번 쉐는 맥여야.

104010 @ 퍼당 또 집이서 줄 수도 잇고.

104010 #2 어 경허주.

104010 @ 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10 #3 못긋디 무꾼물 낮 되어서 물맥이레.

### 말 기르기

104011 @ 물은 안키우고 뭉생이?

104011 #1 그건 안 허곡 쉐만 키와났져.

104011 #2 물은 집이 메는 사람이 드물어.

104011 @ 어디 갑니까?

104011 #2 꾀디.  
 104011 @ 꾀 잇수과? 다 뉘영 놔뉘마씨 게민 어떻.  
 104011 @ 어떻 자기네 걸 알앙 데려와?  
 104011 #2 이녁물은 알주게 헤헤.  
 104011 @ 동네사람 말덜이 거기 잇다는 거지예 그른 그 밧디 알앙 저녁웨민 데 리레 가?  
 104011 #2 저녁웨민 물 멕일때나 흐김 멕이곡.  
 104011 @ 일년내내 놔뉘니까 경.  
 104011 #2 일년내내 놔두는 디도 있고 거 부릴 때나 몰아당 그 밧이나 불리곡 게.  
 104011 @ 그 들판에 주인은 어서 마을 목장도 아니고.  
 104011 #2 목장 아니고.  
 104011 @ 거기 놔뉘수다 허락은 받아야 웰 거 아니?  
 104011 #2 허락은 무슨 허락 꾀디.  
 104015 @ 말새끼 나는 것도 봐뉘수과?  
 104015 #2 응. 몰도 길루민게 집이서 안나주마는 멍 나두민.  
 104015 @ 밖에서도 낱고?  
 104015 #2 으. 밖에서 나. 밧디서.  
 104015 @ 말도 마찬가지로 마씨?  
 104015 #2 흐뉘 질뉘당게, 폴아불고.  
 104015 @ 들은 들도 경 누구 사감니까? 말고기도 안 멕잖아예? 옛날에.  
 104015 #2 멕으나 안 멕으나. 거 뉘 폴아불고게. 들은 하영 질루는 사람덜이 이 서.

## 떡이

104016 @ 쉼출이영 뉘어는?  
 104016 #1 그디서 막 비영 놀엇당 멕이곡게.  
 104016 @ 아저씨랑 같이?  
 104016 #1 으게 그디 또 집도 크게 지서났져. 쉼 질눌디.  
 104016 @ 또 무슨 거 콩 뉘?  
 104016 #1 것도 먹고 쉼출도 먹고. 이제 그 집 영 허영 바당 이뉘터레 몰도 반 앙 얼마던지 거기서 먹고. 에이고 밧디 살명 침 일도 잘해났져 젊을 때. 이젠 안햐 주만..  
 104016 @ 그추룩허난 애길 키와젧구나예?  
 104006 #1 몰라게. 그디 살명 허난이 멧그물 햐주기 이디 사난게.  
 104016 @ 말이나 소나 멕이는 똑같아마씨?  
 104016 #1 몰르켜. 들은 쉼마니 값을 안 쉼 안 질라진 쉼이라이.



104016 @ 출이레 허는구나예?  
104016 #1 췌먹는 건 췌출.  
104017 @ 꿀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췌출은 공짜로 허는 게 아니고 사야지이?  
104017 #1 아니 농사지으민 그거 물령 놀민 췌가 먹어이 조췌 콩췌.  
104017 @ 마소의 먹이는 아까 콩췌 조췌 감재줄 꿀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17 #2 콩칩 조칩 감자 출 것도 섞엉멕이주게. 혼것만 멕이지 앓허영. 출은 사야 이녁맞거나.  
104018 @ 어디강 소출은 비어당이네?  
104018 #1 아 췌출 비는 밧도 잇나. 그 췌출만 나는 디. 그거 헤영 물류민 췌꿀 이라고 조헤나민 조췌, 밧디 강 그거 비는 거 췌꿀 그거 다 놀엇당으네 췌 잘 먹나.  
104018 @ 벨 때는 어떻 출베는 소리도 이렇게?  
104018 #1 아. 우리 그뻐 호미로 비어낫져게. 이젠 기계도 싯주마는. 이 우리 헐 뻐.  
104018 @ 진 호미파?  
104018 #1 저 호미라고 글갱이 닳은 거 무사 이만이 헐 거. 이제도 그걸로 비어 낫져. 이제 기계로.  
104018 @ 안장 그냥 베어마씨. 짓도 묶어가지고.  
104018 #1 바삭 물령 묶엉 놀어둬서 췌줘낫져게.  
104018 @ 꿀베기는 안헤밧지예. 사버리난 호미가 큰 호미로 헐니까?  
104018 #2 아니아니 호미로.  
104018 @ 췌췌헌 일호미로 베고. 베보긴 헛수과? 췌출헐 때 이렇게 베밧수과?  
104018 #2 응.  
104018 @ 그걸 묶음니까? 또?  
104018 #2 또 묶어야 주게. 비영 어떻헐 으정으젠.  
104018 @ 경헤야 가정오지. 어느 만큼췌 묶엇수과?  
104018 #2 요만췌 묶언.  
104018 @ 거는 보리보다 적게?  
104018 #2 으 적게.  
104018 @ 가져오기 좋겐가?  
104018 #2 그 췌른거라노난 크게 묶으민 빠지거든. 그게.  
104018 @ 아아 췌른거난?  
104018 #2 응. 빠져볼주게. 영 조그만췌 묶어사주.  
104018 @ 출 베는 거 헤밧수과?  
104018 #3 출 멧사람 빌어아정 출비레 가주기. 출왔디 비어으정 끄트머리에 강 다 묶어오곡.  
104019 @ 아 또 가을에 하잖아예?  
104019 #1 으게. 날 추운디헐다게.

104019 @ 그믐 그걸을 또 운반해당?  
 104019 #1 그디 늘어둬서 그디서 쉼도 키우고 집도 큰 거 지서낫져. 그 므쉬 키우젠허난이 맞디.  
 104019 @ 아 또 가을에 하잖아예?  
 104019 #1 으게. 날 추운디했다게.  
 104019 @ 그믐 그걸을 또 운반해당.  
 104019 #1 그디 늘어둬서 그디서 쉼도 키우고 집도 큰 거 지서낫져. 그 므쉬 키우젠허난이 맞디.  
 104019 #2 새풀허는 밧이 이서? 토지가?  
 104019 @ 지네밧이.  
 104019 #2 아니라도 사당 맥여.  
 104019 @ 삼촌은 밧 이서낫수과?  
 104019 #2 밧 어서나고. 우린 저 새풀 맥이젠 허믈 저 산간에 강.  
 104019 @ 산간이 어디과?  
 104019 #2 산간부락에 강으네 사당 맥이주게.  
 104019 @ 사당 날라 올때는 뭇로 날라옵니까? 새풀?  
 104019 #2 그 뎨 구루마도 잘 어서.  
 104019 @ 그믐 뭇로?  
 104019 #2 뭇로 어떻.  
 104019 #2 뭇로 행 강 시꺼오주게. 뭇로 쉼로.  
 104019 #2 등뎡이에 질메난 그 시끄는 거시기가 이서.  
 104019 @ 아 시끄는 거 출을 시경 집이 왕 이것도 놀영?  
 104019 #2 놀영게.  
 104019 #3 옛날 구루마싯지 구루마. 쉼구루마 구루마에 왈그락왈그락 구루마에 다 싯경 뎡겨낫져.  
 104020 @ 놀이 뎡개라?  
 104020 #2 흔짐 다 놀어.  
 104020 @ 놀영?  
 104020 #2 빠뎡 맥이주게.  
 104020 @ 빵으네 맥이고 이것저것 섞어가명예? 소여물은 아까와 같은 거 콩 콩도 줍니까?  
 104020 #2 콩 콩각지 잘 뭇령 뇌뒤사 쉼도 주고 허주. 콩각지.  
 104020 #3 딱다 가지고.  
 104021 @ 풀 베기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21 #3 호미로 아자서 출베는 소리.  
 104021 @ 선낫으로?  
 104021 #3 그건 우린 경 안헌다.

104021 @ 출베는 소리 해낫잖아예?

104021 #3 이젠 느려게. 다 머리에 기억돼시몬 허는다.

### 멜감

104022 @ 그믐 멜감은?

104022 #3 멜감은 우리 저 옛날 멜 때는 이 산에 강 이 산 곳자왈이거든. 월령 이 곳자왈이난 조끔만 올라가른 나무덜 쌓영이서낫져. 그거 비어당 막 데메주기 일 년 행 놔두민 낭 삭아으정 그거 주서당.

104022 @ 그거 지들커를 삭다리렌 험니까? 뭐렌 험니까?

104022 #3 지들커가 지들커주 무신거.

104023 @ 쉼똥 똥똥.

104023 #2 똥똥 소똥 주서당으네 그 딱시게 멩들주 허주게.

104023 @ 집에 것도 놔둬니까? 버리지 않허영?

104023 #2 버리지 않허여.

104023 #1 그것도 몰류왕 불도 습어나고 집이 것도 똥곡. 어디 강 에와난디 강 주서당도 몰류왕 습고 해낫져. 응. 쉼나 물이나 밧디 에우주기게이. 케민 그런디 강 주서당으네 몰류왕 불도 습고.

104023 @ 몰류왕 굴묵도 때곡?

104023 #1 으게, 경해났져. 옛날.

104023 #2 정지에 불도 습고.

104023 @ 굴묵만 지섯수과? 말똥 소똥은?

104023 #3 밥도 행 먹엇져. 쉼똥으로 납작납작하게 행. 우이 덮어 놔두민 납작 현다. 돌래떡 모양으로 나무영 잘 몰라 거 두어개 지덩 놔두민 잘부튼다.

104023 @ 밥도 행 먹고예?

104024 @ 여긴 옛날 지들커 중에 저 산이여 오름이 어시난 소냥이난 이런 거 술잎 그런 거 안해낫겠다예?

104024 #1 무사 소냥밧디 강 술잎도 굽어당 솟어나고 굳디강 낭도 허당.

104024 @ 지레 어머니는 술잎도 끌영 오고?

104024 #2 으. 술잎도 글영오민 마중가고.

104024 @ 술잎도예?

104024 #3 글쟁이 아니가게. 나도 술잎 끊으레 많이 텅겨낫져. 오름에 판포오름 정월이오름. 나도 많이 해봣져. 못으로 만들영.

104025 @ 멜감은 지들커렌 허지에 삭다리?

104025 #1 거 무신 말고 으게. 지들커엔 현다게. 그 때는 거 삭다리엔도 허주마는, 요 흐뎡 우터레 가민 곳이라고이 그디 강 해당덜 지더낫져.

104025 #1 곳디 강 낭도 해당 습고.

104025 @ 무슨 낭이 많은 고?

104025 #1 섬피낭. 꽃디 허는 건 섬피낭이 소낭 같은 건 못 하게 해놔져게. 막 안 섬피낭 같은 거 해사돼메. 이젠 저영추룩허민 톡허게 불도 나오꼭 허주마는 옛날은 다 해단.

104025 @ 꽃자왈헐 때 꽃?

104025 #1 꽃자왈을 꽃이렌 헐다. 그디강 우트레가민 꽃에 강으네. 보리 해난 거 보리낭으로도 걸로도 불습고 조 허여난 건 쉼덱이고 보리낭은 쉼 안 먹나.

104025 @ 조그만씩 뭉엇따예? 마소의 먹이 삭다리 뺄감허레도 가 봤수가?

104025 #2 낭허레 저 것도 산간으로 가사 행 와.

104025 @ 한림우에 저 산간으로 간 삭다리?

104025 #2 삭다리 같은 거 헤영 와.

104025 @ 삭다리 꺾영 정 읍니까?

104025 #2 정 오주 어떻허여.

104025 @ 삭다리 정 오고 뭐 지들커옌도 헉니까?

104025 #2 지들커허렌 가는 것이라 지들커허옌 허여.

104025 @ 그른 술잎 글그는 건 여자들이 허고 남자들은 그런 글갱이로 글그진 안허고?

104025 #2 여자들이 다 굶어.

104025 @ 나무 많이 행 와 봤수과?

104025 #2 나무도 벨반 난 안 헤봤주마는.

104025 @ 아버지네 경혜야 겨울에 굴묵 지들 때?

104025 #2 경혜사 겨울에 굴묵짓어지고.

104025 @ 소똥 말똥도 주워보고 아이들이영 모영 뺄감 그 저 삭다리 누구랑?

104025 #2 친구들도 갈 땐 사람덜 하영가. 부락 사람덜.

104025 @ 그른 어른들이영 같이?

104025 #2 어른들이영.

104025 @ 응. 같이 가면 술똥도 줍고?

104025 #2 술똥도 줍고 하근거. 다 술똥은 허레 그까지 안가주마는. 그 저 뺄고 낭허레.

104025 @ 삭다리 낭 아무거나 헤도 또 안돼지예?

104025 #2 삭다리.

104025 @ 삭다리허민 아이덜이영 아버지영 주로 많이 갓수과?

104025 #2 아이덜도 안가주마는 그 저 부모네가 많이 가주기 가민 지레 마중가 주게.

104026 @ 숯굽는 숯도 구워난디 잇수과?

104026 #1 모르켜. 숯도 구운 사람덜 구워실거메.

104027 @ 여기도 굴묵이 이서났지예?

104027 #1 으게, 굴묵셔났져. 옛날더렌 다 이제사 온돌로 낡주마는 굴묵지더났

져.

104027 @ 멧술때부터 그추룩 술있도 글그레 가곡, 쉼똥 똥똥 주시레 가곡?

104027 #1 그것사 그자 아무 때라도 때 탕.

104027 @ 어릴 때부터?

104027 #1 으. 걸어만 지민 걸어만 지민 가는 것이 아니고, 거 해영 정 해올만이 커사게.

104027 @ 열 살 넘어가면?

104027 #1 게 계난 그걸 혈만허민 가근에.

104027 @ 친구들이영 동생이영도 가나곡?

104027 #1 게 경도 가고 이녁만도 가곡. 그자 거 행와사 불도 숨고 허니까 이젠 툭허민 불 나오곡 가민.

104027 @ 바당에 강도 뭐 주성오곡?

104027 #1 물에도 들어나고 .

## 사냥

104028 @ 사농은? 꿩사농 노루사농 지달이사농?

104028 #1 그런 건 모르켜. 아니해난.

104029 @ 꿩고기 그런 거 먹어 낫수과?

104029 #1 몰르켜. 들음만 해낫져.

104029 @ 사농 꿩사농 꿩 잡아봤수과? 꿩 꿩코 낳으네 놀이?

104029 #2 그런 거 이디 안헤여.

104029 @ 그 다음 꿩바치 있으면 꿩사농 사농바치?

104029 @ 꿩바치?

104029 #4 꿩바치? 총허영 저 총이 아니고 것도 낭 대막땡이엔 대막땡이 옛날 인 대 막 슬진거 허나허영 어깨 노끄애기 이디 매고 이디 매고 어깨 이제 군인덜 총매영 허듯 그것이 이제 켁 꿩 잡으레 땡기는 산신이라.

104029 #4 꿩 마치레 꿩사농. 옛날 꿩사냥 산에 강 모 꿩사냥 땡기든 모재가영 ㄹ트민 털모자 이거 ㄹ치 거 썩영으네, 이제 마구리해영 썩영 거 썩영이네 망땡이닭은 거 맹글양 이 어깨매영 매영 이젠 그 꿩이 사람 이제 거 하르방이 이제 땡기멍 이만헌 막땡이 으정 땡기멍 그 꿩이 옛날에 옛날에 꿩이 오렌허든 사람 앞더레 느려 오더라 한다. 꿩이 저 꿩이 영허영“이레오라”허민 그 하르바지안티 앞더레 왕앗아.

104029 @ 하르방이 월령에 이섯수과?

104029 #3 불잡양 먹곡 해난생이라. 게민 큰 굿허레도 가른이 그 옛날 하르바지가 꿩사냥 해나든 이제 산신 꿩사냥해낫젠 그 득 흔마리 허영 꿩 잡으레 땡겨 꿩 두러매영 이디 영 지영 지영 가그네 “쏘았져”허영으네 이레오렌 해영 두러매영 막 대기 닭은 거 업고 망땡이 닭은 거 요만헌거 어깨매영 온 그 옛날에 옛날에 그거

지. 계난 그 집이 꿩사냥 해난 사람이 어신가 매사냥해난 사람 어신가 그것이 일월  
이야 심방덜 강 굿허멍 그 일월 “선왕일월 이수과?” 허믄 배타믄 선왕일월 바당에  
선왕 배 탕 땡기는 사람이 그 늙은 돌아가신 날까지 그 배를 운전행 땡기믄 선왕일  
월이 있구나 허영 선왕상 행 따로 놀리고 건 일월로 돌아가신 날까지 일월로 들어  
가는거야. 그배를 운전행 땡기믄 이디 선왕 일월이 있구나. 허영 선왕 상 낱 놀리고  
일월로 들어가고.

104031 @ 지달이 들어봤지예?

104031 #1 듣긴 해난디. 먹어보진 안했져. 지다리 들어나긴 했져. 아니 해났져.

104031 @ 지다리 마을에 잡는 사람들이 실건디?

104031 #2 실거주마는 안헤여.

104031 @ 옛행 먹고?

104031 @ 월령에도 지다리영 꿩이영 잡아난 사농마치가 이서났수좌?

104031 #3 지달이덜 많이 잡아났져. 개로.

104031 @ 개로?

104031 #3 으. 개로 잡아났져.

104031 @ 누가 잡는 사람 따로 이서났수과?

104031 #3 으. 많이 이서서.

104031 @ 지달이를 오소리렌 험니까?

104031 #3 아니 무싱거 닳은 거 아니가게.

104031 @ 족제비?

104031 #3 저 지달이 돼야지 형체가 돼야지 닳지 않허냐 지달이.

104031 #4 아 지달인 코 낱게.

104031 #3 게멘 그거 잡으레.

104031 #4 지달이 지달이엔 헌건 이디 ㄱ트민 돼야지 산돼야지. 요놈이 나 옷ㄱ  
치 까망허여 지달이가 밤이오민 저 곳디 영에 들어강 이영추룩 사진 기계추룩 영  
허영 코 낱 코 낱 놔두민 걸어지믄덜 것덜 것 강 잡아당덜 네시 허영덜 약도 행떡  
고 잡양덜 먹고 경해났져. 월령도 막 내려와났져. 내려와난 멧 해 돼서양 사람 문  
죽업젠 지달이 내려 왔젠 노루 내려왔젠 해나서. 꿩덜도 막 내려와 영 방 때는 굴  
목 어귀에 싯져. 영 들어가민 방때는 구 굴목이엔 혼디 우트레 뿔덜 놓고 허는디  
그디 오랑 앓안 우리 친정어멍네도 막 오란 아쫓난 우리 친정어멍네 노리 담아정  
담아지난 말젠 개덜 못 잡아렌 험시네 그거 옛날 풍습 옛날이멍 말멍 세종이네 산  
때나.

104031 #3 으게, 오래됐져. 혼 60년 70년 가까이 됐져.

104031 #4 역스를 다 읽젠허민 한정이 엇지. 한정이 어서.

104032 @ 옛행 먹고 뭐 족제비 들어봤수과?

104032 #2 족제비도 이제 땡기긴 허여. 그전에는 족제비도 잡아나서. 저기 덧낱  
으네.

104032 @ 덧낱으네예? 들어보기만 헛구나예?  
104032 #2 아니 그런 것도 보긴 봐 난.  
104032 @ 사농 월령에도 이서나신가?  
104032 #2 족제비 곁은 건 허여도 꿩사농은 아니헤여.  
104032 @ 아, 무사마씨?  
104032 #2 몰라. 그런 건 안해도 족제비 잡는 사름 셔낱주기.  
104032 @ 이서낱수과? 이서난? 월령에 이서난?  
104032 #2 잡앙으네 풀주게.  
104032 @ 오일장에 간예? 지달이는 모르고?  
104032 #2 지달이는 모르고.  
104032 @ 아까 사농은 꿩 노리 지달이 족제비 족제비도 잡아봤수과?  
104032 #3 족제비 나 덧 낱 잡아 낱져. 덧 덧 덧.  
104032 @ 족제빈 잡앙 뭐헛니까?  
104032 #3 그때 왕 사가라 사례 와.  
104032 @ 털 때문에 사 감신가?  
104032 #3 덧 낱 잡아낱져. 그거 헤영 족제비 잡앙 영 벨랑 소곱에 술은 헤영  
드룬디 나두고 꺾데기 헤영 짝 막 담앙 팍허게 행 뇌두른 이 짝으로 담앙 허른 멧  
진다. 그거 행 왕 족제비가 색깔 터럭 터럭 터럭 좋으른 돈푼이나 주곡 터럭 안 좋  
은 건 돈 푼 안준다.  
104032 @ 삼촌도 이추룩헛 잡아봤구나예?  
104032 #3 응. 나 잡아낱져.  
104032 @ 풀아도 보고예?  
104032 #3 응.  
104033 @ 그거 해난 사람 마을에 있긴 잇지예?  
104033 #1 몰라 어서낱져. 이딘.  
104033 #4 매는 뭐시넛 허민 이제곶으민 비둘기 하간거 날아댕기지 안허나. 매  
를 잡으민 이디 곶으민 참매 참매.  
104033 @ 소로기?  
104033 #4 소레기 닳은 거. 춤매가 이서 쪼그만 헛 거. 경허른 이젠 그 사냥허  
당 보른 그 다음은 뭐시냐허른 소로기 매 소로기. 매 허른이 옛날에 옛날에 못살른  
독통에 요만이헛 거 짝으로 맨들앙 망탱이 맨들앙 영헤영 아쨍 굴묵더레 가는 디,  
강 아지른 망탱이 맹글랑 빙아리 깨우고 득세기 내왕 빙애기 막 여러개 스무개고  
이제 열다섯개고 그것이 바글바글 행 깨우민 날 조른 얻어 먹영 살 수가 어성 밝기  
디덜 막 주워먹으레 나오민 공중에 소레기 소레기매가 텅기당 문딱 하나고 두 개곡  
문딱 그거 다 주서아정 강 또 강으네 놓아뒀으네 따로 그 집이 따로 들어오라가난  
아이고 그것도 못쓰겠다 어뎡헤영 잡으코 허른 이 놈의 맬 잡당 버치민 요런 그물  
도 영허영 낱으네 이것에 걸어지건에 심주기. 경 안해도 거러지지도 앓허고 경허난

말젠보난 둠은 새끼 없거던 만딱 다 차가비연. 차가부난 한번은 주인이 허는 말이  
 득은 질황 하르방그라 하르방 사는 딘디“아이고 하르방 득 질황 뿔거험네까득 문딱  
 다 차가부렸수께” 게문 저 나가 노끈애기 영 행으네 옛날 그물이 없거든 찍으로 허  
 영 몰락헌 망사리 모작허영 못듯 행 므상 영허연 이것에 걸어정 잡으민 따시 아니  
 온다 야이도. 자꾸 그놈의 소레기가 그놈의 집이 강 영흔 동산에 아자근에 영허영  
 어디 빙아리나 잡아지카부텐 으시룩 행 앓아도 못 잡거든 게난 그 집엔 그 매가 안  
 뎡것젠 햄세 이젠 안텡기난 이제 또 흔 집이가 이젠 내와 노난 빙아리가 스무므리  
 난 스무개 이십개 깨와노난 둠통으로 하나 게난 이걸로 어떻허영 간신힐나 굴목에  
 서 매는 거주기게 옛날 불때곡허영 뿔뿔이렌 허는 거 싯져 굴목 때영 굴목 방 때영  
 딱시게 허게시리. 그거허영 때명으네 강 보난 “아이고 어떻헌 이 집인 빙아리가  
 영 훗영 북실북실만씩허영 영 번들번들해영 질라잡디가”, “저 굴목 어귀에 영허여근  
 에 무싱거 포장쳐근에 매들어오지 못허게시리 마강이네 질롭서 질루른 질라잡니  
 다.” 허난에 “하이고 나도 경헤여 보카?”영헌난 경헤도 안웨언. 안웨어네 이젠 그집  
 이서 그 사람덜 빙아릴 막 깨완 득해연 이집저집 막 기냥 흔 마리씩 다 사잡셴허멍  
 다 쫓젠 햄시네 그것이 옛날 풍습이라. 옛날 옛적에 매는 뽀시넨 허민 매를 잡으민  
 이디 굴으민 비둘기 하간거 날아댕기지 안허나소로기 참매가 이서 쫓끄만흔거 참매  
 가 이서. 사냥허는 거 허다 보문 그 다음은 뽀시냐허든 소로기 매 소로기 매허든  
 옛날에옛날에 영 이레오렌 망탱이 닳은 거 맨들앙아찌든 빙애기깨우고 싯영 어깨매  
 영 매영 이젠 그 꿩이 이제 하르방이 이제 뎡기멍 이만헌 막뎡이 으정 뎡기멍 옛날  
 에 옛날에 사람 앞더레 놀아 오더라 현다. 꿩이 이레와 옛날에 옛날에 하르바지 앞  
 더레 왕 앓앙 꿩 사농했젠 지영 그거 허여그네 해영 그 지막때기 닳은 거 어깨매영  
 망탱이닳은 거 맨글앙 어깨매영 옛날에 옛날에 사농 일월이여.

## 5. 바다일

105001 @ 바당에 들어감수다. 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01 #1 짙은 바당에 전복도 해영오곡 젊을 때 메역나곡.

105001 #3 즈수가 허는 말가? 우리가 남자가 허는 일 말가?

105001 @ 남자가 허는 일?

105001 #3 옛날에 우리 바당에 강 자리도 막 털영 풀곡 현다. 자리 자리 자리  
 싯지?

105001 @ 예. 자리 테 탕 강?

105001 #3 배 탕강게.

105001 @ 배 탕 강, 테우?

105001 #3 테도 탕 강 허는 사람도 이서.

105001 @ 옛날 테 탕 강 뿔로 걸여마씨?



105001 #3 족바지로덜게.

105001 @ 족바지로 걸이고예 그런 일을 여름에 했다는 거잖아예, 건예?

105001 #3 으. 여름에 자리 거린다. 겨울엔 당추.

105001 @ 거른 고기 낚으레 갈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갓수과?

105001 #3 으으. 낚으레 갈때는 오늘도 날 좋으민 낚으레 가는 거주.

105001 @ 아. 그른 어느 코지에 가야 고기 많이 낚으고 허는 거? 뭐가 잘 낚아  
마씨 여긴?

105001 #3 우린 저 돛 잡으레. 저 차귀 섬 싯지.

105001 @ 차귀섬이 어딿과?

105001 #3 차귀섬도 몰라? 고산.

105001 @ 아, 차귀. 예 거기 갑니까?

105001 #3 거기 강 멧시간 나상 그디 강 그물 낚, 옥덤덜이 차로 멧시간 나왕.

105001 @ 차귀섬 대섬이렌 험니까? 대나무가 많아서 바구니를?

105001 #3 옛날 그디 대왓디 셔난 모양이라. 으응.

105001 #3 전설에도 그런 말이 이선게.

105001 @ 응.

105002 @ 여기도 듬북 감태 이런 거?

105002 #1 감태 곱은 거, 바당에 난다게.

105002 @ 그른 그거 주서당 뭐헨 마씨?

105002 #1 그거이 전인 그런 거 막 저 무싱거꼬 저 얼로 아니 그런 거 모왕 바  
당에서 영 불때민이 딱딱헌 그 그거 받아낫저게. 옛날이 애야 그거 개장에서 슬민  
이 감태 야 딱딱헌 병탱이가 딱딱해낫저. 거 게 이 거 받아나서 우리 어린 때 이젠  
그런 거 안헌다.

105002 @ 바당에서 받아난 마씨?

105002 #1 아니. 우리가 바당에서 거 바당에 난다게. 감태가 그거 해당 불 슬민  
그 불이 그것이 딱딱해낫저게. 해양한게이. 그거 받아나서 그뎨 풀아나서 거 해연  
뿔사 해신딘 몰라.

105002 @ 일본에서도 사갓텐 험디다게?

105002 #1 아 거 보라. 그런 때 이거지 방문해낫구나이. 아메도 맨드는 것이 선  
해난 거 아니.

105002 @ 듬북 감태도 해뵈수과?

105002 #2 감태 감텐 안헤도 월령도 감태 행으네 불살라그네 해뵈주.

105002 @ 어머니 헤 낫다예? 삼촌은 안헤보고?

105002 #2 난 안헤보고.

105002 @ 응 공동으로도 막 행 풀고?

105002 #2 으.

105003 @ 여긴 강이렌 험니까? 게를 고동 보말을 보말?

105003 #1 아 보말. 으게.

105003 @ 보말이엔 허곡, 고동이렌 안허곡?

105003 #1 고동이엔 허는 디가 어디 실거여마는 이딘 보말이엔 혼다.

105004 #1 크난 코토새기 담 일리민 잡아져 수두리 까마귀보말 쪼쪼한 거. 먹보말은 거멍허영 허곡. 수두린 색깔이 달랑 수두리가 커 베말, 베말 잘도 든다. 아맹이라도 된다. 납작허게시리 딱딱 솥양도 먹고, 굽벗 물 데왕 두루치기 헤영 작작 밀어 밀민 아무거라도 허영 먹어. 겁죽도 벗어지고 밀민 헤양허게 나오난 아무거나 해먹주. 전인 우리어멍넌 그거 해당 불도 숨고 우리어멍넌 그거해났져 풀아나서. 우리 물에 들땀 풀아보지 아니허곡 안 우리어멍 물에 들 때 솔민 딱딱헌거 나오민 그거 무싱거 행고이? 바당에서 지딩 캐와 재가 헤양헌게 딱딱 스라난거. 재를 풀아뵈사해산디 우리 막 어릴 때 툷 바당 이제라도 해당 먹어 툷양 먹어 우미 짚은디 나는 거고 툷은 아무나 우민 짚은디 나곡 솥양도 먹 우미 짚은디 나곡.

105004 @ 고동은 어떤 고동이 잇는지 알아지쿠과? 보말 무슨?

105004 #2 보말도 여러 가지여.

105004 @ 이름 기억나는 거?

105004 #2 기억나는 거? 무신 수두리여 무신 까마귀보말이여.

105004 @ 쪽쪽보말이여. 매홍이?

105004 #2 매홍이, 또 무신.

105004 @ 그른 음. 고동 구쟁기 보말 이런 거 곱아봅서. 보말?

105004 #4 수두리보말, 먹보말, 쿳토테기, 문닥지, 저 그거 구쟁기게.

105004 @ 구쟁기도 암구쟁기 숫구쟁기 잇수과?

105004 #4 으. 대 중 또 이제 각엔 가민 요만씩 헌 거 쪼금씩 쪼금씩 헌 거. 건 못 잡게 허는 거주게. 바당에 강 잡아당 이 바당에도 들이치곡 경허영 허는 거.

105004 @ 애기보말 이런 건 엇수과? 쪽쪽보말 애기보말?

105004 #4 애기보말은 엇고 애기보말도 싯주마는. 원칙엔 수두리보말, 먹보말, 쿳토테기, 문닥지 그거 것뿐이라. 보말덜 이름덜은.

105005 @ 게를 강이 쟁이?

105005 #1 강이엔 허곡게.

105005 @ 돌킹이?

105005 #1 돌킹이. 헤헤 춤킹이.

105005 @ 춤킹이?

105005 #1 싯강이 싯강이.

105005 @ 싯강인 뵈짜?

105005 #1 싯강인 얼룩얼룩허곡이.

105005 @ 아 싯강이? 아 이거 처음 들어본다예. 얼룩덜룩예 싯강이엔도 허고?

105005 #1 얼룩얼룩혼다. 싯강이라고 강이 색깔이 얼룩얼룩혼다. 싯강이.

105005 @ 또 다른 강이는?

105005 #1 지름깡이, 춤깡이, 싯깡이. 난 거백이 모르커라.  
105005 @ 아 지름깡이, 춤깡이, 똥깡이?  
105005 #1 게메. 똥깡인 얼룩얼룩 검을 걸 거여. 그것이 똥깡이라고.  
105005 @ 먹지 못허는 거예?  
105005 #1 먹긴 허여. 못먹는 깡인 엇어. 다 먹나. 검나 검영 얼룩얼룩 현다. 하  
이고 깡이도 잡으레 잘 텡겨낫져마는. 이젠 안텡가 진다.  
105005 @ 깡이 돌깡이,춤깡이 똥깡이 뉘렌 험니까?  
105005 #2 깡이 것도 깡이엔 허긴 허는 디. 그런 건 별반.  
105005 @ 깡이도 잡으레 다녔지예?  
105005 #2 어 다녀. 깡인 먹을 걸로.  
105005 @ 먹을 걸로 아이덜이영 ㄴ치 어뎡 잡으니까? 그냥 손으로?  
105005 #2 그냥 돌 낵 뉘시명 심엇주게.  
105005 @ 쿡 낵이네 반찬도 헤 먹고.  
105005 #2 반찬도 헤나서 여러 가지.  
105005 @ 춤깡이엔 험니까?  
105005 #2 춤깡이 꺼멍헌 거예 금능에 강 많이 주서오주기.  
105005 @ 금능에 강 금능에 깡이 많이 나는구나?  
105005 #2 응.  
105005 @ 금능 바당에 강덜 헤엄도 치고 헛겠다예? 바당이 좋아노난?  
105005 #2 바당이 좋아노난.  
105005 @ 무슨 깡이가 이섯수과? 돌깡이, 춤깡이, 똥깡이.  
105005 #3 그런 건 ㄴ에서.  
105005 @ ㄴ에서 잡는 거 갯것에서 잡는 건?  
105005 #3 그 저 바당에 강 줌수덜 잡아오는 건 흰 거. 이마니헌 거.  
105005 @ 흰 거마씨? 붉은 거 아니고?  
105005 #3 희뚜룩현다 이만씩현다 발 흐나가 이마니 질고 그거 강 덜 잡아당.  
105005 @ 아 월령에서도 큰 꽃게렌 험니까?  
105005 #3 저 거기 강 잡아야 웬다. 거 비양도에 강 저 한도에 강 잡아온다.  
105005 @ 비양도를 한도렌 험니까?  
105005 #3 응. 한도 싯져. 한도에 그 배 들어오는 배 매는 입구.  
105005 @ 아 비양도. 그 바당 길이 한도짜?  
105005 #3 ㄴ 잣다왔다.  
105005 @ 거기에서 꽃게를 뉘렌 험니까? 무슨 깡이렌 험니까?  
105003 #3 깡이 이름은 그 깡이 이름 뉘고? 저 금능서 나는 거.  
105005 #4 뉘 깡이 일름도 싯수과? 깡이엔 허주기.  
105005 @ 큰 거 큰 거 큰 깡이? 그.  
105005 #3 바당깡이 조개도 그디 강 잡곡 현다 조개.

105005 #4 돌king이 돌king이.  
105005 @ 돌king인 작은 거고.  
105005 #3 돌king이 바당에서 ㄱ에서 잡는 것고. 거 바당.  
105005 #4 어디서 남네까? 먼 바당.  
105005 @ 비양도 쪽에 낫텐?  
105005 #3 비양도 조개 나지 않느냐게. 저 조개하고 ㄱ치 탕경 잡아 와서네.  
105005 #4 비양도 앞이 가쁜 즈물어 오는 거.  
105005 @ 조개 이름은 엇수과?  
105005 #4 대합조개기엔 허주기.  
105005 @ 대합조개?  
105005 #4 대합조개.  
105005 #3 대합조개엔 현다. 조개.  
105005 #4 대합조개“아이고 비양도에 강 대합조개기덜 하영덜 조개덜 잡아와서  
라” 경 우리도 흔 해간 잡아났져.  
105005 @ 아까 돌king이 잇고 춤king이, 똥king이.  
105005 #4 춤king인 장king이엔 현다.  
105005 @ 아 춤king인 장king이엔 험니까?  
105005 #4 으. 춤king인 ㄱ라 장king이 현 별경현 거. 별경현 거 ㄱ라 장king이엔 허곡.  
또 싯king이도 싯져.  
105005 @ 싯king인 무슨 색깔이파?  
105005 #4 두 개여. 별경현 건 춤king인디, 장king이엔 허곡. 또 싯king이엔 현 건 또  
영 그릇이 셔 영 가운데.  
105005 #3 얼룩얼룩허여.  
105005 #4 얼룩얼룩허여. 똥king이엔 흔 건 막 웃बाट디 물론 밧디.  
105005 #3 먹도 안현다.  
105005 #4 식가지가 이서, king이라도.  
105005 @ 똥king이 무슨 색깔마씨? 검은 색깔.  
105005 #3 먹도 안허고 검은 색깔이여.  
105005 #4 니 가지로구나. 지름king이영 허믈니 가지로구나.  
105005 @ 오 지름king이 건 무슨 색깔마씨?  
105005 #3 거 빨강현 거.  
105005 @ 아 지름king이가 빨가?  
105005 #3 빨강현 거여.  
105005 #4 빨강현 건 춤king이 춤king이.  
105005 #3 거 지름king이엔 현다.  
105005 #4 반찬 이디 낡 행 먹는 거.  
105005 @ 아 지름king인 무슨 색깔?

105005 #4 영 젓 담양 먹는 거고, 싯강인 영 해영 것도 먹긴 먹어. 먹어도 저  
슌양덜 알양 거시기 행덜 모르켜.

105005 @ 콩반찬 지름킹인.

105005 #4 지름킹이엔 현 건 옷बाट 통킹이왔디 거 잡아당 뽕상 죽형먹으른 다  
리도 안 아프고 현텡 거 죽형먹어. 거 잡아당 막 돌른 बात 물싼디 이디 우에 이  
파도치는 우에.

105005 #3 죽도 쭈민 맞신나.

105005 @ 지름킹이가 우리가 먹는 검은 강이 담수다. 그게 양이 제일 많아예?  
그게 제일 양 많고.

105005 #4 비양도가 하지.

105005 @ 그게 제일 양 많아예?

105006 #1 맞아 밤이 텡겨났져. 밤이 그거 거 대같이만 톱 요거 ㄹ치 보그레기  
아장이 거 모르는 사람은 몰라. 영 화들렁 영 바당에 물 흥끔 쌍 텡겨가민.

105006 @ 그른 밤에 멧시에, 누구랑 같이 가마씨?

105006 #1 가다보민 벳 장난으로덜게. 게문 요것 ㄹ치 영 톱 아지민 이, 알아사  
십어 모르민 뉘철이 몰라.

105006 @ 돌멩이 옆이 그냥?

105006 #1 그냥 모그레기 아장 모그레기. 요 먹통에 요거 ㄹ치 앓나게. 물에 톱  
십으민 안 사람 십으민 거 멧꾸럭 웬다 거게.

105006 @ 어마큼 해마씨?

105006 #1 아니 낙지 그냥 야야 지레긴 허민 요만이 진다.

105006 @ 그른 물구럭인게게.

105006 #1 무꾸럭이 아니고 낚지 무꾸럭은 흥끔 슬찌주마는 낚진 ㄹ는다게. 발  
이 영 진진헌 게 ㄹ는다. 거 잡으레 장난으로 텡겨났주게. 화들렁 화들렁 불을 싸  
쥬사 텡겨 건.

105006 @ 휘는 누가?

105006 #1 화들렁 말째라가난 데로 해영 저 지름도 지렁 텡겨나고. 경 안흥민  
무싱거세 묶영 불 들렁 텡겨나고. 장난으로덜게 이젠 안 텡긴다.

105006 @ 대단허다예? 남자아이덜도 같이 친구들?

105006 #1 남자도 그때 가나고, 우린 어리난 여자도.

105006 @ 여자친구덜이영 남자 어른덜도 잇고?

105006 #1 아메도 지녁 취미 이신 사람덜 가주기게. 이젠 못봐.

105006 @ 누구영 제일 먼저 ㄹ치 조차텡겨난마씨?

105006 #1 아방은 엇다 아방 어명이 아니고. 우리 친구덜이 장난으로덜.

105006 @ 재미잇겠다예?

105006 #1 텡겨났져게.

105006 @ 게민, 멧마리 잡아보기도 헨마시?

105006 #1 멧마리 잡아진지 모르고, 똑 요거꺼치 멧그랭이 아장 폭 심어사 웬다  
게. 모르는 사람은 못심어.

105006 @ 그거 잡아지민 뉘행 먹어마씨?

105006 #1 몰라게. 숲양도 먹고 먹는 거난게.

105006 @ 아니 물구력은 죽도 썰 먹으면 맛좋았고, 숲양도 먹으면 맛좋아난.

105006 #1 다 먹나. 멧구력도 먹고 물구력도 먹고. 물구력은 슬찌고 큰 거고 멧  
구력은 ㄱ늘양 발이영 진진헌 거여. 잊져 낚지라고. 응.

105006 @ 왜렌 허는구나예?

105006 #1 거 무신말고?

105006 @ 아까 햇불을 왜?

105006 #1 으.

105006 #1 왜들렁 뎅기고?

105006 @ 해산물은 이 낚지만 밤에 잡는 거 뭐 잇수과?

105006 #1 가끔 무꾸력 흥나씩 나오는 거 셔라. 케민 낚지가 하영 나와. 이 밤  
이 잡는 건 원 이젠 어심사 현디뎅기는 거.

105006 @ 원담 갯담도 이섯수과?

105006 #1 원담도 셔낏져.

105006 @ 원담도 이서난예?

105006 #1 이젠 것도 어실꺼여. 다 몰아정 설러부러실꺼여.

105006 @ 몰아정예?

105006 #1 아메도 자꾸 봐져사 다올꺼 아니.

105006 @ 햇불로 낚지 잡으레 가 본 적 잇수과?

105006 #2 낚지 잡으레 뎅겨봐서.

105006 @ 햇불을 뉘렌 험니까? 그 뉘 싸가지고 강으네 밤이?

105006 #2 햇불 영 지름담양 불부천 들러근예.

105006 @ 불부천 누구랑 갑니까? 밤에 불 행 낚지 잡으레 월령 바다예?

105006 #2 월령 바다 이디게.

105006 @ 아버지영? 어머니영?

105006 #2 아니. 아버지영이나 거주기게. 여러이 가 그런 때. 서너이 사람덜 강  
으네 하영 잡으레.

105006 @ 낚지 잡양 걸로 뉘 행 먹어마씨?

105006 #2 뉘을 행 먹어게. 오랑 반찬혜영 먹고 늘채 씹어도 먹고.

105006 @ 햇불을 이용해서 해산물을 어떻게 잡습니까? 불 쌍으네?

105006 #3 햇불? 낚지 낚지 무꾸력 문어.

105006 #4 건 밤이 낚지 잡는 건, 밤이 가명 구쟁기도 잡아오곡, 보말도 막 스  
뉘 낚은예 햇불에 햇불 쌍 영 허여근예 새영 기신세영 뉘어근예 영 혜영 들르든 때  
꾸력이엔 흥다, 것고라. 이젠 낚지엔 허주마는. 매꾸력.

105006 @ 아아 낚지를 매꾸럭?  
105006 #4 으. 매꾸럭이엔 흔다.  
105006 @ 매꾸럭. 이런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우다게. 이런 것 때문에 영 햄수  
게 매꾸럭.  
105006 #4 매꾸럭. 이젠 낚지엔 허주마는. “매꾸럭 매꾸럭덜 잡으레 감찌”경해  
여.  
105006 @ 세상에. 햇불은 뭐렌 햇수와 햇불?  
105006 #4 건 밤이. 어두운 때 불쌍으네 보말도 나고. 강 보든 전복도 막 올라  
오곡 무꾸럭도 나곡 경 잡아 낚져. 이젠 이거 잡는 사람 었나. 잡으레 가는 사람 막  
흔 주전지 으경 강 주전지로 하나씩 잡아당 풀아.  
105006 #4 그신세엔 현 건 집이렁에 멧십년 뵈 집 그것 강 흐뎡 빠당 그거 묶  
영 강으네 잡는 거 아니가?  
105006 @ 아 그거. 빠당 지름에 부청?  
105006 #4 아니 지름 못한다. 그거 묶어으경 그 ㄹ정 가주기.  
105006 @ 형겅에 묶으지 말앙, 그냥 탄탄허게 묶영?  
105006 #3 이만씩 묶은다 질게.  
105006 #4 주총밧디게. 주총밧디 물싸든 주총밧디게. 영 영흐영 동글락헌 이 방  
동글락한 저 거시기가 셔.  
105006 @ 낚지 많이 난다?  
105006 #4 막 올라와.  
105006 @ 어디에 많이 나마씨?  
105006 #3 물통. 이 바당에도 이 원 안에 영 싯나. 물덜 잘 안 빠정.  
105006 @ 아 밤이 싯대?  
105006 #3 으. 그런 디 가든 많이 셔.  
105006 @ 아아. 물 잘 안 빠정 원담 님은디?  
105007 @ 원담, 갯담.  
105007 #1 멜 곁은 거. 자리는 배깃디강 곁이곡.  
105007 @ 게든 이제 삼촌 원담 곁아줍셔. 원담 여기 원담, 갯담이 이섯수과?  
105007 #3 으 이섯져.  
105007 @ 숲양도 먹고 원담도 이섯수과?  
105007 #2 원담. 멜 잡는 게 원담이주.  
105007 @ 그거 이제 어서젧수과?  
105007 #2 어서져셔.  
105007 @ 멜도 걸려낫구나예?  
105007 #2 어. 멜은 많이 들어.  
105007 @ 와. 원담이름이 뵈 지 기억 안남수과?  
105007 #2 원담. 이것도 원담 다운 사람이라사 곤지.

105007 @ 계남 원담 다운 사람. 다 죽어볼지 안헐?

105007 #2 다 죽어부러트주게.

105007 @ 어렸을 때 그 원담에 레기 들어 간 멜 잡아봤잖아예. 파닥파닥 영 거러봤지예. 소쿠리 들렁 강 멜 들었져 험니까? 누가 글아줘?

105007 #2 글아도 하.

105007 @ 달려 강 뭘로 멜 거립니까? 족베기로?

105007 #2 족베기가 잇주기. 이 저 요만이헌 족베기 멘들영 놔뒀당 확 확 확 거러.

105007 @ 족베기로 쟁 그거 가정 어머니한테 주민 어머니가 멜쳇도 담그고?

105007 #2 으. 멜쳇도 담그고.

105007 @ 멜국도 끓영 먹고?

105007 #2 멜국도 끓영 먹고. 폴레도 가곡 가곡.

105007 @ 폴레도 가곡 우트리에?

105007 #2 으.

105007 @ 그믐‘윈’에 들어온 고기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7 #3 어 이서 낫져. 차들로 걸이멍게.

105007 @ 차돌?

105007 #3 멜, 멜덜 들어와나세게 멜.

105007 @ 아아, 멜 들어완예? 그믐 차들은 뵈고 족바진 뵈파?

105007 #3 거 족바지가 족바지. 그거가 그거여.

105007 @ 족바지가 차돌이파? 족은 게 차돌 족바지 족은 게?

105007 #3 으. 족바지 영 그걸로 멜 뜨는 거.

105007 #4 멜 뜰 어음 망시리허영 영 똥그락허게시리 멘들양 강“멜 들었져” 허 멩 것들로 두러멍 강 그걸로 영 몰아당으네 걸이는 거 족바지.

105007 @ 차돌이렌도 허곡?

105007 #4 으.

105007 #3 족바지렌 했져. 우리.

105007 @ 그믐 원담엔 멜이 주로 많이 들었다예?

105007 #3 멜 멜 멜잡젠 그거 다와세.

105007 @ 계민 누가“멜 들었져” 험니까? “멜 들었져”허민 막 가.

105007 #3 으게. 공동으로 해 논거난.

105007 @ 원담은? 지금 어서젧수과?

105007 #4 원담. 그 옛날엔 그딘 저디 관광덜 오는 디 옛날 이제도 경 보멸낭이엔 현다. 그것 ㄴ라 보멸낭 보말낭보멸낭.

105007 @ 원담은 보멸낭?

105007 #4 으. 보말낭 경흐난 이제 관광덜 가는 저 알에 이제도 보말낭 보말낭이엔 허여. “보말낭덜 줌네덜 들어가라”경헤영 허곡. 그디 원 담 멜 들어오게시리덜



강 지키는 사람 담덜 다왕덜 원담 동그락허게시리 들어왕 허멍 그디강 담 다운 사람은 멜 강 걸이게 허곡, 경 안현사람 담 강 안 다오민 멜 골른 밧디가른 막 우티 네빈 거 흐므리씩 두므리씩 흐 거 강 주서오라나서 폰레왓디 강 으 경해났져. 보말 낭이옌도 허곡, 그 다음엔 버랭이알이렌도 허곡.

105007 @ 아아 원담속을 경 골앗덴 현 거 아니예? 아이고 세상에 지금도 버랭이알이옌 험니까?

105007 #4 이제도 버랭이알이렌 현다. 그디 보말낭 버랭이알 진여옌도 허곡. 이렌 허곡 여가 질주게. 경흐난 여가 질딱허니까 진여옌 허곡.

105007 @ 아이고 우리 삼촌 총기가예. 그 원에 멜 말고 다른 고기도 들어옵니까?

105007 #3 따치골은 거 들어 온다.

105007 @ 따치도 들어왕 잡고?

105007 #4 이제 멜 걸이레 가는 사람 옳나.

105007 @ 여기서 소리로 “어 허야 디야”멜 후리는 소리 이것도 이런 거 들어난 적은 옳수과? 멜소리 멜 후리는 소리?

105007 #3 멜 바당에 강으네 그물 낵 막 잡아오멍 그 소리덜 해났주기. 멜 털멍.

105007 @ 그거 해났수과?

105007 #3 멜 털멍.

105007 @ 멜 털멍. 거 한소절이라도 흘수 있는거 잇수과?

105007 #3 (소리) 오 어어어어~ 멜을 만선을 시겼구나. 어야 어어흥 어여차. 멜 딱딱 털주게.

105008 @ 원의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원담보수?

105008 #3 거 파도 청 무너지민 또 강 다와사주기계.

105008 @ 돌다와예 누가 합니까?

105008 #3 거 동네사람덜게.

105008 @ 동네사람덜이 같이 가자 험니까? 그믄 멧사름부터 어른덜이?

105008 #3 어른덜 한이 서게 멧사름부터 아니고. 헐 사람이 그냥 강 허는 거난.

105008 @ 경허믄 고기 먼저 봉근 사람이 가져당 먹고?

105008 #3 그냥 멜 하영 들어지믄 막 연락허영 멜 걸이레 멜하영 들엇젠 연락 온다.

105009 @ 멜도 들어났수과?

105009 #1 멜도 들어나고, 멜은 굿디서 들이고. 자린 배껏들로 강 거려오라났져.

105009 @ 멸치는 배탕가민 어떻게 잡습니까?

105009 #1 원담 다그네 원 안이 들어오민 갯것디 이제사 원 뵗해여. 바당에 멜 뵗끗디 강 걸이곡.

105009 @ 게믄 멸치는 배탕가믄 자리 걸이는 거하고 멸치 걸이는 게 뭐가 달라

마씨? 멜치는 그물로 하고 자리는 족바지로 하고?

105009 #3 으. 족바지로게.

105009 @ 멜치는 그물로?

105009 #3 으. 그 저 그물 낚 놔두면 그 저 오늘 그물 노른 즈낙이 그물 행 놔두면 내일 아침 걸이레 가주기. 걸이레 가른 만선 멜덜 많이 들오주기.

105009 @ “만선이여”헐니까?

105009 #3 경허른 이제 이디 왕 털뎀 이 막 요라이 턴다. 쟁 소리덜 허멍.

105009 @ “당선기 올랐져”대략 배가 멧대갑니까?

105009 #3 이제 멜 그거 잡는 디가 세척이나 이서난디, 이젠 아니 헐 것도 어서.

105009 @ 옛날 세척 가그네 에워쌍?

105009 #3 아니. 딱로딱로 현다 질루지썩.

105009 @ 질루지썩 딱로딱로허민 그거 가정오민 너무 많아, 게민 그거 플레도 가고?

105009 #3 으. 다 왕 사간다. 저 서귀포레덜 왕 다 사간다. 저 뭐허젠 뭐허젠 사감시냐허른.

105009 @ 멜젯 담그젠?

105009 #3 저 멜젯 멜젯 등그고 사료.

105009 @ 사료 저 걸름?

105009 #3 사료엔 현건 고기 키우는 사료.

105009 @ 아아 양식 그런 거 해낫수과? 월령에도?

105009 #3 으, 아니. 이딘 양식 안해낫져마는. 그걸로 행 폰다. 쟁 그디서 그 공장에서 사료 멘들앙으네 밥주곡 허는 거 아니가.

105009 @ 양식공장 어디?

105009 #3 저레 가른 다 시썩. 이제.

105009 @ 아아 옛날에는 걸름도 헛텐 헐디다? 멜로 밧디.

105009 #3 그건 보리 갈젠 허른 걸름 많이 헛지.

105009 @ 보리밧디예?

105009 #3 어. 보리밧디는 놔 낫져. 거른 잘 웬다 보리.

105009 @ 보리가 잘 웨어?

105009 #3 틀림어서. 건 멜론.

105009 @ 메루치도 해낫수과? 메루치 솥앙 물령.

105009 #3 솥앙 물령허는 것이 아니고, 생체 그냥 막 물령으네 밧디 놓다.

105009 @ 아니 먹는 거 물령 먹지 앗헛수과?

105009 #3 무사 안 먹어, 먹주기게. 원체 많이 들어노난 밧디강 깔암세 원체 많이 들언.

105009 @ 원체 많이 드난?

105009 @ 그믐 금능은 더 많이 들었겠다예?  
105009 #3 으. 금능은 요자기도 멜덜 하영 들어 뭐헛텐헤라.  
105009 @ 월령도 많이 들고?  
105009 #3 월령은 이제 원 다 치와부런.  
105009 @ 옛날 옛날?  
105009 #3 으. 옛날은 많이 들어났져. 월령도.  
105010 @ 꿩기는 안 낚아 봤지예?  
105010 #1 아니. 꿩 낚은 사람은 낚으주. 거 아무나 낚아지느냐게. 우리가 무사 꿩기를 낚으느니?  
105010 @ 음 꿩기는 어떻게 해서 낚습니까? 니껍은 무슨 니껍으로 헛수과 주료?  
105010 #2 괴기 낚을 땐.  
105010 @ 예.  
105010 #2 이 존괴기 낚을 땐 이디 저 지렁이가 이서. 지렁이 팡 뇌뿔당 으정강.  
105010 @ 니껍.  
105010 #2 니껍.  
105010 @ 그거 행 뭐 뭐 낚아수과?  
105010 #2 우럭 굴은 것도 낚으고, 맥진다리 술멩이굴은 거 낚으주게.  
105010 @ 맥진다리 술멩이 뭐 어랭이나 이런 거. 어랭인 멀리 가여뿔지 안헤마씨?  
105010 #2 요디만 나가든 먼디 안 가도.  
105010 @ 낚시대. 낚시줄 낚시 뽕돌 등은 어떻게 구합니까?  
105010 #2 그 뽕돌허곡, 낚시 푼는디가 잇주기.  
105010 @ 푼는디서 옛날에도 수릿대로 만들영 수릿대는 그냥 대 베어다그네 이렇게 해당 작살로 고기를 잡아 본 적이 잇수과? 소살?  
105010 #2 아 소살 거 잡아본디가 엇주마는. 오랑 잡는 것도 보기는 헛주. 월령 아이덜 하영 그런 거 잡아.  
105010 @ 자리회 방어 회 다먹어봤지예?  
105010 #2 어. 회굴은 거 바다에서 나는 건 다 먹어.  
105010 @ 그믐예 고기는 어떻 행 낚으니까?  
105010 #3 낚싯대에 낚으는 거 말가?  
105010 @ 예.  
105010 #3 낚싯대에 헤그네, 니껍 꿩영게.  
105011 @ 낚싯대, 낚시줄, 낚시, 봉돌 등은 어떻게 구합니까?  
105010 #3 저 다 폴암세계, 가게덜.  
105011 @ 옛날 옛날 수릿대 옛날 얘기를 헤줘야해마씨.

105011 #3 아 옛날 옛날에 우리 낚을 땐 이 영 선비네왔져 영 선비 영 선비라고 붕돌 요디 가운데 큰 거 놓고 영 혜영으네 선비멘들앙, 이디 행 이것에 낚시 양 갈래에 돌아메영 바당에 강 드리청 퀘기 낚으고 해나서.

105011 @ 음 니겍은 어디서 구합니까?

105011 #3 그거야 어디강 구허느니. 바당에서 집이서 구혜영 가사주.

105011 @ 지렁이?

105011 #3 뭐 생선낚으젠 허른 저 문어가 좋나.

105011 @ 아 생선낚으젠 허른 옥돔을 말헬수과? 조기를 말헬수과 생선?

105011 #3 생선은 그 옥돔 아니가?

105011 @ 옥돔 낚으젠허른 문어가 좋고, 또 갯지렁이를 뒤렌 험니까?

105011 #3 지렁인 뭐 잘 문다마는, 지렁이 안 무는 피기가 업어. 지렁인 파기 험드난 문어로 험시네게.

105011 @ 파기 험드난 문어로 허곡?

105011 #3 그 다음 다른 니겍 멜도 허곡.

105011 @ 으 멜도 허고?

105011 @ 보말 그런건 안허고예?

105011 #3 보말 잘 안 문다 퀘기.

105011 @ 음 뽕돌 그런 건 만듭니까?

105011 #3 으 이녁냥으로 멘들아 본인이 멘들아 이녁냥으로.

105011 @ 어떻 고망을 어떻 멩글아마씨?

105011 #3 고망 뜯를 거 것도 못 뚫령혜영 어떻.

105011 @ 돌멩이에 고망 뜯르젠 허민 어려?

105011 #3 돌멩이가 아니고 연철이지 연철.

105011 @ 아아 뽕돌은 연철로 만드는데구나예?

105011 #3 어, 낚 낚으로.

105011 @ 어디서 사당?

105011 #3 으게 옛날부터 그거 푼는 디가 셔났져.

105011 @ 아아 옛날부터 푼는 디가 이션예? 음 그런디도 상점에서 풀앗수과? 한림?

105011 #3 한림에도 풀고, 뭐든지 대한민국 전체가 풀앗주.

105011 @ 월령에도 풀고?

105011 #3 아니, 월령엔 안 풀아났져.

105011 @ 월령엔 상점이 어시난 한림을 가야돼고.

105012 @ 뽕돌에 낚시대 작살 오라방같은 경우 작살로도 고기 낚으고.

105012 #1 거 남자니까 낚앗주, 여잔 안 텅기주기게.

105012 @ 호멩이, 비창 또 작살도 가정땡깁니까?

105012 #1 거 무신 말 작살이 뭐꼬?

105012 @ 고기, 고기 팍 쏘는 거?  
 105012 #1 아, 건 소살이라고. 소살이라고 퀘기시민 그걸 찢러사 돼주게.  
 105012 @ 음. 여자도 가정 탕겨마씨?  
 105012 #1 게 게. 물에 드는 거. 우리 다 가정 탕겨났져. 태왁에 거 꼭 찢렁 텡  
 기당 이 야 그 괴긴 바당소굽에 영 무시거 소굽에 신나게 이 영 영 저 무시거 쏘는  
 그 소굽에 시민 그걸로 강 콕 찢렁으네 퀘기 잡아오는 거여게.  
 105012 @ 우럭이나 이런거예?  
 105012 #1 아무거라도 그 속에 신 거 솔치곶은 거 가시 과작흔거 거 찢르민 아  
 파 괴양 해당으네 으정 안오민 먹을 수 이시니까.  
 105012 @ 솔치는 찢르민 아프?  
 105012 #1 솔치 찢르민 아파. 거 당추 찢르민 안웁다게.  
 105012 @ 그믐 작살로 고기를 어떻 잡습니까?  
 105012 #3 아 작살 소살이렌 허주거. 그걸로 퀘기 잡는 사람은 잘 잡나.  
 105012 @ 응, 안 잡아놔수과?  
 105012 #3 난 잘 허지 못허게 해났져.  
 105013 @ 고깃배도 이디 여러 개 이섯수과?  
 105013 @ 고깃배는 어떤 배가 잇습니까? 덕판배여 무신 배여 여기 배가 멧개  
 이섯수과 옛날에?  
 105013 #2 옛날에 배가 서너 개.  
 105013 @ 서너 개 거기에 삼촌네 배도하나 이섯다는 거 이름이 뭔지 기억남수  
 과?  
 105013 #2 기억 안나.  
 105013 #3 흐김 싯긴 셔났져. 바당에 탕기는 사람이나 허주, 아무나 안 탕겨 것  
 도.  
 105013 @ 고깃배는 어떤 종류가 잇습니까? 뭐 덕판배여 고깃배이름 종류.  
 105013 #3 종류 뭐 덕판배엔도 헛주마는, 딴 이름으론 우리 풍선 풍선 덕판풍선  
 이엔 늘 해왔지. 게난 테도 싯져 테 옛날은 테로 해영 자리 걸이고도 해났져.  
 105014 @ 뭘 이제까지 큰 거 낚아본 적 잇수과? 어마어마허게 생각나는 거 전  
 북이라든가 얼마만큼 큰 거 해봤다든가?  
 105014 #1 아니게, 닥치민 허지이. 전복이나 뭍시던지 물속에 신거.  
 105014 @ 또 저 미?  
 105014 #1 미가 뭍꼬?  
 105014 @ 해삼.  
 105014 @ 잊어부러졌져? 미가 뭍고 으 해삼.  
 105014 #1 해삼이엔흔다. 닥치민 심어네지 해삼이엔 현다. 미엔도 현다마는 해  
 삼을 잘 낚지.  
 105014 @ 해산물은 어떤 것이 이섯수과? 툃, 몐?

105014 #2 톳, 몹 그거주기 미역 가시리.

105014 @ 잠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14 #4 소라도 잘 돼고, 문어 잘 잡아오고, 멩게도 잘 잡아오곡, 물에 들민 천초도 잘 모살에 스뭇 쉼 등글어 오뭇 등글어 왕으네.

105015 @ 잠녀들이 물질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15 #1 경 태왁은 꼭 짚어사. 어음도 돌아메고 망시리 어음은 삼동냥으로 대충 태왁 사와 싱그민 클락이 나와. 클락씨 소곱의 싱그민 열아 우리 친정어멍 어럴 때난 어머니가 해취 연다 태왁이 물적삼 해양한 걸로 우이 죽은 눈 허당 말제라가 난 큰 눈 처음엔 죽은 눈 해서 말제라가난 아맹해도 일제시대.

105015 @ 그른 태왁?

105015 #1 태왁은 물에 들영 뎅기멍 짚으는 거.

105015 @ 누가?

105015 #1 아이 태왁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태왁 사당으네 그거 짚영 물에.

105015 @ 어디 강 사마씨?

105015 #1 아니 그거 고망 딸양 바싹 물렁, 그 고망 딸양 걸 막 어뎅어뎅허영 빼나사 그 고망 막아사 태왁이 웬다게.

105015 @ 만들어 봤수과?

105015 #1 게, 아니 우리사 만드느냐마는 그거 사당으네 그거 짚영 물에 들어나 민 클락이렌한다.

105015 @ 월렁에 만드는 사람 어선마씨?

105015 #1 그거 만드는 사람이 어디시니. 허여당 클락이라고이 그거 싱경 클락 클락 태왁ㄹ라 클락이렌한다.

105015 @ 태왁ㄹ라 클락이렌해마씨?

105015 #1 음. 클 때 경 허여근에 이젠 그걸 타당으네 크민 고망 딸랑 이 클르고, 씨 어뎅어뎅어뎅 배꺸디랑 가지 못허게 허멍 그 썰 조상 빼영 갱 물리우민 태왁이 돼주기. 그거 아래랑 망시리 돌아메고 어음 돌아메고 그거 돌아메사.

105015 @ 망시리 돌아메고 어음이 뵈과 냥?

105015 #1 영 등글락헌 냥으로 해진 거 냥으로 해진 거.

105015 @ 아 냥 냥 그거 삼동냥이 좋텐 헛게?

105015 #1 몰르켜.

105015 @ 어음?

105015 #1 어음. 게난 그것에 이젠 알려렌 그물 돌아메민 망시리, 그것에 돌아멘 건 태왁, 어음 돌아맨 거 나물 해영 해어사 거 꼬성뎅기멍 지평도 뎅기고 그레 뵈해당 담양 올라오곡 허는거여. 뵈끼디 올 때.

105015 @ 예. 거기 쪼쪼만 헌 것도 놓추게 호멩이?

105015 #1 경 터나지 못허게. 호멩인 저 무싱거 클갱이곡이, 것 강 오벼오는 거 바당아레간 경한다게.

105015 @ 비창은 어디 강?

105015 #1 비창은 이제 허리에 찻당으네 전복시민 트는 거.

105015 @ 건 어디서 샷수과 오일장?

105015 #1 모르켜게. 어디덜 난다게 그런 거.

105015 @ 응. 물안경은?

105015 #1 물안경 죽은 거 찌당 말젠 큰 놈 찌사지. 영 혼거이 코깁지 눈깁지 다 막아진 거.

105015 @ 뭐 태왁이여 비창이여 이런 거 어머니 호멩이여 다 들어봤지예? 어머니 허는 잠녀들의 도구.

105015 #2 거 도구주게. 거 해녀덜 도구.

105015 @ 바당에 꺼 잘 허난물어보쿠다예? 잠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 잠녀들 비창이영 태왁 어떤 것을 가지고 다닙니까?

105015 #4 거 태왁은이, 옛날 이 태왁 어서. 이제는 저 스폰지 잇주마는 옛날엔 꼭 쿨락박 쿨락 쿨락 태왁 닳은 거 올양 쿨락이엔 현 거 신다. 육진 바가치엔 흔다. 바가치엔 흐는 거 이제 무사 텔레비에 먹지 안허나. 북북 끌경 태왁헤연 그거 헤영 강으네 이젠 엽을 거 여성 신사라엔 현 거 이서. 그 노 꼬양 막 질겨 걸 꼬양 신사라 꼬양으네 이제 태왁 엽영 이제 어음 이마니 현 거 삼동냥 어음 삼동냥 어음. 어음 해당 이젠 맹들양 태왁 이제 돌아매영 망시린 이제 저 미망시리 아까 곤지 안헤냐. 미망시리 그물이 어디 시니. 게난 그거 저 신사라. 신사라로 망시리 맹들안 육지 강 맹들양 그거 허영 그 소곱이 전복도 헤영 오곡 구쟁기도 즈물아 오고 경헤낫져. 이젠 망시리도 스몫 여성 어음도 육지 강 보민 이젠 다 소라 잡는 것도 따로 이제 문어 잡는 것도 따로 해삼통도 잡아당 이만이 즐양 멘들양 머구리즈락 멘들듯 육지 강 온 사람덜 그거 잘 하나씩 잘 숨경와 못 ㄱ정오게허여 우린 그냥덜 오라낫져. 태왁이엔 현다. 게난 그뻐 헤양케 물적삼 헤영으네 물적삼 허영 입영 아레도 헤양케 옷 솟곳헤영 들마구 허영 메고 따로 까부리 머리 광목으로 바령 이디 영 얼굴도 못 카게 까부리 경헤영 써낫져. 안경은이 옛날에는 쉼안경덜 동촌사람덜 쉼안경 허지 안허느냐 우린 고무안경 허영 헤낫져.

105015 @ 아아 동쪽은 쉼안경?

105015 #4 간보난 동촌사람덜 아옹아옹허멍 쉼안경험서라. 그때 강 보난 영 태왁도 이제 저 눈도 바로 안져, 영 한쪽더레 영 탁 영 허영 쩌. 동촌사람덜 다 일로 들어가가든 저 어디고 동촌사람덜 이젠 잊어비언. 다 곁이 살아나난 화북, 서화, 김녕, 고성, 아우, 섬덜, 저 므을도 모르크라. 경덜허멍 막 살아서. 소섬 이 동어귀년 허멍 막 허연 넌 잘 저서 그쪽에 네덜이 그쪽에 사람덜은이 잘 져나 우리 네져는 건이 주지도 안하여. 네져영가민 동촌사람덜 이거 네 아니가 이건 네민 겨른 그 서화사람덜 “아이고 ㄱ재기 살아도게 네 하나 못져십테가게 성님 성님”, “아이고 빌어 먹을 년 ㄱ자 살아도 난 못 베왓져 ㄱ자 살아도 못 베왓져” ㄱ자 짐제기가 뵈고 허난 태왁세끼게 이젠보난 태왁세끼 것도 그 사람덜 말이 틀림어서 짐작허는 거난

“솔박 봐져냐” 솔박이 이 빌어먹을 년덜아 뺏고 뺏고? 허믈 솔박은 영 답아네는 거.

105015 @ 여긴 좁박이렌 허드라고예?

105015 #4 으 으, 경허영 영허고 허믈 경허믈 네짓는 거 지난 전복 잡으레덜 가 주기게. 물찌 뒤언 즘녀 혼배가 멧명 헤영 싯경허믈 “네저시라”헤영허믈 막 네 그 년덜은 양 어평사 네 경 잘 젓는지 “성님도 이리오랑 젓어봅서”허쿠데.“나도 젓어 보마”영 허명 허난 경허영허믈이.“ 야 소섬 동어귀 동허다 살던 년아 이어싸나 이어싸 이어싸 어떤 날에 우리어멍 날 낳다더냐 해청 영업 요거 하나 배와주렌 날 납 데가 ”그년덜은 날고라만 헤렌허여. 그때 기신도 시영 헤양게 까부리 입으난 “요년 요년 아이고 요요 칼선닭은 김녕년덜아 이어싸나 백장노역 낭군님은 산폭도 한티덜 잃어될 오란” 아이고 “성님 그 말 곧지 맙서”,“아이고 성 ㅁ작 곶아가믈 우린 ”,“이 ㅁ작ㅁ작” 경 헤낫져 이제 경 허지도 못헌다 나 비양도 갈 띠도 막 네짓영 우린 네 짓영 간다 솟곳입영 무슨 옷이나 이거 영 입영가고 솟곳바람에 이디 물적삼도 어서 그냥 강 멧시간씩 싸왕 아이구 혼 번 얼영 혼 번 얼룩얼룩 친것추룩 헛당 얼룩얼룩 헛당 두 번 얼언 식번째는 문딱 슬 죽어빌믈 언 줄 몰라.

105015 @ 아 식번째 슬 죽어붙어예. 세상에.

105015 #4 으 경헤낫져. 잘 헤영 우리 네짓영 탕겨낫져. 육진 네짓어사만 메역 허레도가곡 전복잡으레도 가곡 경헤난. 네만저성 요만헌 배 하나헤영.

105015 #3 풍선이난 기계가 엇주기. 계난 네 젓어사주.

105015 #4 나 이디 와도 전복이 하르방 ㅁ라 들어보라. 큰 전복 큰 저울로 떼 낫져.

105015 @ 비창은 어디서 사당 비창?

105015 #4 보믈 영 문직양 우린 그냥 봐지질안허영 영 어름쓸멍 뇌게도 돌아지고 다섯 개도 돌아경 경허믈 테와 전복잡으레덜 가곡 옛날 감제 떼는 저울 셔낫져. 큰 저울 그걸로 떠낫져. 그걸로 작은 저울 튼 것광 그 감저저울 튼 거영 차이가 셔 그 동안에도 막 전복 잘 터낫져마는 이제 전복고냥 문져지지도 안허곡 봐지지도 안허곡 멧해 안에도 간 막 양식장들믈 이만씩헌 거 덩어리 하나 이제 허 ㅁ정도 안허여. 보젠도 안허고 앞이꺼 구쟁기나 혼 사발허영 구쟁기 막 떨어지지 않허연 상군 들한티 들양 하르방도 ㅁ서내지 못허영.

105015 @ 계믈 이 안경은 처음엔 죽은 눈?

105015 #4 으으 영 큰 거 싯져. 저디 고무눈 영허영 이마니헌 거 영 흐영 허믈 요마니 썩 이레 영 썩 이디 흰허게.

105015 @ 거 이름이 뺏과? 눈 그냥 눈? 죽은 눈 안허고 큰 눈?

105015 #4 천리통보다 더 흰헌 거 싯져.

105015 @ 큰 눈? 큰 눈?

105015 #4 으 느네 그거 안 판?

105015 @ 봐나신디 눈?



105015 #4 으, 눈 눈 눈이렌 혼다. 거ㄴ라.

105015 @ 비창?

105015 #4 비창, 호맹이, 까꾸리엔 허여. 까꾸리엔도 허고, 육진 깡구리엔 허주 마는. 이딘 호맹이 “아이고 호맹이 네불어젯저게”영호곡.

105015 @ 호맹이는 구살?

105015 #4 으 구살 영 똥기고 구쟁이도 똥겨나고 무꾸력도 심고 그걸로 영혜영 굴쟁이 닳은 거 싯져. 영 혼 걸로 그걸로 영 꼬성.

105015 @ 비창은 전복?

105015 #4 으. 비창은 전복. 전복 계난 호맹인 무꾸력 다 그디 다 오만 거 구쟁 기도 파나고 경허는 거. 호맹이엔 허는 거.

105015 @ 호미 호미?

105015 #4 호민 건 영 낫비는 거 맥역비고 맛테가른 보리 옛날 보리 비어나고 에염도 비곡.

105015 @ 그 호미가 그 호미?

105015 #4 또 영 흐는 건 굴쟁이 굴쟁이 굴쟁이 것ㄴ라 굴쟁이엔. “나 굴쟁이 봐져냐덜”경혜영.

105015 @ 메역혈땀 호미 가져가야 뉘어?

105015 #4 메역혈땀 호미. 저 호미.

105015 @ 몸 몸 몸국혈 때 몸?

105015 #3 몸혈 때, 그때 호미 들르지 안혜샤. 몸혈 때.

105015 #4 몸 혈 때 그건 몰라. 몸 안해나난, 이 하르방덜 뉘싱거 혈 때 비양도 간 해나난.

105015 @ 월령엔 몸 엇수과? 월령엔 몸 어서?

105015 #3 이제 어서. 팍찰져마는 이제 몸 다 호지부지 어서져 불언.

105015 @ 이제 뭐 엇다 이섯지예?

105015 #3 팍찰주기게.

105015 @ 아아 옛날에는?

105015 #4 이제도 비양도 가른 저 거시기 지름몸 막 팍 차실거여. 희지못행이 몸 딱 끝아지른 그 우이로덜 희지못혜영 스뉘 띄뜩행놔두민 뉘이 후끗후끗허여. 몸에 걸어정 나오지 못허영 바것띠 나와사 배 탈거난 몸 영 탁 걸쳐노른 이 우이로 몸 트명으로 막 희어나오젠허민 몸이 후끗후끗허연 고무옷 입고허난 얼마나 더울꺼 니.

105016 @ 잠녀들이 물질을 예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05016 #1 늣가난디 다 가났져. 여름에 다 강 살당 얼어가민 멧들이라? 3~4월에 딱신때 나강 다 좇먹을 때 큰똥드령강 경은 안하곡, 할망 빌영 돈 좇 못져뉘 혼 사람이 흐나 배끼 못 들주. 육지도 바당에서 다른 것도 벨반 어서. 다 어성 펼 신디 도 신나게 으게 돈나는 디렌 뉘겨 난다게. 월령에 하다 코지라고 바당이 널르진 안

해도 몰래가 하다 저 코지 이 앞더래 몰래 흐끔 여가 돌이 서사 뭐가 천초 우미ㄴ  
라 천초렌 혼다. 우미ㄴ라 천초렌 혼다.

105017 @ 아아 이것도 태왁 들렁 강 허곡, 물웃은 물소중이엔 험니까?

105017 #1 오 속웃ㄴ라 물소중이엔도.

105017 @ 옛날 형곶천으로 댜 거 그것도 입어났지예? 그런 거 업지예?

105017 #1 으게 그거 안 입으민 안뵤주기게.

105017 @ 그거 이제 없지예?

105017 #1 이제 그런 거 엇나게.

105017 @ 겐 그 나중에 나온 거 입어봤지예? 그 고무로 뵤 거 고무 물웃?

105017 #1 아 으게. 그거 입어사 뵤다게.

105017 @ 고무 물웃도 입어보고 옛날 것도 입어보고예?

105017 #1 으게. 물에 들때사게 그거 아니 입영은 안뵤여. 입어사지.

105017 @ 저 이런 저 고무웃 입을 때 뵤겨주고 헤낫수과? 입을 때 어렵더라고.

105017 #2 고무웃 것도 옛날엔 으선.

105017 @ 옛날에 물웃 입을 때 어머니 물웃 입영했지예?

105017 #2 어.

105018 @ 툃도 했지예?

105018 #1 으, 툃도 했져.

105018 @ 우미?

105018 #1 우미도 싣고, 우민 영 무싱거 흐끔 짚은디 나곡이, 툃은 ㄴ상에 난다  
게.

105019 @ 우미허레 가 본 적 잇수과? 우뵤가사리.

105019 #2 우미.

105019 @ 게도 어머니 덕분에 툃이여 우미여 먹어봤지예?

105019 #2 아. 떡긴 먹어뵤주기게.

105019 @ 우뵤가사리는 어떻게 채취합니까?(공동)

105019 #4 우리 세계는 천초렌허는네, 우미렌 허는네. 청각추록허민 ㄴ디왕 물  
리왕 우린 흐춤허당 바래영 얼마나 맛좋은디.

105019 @ 우미 우미? 우미는 어떻허고?

105019 #4 우미. 것고라 우리 세계렌, 저렌 가문 저 거시기 천초엔허는네. 육진  
천초엔허곡. 이딘 우미 우미 우미뵤이 엇나. 이딘 우미 뵤역이나뵤이.

105019 @ 우미는 여름에 여름에?

105019 #4 아니 열매 열지 안는다. 우미 그건 그냥 다박허게 청각추록허민 그자  
박박박박박박 손으로 영헤영 장갑짱으네 뜯어당 망시리 낱 ㄴ디 오랑 들렁 들렁 게  
른 상인덜 사례 오는 사람덜 상인덜안티 폰다. 우린 그걸 그런것도 헤보지도 안허  
고 그자 흐 춤 허당으네 비에 바령 물적지명 바리른 헤양허주기게. 요것추록 허민  
우미 여름에 숲앙 먹으른 얼마나 맛좋은디. 시원허게 여름 농곡허영. 그런 것뵤이

뭐 웃나.

105019 @ 행 먹었다는 거잖아예?

105019 #3 행 먹어났져.

105020 @ 전복하고 소라는 암컷 수컷 이름이 잇수과? 암전복 숫전복.

105020 #4 으, 암전복은 영 베짜허영 베짜허영 베짜허믄 이거는 비창, ㄱ정 가  
믄 딱 물영 전복을 자게 트질 못허곡, 숫전복은 영허영 오모록 영추룩허영 오모록  
허믄 강 비창 덜락허여시믄 강 비창으로 헤영 강 영 허믄 폭삭 열아정 것이 암전복  
이주게. 오분작은 개전복 요만씩흔 거. 고망에 영 여 트명에 부트는 거.

105020 @ 고망에 여 트명에 먼 바당엔 오분작이 어서? 오분작은 죽아?

105020 #4 으, 오분작은 요만씩허주기게. 큰 건 어떤 디 하나 외로 이신 건 요  
만이 험다 오분재기가.

105020 @ 전복하고 오분재기가 뭐가 틀려마씨?

105020 #4 저 전복 이제 암전복, 숫전복, 오분자구 허믄 세 가지주게. 뜨나주게.  
이거 오분자기도 딸라. 이름이 그거 오분자구엔 허고.

105020 @ 건 무슨 색깔 모양이 똑같아 틀려?

105020 #4 영 현 트명에 영 보믄 요디 박아정 잇주게게. 저 오분자구가 어떤 뎨  
소망일믄 돌일러도 부텅 잇고.

105020 @ 알아집니까? 그게 오분재기라는 걸.

105020 #4 으으 부텅잇고 그거 오분자구 옳다 옳날이주. 오분작 1키로에 얼마  
가는 줄 알람디? 8만원돈 감져. 게난 전복덜 사당덜 먹엄쥬. 전복이 낫네 오분자구  
8만원감젠 전복이 낫주 무사 창옥이네가 4만원 주난 전복이 낫주 거 10만원 가 오  
분자기 끝으민.

105021 @ 고동이렌 험니까? 구쟁이렌 험니까?

105021 #2 고동 구쟁기.

105021 @ 구쟁기하고?

105021 @ 그믄예 고동과 갱이는 어떻 잡습니까?

105021 #3 고동?

105021 @ 예. 고동은 여자덜이 잡는 거지예?

105021 #3 우리 부인덜이 태왁으로 해영 물에 들영 잡는 거 아니?

105021 @ 고동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22 @ 여기도 테우도 이서났수과?

105022 #1 거 무슨 말고 테?

105022 @ 밴데 납작헌거?

105022 #1 으, 거 테 테우렌 허느냐?

105022 @ 테 탕가지예.

105022 #1 테 탕도 흥곡, 배도 탕 테도 셔나고 배도 셔났져게.

105022 @ 게믄 요디가 바당이 커 낫구나예?

105022 #1 요 알러레 요거 요거 저 배메는데 이제.  
105022 @ 배 메는 디가 요러 개 이섯수과?  
105022 # 배덜 땡기당 메곡, 요 아레 개창이라고.  
105022 @ 개창 막 크지 않고?  
105022 #1 으, 게 크지 았타게.  
105022 @ 바당에서 제주 바당에서는 배를 아예 테우나 뭐나 안타봤수과?  
105022 #2 제주서?  
105022 @ 이 월령에서 바당.  
105022 #2 바당?  
105022 @ 예. 배타는 거나 테우 타는 거나 한 번도 안헤봤수과?  
105022 #2 아, 가 왓져. 나도.  
105022 @ 멧 살 때 어릴때부터 바당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잇습니까? 배 타는 거 하고?  
105022 #2 배 타는 거 가민 게 이디서 고기 낚으는 거 허고, 그 저 허레 준괴기 낚으레 가는 사람덜이 많주게. 그런 땡 혼디 강으네.  
105022 @ 테우 누구 만드는 사람 이서낫수과?  
105022 #2 어. 테 월령 이서 나서. 테 셔난.  
105022 @ 아아, 월령 누가 만들언마씨? 경 잘 만드는 사람 이서난?  
105022 #2 테 그거 멘들곡, 아니 멘들곡 헐겨셔. 거시기만 시민.  
105022 @ 통나무 베어당?  
105022 #2 베어당, 그거 저 테 멘들안 낭으로.  
105022 @ 그것도 보통일이 아닌디, 여러사람이 합동헤야지예?  
105022 #2 합동헤사 헤낫주게.  
105022 @ 여기도 테우 이섯다는거지예?  
105022 #2 테 셔난.  
105022 @ 걸로 자리 걸이고.  
105022 #2 자리 걸이고, 자리 떠낫주.  
105022 @ 같이 안가봤수과? 바당에 테우 행 자리걸이레 같이 안가봤?  
105022 @ 테우 하나 그거는 개인 거잖아예? 하나 이섯수과?  
105022 #2 개인 꺼게.  
105022 @ 그 사랍은 계속 자리 걸영 오믄.  
105022 #2 같이 안가믄 풀기도?  
105022 @ 떼[浮筏/테우]는 먼 바다에 가는 것파?  
105022 #3 아 테는 먼 바다 못 간다. 파도치믄 그거 다 뒤질라고?  
105022 @ 이건 자리 자리?  
105022 #3 이 자리 걸이레 이디 강 굿디. 요 굿바당만 강 온다.  
105022 @ 게믄 보통 자리만 걸염수과? 이걸로?

105022 #3 으, 테로 다 자리.  
 105022 @ 땀은 아니고?  
 105022 #3 땀은 아니. 자리만 거린다. 자리.  
 105022 @ 자리만 꿰기 낚을 수도 잇잖아예? 거기서?  
 105022 #3 으게. 것사 낚을 수 잇주.  
 105022 #3 돛대는 엇다 이 테는.  
 105023 @ 돛배 돛배. 테말고 돛배.  
 105023 #3 돛배는 거 저 우리 초석들앙 텅기는 디 그거라낚주. 그 배 그 배가.

## 6. 의생활

### 명주

106006 @ 뽕나무나 누에는 안헤뵈고예.  
 106006 #1 들음은 헤낚져.

### 무명

106008 @ 무명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무명으로.  
 106008 #1 헤영 옛날덜은 옷도 헤영 입고, 옷 헤영 감도 들영덜 밧디 일 허고, 민영은 헤낚져.  
 106008 @ 민영으로 옷도 헤영 입고예? 검은 옷에 흰저고리 입엇수과? 무슨 옷을 많이 입엇수과?  
 106008 #1 그자 그자 우리 어릴 때 검은 치매에 흰저고리도 입어나고, 그때에 딱랑으네 그자.  
 106008 @ 계난 고운 옷을 입을 수가 어시쿠다예?  
 106008 #1 그자 그때에 딱랑으네그자.  
 106008 @ 오일장은 한림오일장이 이섯수과?  
 106008 #1 응. 한림 잇져.  
 106010 @ 광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106010 #1 광목은 못 헨다. 기깡이로나 허주이. 민영은 헤낚져, 민영.  
 106010 #4 광목은 즘질고 하마 널르고 얼마나 좋으냐.  
 106012 @ 목화 농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멘화 멘화.  
 106012 #1 멘화가 뵈고?  
 106012 @ 목화 멘네 멘네.  
 106012 #1 아아 멘네. 그런 것사 하영 헛지. 우리 어멍네 어린 때. 으게, 밧디 멘네 갈앙 목화 타당 다 그자 이제 타그네 불랑, 이 씨 빼영 무레에 불황 쟁 태와 당 영 씨 빼영 멘들앙 걸로 민영도 멩들고.

106012 @ 씨 빼는 것도 다 해난마씨?  
106012 #1 게 어릴 때 우리어명넌 허는거 ㄹ치 다 해났져. 민영 참도 해나고이.  
106012 @ 멩주다 목화 멘네렌 헙니께? 민영이여 멘네여 따 보고 헛수과?  
106012 #2 어머니 해서.  
106012 @ 따 본 적은 잇수과?  
106012 #2 목화 해당 거 들렁 불황 영 영 거세기 불르는 기계가 셔. 저 낭으로 멩든 거.  
106012 @ 불르는 기계로?  
106012 #2 불랑 기계빵에서 꽤와. 그 저 씨 빠게끔 멩들앙.  
106012 @ 어머니 해 난 거 봤수과? 헙디가?  
106012 #2 으, 거 해당 집이 오랑 기계 멩글야 오랑, 이젠 집이서 이제 물레 해당, 이제 그걸로 실 뽑앙, 그 뽑은 걸로 여러 개 해영으네, 이젠 민영 찐다 말이여 민영. 짜게시리 것도 허젠허민.  
106012 @ 여자들끼리 모영 헙디가? 혼자만 헙디가?  
106012 #2 혼자.  
106012 @ 집이서 어머니 허는 거 봤수과?  
106012 # 으.  
106012 @ 멩 시간 동안 앓앙 그거 헛지예?  
106012 #2 멩 시간 여러시간 멘들젠허민.  
106012 @ 하루 밥먹고 왕은 또 그거 계속 허고?  
106012 #2 그거 허고. 출창해서.  
106012 @ 어머니가 잡아보라 도와준 적은 잇수과? 어머니가 뭐 잡아보라?  
106012 #2 씨 멩글 때 그거 메영 도와주렌 영 헛주.  
106012 @ 모시 여름에 입는 삼베 싱경 해본 적은 엇고마시? 목화는 따레도 가 보고?  
106012 #2 으, 따레가주.  
106012 @ 가을에 거뒤들이고 바구니에 따니까?  
106012 #2 따는 거? 그 저 바구니 으정 강 벨라진 거 헤양허게 나오주게. 그거 강 땅 오랑.  
106012 @ 씨 빼영?  
106012 #2 응. 씨 빼는 또 오랑 허젠허민 씨 빼젠 허든 기계가 이서.  
106012 @ 씨 빼는 기계가 이신디 삼촌이?  
106012 #2 낭으로 멘든 기계디.  
106012 @ 이름이 뭇지 몰라마씨?  
106012 #2 것고라 뭇셧 혼다마는, 그거 잊어부런. 그걸로 씨 빵은에.  
106012 @ 그때도 도와났수과 씨빨 때?  
106012 #2 씨빨 때 씨도 빼주고 헛주기.

106012 @ 응. 여기는 멘네는 많이 상것수과?

106012 #2 응. 하영 싱긴.

106012 @ 사람마다 다 허고 할망덜이른 다 집이서 지녁만씩?

106012 #2 이녁 집이서 거세기 민영도 멩글양.

106012 #4 드레기 고장 핀다 오래해가민 벨라정 멘네 블라 씨 빼어똥 태와당, 썰로 빼영 물레로 돌리멍 베틀에 실빼영 블라냥, 그걸로 먹고 그 어려도 스물 안에 부터 차났져게. 볍아사 이착으로 드리청 우리어멍넌 허는거. 이젠 기계 집이 다 시 난 블르는 거 태와당 요거보다 들양 옷 멘들젠흐민 태우는 것도 그거 블린 거 짓어 지게 북삭하게 가레기 쫄르고 허영 우리도 해났져. 옷 멩글젠흐민 베클에 창 헤양 현건디 물도 들이고 감도 들영 해당 검은 물도 들이고 감은 바작헌게 무사안이라 고운거 입지젠흐민 멩질 때 풀주마는 어느정도 집이서 풀주게.

106012 #4 옛날이 민영흐젠 허른 느네 그거 들양 멩겜다 마당에 ㄹ시락 불 보 리 장만해난 ㄹ시락이 있나 ㄹ시락 발황 영 헤영 이 저 요 끈거 마니 불 솔황 풀헤 영 이제 영헌 조그만헌 비치락이 싯다 쉼비치락 맨든 거 영 쉼영 이거 쉼영 영 갔 다 ㄹ시락 풀에 물릴꺼 아나가 풀맥영 물려사 이제 그 민영을 짤 거라 딱로 그거 짜고 그거 풀 헤영 냥 민영 짤 때 어떻허연 허젠 멘주기엔 현 거 싯나 멘주기엔 현 거 꼬리 꼬리 민영 영 영 쉼씨멍 영 실 나멍 딱 감양 감양 이제 말젯 그걸 이젠 그 걸 다 해다 냥 꼭작 흐게시리 물렁 므른건 이제 베클헤영 아장 이디 이디민영 차는 거

106012 @ 예 베클?

106012 #4 흐착은이 초신 흐착은 고무신 영 영 밀리멍 경허른 베클에 앉앙 찰 각찰각 게른 그 꼬리가 끊어지주기 실 끊어지민 민영 차는 것에 그거 이성 이성 이 성 이제 그 민영을 창 이제 ㄹ트민 열자주만은 그뻐 열자가 넘어 흐 필이 열 다섯 자 쉼겨여. 흐 필이 민영이 거 짜다근 옛날에 옷허영 풀지도 앓혀고 풀것이 어디시 나. 아기덜 옷 어성 늬의 나가 이 옷을 입으민 고망터전 만딱 험벅허영 주언 또 터 지른 딱로 문딱 형겜해영 주영 경헤영하곡 어떻 어떻행 아느니. 우린 마당에 물질 배우젠 허냥 나 열 아홉에 물질 감 시작했져 육지 육지 해천영업 가난 모집행 간 옷이 어디 시니 입영 갈 옷이 시냐 옷이 어선 늬 네빈 요만이 현거 민영옷 물들인 거 치마주더라고. 그거 입영 가렌 허곡 딱로 이제 적삼이엔 현건 봉강 가젠 허난 지 입당 거 어따 그거 입영가곡, 신이 어디시니. 신이 운동화가 시냐 뵈이 시니 고 무신 늬 신당 흐 번 신어냥거 이거 신어가렌 허연 말 안허민 못헌다. 나 잘도 잘도 고생헌 사람이여. 경흐난 그거 허영으네 신영 가난 육진 저 일로 들어가갸른 저 전 라도 가른 저 오양도엔헌디 싯져. 물 한가운데 바당 한가운데 저 아낙쪽에 글로 자 른 일로 쪽 경북 물로공저로 헨 정적포, 울산 몬 강 헤여도 돈은 잘 안 부트드라고. 안뵈젠 흐난 자꾸 아파 이 몸이 자꾸 제우러정 아파. 아프른 이젠 이제 ㄹ치 돌아 간 해녀덜이 아이구 이제랑 “제주가라 제주가라”허난 그때 돈으로 우리 제주 오젠 허른 5만원. 5만원이른 이디 오당으네 남아 그 돈이 남양 오난 계난 4천 오백원을

주더라고이 제주도 차비행 가렌 4천 오백원을주난 오난 어멍은 어머니 허난 아이고  
 큰일났져. 나 딸아 아팡 어멍 허코. 허난 나 곤지 안헤냐. 아팡 어멍 허코 어멍 허  
 코 허난 저 산방산 절에 어멍 잘 믿으난 그 절에 간 놆 두난 나 간 딸 이디서 수양  
 어멍 키와줍센 놆두난 난 행방 불명 어디 간 줄 모르고 스님은 나 좃으레 막 텡것  
 거든. 난 머리 어질어질어질 막 허고 게난 좋은 기술 패우지 못해연. 요 나 조케이  
 경 아파져난 거겨난 이제도 아프긴 아프다 아파도이 그전이만인 못허곡 막 나가이  
 소리가 좋더라게. 나 소리가 헤가민 나 점허레 나신디 오므이 씨어멍은 솟두경 벌  
 러진 거 하나 쫓구나 향아리 벌러진 거 또 반착 쫓구나. 보리낭으로 불 보리 솟디  
 낱 와다와닥 습당 씨어멍은 복복 요년요년 허영으네 그 불 끼와뵤 나오랑 또 울멍  
 눈물 썰영 뜨로 정지에 아자났구나 경 나가 막 신앙도 신앙도 그런 신앙이 옛덴 막  
 돌아서 산하나 돌아서 섬 하나 돌아서 막 이레도 읍서 이레도 오랑 일주일 삼서,  
 이디 오랑 닷세 살아줍서, 문 모집행 놆뵤수덴 허멍 경허여가는 것이 어멍어멍허여  
 가는 것이 시집을 가렌 허난 가난한 신랑을 만난 일천고생을 나가 물질허멍 그 신  
 랑 맥이멍 그 씨어멍 벌영 맥이멍 그 아기덜 맥이멍 헤연네. 난 본신랑도 갈때 가  
 비고 각씨엔 두 개 씨 뵤난 거 어멍허난 지집아이만 든 사람 테와 난 그 집이강 아  
 덜을 삼형제 나준디 게난 그 씨어멍 노인이 문 죽어가멍 날 흔 번만 불러다 드렌  
 막 허는 거라. 막 그디손지 각씨덜 와도 난 뭐 허레 가느냐고 뭐 허레 가느냐 허멍  
 이 아방이영 살때도 막 오란에. 겐 이제 오렌지 주스 하나 사고 행 강 보난 문 세  
 상 떠남서라게. 게난 “나 왔수다” 헤연에 숙구락으로 숙구락 ㄱ정으렌 입더레. 노난  
 “뚜구락” 하게 네려간 게 그것이“척”허게 가더라고. 경허연 게난 그 본 신랑이렌  
 현 사람도 나영 살아시든 지 병신도 안뵤곡 무신 거 혈건디 지가 잘못헤졌젠 항복  
 을 허연. 항복을 허든 죄책이 시냐게 신경으로 문딱 다 썰언 휠체어 탕 텡기멍 경  
 험시난 요 동산 가는 임 오는 임 봐진다는게 올라감시난 올라가지 못헤연. 막 그  
 휠체어를 밀리지 못헤영 난 그냥 넘어가카 해도 나 성질이 그냥 넘어갈 수가 어선  
 영 밀려줘 뵤 앞더레 나수난“고마와이”경 곤드라고. 그 사람이 경헨 해도 이제이  
 남편 정허난 아기덜도이 좃아오는 버릇도 엇고이 막 좋나이. 지넨 지네데로 나 풀  
 때 사진을 한번 “찍어줍서 찍어줍서”허난 아기 식성체에 저 관덕정마당 짓지 안허  
 냐 이제 이 구식으로 허는디 살아난 인정이 아니라라게. 영헤영 아장 사진 찍을거  
 아니가 아덜ㄱ라 가멍 “난 빨리 사진 찍영 난 나와비아사 헨다”허난 빨리 빨리 헤  
 줘라게. 허어나난 정이 어선게 경헤나난 아기덜 다 하고 죽은 아이 막둥이가 돈 하  
 영 쫓주기에. 나가 들앙 텡기멍 육지 들앙 강 옷도 입질 거 어성 못 버난 담고망에  
 물질허당 보든 막 들어와가든 물에 텡 “아이고 자게 강 보라 아기 물에 터 감져”  
 게도 이 물은 돕북헤가도 무정눈이 줍이라. 그 물에 커정 줍잠서라게. 경헤멍 나 산  
 사람이여 나가 영 허난허주 느네 말을 못헨다. 나가 이 정신이 온전허게시리 머리  
 안 아프고 경 허든 역스 우리어멍 배소곱이서 떨어질 적에 역스를 허젠허든 내년  
 이때 뵤도 다 못 곶아 현저 부지런히 행으네 젊을 때 돈 벌어서 한다. 늙으든 나  
 하가든 돈도 못버는거라. 부지런이 뛰어텡기라. 뛰어텡기고 니 아덜 하나신 거 잘



해영 좋은디 메뉴리 77심 허영 잘 헤영.

### 삼

106017 @ 베옷은 또 어떻?

106017 #1 베옷은 베로 멩근 옷이 베옷이주기.

106017 @ 그것도 싱거나싱가예.

106017 #1 베옷 싱그는 디 모른다. 뫼사 어떻헿 나오는 것산지.

106018 @ 삼 재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 재배하는 거 그런 거?

106018 #1 것도 모른다. 삼 재배 허는 거.

### 도구

106019 #1 씨아 뫼고? 건 모르켜.

106020 @ 물레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물레 베클?

106020 #1 그런거 다 봐났져.

106020 @ 봐난마씨?,

106020 #1 물렌 이제 영 불르는 거고, 물레허고 싸곡이 썰베곡 허는 것이 물레고.

106021 #1 베클은 짜는 거고이?

106021 @ 짜는 거예?

106021 #1 응, 짜는 거. 영 비 들이청으네 비 들이청 이레갓닥 헤영 드리치곡 저레 헿 영 들리곡.

106021 @ 헤 보기도 헿마씨?

106021 #1 헤났져. 그 어틸 때라도.

### 바느질

106022 @ 바느질은 당연히 헤났고예? 바농쌘지?

106022 #1 건 뫼고 바농쌘진? 아, 바농쌘지. 으, 거 바농 놓는 거 77라 바농쌘지 잘도 잘도 적영 땡겍져.

106022 @ 여기 베라벨 거 다 잇수다. 지금 이거 봅서.

106022 #1 아이고 어떻아 벨거 다 적영 땡겍져.

106022 @ 바농질 바농쌘지렌 헿니까? 바농허는 거 바농질.

106022 #4 바농쌘. 옛날 어디 차롱이 시냐. 요만헌 그릇에 헤영으네 바농허영 꺼영 이젠 저런 하꼬에 허영 헿주마는, 어성 바농쌘지엔 헿다. 것 77라 거 바늘쫼렁 영허영 따로 손도메도 찌는 사람 싿다. 이 손 쫼르지 못허게 육지사람덜은 손도메 헤영 찌지 안허나. 육지 손도메헤영 손 쫼르지 못허게 손 못쫼르게시리 도메헤영 쫼렁 우리덜은 그것이 아니라 그거 경헤영허곡 육지 강 보문 막 수놓는 사람도 싿고이. 시집덜 가젠 그저 방식에 문 카텐에 우린 그런 거 헿 줄 모른다. 경헤영덜 허

곡, 가쁜 덜 옷덜 혜영 입영 이 한복덜 윤디 허영 난 어려부난 그때 몰라났져.

### 옷 종류

106024 @ 남자 옷은 어떻 만들어 마씨?

106024 #1 줌뱅인이 남자옷인디, 찢른거 찢른 거꼬라. 줌뱅인.

106025 @ 여자 옷은?

106025 #1 말제 몸빼나오고이, 일본 그런 거여게.

### 재단과 염색

106031 @ 염색은 갈옷?

106031 #1 풀도 안허곡. 보지락허니까.

106031 @ 일혈 때 주로입었지예?

106031 #1 일혈 때 땀도 보그락허게 좋아이.

106031 @ 잠뱅이 바지영 뒤여. 그걸로 감물도 들이고.

106031 #2 감물도 들이고 뒤허곡 헛주기. 입엇주기.

106031 @ 어머니가 다 만들영?

106031 #2 응.

106031 @ 미싱질 끝이 바느질로 바농.

106031 #2 아 만들기는 다른 디가 만들주마는.

106031 @ 감물 들이는 건 어머니가 허고?

106031 #2 감 끝은 것도 들이고.

106031 @ 여기 싱그고 경 허진 안허고?

106031 #2 것도 산간에 강 감 사당.

106031 @ 사당 물들이는 건 봐났수과?

106031 #2 응, 아니. 감 들이는 건 봤주.

106031 @ 감 들이는 거예? 그문 물레나 베틀 다 봤다는 거지예? 베틀로 짜는 거 바느질 바농쌌지 이성 어머니 허고 옷 주워주고 바지 만들영 입고?

106031 @ 무슨 색깔 옷을 입엇수과?

106031 #2 아무 색깔이나 입주게.

106031 #2 응.

### 신발

106032 @ 짚신은 아버지도 만들고?

106032 #2 짚신 거 뒤.

106032 @ 아버지 안티 배운 거짜?

106032 #2 어.

106032 #3 신에 대해서 옛날 신은 초신이주게. 짚신이렌헌다.

106033 @ 초신을 찍신이렌허고, 신발 가죽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3 #3 가죽신 가죽신은게 이디서 맨드느냐게. 공장에서 맨드는 거난.

106033 @ 응. 여긴 갓바치가 어서수과?

106033 #3 응. 공장에서 가죽 맨들양 소가죽으로 행으네, 그걸로 신 맨드는 거 아니가게.

106033 @ 거른 예를 들면 소잡았을 때, 그 가죽을 어디 풀았수과?

106033 #3 그걸로 행은에 가죽으로 행 풀고.

106033 @ 거 사가는 사람이 이섯수과?

106033 #3 으. 많이 이섯지.

106033 @ 어디 오일장에 아니면 월령엔 어섯수과?

106033 #3 응. 월령엔 어서.

106033 @ 월령엔 엇고예?

106033 #3 거 많이덜 풀양 그것덜 헤영 게용덜 많이 썼지.

106033 @ 췌 잡았을 때 그 췌가죽을 오일장에 강 팝니까? 췌가죽?

106033 #3 뭐 개인안티 풀았지. 오일장에 강 풀지 않헤실 건디. 오일장에 누게 가 사 갈 사람이 셔?

106033 @ 아 그른 개인안티 그거 풀젠허민 돌려?

106033 #3 그거 헤영 북도 맹드는 사람은 북 멩글고, 장구 멩글고 다 허는 거 아니가?

106033 @ 아 삼촌은 그런 거 안 멩글어 봤지예?

106033 #3 으, 아니. 헤봤져.

106033 @ 요기 탁현씨가 북 멩글드라예?

106033 #3 으 멘든다.

106034 @ 나막신?

106034 #1 나막신도 신어났져. 우리 아버지 멩들아주난, 나무 판 거 발 곱고.

106034 @ 신어집디가?

106034 #1 어려워도 그거 게 우리 아버지가 맨들아주난 파 주난 나막신 신어났져.

106034 @ 언제 신언마씨?

106034 #1 몰라. 막 어릴때도 신어나서.

106034 @ 비올 때 벗어지지 안헨마씨?

106034 #1 괴양게 경 자게 텅기느냐게?

106034 @ 지금은 그런 거 엇고?

106034 #1 어서.

106034 @ 나막신은?

106034 #2 아. 나막신 그것도 보긴 헛어.

106034 @ 신어나지도 않고 비 올 때?  
106034 #2 신어나지도 않고. 이디 혈 때 아버지네 신는 건 봤주?  
106034 @ 아버지가 신는 건 봤고예? 누가 만든 건 모르고?  
106034 #2 모르고 것도 사당.  
106034 #2 동네에서 만든 사람이 이서실꺼 같아?  
106034 @ 몰라.  
106034 @ 계민, 나막신?  
106034 #3 나막신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나막신을 짚는디이, 나막신은 어떻게영 신영 그때 텅겨사허른 나막신은 신영댕기기가 불편헌다. 짝뽀만 잘못했다허민 구멍 나분다. 피들락 했다허른 이거 뭐 백발백중이라. 겐 그 나막신 그자 우리 할아버지가 늘 파당 손지놈 신으려편 이거 안 신으쿠편, 이거 신영 어디 일을 못허거든 겐 초신 찍신 확히게 삼아으전 그거 신영 나가지.  
106034 @ 아 할아버지가 그걸 잘 만들엇구나예?  
106034 #3 응, 나막신.  
106034 @ 만들 때 어떻게디가? 칼로 파?  
106034 #3 파는 거.  
106034 @ 뭘로 팝데가?  
106034 #3 냥.  
106034 @ 무신 냥, 소냥, 썩대냥?  
106034 #3 저 뽕냥일거여, 뽕냥. 거볍게 뽕냥이 거볍주기.  
106034 @ 뽕냥일거여 거머?  
106034 #3 거버 거부와.  
106034 @ 무거와 거버 가벼와?  
106034 #3 응, 가벼와.  
106034 @ 아아 뽕냥이 가볍구나예.  
106034 #3 응.  
106034 @ 그 뽕냥을 해당 그걸 뭘로 팝니까?  
106034 #3 뭐 파는 거 셔라. 그 쉼 오그라정 삭삭 끊어가믄 속속 파져라.  
106034 @ 아아 잘 만들영 오일장에도 팔고.  
106034 #3 으 그거 풀레 한배에 비싸. 나막신 상당히 힘들어, 거 파젠허민.  
106034 @ 그런 건 남은 거 엇수과? 보물인디 그런 것도.  
106034 # 에에 엇다. 옛날 다 행 데껴부난 거 뭐 셔게.  
106034 @ 게믄 성할아르바지가 만들엇다는거지예?  
106034 #3 외할아르방. 막 멋지게 멩들양.  
106034 @ 외하르바지 멩 살때까지 살앗수과? 삼춘.  
106034 #3 이거 외하르바지 지신 집인디, 외하르바지 나 욱은 후제사 돌아가서 오래오래 살안. 한 구십 대여섯 난 돌아가서.

106034 @ 즈꿏디 살앗수과?

106034 #3 금능.

106034 @ 아이고 외할아버지 금능에 사섯고나게. 어머니가 금능이니까 그렇구나.

106035 @ 신은 무슨 신 신엇수과? 짹신?

106035 #1 아버지 삼아 주난 짹신도 신어났져. 이제 어렵다게 짹신.

106035 @ 짹신은 여러종류가 잇지예?

106035 #1 짹신은 조리라고 끈 돌아진 것도 잇고 두가지 알아진다.

106035 #1 짹신은 조리라고.

106035 @ 조리?

106035 #1 조리 영 끈돌아진 거여, 끈돌아진거.

106035 @ 짹신은 산디쪽으로 헉니까? 뭇로?

106035 #1 짹신 나룩짹이 좋아.

106035 @ 짹신?

106035 #3 짹신게.

106035 @ 해뵤수과?

106035 #3 으게, 해뵤주게.

106035 @ 게민 좃좃이 곱아뵤서.

106035 #3 그거 이제 그거 행 놀을 끈다. 놀 놀이렌 헉거 신 놀.

106035 @ 놀 베어다가 아니믄?

106035 #3 건 어욱빠당 헉다, 어욱뵤.

106035 @ 짹신을 어욱으로 헉니까? 나룩이 아니고?

106035 #3 아니 놀 놀 그 신 줄 이기가 저 거시기로 허여. 그 저 어욱빠당 어욱 무사 해얏게 피지 안허느냐. 그거 저 피기 전에 그거 강 빠당 낏당 그거허믄 놀 꼬 주기. 경헤야 오래가곡 짹곡 막 짹긴다.

106035 @ 짹기고예? 게민 어욱을 꽃피기 전에 그 꽃을 뭇렌 헉니까? 어욱꽃을.

106035 #3 메 노인덜이 애기덜 허지 안허느냐 저?

106035 @ 옛날 말로.

106035 #3 어욱꽃 어욱꽃 뭇.

106035 @ 어욱고장?

106035 #3 응, 경헉난.

106035 @ 게믄 나룩짹이나 산디쪽으로 짹신을 안 삼얏.

106035 #3 아, 그걸로 삼나게 그거 놀 놀.

106035 @ 놀 놀은 어욱빠당, 그 놀을 어떻게 만듭니까?

106035 #3 꼬얏게. 영영 무사 췍지 안느냐, 꼬믄이?

106035 @ 손으로 꼬얏?

106035 #3 으, 손으로 꼬믄 요만이 헉으네 그자 새끼줄 딱 헉다. 꼬야 노믄 그

거 헤여근에 찍은 벨도로 행 담양, 두두령 왕, 그 늘 네 군대 놔 놉, 거기 이제 줄 아가주기 신을.

106035 @ 그른 어욱으로 네 군대 줄을 영?

106035 #3 건, 줄 줄.

106035 @ 줄을 묶엉 어디다 묶어마씨?

106035 #3 어. 그 신을 맞춰게 발맞창.

106035 @ 경헨 그 찍은 무슨 찍게?

106035 #3 저 산디찍이여, 무신 나룩찍이여 허지 앓허느냐? 그거.

106035 @ 사당 아니른 밧디 거를?

106035 #3 사당했져. 이제 월령더레 나룩이 경 잘 돼지 안헌다. 두모 신창더레 강으네 강 사당 스몫 가른 막 준다.

106035 @ 얼마정도 허고 얼마만큼 행 신 하나가 나옴니까? 나룩 어느만큼 헤 야?

106035 #3 흔 못 있지 앓으냐, 무세미 한몫께미. 그거 저 신 두 베 숨아진다.

106035 @ 흔 못꾸미 허민 신 두 베예?

106035 #3 흔베가 두개주기. 두베 숨아져. 응.

106035 @ 두베 숨아지는데 이게 그 줄 네 개가 잇어야 돼는데, 어욱빠단 헛고.

106035 #3 어욱빠단 깔앙 그거 늘 늘이렌 흔다.

106035 @ 이거 누구안티 배왔수과?

106035 #3 건 나가 직접 허당건디, 누게안티 배와.

106035 @ 계난 할아버지나 주위에 사람덜하고 ㄹ치 친구들이영?

106035 #3 어. 다 ㄹ치덜 해나세.

106035 @ 멧살ㄱ지 이 짚신을 신엇수과?

106035 #3 멧살ㄱ지 한 나 그거 허당 우리 증손집이 하도 날래광 막 증손집은 부제엿주기. 우리 증손 부젠디 멧석을 어린아이가 멧석을 잘 쳐지느냐게. 어려부난 멧석이 12개씩 놓나 마당에 경흐른 저녁웨가른 보리 널어근에 거 들여놔야 될꺼 아니가?

106035 @ 예. 날래?

106035 #3 날래 그걸 들여노른 밧디강 오멍 그 멧석을 싹 패운다. 그 증손 할머니 싹 패왕 겐 뒤셴 곤느냐른 멧날 벌어다 먹는 받아먹는 행실이 그대로 있구나. 쟁 하도 어이가 어션 이젠 어머니 보고 왔지. 어멍신디 오랑 “만날 풀아다 먹다 허는 그 말이 거 무신 말이우파? 하이고 경굴아냐?” 쟁 그 밧로 나 일본 가붙어세 벌 영 살젠.

106035 @ 아아 그“만날 벌어다 먹는 행실이 그대로 있구나아”라는 그 멧석은 무사 마당에 열두개 잇는디 걸.

106035 #3 열두개 마당에 크난 부자난 열두개 ㄱ지 막 패운다 짹허게.

106035 @ 그 옆집의 할망이?

106035 #3 우리 주손할망.

106035 @ 주손할망이 뭐과?

106035 #3 우리 일가에서 제일 높은 할망.

106035 @ 큰 할망에 주손 할망이렌 험니까?

106035 #3 어, 증손.

106035 @ 증손할망이 제일 높은 할망을 증손할망이렌 험마씨? 증손할망 계난 그게 안좋은 말이과? 영 이런 일 허지 말앙 그런 뜻이과?

106035 #3 거 오죽해야 만날 풀아다 먹는 행동 거 왜냐하든 명석이 자꾸 트니까 보리 멧방울씩 나와. 명석우이 박아진 거. 게 어린아이가 경 잘 깨끗이 털어지는 것가게 경허난 그 어명신디 오란 멧날 풀아다 먹는 이렇게 허영 멧날 풀아다 먹엄구나 거어머니 무신 말이과? 허난 경 곱아냐험 그 발로 이제 그디 더 일 안나가고 나 일본가부러세.

106035 @ 응. 그 발로 그 할머니 말에?

106035 #3 으, 우리 뭐허든 그거 나 양제로 들젠 경 해난 모양이라. 계난 나 양제“당신네 집에 뭐 나 양제로 들어오느냐 말이여 ”경헤연 나.

106036 @ 짚신의 종류는 초신뿐이과? 뭐에 따라가지고 이름이 또 다르게 잇수과?

106036 #3 종류 뭐 그거 그거여. 뭐 종류 업는다. 깍 비병으네 삼는 신도 싯져, 깍 비병.

106036 @ 비병 뭐 비병마씨? 깍 비병.

106036 #3 저 깍 비병 싯각이엿 험거. 싯각 싯져 그건 츠말로 시집갈 때도 싯어져.

106036 @ 이름이 틀리네예.

106036 #3 으, 것도 초신인디 깍을 멧진 걸로 부빈다. 게든 상당이 곱와. 이거 싯영 나사민 어디 옛날 곱으든 일류가는 기생 싯덜 아니가.

106036 @ 같은 초신이라도 비싸구나예 이젠?

106036 #3 아이고 뉘게 비싼다.

106036 @ 아 이거 뭐 싯각에 부민 초신이렌 험니까?

106036 #3 어 비싼다. 막 보기도 곱고.

106036 @ 비싸고 누가 싯어마씨? 돈 잇신 사람이?

106036 #3 돈 잇는 사람 아가씨덜 어디 외출용이주. 거 외출허레 갈 때.

106036 @ 계민 줌질게 줌질게.

106036 #3 막 곱나.

106036 @ 곱와예?

106036 #3 상당히 볼만허여.

106036 @ 발은 남자발 여자발이 틀린데 대충 험니까? 이렇게 재명?

106036 #3 재명 맞추명 싯 삼앙 놔뉘야주. 거 발 대부분 볼 늦은 몽덜 이백육십

미리 이백오십미리 경 해영들 신지 안허냐? 그거 혼가지라.

106036 @ 신발은 해봤고예? 모자는 안해봤고예?

106036 #3 모자 그런 건 안해봤져.

## 모자 등

106037 @ 모자는 양태나 탕건, 망건 봐놔수과?

106037 #1 아맹해도 그거 허젠ㅎ난 사오라실꺼여. ㄱ만셔보라 무싱거엔 혼다?  
모자 같은 거도 정동녕쿨로 새로 만든 거 잊어붙어졌져. 봐놔져마는. 뭐생헌디사?  
모자 좇는 사름 엇고 썩 텅기는 거 봐놔져게 정동으로.

106037 @ 모자 짜는 사람 이섯수과? 정동 그 녁쿨로.

106037 #2 모자는 짜는 사람 월령엔 어서서.

106037 @ 이 마을에 모자의 종류 여름모자, 겨울모자, 양태, 결기, 총모자, 탕건  
결기, 망건결기 이게 다 함덕쪽에 많이 잇지예? 이쪽엔 잘 엇지예?

106037 #3 으, 우리 마을에 밀짚모자 있잖아, 밀짚모자.

106038 @ 이제 여름에는 밀랑 패랭이?

106038 #3 응. 밀랑 패랭이렌 한다. 밀짚모자보고.

106039 @ 겨울 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9 #3 겨울모자는 그 나까오리라고이 다 딱 시네, 여기.

106039 @ 섯수과?

106040 @ 양태 총모자 탕간 망건 이거는 도롱이 도롱이?

106041 #3 그거 저 거시기. 월령 그거. 섯긴 걸궁혈 때 사용헤놔져. 옛날 하르방  
이. 이 저 둥그런헌 거여. 거 둥그런헌 모잔디이, 옛날 하르방 쓰당 거 가죽모자여  
거.

106041 @ 가죽모자가 총모자 무슨 모자 가죽으로?

106041 #3 총모잔 거 사농허레 텅기멍 그 양반 썩 텅기멍 사냥헤놔져. 걸궁혈  
때 꿩마치레.

106041 #4 꿩 마치레 꿩사농 옛날 꿩사냥 산에 강 꿩사냥 텅기멍 모재가영 ㄱ  
트민 털모자 이거ㄱ치 거 썩영으네 이제 마구리해영 썩영 거 썩영이네.

106041 #3 아방.

106044 @ 도롱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44 #2 월령 누게 하르방 도롱이 해놔져. 둥그런헌 모잔디 가죽모자여. 사농  
허레 텅기멍 쓰영 망텅이 모자 긴거 졸른거 월령목화하르방.

106044 @ 월령엔 엇고예? 양태, 탕건, 망건, 도롱이. 도롱이는 다 출로 이렇게  
비 안 맞게 그 이름이?

106044 #2 그런 것도 잘 안 맨들아서.

106044 @ 비웃같이 만들영 거 입어나실 건디. 늘헐 때 우에 꼭대기 늘암지처럼  
늘암지같이 이렇게 해서?



106044 #2 어서 이젠.

## 7. 식생활

### 밥과 국

107001 @ 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1 #1 반지기밥 곤밥 주로 좁쌀과 보리쌀 제사땀 곤밥이라고.

107001 #2 녹디밥도 싯고 녹디 낱 밥행 먹고.

107004 @‘반지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4 #1 반지기엔 혼 건 보리쌀이영 쫄이여 섞어진 거 헐으면 섞어진다. 보리밥이제 쫄 밥 섞어지거 반지기.

107006 @ 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6 #1 조팍은 곤밥 곤쌀로만 감재도 낱 먹어나고.

107007 @ 팔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7 #1 풀밥 풀만은 안돼곡, 무순 밥 안돼고 풋밥 보리밥에섞으곡.

107011 @‘툇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1 @ 밥은 무신 밥이 잇수과? 반지기밥 보리밥 조밥 툇밥도 들어봣수과?

107011 #2 툇밥도 행 먹어.

107012 @ 패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2 #1 패밥, 까실까실 혼 거여. 패게 바당에 난다.

107012 #1 엇다 무신 것에 툇트멍에 난다. 까실까실 바당에 난다. 툇나는 디 난다.

107012 @ 툇 낱 툇밥도 먹어봣고 패밥은 뭇과?

107012 #2 패 낱으네 밥 행 먹어.

107012 @ 패가 바당에 나는 것파? 패렌 험니까? 툇 닻은 거 김 닻은 거?

107012 #2 김 닻은 거 패가 잇주.

107012 @ 맛좋아마씨? 패밥?

107012 #2 거 옛날엔 맞추영 먹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어서 노난 이것도 낱 행 먹어보고 저것도 낱 행 먹어보고 헛주.

107013 @ 국은 무슨 국이?

107013 #1 것사 여러 가지주게. 국은 여러 가지 호박잎국은?

107013 #2 호박잎국도 해영 먹어 보곡, 콩국도 행 먹어보고, 메역국이여 무싱거여 그 갯것이서 나는 건 다 해당 먹어봣주.

107013 @ 몹국이여 생선국이여?

107013 #2 그런 것도 다 해당.

107013 @ 넝피국, 가시리국. 넝피 이것도 해산물이파?

- 107013 #2 응, 바당에 꺼.
- 107013 @ 넘피 메역새 트멍에 카락카락 넘피가 뭔지 모르겠다예?
- 107013 #2 넘피 셔.
- 107013 @ 파래국?
- 107013 #2 프래국도 싣고.
- 107013 @ 보말국, 성계국, 죽, 흰죽, 곤죽, 좃죽, 풋죽?
- 107013 #2 거 다 싣주기.
- 107013 #4 메역국 국은 꼭 해영 먹주기.
- 107018 @ 호박잎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18 #1 호박잎 베껴그네 썰영, 영 낱 ㄹ루 허트민.
- 107018 @ 무슨 가루 허터마씨?
- 107018 #1 나중에 보리 가루 무신ㄹ루?
- 107018 @ 보릿ㄹ루 보리ㄹ루 아니고, 브리쌀 근거. 보릿ㄹ루 보리 겨낭 쉼나 개나 도새기나 주주 보릿ㄹ루. 보릿ㄹ루 보리 겨 난 거ㄹ라 보릿ㄹ루 보리 겨 난 ㄹ루고라 못 먹난게
- 107019 @ 모자반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19 #1 몹국은 해 먹어났져.
- 107019 @ 접죽빠국이렌 험니까?
- 107019 #1 도세기 잡은 접죽빠.
- 107019 @ 접죽빠.
- 107020 생선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20 #1 생선. 피기중에 제일 양반.
- 107021 미역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22 @ 냉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22 @ 녹물 데와도 녹물 데왕도 되고 초 흥김.
- 107023 성계국, 보말국, 넓패국, 가시리국, 파래국, 물회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107023 @ 넘패국은 뭇파?
- 107023 #1 넘피국 바당에 잇저게.
- 107023 @ 아까 닳은 건가. 으, 그 툃트멍에 난 까락까락헌 게 저 무시것고? 메역새 트멍에 나는 넘피가 잇저 바다에 잇저게. 메역귀소곱이 툃트멍에 메역새 트멍에.
- 107023 @ 가시리국?
- 107023 #1 거보라.
- 107023 @ 프래국?
- 107023 #1 프랜 잘 먹어났져.
- 107023 @ 프랜 잘 먹어마씨? 어떻 트다마씨?

107023 #1 먹는 건 문지락한다. 못 먹는 건 아니. 먹는 건 까칠 나 모르켜. 너미 하영 ㄹ르난.

### 죽류

107013 @ 모멸죽, 닭죽, 강이죽, 녹두죽, 묵끄럭죽?

107013 #2 묵끄럭 죽도 썩 먹어.

107013 @ 묵끄럭 죽도예? 고등어죽.

107013 #2 고기엔 현 건 아무거나도 죽을 썩 먹어지난이.

107013 @ 옥돔죽도 먹고 우럭죽은?

107013 #2 우럭은 거 짱이 하는 때문에 잘 안 먹어.

107013 @ 우럭은 지정먹고?

107013 #2 빼가 해주게 거게.

107032 @ 갱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2 #1 강이죽이야 좋지. 물로 뽕상 물로 조쌀 밀어똥 살그랑 하흔다게. 물로 뽕상 썰게.

107033 이외에 죽을 해먹었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뽕죽, 닭죽 등)

107033 @ 어머니. 묵구럭 허믄 죽도 썩 먹어보고, 고등어여 다 안 먹어 본 거 어시 전복허고 소라도예?

107033 #2 어.

### 범벅과 수제비

107034 @ 범벅은 무슨 범벅?

107034 #1 무슨 범벅이든 다 돼주.

107034 @ 므멸 감재범벅되게도 므멸이 들주게?

107034 #1 므멸이 제일 좋주게.

107034 #1 으게.

107034 @ 감재밥 범벅도 행 먹어봣수과? 범벅은 무슨 범벅이 제일 맛좋아마씨? 므멸범벅?

107034 #2 툷범벅, 감재범벅, 모멸범벅, 므멸범벅이 맛있주게.

107034 @ 감재도 놓고 툷범벅도 이섯수과?

107034 #2 툷범벅도 싣고.

107034 @ 툷범벅 다른범벅 이름 녹되밥도?

107034 #4 ㄹ루지영 감자썰영 감자범벅 범벅은 ㄹ루예.

107035 수제비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107035 #1 즈베기 칼국 애기날 때 나쁜 피 삭넨 혼다.

107035 @수제비 즈베기 므멸즈베기?

107035 #2 응, 즈베기.

- 107035 #4 즈베기 좁쌀도 근쌀도 ㄹ루로 만들어.
- 107036 @ 칼국수도 나중네 행 먹어보고?
- 107036 #2 칼국수도 행 먹어보고.
- 107036 #4 칼국 밀영 똑똑 썰영.

### 김치

- 107037 @ 김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서.
- 107037 #4 집이서 ㄴ물이 나니까, 우영빳디 나니까 ㄴ게, 다.
- 107041 @ '동지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41 #1 동지김치 동지 상거ㄹ라.

### 젓갈

- 107048 @ 젓갈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줍서.
- 107048 #2 자리젓 멜젓 자리젓이 많이 먹어.
- 107048 @ 구쟁기젓도?
- 107048 #2 옛날이사, 자리젓.
- 107048 @ 강이젓도 했수과?
- 107048 #2 강이젓도 먹어보고.
- 107054 @ '출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54 @ 출래가 뭇파?
- 107054 #2 출래엔 현 것이 그거주게, 반찬허는 거.

### 장아찌와 회

- 107055 @ 장아찌는?
- 107055 #1 장아찌는 마농지.
- 107055 @ 반찬허는 거? 장아찌 마농지.
- 107055 #2 장아찌 마농지 곁은거.
- 107055 @ 마농지는 뭇로?
- 107055 #2 양아로 지 담양 먹고 모자반.
- 107056 @ 마늘장아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07056 #4 마농지랑 마농지 뭇허여 장물에 등간.
- 107057 @ 회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새끼회, 자리회, 방어회 등)
- 107057 #1 회는 새끼회 자리회.

### 장 담그기

- 107059 @ 장은 언제 담굽니까?
- 107059 #1 ㄹ만시라. 장이 ㄹ실에 당그는가 어떻허는고?

107059 @ 콩 나와야 당그니까예?

107059 #1 콩 으개. 콩허영 삶양 이 이제 메주 맨들양으네 들류와사 티왕 들류와사 장 돼는겨여. 콩 삶양 그거 다 간장은 티왕 들류와사, 간장은 그디 물나오는 걸로 간장이고.

107059 #1 메주 몰량 물나오는 거로 간장만들고 맞추기게.

107059 @ 간장 장 멩그는 거 제주돈 제주도만?

107059 #4 이제 제주도는 된장, 장물, 장물이엔 허여 것그라 장물 또 고추장먹는 사람 시든 고추장은 이젠 다 상위에 강 사당 먹기 때문에 안해도 돼어. 것뿐이라. 웬장허고 장물 장도 담양 먹는 사람 여 드물어. 몬딱 다 강 저 상위에 강 저 하꼬로 강덜 불령덜.

107060 @ 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7060 #4 된장, 육진, 고치장, 막장, 간장, 고치장, 막장, 된장 세가지 간장도 네가지라 육진.

107061 @ 장 담그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고추장, 된장, 간장 등)

107061 #4 옛날 우리도 경 헤낫져. 콩 삶양 메주티왕 경헤연. 장등그는 날이 서 퉁날이나 경훈 날 경헤영. 담나 조금에도 안 담고 경 물치 사례 올 때 그 우티 고치 하나 띄우고. 옛날 솟 하나 톡허게 들이치곡.

107062 @ 메주는 언제, 어떻게 쏘니까?

107062 #4 장 담그는 것은 됴그는 동짓들에 담아사. 동짓들에 담으른 이제 장 걸르는 건 3월 2월 난다. 메주 저 장 담양 장물 걸르는 거.

## 떡류

107064 @ 먹는 떡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64 #3 좁은떡 그라 새미떡이이엔도 허곡, 좁은떡이엔도 현다.

107064 #4 우리 세기렌 우리 세기렌 침떡 이제 인절미 새미.

107064 #3 새미좁은떡.

107064 #4 이제 인절미 새미떡 좁은떡 곤떡 겐 딱로 밧헌 사람은 좁쌀 백사당 덜 지름떡덜게 것백끼 엇다.

107065 @ 그른 좁은떡 곤떡 침떡은 좁쌀 조, 조 무슨 걸로 침떡 만듭니까? 좁쌀

107064 #4 좁쌀 침떡 아아 이젠 좁쌀떡 엇나 멧쌀 멧쌀 곤쌀 이제 밥행 먹는 거.

107064 #3 무사 옛날엔 좁쌀에 헤세.

107064 @ 옛날 옛날?

107064 #4 아, 옛날은 좁쌀 경 흰 징 낱 시리떡 허젠허든 세에 흰 징 놓고 풀 놓고 경헤여근에 떡 헤낫주게 게난. 그런 떡이 어디잇나 보도보도 못들으지.

107065 #4 시리에 낱 시리에 담양 징 쉬 중간중간 뇌사.

107066 @ 제일 우에는 식계때 송편 이것지에 송편 곤떡? 곤떡.

107066 @ 곤떡은 이제 뭐해도 영 동글락허게 곤떡을 찌영 노른 이제 요만이 끊어 영 허영 돌레떡추룩 툃툃툃허연 요만씩 기계가 뛰는 것이 이서 똥글락헌 기계가 이서 그거 사당 기젤 영 꼭허게 찍으민 너귀 난 막 보기 좋아

107066 @ 음 쉬 곤떡에 쉬 쉬 쉬 쉬?

107066 #3 곤떡엔 쉬 안논다.

107066 #4 곤떡엔 쉬 안헌다.

107066 @ 곤떡 쉬 안놔마씨?

107066 #3 건 즈은 떡에 놓지 즈은 떡.

107066 #4 즈은 떡 영 이추룩 헤영 즈양 영 헤영, 그 소곱에 쉬 담양 앙꼬담양, 경허주만 곤떡은 쉬 안묻힌다. 난 곤떡 쉬묻힌텐 말.

107066 @ 쉬 속에 안 놔마씨?

107066 #4 으 그건 즈은떡이엔 헌다. 소곱에 앙꼬 놔도 곤떡은 쉬 안묻힌다.

107066 @ 아 곤떡은 쉬 안 노고 뽕쌀로?

107067 @‘빙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기타)  
‘후라이 몰양 푯도 무수 빙떡이엔 흐민 쉬게 놔두느냐 확 들리먹어볼곡.

107067 @#4 빙은게 영허영 알롭게 헤영 풀영 그 소곱에 늣삐 썰영, 늣삐 썰영 뽕형, 그레 영헤영 깨헤영 버물영으네, 이젠 요레 영 낱 우이 툃툃툃툃 몰양으네 건 빙떡이엔 혼다 빈.

107067 @ 빙떡?

107067 #4 으 빙떡이엔 혼다.

107067 #3 믱멀로 허는 거주기계.

107067 @ 모멀로예?

107068 #4 푸끄는 거난 빙떡 “아이고 빙이나 푸경 먹어서든”

107067 @ 푸경?

107068 #4 빙떡.

107068 @ ‘상웨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68 #3 즈는 거

107068 @ 막걸리에 쟁 놔두든?

107068 #4 보리쫄 보리떡 헤영 덜. 소다 놓고저 막걸리 낱 부경 경헨 떡헤나서.

107068 @ 보리떡? 부경 소다 낱?

107068 #4 막걸리 헿 쟁 놔두든 부그락허게 올라와 올라오든 그거 끊으멍 솟드레 낱 징 낱 허든 부각이 올라왕 것백기 었다.

107069 @ 제사 떡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69 #4 곤떡 요만이 끊어 손으로 돌레떡추룩 영 헤연 멘들야. 그걸 네권 문 직알 요만씩 끊어 꼭 허게 찍으민.

107070 @ 상례 때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70 #4 돌래떡은 그 저 옛날 저 영장밭디 가젠허믄 돌래떡 헤낫주. 돌래떡이 어디서 갈 때 이마니 크게 허영 부조라고.

107071 설기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

107072 @ 인절미는?

107072 #4 인절미는 그자 저 영 헤영 너기반득 반달떡. 그 다음엔 이젠 인절미 세미 허믄 이제 반들 곤떡배끼 어서나서 이 나란 떡이엔.

107077 @ 굿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77 #4 돌래떡 돌래떡허는 디 씻고 또로 저 것밖에 었다. 경허곡 저 성주 허젠허믄 시리떡 들어간다. 성준 허젠허믄 혼 징 낱 세징에 낱으네 그 우이 돌래떡 우트레 걸청 경허는 거. 굿떡은 돌래떡만 돌래떡만 경헤영으네 그거 올려 낱 허는 거.

107078 @ 이외에 어떤 떡들이 있었고, 언제 떡을 해 먹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07078 #4 성주 허젠허민 시루떡 이서사 한다 좁은떡 쉬.

### 소와 고물

107079 @ 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79 #1 고물 그 속에 송편 속에 놓는 거 풀.

107079 #1 풀도 놓고 녹디도 놓고 속에 놓는 거.

107079 @ 고물 쉬렌허지예 쉬.

107079 #1 쉬 쉬 그 저 풀이나 녹디나 그레 허트는 것이 쉬.

### 별식

107082 @ 순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82 #1 순대를 수애렌 허지예.

107089 @ '췌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과정 등)

107089 #1 밥 췌 거ㄴ라.

107089 @ 췌다리, 이런 거 먹어봤지예?

107089 #2 다 먹어 봤지.

107090 @ 누룩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90 #1 헤영 그거 놔사 술 췌다.

## 8. 주생활

### 구조

108003 @ 안커리 밧커리 모커리 모커리가 뵈파?

108003 #2 안커리 밧커리 모커리엔 현 건 집 지성 들어오는데ㄴ라 모커리엔 허

주.

108003 @ 들어오는데를 모커리 그른 삼간칩이엿수과?

108003 #2 어 우리 삼간칩이라낫주게.

108003 @ 안커리 밧커리 두군데 이시민 삼간칩인가 주춧돌 기둥 보 도리 서까래?

108003 #2 그런 거 다 이서사 집을 지서 지주게. 그 전엔 초가집 짓는 거 보민 도르레 영 세와 낱 이디 영 지둥 세우고 주춧돌.

108003 @ 집 짓는 거 나중에 물어 봐야겟다예. 도세기 돛통지 돼지우리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도세기 통시, 벤소?

108003 #2 통지.

108003 @ 헛간은 헛간이렌 헛수과? 외양간 쉼왕 들왕?

108003 #2 응, 쉼왕.

108007 @ 계민 요쪽이 고팡이곡 여기가 보통 안방이파?

108007 #1 엇다게. 고팡이 안방이렌. 요디 안빵. 이젠 고팡이ㄴ라 안방이엔. 해 낫져 요건 큰 구들.

108007 @ 큰 구들 죽은 구들.

108007 #1 이젠 그 고팡이 안빵 부엌은 저 안이 저펜이곡, 이건 저 옛날부터 스칸집이여. 옛날부터 정지 저쪽에 싯고 허난이, 스칸 구들 두 개허곡, 마루 정지흐민 스칸이렌 해낫져. 본디 본디 흐뎡 수량이 크게 지어 진 집.

108009 @ 그걸 장만행 고팡에 놔 어느 쪽이 고팡이엿수과?

108009 #1 요레 요영 셔난디, 이제 방 맨들아 부러져 게.

108017 @ 위치가 잘도 좋아 어디 무슨 진짜 삼싱할머니 집 딱 동산에예.

108017 #1 동산이고 해 비추고이.

108017 @ 너무 좋은거라 딱 처음에 들어 올 때 나무도 너무 좋고예? 얼마나 좋으파?

108017 #1 브름 불민 브름 잘 들어오곡, 이녁집이라산디 잘도 좋나게.

108017 @ 나무덜 베불더라고예? 운치를 더 해주곡 그늘도 뉘어주곡?

108017 #1 옛날은 이 이디 문딱 다 낭이랏낫져. 이디가 낭에 들어강 왕 다 멩글 앓주. 계난 원낭아래 올레마다 폭낭 싱겨낫져. 이거 살단 빡이곡 잘도 좋아 옛날은 나가 살명 다 만들 저 아래 죽은 아방네 올레마다 폭낭셔라 싱 올레마다 폭낭 셔낫져. 우리 이거 하나 싯져 발사 잘 들어가산디 이건 안 죽언게.

### 초가 지붕이기

108028 @ 초가 지붕 일 때 새하고 각단 각단은 찌른 거?

108028 #2 줄 메는 거.

108028 @ 줄 메는 거는 각단 새는 지붕에 더끄는 거?

108028 #2 더끄는 거.



108028 @ 집줄을 만들기에 대해서 진줄 짚른 줄?

108028 #2 짚른 것도 있고 진 것도 있고.

108028 @ 집줄 놀 때는 호랭이가 필요하고 뒷치기렌도 험니까?

108028 #2 뒷치기 이서 딱로 영 벨도로 아장은에.

108028 @ 아아 뒷치도 있고 호랭이도 있고예?

108028 #2 으 뒷치기. 저 거 두사람이 영 줄 두 개 행왕 뒷치기로 이제 영 감아 지게시리 멘들주게.

108028 @ 청고테 집줄메기 집줄의 용도를 말해 주십시오. 지붕을 이렇게 더끄 젠 허민 집줄이 필요한것파?

108028 #2 으 다 불려나지 않게 멘드는 건 이제 줄 들앙 다 메주기?

108028 @ 집 짓은 연장 대패 먹통 먹줄 이 초가집 짓는 분 혹시 살아계신 분 안계시지예? 초가집 지을 때 대패가 어떻게 먹통 먹줄이 어떻게?

108028 #2 없어. 다 돌아간.

## 9. 신앙

109006 @ 월령 사람덜이 댕겼던 판포본향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9006 #4 판포당은 흐뎡 추접허여. 그 옛날에 그냥 당만 해여넝에 그디도 잘해 놔시민 막 좋은디. 야 우리도 그 판포당에 가진다. 가진다마는 이제 나 하고 이제 나가든 본향할망한티 본향할망도 절 받젠허든 어수허곡. 우리도 이제 본향할망한티 절 헐 수가 어수허곡. 이제 나 하가가든 본향도 다 철변허느네 철수허느네. 경허난 본향행 가렌허든 이녁가난 그릇덜 밥 마지 정 그딘 도래기 먹나 이 판포당은 게든 래기허영 강으네 첫갈 공양허연 올령 물색허곡. 물색허연 간 사람 판포사람덜은 물색 안헌다. 우리가 본대 그 물색을 허영이 저 육지 섬에도 살 때 저 요왕기도 가든 물색 해영 올려 불쏘시로 올려. 경허난 가든 돈 천원 들리곡 허영 경 해영이네 올령 그자 오늘ㄱ장은 건강허곡 경행으네 햇주마는 이제사 가지느냐 나가 하세. 하르 방 올리 구십, 나 팔십 아니가? 게난 경 가지느냐? 올허나 강 오든 나 눈 생전 산 때 본향은이 즈식덜에 던데허지 말렌 이녁 살아 실적에 강 본향할망한티 강 할마니 영영행허곡 만대즈손덜 천대즈손덜 나가 살아실적에 봄으로써 허시난 하다 나 죽영 저성땅에 가도 하다 이 즈손덜에 거시게 허지 맙서. 건 이젠 아기덜 신식이 뉘난, 이 본향이 모시영영헤냐 할망한티 절허레 올 수가 싯수가? 영행 “젊은 소녀로 양 할마님 하직헛서” 경 해 텡 온다. 으 몬딱 그 즈곳더레 강 요영 뒤터레 강 곱게 옆 어텡, 경허여. 바구리나 차롱이나 어정댕겨난 것도 그레강으네 경허는 거. 경허영 느네 젊은 아으덜 잘 들어 경 해사된다. 그루후제 본이나 당이나 댕겨나든 깨끗이 못허게시리.

109006 @ 그난 정월메칠날 그 본향 좇아갑니까? 판포? 메칠 날 가 일월? 당 좇

아갑니까?

109006 #4 정월 초하룻날 판포당 간다. 케기 먹은 당, 이 분향도 경한다. 멧질 뎨 문딱 집이 벌여똥도 가는 사름, 멧질 다 지내영 가는 사름, 경한다. 영허난 할망 해나건 그자 멧질 전이 허영 강 오킨 강 오곡, 또 멧질떡영 다 과세로 가는 거야 이건. 과세 우리 인간 끝으민 과세 “할머니 안녕했수과? 하르버지 안녕했수과?” 영 허는 시작허는 법으로 과세법. 경허민 막 재수 좋고 경한다. 이젠이 심방할망덜 드 랑 갈 사름이 어서. 다 저싱 가부난 이녀냥으로 강 그자 허영 메허난 보시에 이제 콩나물, 다 해여난 접시랑 접시 메해영 가느냐? 밥 사발에 보싯메? 으 거른 보싯메 거른 이제 보시도 후제 나 하른 이녀 뎡기는 날7정 뎡기당 나 하민 그때랑 이녀뎡 기는 날까지 할망즈꿋디 강 혈려사 하르방 즈꿋디 강 허른 안똥여. 으 경 하직해영 소지종이에 행 강 영해영 그자 슬곡, 물색 흐김씩 거 식개 영 몰아진 거 있잖아? 이 포목집 거시긴가 그 거 어정강으네 그자 모는 종이에 몰양 이름 쓰고 그냥 우리 나 하부난“죄책행 하직허레 왔수다” 경행 절허른 막 재수좋고 펜안헌다.

## 11. 놀이

### 웃놀이

111053 @ 웃가락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53 @공기놀이 안헤봤수과?

111053 #2 여자덜 허는 거 봐.

111053 @ 웃놀이 종류는 어떤 것이 잇습니까? 종지와 웃판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111053 #2 아, 저 녁뎡베기라고 허는 디.

111053 @ 녁뎡베기 얘기때도 헛엇수과? 나중에 놀음으로 헌 거 아니?

111053 #2 바로 굿참은 오락으로도 허는 디, 나중에 똥가난 다 놀음 판게.

111053 @ 어렸을 때 녁뎡베기 헤낫수과?

111053 #2 헤낫지 얘기 때.

111053 @ 게민 어떻 만듭니까? 무슨 나무로?

111053 #2 아무나무라도 만드는 디 나무로 요만씩 행으네 그걸 방들락허게행으네 반뜩이 갈라가지고 걸로 녁개 멘들거든. 갈라진 거 두 개 방들락헌 거 두 개만 허른 녁개 똥거든. 그거 갈랑 멘들양 종지에 그거 담아가지고 웃을 울주기.

111053 @ 많이 헤낫수과?

111053 #2 많이 헤봐서.

111054 @ 게민 어떻 만듭니까? 무슨 나무로?

111054 #2 아무나무라도 만드는 디, 나무로 요만씩 행으네. 그걸 방들락허게행으네 반뜩이 갈라가지고 걸로 녁개 멘들거든. 갈라진 거 두 개 방들락헌 거 두 개

만 허든 늑개 돼거든. 그거 갈랑 멘들양 종지에 그거 담아가지고 옷을 읍주기.

111054 @ 많이 해놔수과?

111054 #2 많이 해봐서.

### 팽이치기

111059 @ 팽이?

111059 #2 팽이도 해보고 저 거 꽤로 치명 거.

111059 @ 꽤로 치명 어떻 만들어마씨?

111059 #2 것도 나무로 각양.

111059 @ 해놔수과 직접?

111059 #2 응. 어릴 때 장난이엔. 현 건 잘해놔주게.

111059 @ 응. 게든 아무 때나 험니까? 겨울에 험니까?

111059 #2 팽이 겨울에게.

111062 @ 팽이를 잘 들게 허기위해선 어떤 방법이 잇습니까?

111062 #2 거, 치기를 잘 쳐야돼주. 줄로 착착하게.

111063 @ 팽이?

111063 #2 팽이도 해보고 저 거 꽤로 치명 거.

111063 @ 꽤로 치명 어떻 만들어마씨?

111063 #2 것도 나무로 각양.

111063 @ 해놔수과 직접?

111063 #2 응 어릴 때 장난이엔 현 건 잘해놔주게.

111063 @ 응. 게든 아무 때나 험니까? 겨울에 험니까?

111063 #2 팽이 겨울에게.

111063 @ 꽤는 먼 나무로?

111063 #2 아무나무라도 헤어.

111063 @ 꽤가 뭐파?

111063 #2 나무로. 영 이마니현 걸로 행으네 이 쾄땡이 뭐 저 무신 줄 헌벽 줄 이 좋긴 좋아 줄로 행으네 치주기 착착.

111063 @ 줄로 치고 팽이 싸움이렌도 험니까?

111063 #2 팽이싸움 허주게.

111063 @ 양창보 어른네영도 많이 헛갯다예?

111063 #2 응.

111063 @ 그 집도 그테로 그 집이엇수과? 거기도?

111063 #2 거긴 그집이엇주기

111063 @ 무슨 나무로 허든 뭐든 그런 건 관계엇고?

111063 #2 관계엇고 줄이다예.

111063 @ 팽이 가운데 무신 거 췌 박음니까 뭐?

111063 #2 쉼 박는 사람도 있고, 그냥 냅이 쉼 냅으로 멍근 건 그냥 헤어치길 잘 쳐야 그놈이 것이 잘 돌아.

### 빨기치기

111072 @ 뽕이치기 해봤던헛지예?

111072 #2 응.

111072 @ 뽕이 뽕양 이기민 지가 갖고?

111072 #2 응.

111072 @ 어느 밧디 강으네 아이들끼리 돌아뎅기뎅 뽕이 빠 먹는덴 헛니까?

111072 #2 뽕이 빠 먹는.

111073 @ 승부는 어떻게 가릅니까?

## 12. 통과의례

### 혼례

112013 @ 막펜지 뎅지 알아마씨?

112013 #2 막펜지 장가갈 때 막펜지가 이서 결혼식헛 때

### 상례

112024 @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어뎅 확인헛니까?

112024 #1 어뎅혀 그 사람 죽으민 다 죽은 디. 강 보곡덜 허는 따른 알고 죽으민 제사허고 죽으민.

112025 @ 집 떠난 그 복 부를 때 지봉우에서 이렇게 누구 돌아가섯덴 복 부릅 니께?

112025 #1 전인 경 헤낫져마는 이젠 경 안헌다.

112025 @ 그런 것도 봐낫수과?

112025 #1 응. 전이 경 허는 건 봐낫져.

112025 @ 누가 거기 올라강 뎅 가정 올라갑니까 ?

112025 #1 옛날 적삼이라도 가정강 허여낫져마는 이젠 경 안헌다. 옛날 경 헤낫져 우이꺼 들렁 헤낫져게.

112025 @ 돌아가시면 복부르기는 어떻게 헛니까? 복부르기 돌아가성 지봉에서 복부르는 거?

112025 #2 복부르는 거 이제도 허여.

112025 @ 어뎅헛니까 건? 무사 헛니까?

112025 #2 아 저 죽언 거세기 뎅민 그 거세기 이젠 집이 떠난덴 허는 게 잇거든.

- 112025 @ 집 떠나난 누가 걸 험니까?
- 112025 #2 아무라도 헤어.
- 112025 @ 큰아들 아니른 어른?
- 112025 #2 문중의 어른이라도.
- 112025 @ 옷 가정 올라간?
- 112025 #2 옷 하나 가정 올라간 혼이라고 헤영 불르거든.
- 112025 @ 혼 불령 잘 가렌?
- 112025 #2 죽엇텐 험거 알리는 거주. 잘 가렌.
- 112026 @ 장지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 112026 #1 거 옛날엔 정시엔 험다게. 거 좇아주는 사람이 아무나 몰랑이 묻을띠 이젠 저 뒤생근느니 공동묘지로 강 즈근즈근 묻나마는 전이덜은 정시불령 좋은 땅 에 봉간 묻어났져 정시 거 좇아주는 사람이 정시.
- 112026 @ 지금은 월령에 엇수과?
- 112026 #1 이젠 경 안 허영이, 그냥이 저 공동묘지 행 즈근즈근 묻어빈다게.
- 112027 관(棺)과 횡대(橫帶)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 112028 수의와 상복은 어떻게 마련합니까?(남자/여자)
- 112028 #1 수의 으 사당덜 집이서 멘들양덜 입져진다게.
- 112028 @ 옛날에는?
- 112028 #1 으게, 옛날 사당 멘들양 집이서 브든 방상덜 애기덜.
- 112029 상장(喪杖)과 짚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12030 두건과 복치마는 어떻게 마련하고, 누구에게 줍니까?
- 112030 #1 복친은 브딘 일가게. 복친은 그디 방상덜게 일가방상ㄴ라 복친이엔 험다.
- 112032 @ 성복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12032 #1 성복젠 이제 죽은 사람이 꼭 성복젠 지내주고, 성복젠 죽어근에 삼일 만이 저 지내는 것ㄴ라 성복제렌 험고.
- 112033 @ 일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12033 #1 일포젠 딸이 일포제 허는거라. 딸이 아이고 일포젠 “딸 낫구나 ” 험다 옛날 할망덜.
- 112034 @ 부조와 조문은 어떻게 합니까?(떡/돈)
- 112034 #1 그디 어멍덜 섭섭허난게. 영 큰 일칩이 들어오멍.
- 112034 @ 떡으로 험니까?돈으로 험니까?
- 112034 #1 것사 그 사람 므음대로 우린 전이 돈 어시난 쓸도 으정 가낫져게.
- 112034 @ 전인예 보리쌀 근쌀?
- 112034 #1 먹는거게 그자 보리쌀도 으정가나고 어신 맨 근쌀도 으정가나곡 이젠 그런 거 안 가정강 돈으로 으정땡긴다 부준 이제라도 험다
- 112034 @ 이젠 돈으로예 떡으론 안하고?

112034 #1 떡도 해나고 보든 일가엔

112034 @ 떡은 무슨 떡?

112034 #1 그냥 그자 그때 아무 떡이라도이 영 저 허여 난디 이제 떡 안헌다. 저 본주에서만 허민 부주로 돈으로 행가 이제도 그냥은 안가.

112035 @ 토신제에 말씀해 주십시오.

112035 #1 토신에 이제 저 뭐 집 짓젠허민 토신제라고 그걸 뭐센 허든 웰 철이 고. 그 영 문전을 춤 그 토신에 그 인사허는거엔 헌다. 이디왕 집 지시쿠다 허는거엔 헌다 토신제가.

112036 @ 상여꾼은 어떻게 부릅니까?

112036 #1 아 그것ㄴ라 뭐센 헌다마는. 설베메영이 것고라 뭐센 헌다마는. 잇어 불어졌져. 막 소리덜허멍 들렁 메영 나가나신디. 이젠 차로 확 시경 간다마는. 그뎨 그거 메영 설베 메영이 막 소리덜 허멍 들렁 가느네게.

112036 @ 삼춘도 설베 그추룩 메영 상여소리허멍 가본 적 잇수과?

112036 #1 그거 헐 때덜은이 남자덜 해낫저게.

112036 @ 여자덜도 설베 행 따라가고?

112036 #1 으게 경흐난, 으게 따라가곡게. 소리허멍.

112036 @ 소리 잘하는 사람 이서낫수과? 월렁에도 이서낫수과?

112036 #1 으게 따라가고 허는 사람이 소리허는 사람이 설베메영 전이 옛날게.

112036 @ 그 사람 이름은 모르쿠과?

112036 #1 몰르켜 게난 이젠 경 안헌다. 차에 시경 확 가부러. 옛날 그것덜 메영그네이 헤여낫져. 설베 메고 설베 그 앞이 영헤영 이젠 민영으로 허영 허는 거 설베 소리덜 허멍 이젠 경 안허여. 차로 시경 뜯주 거 험이랑 마랑.

112036 @ 막 산간까지 걸어가그네?

112036 #1 묻는 장소까지 메영가멍 소리덜 허멍 옛날 이젠 차로 시경 뜯주 그 런 거 허든 무싱거.

112038 @ 봉분은 어떻게 만듭니까?

112038 #1 봉분은 산 묻으는 거고, 산 묻으민 봉분이엔 흔다게. 죽은 사람 묻은 거.

112040 @ 장지에서 상여꾼에게 음식 대접은 어떻게 합니까? 장지에서.

112040 #1 어떻허여. 그자 가민이 그디 강 아자둬서이 이제들은 뭐 그디서 그걸 먹고허질 안허주만은 옛날은 꼭 허영 강으네 음식 맥여낫져. 묻는 디 영장밧디 강.

112040 @ 뭐 맥여신고예?

112040 #1 떡도 해당주곡 고적이라고.

112040 @ 고적?

112040 #1 고적이엔 헌다. 그 들래떡이 들래떡이라고. 옛날은 똑 이만씩 크게이 좁쌀 똑 이 들래떡 이만씩 해낫져. 들래떡이라고 둥글락허게 멘들아근에 태와낫저 게.

112040 @ 좁쌀로예?

112040 #1 으게, 좁쌀로 허당 또 모멸졸도 허어나고덜이. 허지거리운 걸로 이젠 그런거 허느냐게. 이제사게 다 물어뵈 되그네 그자 밥덜도 먹고.

112040 @ 아 좁쌀로가 많이 허고 곤쌀론 안허고.

112040 #1 곤쌀론 어려왕 옛날에 어떻 허는니?

112040 @ 아 좁쌀로도 했구나. 고적이렌 허고예?

112040 #1 고적이엔 헨다게, 고적.

112040 @ 게른 이견 상에 올려 남 다음 사름 태웁니까?

112040 #1 상에 다 올리지 안헨다게. 상에 올릴거만 흐뵈 시른 올려근에.

112040 @ 그 다음?

112040 @ 다 태왕 먹고예?

112040 #1 다 태왕 간 사람덜.

112040 @ 돼지고기나 옥돔이나 이런 것도 가져갑니까?

112040 #1 도새기 잡양 으정가지.

112040 @ 도새기도예 돌아가시면예?

112040 #1 옥돔은 또 이제 그냥 영 올 릴 꺼 지속이라고이, 지속 바당에 꺼 허 영 올 리는 건 지속. 그 것같은 또 이제 돛궈기 허영 영 궈궈 허영 올리고.

112040 @ 뱃개 올리는 건 엇고예?

112040 #1 그냥 그디 영 헤근에 그거영 포적이영 적같이영 궈치 영 허멍 올려 준다게이 지속이라고. 이제 바궈궈기 구웁 우트레 놓고 경헨 올리주게.

112041 @ 장사 때 특별히 수고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112041 #1 궈만사라. 수고한 사람궈라 뵈셧 곶아라마는 잊어불어궈궈. 그자 그 거 태와준다게이 뵈 태와주고 그자 특별대우 그자 먹는 거. 돈은 안주고 그자 상뵈 궈이라고 거 묻는 사람궈라 상뵈궈.

112042 @ 상식(上食)은 어떻게 합니까?

112042 #1 거 무신 말고 상식 아 저 상궈덜게. 상궈덜 상궈웁 입고 헿으네 절도 허궈 상 낭 상식 절허여. 상궈덜 높은 안허궈궈, 애기덜 상궈웁 입영.

112043 @ 삭망궈(朔望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43 #1 무싱궈 삭망이엔 헨다 상궈놓는 궈궈. 그것이 그말이여.

112043 @ 삭궈렌도 허지예?

112043 #1 삭궈 저 보름에 흐 번. 삭궈 허지 안허느냐궈 그것궈라 삭궈.

112043 @ 그른 일년내내 허는 거예?

112043 #1 궈난. 그것이 일년은 헤사지이. 보름에 흐 번 허멍이 삭궈라고.

112043 @ 삭망궈는 그냥 무뵈에서 허는 궈마궈?

112043 #1 무뵈에서 허나 삭망은 들어보지 안헿궈마는 그것이 삭궈 그것이 그 말일궈궈궈.

112044 @ 소·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44 #1 아 소상 대상 으게 거 삼년허느네. 옛날은이 소상 일년 현거고 일년 돌아오른 그날 소상 또 일년 돌아오른 또 그 날 허는 거. 대상 또시 그 다음에 담재까지 허느네. 날 빵 석돌시민.

112044 @ 일년이 소상이파 대상이 아니꼬?

112044 #1 응. 년 돌아완 그 날허는 거. 소상 또 일년 돌아완 그 날허는 거. 대상이 또 담재까지 현다 건 날 빵 석돌시민 담제. 게민 그다음엔 제사 밤이 일년 돌아오른 제사라고.

112044 @ 삼년채 허는 건 담제파?

112044 #1 삼년이엔 현다. 삼년 천도친다 허는디 세 번채허는 건 담제 게민 3년이 돼주기. 죽영이 죽영 묻으면 글로부터 세영 일년 시민 소상 또 일년 시민 이제 대상 이 또 석돌시민 담제라고 건 담젠 막 담아간다고 마지막 허는 거여. 담젠 석돌시민 담재해났져.

112045 @ 토롱(土壟)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43 #1 토롱은 묻엇당 날 나기전이 그냥 놔두지 못허난 토롱은 잠시 아멍이나 잠시 묻엇당 묻지전이 토롱 어드레 묻엇당 집이 오래 놔두느니게이. 토롱 헛다 근에 이제 날보고 산터보고 허여근에 무찌 전이 임시 영 허영 놔두는 건 토롱.

112043 @ 임시 어디에 보통 헵니까?

112043 #1 묻는 건 날 터 빵 잘 존디 묻고 토롱은 아무디나 그냥 허엿당 그레 물을거난에, 아무디나 현다 그건 오래 안허난 토롱은.

112046 이묘(移墓)는 어떻게 헵니까?

112046 #1 아 다른 디로 웅겨가는 거 그거 존 터 봉강 웅기젠 허른이 이장 것 그라 이장이엔 현다. 이장허는 거 그디 말앙 뜯더레 강 물을 거.

112046 @ 어떻게 헵니까?

112046 #1 어떻허여게. 그거 이제 묻영 놔두민 술은 착 쳐져이 뼈만 남지이, 이 사람은 묻으면 술은 썩어비는거주게. 경허민 것도 날 빵으네 날 빵 이장이엔 현다. 거 뜯더레 영 허는 걸.

112046 @ 겨믄 다 사람덜 친척덜 가고?

112046 #1 게, 그디 그거 물을 때 또 상 봉분허고 이장이라고이 그건.

112046 @ 게믄 그 물어난 땅은 어떻?

112046 #1 내불주게. 그 물어난 땅은 이제 그디 나쁘민 좋은 터 봉강으네 야 산 잘웨민 즈순 잘웁텐허멍 막 터 좋은 디 봉강으네 정시 돌아당 빵 허고 헤났져. 이젠 그냥 그자 공동묘지 행으네 즈근즈근즈근 거 묻는 사람도 싯고 불도 케와비는 사람도 싯곡헤도 옛날엔 즈순 조상만 두영 잘 묻으면 잘 돼카부텐 오죽 멩심헤사게.

112047 @ 복은 언제 벗습니까?

112047 #1 삼년 일년 허영 소상헤난 이년 시민 대상허연 담젯날 복 벗는거여.

112048 @ 상례와 관련하여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12048 #1 보지 말렌. 나뽕으네 이 그 사람 보민 이제 본 사람도 나쁘고. “멧술 보지 말라, 멧술 보지 말라”헌다덜 그 영 아는 사람 헤사 게 그거 흐끔 아는 사람 봐사 거 “멧술 보지 말라 멧술 보지 말라”헌다게. 멧술 보민 거 나쁜데 그 사람마다 보지 아니 아니 본덴은 안허고“멧술 난 사람 보지말라 보지말라”는 헤낫져게 이젠 무신 그거보고 저거보고 험샤?

## 제례

112049 #1 제사 준비는 어떻허여게. 밤이 일년 돌아오민 이 그자 밥허고 적깔허고 지속허고.

112049 @ 아침부터?

112049 #1 밤이게 12시에 허는 거 아니가? 제스.

112049 @ 그난 만드는 건 아침부터 해야될꺼 아니?

112049 #1 것사게 흐루헤사주게 .

112049 @ 메뉴리가 다 해야돼고?

112049 #1 게.

112049 @ 적깔은?

112049 #1 적깔하고 떡허고.

112049 @ 돛케기 적깔허고?

112049 #1 돛케기허곡 지속허곡이, 떡허곡 저 이제 우리 옛날 멘들젠허민 좁은 떡허곡, 영 니기반 듯 인절미 곤떡허고 식가진 헤사 인절미 니기반듯헌 거 영 또 좁은떡은 저 영 좁는 거. 쉬 담양 좁는 거 어시냐게 안헤봐사? 식가진 헤사 인절미 니기반듯헌 거 영.

112049 @ 거 뭇로 만듭니까?

112049 #1 옛날엔 모멸덜 싯곡허난 모멸로덜 헤영으네 곶앙덜허고 헤낫져. 이젠 확 사단 허주 누게 허느니.

112049 @ 지름떡 그런 건 안허고예?

112049 #1 아이구 떡 흐끔 사당으네 허주기 집어서 어떻 허느니게.

112049 @ 옛날은 쉬는 무싱거 풀?

112049 #1 쉰 풀게 녹뒤도 허곡 풀도 허곡 숲양 소굽에 담양 톱 좁양 좁은떡이 라고 꼭 해낫져. 전이 좁은떡은 동글락허게 꿩영 이 요레 이제 요만이 꿩영 그레 쉬 담양 톱톱 좁으민 영 좁으민 영 웬다게. 또 영 니기반 듯 헌 거 놓고 좁은떡 놓고 곤떡놓고 반 하나에 사람덜 테우고.

112049 @ 침떡은 안허곡?

112049 #1 침떡은 꿩어놓곡, 요만씩 소랑소랑 침떡은 꼭 허어사.

112049 @ 무슨 침떡 조침떡?

112049 ㄴ, 조침떡 해낫져게. 시리에 청 꿩영.

112049 @ 모멸도? 침떡 허는구나예?

112049 #1 게, 건 지일 좋은 거주기계.

112050 @ 채물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채물로예 옥돔 어시민 조기 우럭?

112050 #1 으게, 그것도 다 그냥 들어가느네. 생선 조기나 그런 것덜 바다괴기 꼭 해영은에.

112051 @ 콩나물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112051 #1 콩주름 낳으네 주름나민 이젠 거 해영 올리고.

112051 @ 보통날은 안 먹당 제삿날만 콩주름 행?

112051 #1 멍심허영 해사. 고사리 허영 고사린 꼭 들어간다.

112051 @ 메칠 정도 걸려마씨 콩주름 허젠허민?

112051 모르켜 메칠사 허는지, 거 어떻허느니. 물 자꾸 쥐주민 나민 이 얼른 허젠허민 곳 나는 것도 헐 수 잇고 게민 요만씩 질어도 먹어진다.

112051 @ 겨울에는 어려우켜예?

112051 #1 경해도 딱시게 해영 저 딱시게이 솟우트레 딱뜻헌 디레 지시에 시리에 낳 밥 해난 옆이 영 아찌도 너미 뜨겨우민 익어불고 뜨겁지 안허게 미지근허게 해영 꼭 그 주름 낳으네 그거 이젠 막 얼마든지 흐뎡 허지기리우민 확 강 사오고 허주마는 그때는.

112052 @ 그믐 소고기는 어렵지예, 적갈?

112052 #1 소고기가 어디이선게.

112052 @ 돛래기 하나만 허연마씨?

112052 #1 으게.

112052 @ 상어래기도 헛지예?

112052 #1 그것도 그자 적갈로 들어간다. 적갈로이상어.

112052 @ 보통 한가지 돛래긴 꼭 헛수과?

112052 #1 돛래긴 꼭 적갈은 해놔사.

112052 @ 돛래긴 꼭 헤여?

112052 #1 적갈하고 이제 지숙이라고 바당래기 행으네, 배 낸 거 또 췌 건 이제 적갈이라고 꼭 헤 놓고.

112052 @ 적갈은 흔가지만 헤도 돼는구나예?

112052 #1 아이구 정성허는 사람은 세가지도 흔 가지만 헤도 적갈은 헤 놔사게.

112052 @ 도세기고기는 옛날엔 어떻 사당 헤신고예?

112052 #1 잡는 사람이 하낫져 집이 질랑으네.

112052 @ 게도 돛추럼 식갯날에 도세기고기 없을 수도 잇수께 한림까지 가야 돼는가 그러면?

112052 #1 게 어딜 강 사도 적갈은 헤 놔사게. 이제 닭지 안허영 잘덜 잡고 헤 낫져게. 이젠 잘 잡지 안허난.

112052 @ 돛추럼 헐 때 그런 거 안헤봤지예?

112052 #2 안헤판.

112052 @ 강 ㄴ치 있긴 이섯지예?

112052 #2 응. 돛처럼 행으네.

112052 @ 그슬리고 바당에서 지붕에서 목 행 줄 행 죽이고 바당에 데령강?

112052 #2 돌아맹 죽여가지고.

112052 @ 돌아맹예? 나도 어렸을 때 봐나신디. 겐 간이여 무싱겨여 뜨뜻할때 먹으렌 또.

112052 #2 간 곧 잡양 온 거 그냥 먹주게.

112052 @ 어머니가 몸 약허난. 어릴때부터 먹어집데가?

112052 #2 응. 잘 먹었져 간 곧은 거.

112053 @ 적은 몇 종류 준비하며, 누가 합니까?

112053 #1 적은 집이서게 건 아무 포적이라고 꼭 적은 지저놔사이 아무걸 해도.

112053 @ 포적은 어떻 거?

112053 #1 포적이 요만씩 행으네 췌는 거. 이 것갈 알려레 낡 포적 야 포적이라고 요만씩 행 췌다게, 췌영이.

112053 @ 것도 고기마씨?

112053 #1 엇다게. 고기 알려레 논다 거 포적이라고.

112053 @ 전? 전.

112053 #1 전이엔 허느냐?

112053 @ 동태전 이런 건가 아니면 뭐?

112053 #1 아니. 동태가 아니고 그냥 이제 무신 그저 무싱 걸로 허느니게. 그거 허젠 허든 한뎀 모멸로도 곱앙허고 이 포적이라고 그거 아래 놓곡 췌다. 췌영 그 우트레 적갈 놓고.

112053 @ 둬비?

112053 #1 으게, 둬비도 췌다. 또 그 우트레 이제 무싱겨 바닷궂기 놓고 경헌다 게.

112053 @ 적은 순서대로 곱으민?

112053 #1 적은 그냥 적 놓고 그 우에 저 이 적갈 놓고 적 요만씩 끈영 야야 헤영 이제 적갈 영 췌영으네 놔. 낡 것덜에 돛궂기 낡 포적이라고 포적이 그거여게 적갈은 지일 우에 놓고 적갈 아래 놓는 것이 포적.

112053 @ 그믐 두부가 포적에 들어가는거지예?

112053 #1 두부가 포적이여 것이.

112054 @ 떡은 몇 종류를 준비합니까?

112054 #1 떡놓고 떡은 쉬담양 좁은떡 놓고, 너기반듯헌 떡 놓고, 그 우트레 곤떡이라고 동글락헌 거 근솔로 헌 거 헤영 놓고.

112054 @ 곤떡이 제일 우에예?

112054 #1 게.

112054 @ 그믐 적 놓는 순서 ㄴ르차줍서.

112054 #1 게 순서가 이 지일 먼저 영 너기반득이 꿇은 거 그 우트렌 좁은떡 영 쉬담은 거 이 그 우트레 곤떡.

112054 @ 다음 좁은떡이 두 번째?

112054 #1 곤떡이 세 번째 아래 침떡 흐랑허게시리 이마니 꿇으네 지일 아래 놓는 거 침떡이라고.

112054 @ 너기반듯헌 게 침떡?

112054 #1 침떡. 너기반듯헌 건 저 인절미. 좁은떡은 영 쉬 담은 건 이 그건 이 제 저좁은떡이엔 현다, ㄴ치 좋게.

112055 @ 과일은 몇 종류를 어떻 걸 준비합니까?

112055 #1 서너 가지 올린다마는, 그자 과일은이 하나 시민 하나라도 올리고 우이 흐깁씩 툭툭 꿇으멍 그냥 놔볼민. 먹기 좋게사 올림신디 과일 올릴땐 이 과일 우이 흐깁씩 툭툭 꿇으 올려준다 과일도 시가진 올려줘사 꼭지로 쫄라그네.

112055 @ 사과 배 미강도 올립니까?

112055 #1 것도 올린다 것도. 과일로 들어간다가.

112055 @ 참외 수박도 다 올릴 수 잇는거지예?

112055 #1 것도 다 올릴 수 이시네, 다.

112056 @ 채소는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112056 #1 콩늑물 꼭 들어가고 이 콩늑물 콩주름 논 거 집이서 낱 덜 헤낫저게 물 노멍.

112056 @ 시금치?

112056 #1 시금치 그런 것덜 시 가지 낱 허는디 이 이젠 사당 덜 얼마라도.

112056 @ 옛날엔?

112056 #1 게메. 옛날 시금치 어시민 콩나물 키왕 고사리허고 그건 그자 집이서 헐 수 이시난.

112057 @ 진설은 누가 합니까?

112057 #1 아 그거 집이서 아무라도 그자 허느네. 지관이라고 절은 이 남자덜 허곡게.

112057 @ 그믐 출려 놓는 건 여자덜도 험니까?

112057 #1 그냥 남자덜이 그디서 다 지관이라고 이 술도 올려주곡 켜당덜 신디 레도 비와주곡.

112057 @ 제일 처음 6시쯤에 출리는 건 여자들이 허곡예?

112057 #1 곧 어두와가민 올린다게.

112057 @ 남자도 왕으네예?

112057 #1 남자시민 남자가 허주마는. 남자 어신 집은 여자도 헤사주 어떻허느 니? 남자가 시민 남자가 허주만은 거 잘 올리는 거.

112058 @ '메', '갱'은 누가 뜯니까?

112058 #1 집이서 아무라도 현다 집이 신 사름.

- 112058 @ 뜨는 거 어머니 메뉴리?
- 112058 #1 에 그거 곱갈르지 안행 아무라도 한다. 우선 메뉴리가 임제지. 딸은 이 그디 얻어 먹으레 오는 거고 그 집 일허는 건 메뉴리라.
- 112060 @ 파제(罷祭)는 몇 시에 합니까?(子時/당일제)
- 112060 #1 아 파제 12시에 한다. 계난 12시전이 다 행으네 딱 12시 돼민 파제 헌덴 허주기 제스파제.
- 112060 #1 건 어떠튼지 12시에 허느네. 시간이 딱 싯느네 건 하영튼.
- 112061 @ 문전제(門前祭)는 어떻게 지냅니까?
- 112061 #1 문전제는 집 주인이엔 한다. 문전제부터 모녀 혜낭 제스한다. 문전제가 집 주인이엔 한다. 집 주인이엔 허연 문전제부터 혜 낭 제사한다. 이제도 허느네 게. 딱 상 놓고이 문전 계난 문전제가 그집 주인이엔 허주게.
- 112062 @ 제반은 어떻게 합니까? 잡식 걸명 토다당?
- 112062 #1 저 올레레 웃담더레 경 비운다게 걸영 그냥.
- 112062 @ 올레 어디 비와마씨?
- 112062 #1 저 웃담더레 이제도 한다 다 걷어 냐.
- 112062 @ 옛날에는 초가 지붕우에 거뒹으네 까마귀?
- 112062 #1 올리고 혜낫져. 이젠 지붕우에 안 올려.
- 112062 @ 옛날에는 지붕우에예?
- 112062 #1 지붕우트레도 올려도 낫져. 이젠 지붕우트레 안 올려. 저 웃담더레 이제도 한다.
- 112062 @ 그 까마귀가 먹으레 온덴 안 들어 봤수과?
- 112062 #1 그것사 봉가 먹으레 오주게. 놀아댕기는 거난 봉가 먹는 거난.
- 112062 #1 토다놓는 거 토다당 저레 비우는 거 꼴루꼴루 토다 냐.
- 112062 @ 큰아덜이 허는거지예?
- 112062 #1 큰아덜이 혜져가주기게. 큰아덜 보니까.
- 112063 @ 지제(止祭)는 언제 합니까?(4대 봉사)
- 112063 #1 지제 그거 오래여이. 거쟈 지제 허여불민 다음은 담재라고이 지젠 거쟈 허영 끝나는 거주게 안허는 거.
- 112064 @ 묘제(墓祭)는 어떻게 합니까?(준비→음복)
- 112064 #1 묘제 그냥 무시거꼬 배꼈디강 허는 거 아니가?
- 112065 @ 제사와 관련하여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112065 #1 헐 건 다 허주기게. 거 무싱 거 비리지 못허게허고 어디 피나지 영장 뵈디 못허게 허고 피난거 비린 사람 그레 어지르지 못허게 허고 멍심혜사 허여. 비런덴 싹 모두왕도 허고이 나허단 제사도 스물 멧개나 웬다게 아덜이 시에서 한다.

### 13 민간요법

- 113003 비듬: 비듬 신 사람이 잇고
- 113004 버짐(진버짐, 마른버짐): 균버짐,츄버짐은 크다 물로 씻엉 되느냐 무싱거  
꿈도 브르고
- 113007 기미: 지미 또각또각신 거
- 113009 사마귀: 사마귀라고 꺼멍헌거 나는 거 동글락동글락 다라끼 눈에 등그랑  
이난 거
- 113010 다래끼: 눈 바위에 나는 거
- 113011 눈 충혈: 눈뿔림 약 선 농곡헌다 눈 빨경헌 거
- 113012 치통: 이 알리는 거
- 113013 헛바늘: 셋가시
- 113019 땀띠: 땀띠 딱나민 난다게 뽀족뽀족뽀족 별경헌 거이 일 헤난다음 우리  
도 잘 나났져
- 113020 부스럼: 부시럼 허멀 난 것그라 부시럼이렌 했져
- 113022 종기: 종지라고 크게 등그락허게 종지 겁나 이젠 그런 거 없나
- 113025 두드러기: 두드레기 동글락동글락 헌거
- 113026 땀띠: 땀띠
- 113027 경기(驚氣):정기 아이덜 아무나 안 난다 침 주민 좋나 주물락주물락 월령  
양서장이라고 침 놓는 사람 10년이 뿔고게 옛날 양가고 서장 침놓으민 좋나게
- 113030 감기: 고뿔
- 113031 기침: 지침
- 113032 딸꾹질: 툄국질
- 113033 코피: 피곤허민 나는 거
- 113036 설사: 설새
- 113037 이질: 설새 비슷한 거
- 113039 체했을 때: 걸어진 거 넌 사람 신디 네려줘사
- 113040 베인 데: 그디 헐리 나주게 그차져렌 피 괄괄 나가민 묶어줘사사
- 113041 모기 물린 때: 모기 물리민 그려왕 츄 블라
- 113042 뱀 물린 때: 뱀 물리민 지독허여 독 빼사지 쏘악허민 얼마나 독헌것꼬
- 113044 옷 오른 때: 옷 올르는 낭이 셔
- 113045 멍든 때: 때리민 거멍케
- 113047 허리 빠였을 때: 꿈짜 못헐거여
- 113049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물에 들 때 물 들민 막 훈데기멍 내쳐났져 속헤  
영 막기도 허고 껌도 해나고
- 113050 무좀: 무시무시 발에 그려와

## 제2절 어휘

-

### 1. 인체

####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머리뺨
201002	대가리	대강이, 대구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꼴, 숨통
201005	제비초리	생이플랭이, 총대기
201006	머리털	머리결
201007	머리카락	머리꺼럭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쫄르다
201010	빗[梳]	머리빗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채빗
201013	땡다	따우다, 답다
201014	비녀	빗네
201015	고수머리	곱슬머리
201016	가마[旋毛]	상꼭대기
201017	쌍가마	쌍가매
201018	가르마	앞갈르마
201019	이마	임댕이
201020	넓다[廣]	널르다
201021	이마뼈기	이마뺨
201022	솜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양지
201024	낯[面]	놋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그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숫대
201028	씻다[洗]	씻다
201029	거울	맹경, 색경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뺨
201032	뺨따귀	뺨따귀

201033	때리다[打]	뜨리다
201034	불	불
201035	불따구니	불따구
201036	불거리	불거리
201037	광대뼈	불뼈
201038	보조개	보조개
201039	주름살	주름살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공저
201042	검은자위	검은공저
201043	눈꺼풀	덕개눈
201044	거적눈	거적눈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꺼멍흐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양사이
201049	수침(垂針)	*
201050	거머리	거머리
201051	폐롭다	폐롭다
201052	눈곱	눈꼽제기
201053	눈초리	눈초리
201054	사팔눈	사팔뜨기, 돌아진 눈
201055	눈웃음	눈웃임
201056	코	콧등뎡이
201057	만지다[撫]	문직다
201058	콧마루	콧등뎡이, 콧대
201059	세다[強]	썰다
201060	콧구멍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코딱지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닥끄다
201064	콧수염	콧식염
201065	인중	콧난간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씨다
201068	참말	츄말
201069	거짓말	거짓갈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뉘달하다	답도리 <sup>ㅎ</sup> 다
201072	입술	입바위
201073	헐다[毀]	캐다
201074	입놀림	입놀림
201075	말하다	말근다
201076	입방아	입방정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노다시리다.
201079	침[唾]	춤
201080	삼키다[呑]	숨키다
201081	가래침	가래춤
201082	뱉다[吐]	바끄다
201083	느침	느치름
201084	턱받이	턱바지
201085	혀	세
201086	활다	할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니
201089	앞니	압니
201090	송곳니	송곳니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버드렁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오근니, 오그라진니
201096	옥다[曲]	옥다
201097	돋다[出]	돋다
201098	옥물다	양당물다
201099	턱	턱
201100	턱살	턱술
201101	뿔다[稍峽]	뿔아지다
201102	수염	식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귀차락
201105	귓볼	귀빨리
201106	귓구멍	귓고망

201107	귀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귓밥
201109	귀이개	귀오비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
201112	구레나룻	녹대석염
201113	목	야개기
201114	굽다[顛]	슬찌다
201115	모가지	모개기
201116	먹살	맥살
201117	잡다[執]	줍다
201118	뒤통수	뒷이망
201119	꼭뒤	*
201120	뒷덜미	뒷덜미

#### 상체

201121	어깨	독지
201122	어깨뼈	독지뼈
201123	어깨죽지	우독지
201124	겨드랑이	긷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따지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둑살
201131	팔꿈치	폴
201132	팔목(=손목)	홀목
201133	뼈	팡
201134	뼈다귀	뺨다귀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손
201137	오른손	ㄴ단손
201138	왼손잡이	웬손잡이
201139	손등	손등어리, 손뚜께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꼽

201142	들다[擧]	들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거시러미
201145	할퀴다	굽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201147	엄지손가락	어금손꼬락
201148	검지손가락	안조웨기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꼬락
201150	약손가락	논예기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 손꾸락
201152	손살	*
201153	가슴	가심
201154	뛰다[跳]	뜯다
201155	젓가슴	젓가심
201156	멍치	멍치
201157	멍자리	멍자리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꼭지
201160	젓명울	젓명울
201161	짜다[攢]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따지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똥
201167	옆구리	갈리
201168	갈비뼈	갈비뼈
201169	등	등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매기	등땡이
201173	가렵다[癢]	ㄱ렵다
201174	굽다[抓]	극다
201175	결리다	결리다
201176	등목(=목물)	*
201177	찬물	춘물
201178	등마루	*

201179 등뼈 등짱

**하체**

201180 허리 존등이  
201181 잔허리 ㄱ는 존등이  
201182 가늘다[細] ㄱ늘다  
201183 엉덩이 엉치  
201184 살집 슬집  
201185 볼기 \*  
201186 엉덩이뼈 엉치뼈  
201187 궁둥이 궁뎅이  
201188 궁둥이뼈 궁뎅이뼈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똥고냥  
201191 더럽다[汚] 덜럽다  
201192 가볍다[輕] 가뻑다  
201193 무겁다[重] 무겁다  
201194 살 강알  
201195 가래뿔 \*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정갱이  
201199 넓적다리 넓적다리  
201200 무릎 동무릎  
201201 무릎뼈 동무릎뼈  
201202 뼈다[櫛] ㄱ목끄다  
201203 정강이 정갱이  
201204 정강뼈 정갱이뼈  
201205 종아리 종아리  
201206 장딴지 \*  
201207 오금 오금  
201208 복사뼈 복사귀뼈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걷다  
201211 굵다[凶] 굵다  
201212 헛발질 헛발질  
201213 발목 발모가지

201214	겹질리다	젹질르다
201215	발등	발등뎡이
201216	발바닥	발바닥
201217	발부리	*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ᄃ룹다
201220	간지럼	ᄃ지람
201221	발가락	발ᄃ락

201221-1	엄지발가락	어금발꼬락
201221-2	둘째발가락	두번차발꼬락
201221-3	가운뎃발가락	상발꼬락
201221-4	넷째발가락	늑번차발꼬락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꼬락

201222	발살	*
201223	까치눈	*
201224	티눈	티눈이
201225	고린내	ᄃ랑내
201226	발톱	발콧
201227	발뒤축	발뒤축
201228	쓸개[膽]	썰개
201229	허과	북부기
201230	마음	ᄃ심
201231	곱다[麗]	곱닥ᄃ다
201232	창자	창지
201232-1	큰창자	큰창지
201232-2	작은창자	죽은 창지
201233	목숨	목숨
201234	빼앗다[脫]	빼시다
201235	한숨	ᄃ숨

## 2. 육아

## 발달

202001	서다[孕]	서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쁘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낳다[娩]	낳다
202006	태(胎)	태
202007	탯줄	탯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터울
202011	갓난아이	물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두린애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이
202016	아깁다	아깁다
202017	아이보개	아기엿개
202018	업저지	업저지
201019	품다	쿰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독
202022	오줌버캐	오줌찌꺼레기
202023	오줌싸개	오줌쌌기
202024	누다[便]	누다
202025	나무라다	내무리다
202026	지린내	찌렁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욕
202029	배냇저고리	배냇저고리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
202032	포대기	걸렁귀
202033	보자기	포대기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헤씨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쳐네	*
202038	떠	새
202039	개구멍바지	강알 터진 바지

**재통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즘매즘매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뜨로뜨로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짜짜꿍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
202046	걸음마	섬매섬매
202047	걸리다	걸리다
202048	곤두박질	*
202049	곤두서다	*
202050	가동가동	개동개동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
202054	흥내	승
202055	흥내질하다	승털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쌈창아리
202058	자라다[成長]	자라다
202059	부아	부애
202060	참다[忍]	츄다
202061	심술	심술
202062	밋다[憎]	밋상블르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단번치기
202066	딱지치기	딱지치기
202067	통차기	*
202068	숨바꼭질	굽음작기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손꿉장난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뜨기
202073	풍계물이	*
202074	줄넘기	베뜰락
202075	줄다리기	줄등기기
202076	수수께끼	예술타제낄락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돌싸기, 본전
202079	던지다[投]	던지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뺏기	*
202082	사금파리	*
202083	말놀음질	*
202083-1	생말타기	말타기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
202085	달음박질	달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겨루다
202087	제기차기	쩍기찰락
202088	혜엄치다	혜엄치다
202089	웃놀이	웃놀이
202090	웃가락	*

202090-1	도	한 짝만 젓혀졌을 때	*
202090-2	개	두 짝 젓혀졌을 때	*
202090-3	걸	세 짝이 젓혀졌을 때	*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젓혀졌을 때	*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

202091 동무니 동매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2 막동 \*

202093 보리웃 \*



202094	줄목	*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실랭이
202097	싸우다[鬪]	싸움박질하다
202098	패싸움	싸움박질
202099	모다기령	*
202100	편백하다	펜백하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래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정연
202107	가오리연	개오리연
202108	연달	연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
202108-2	꽂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
202108-3	긱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가오리구녕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
202112	벌이줄	연줄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벌이줄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긱줄
202112-3	꽂숫줄	연의 꽂숫구멍에 꿰어서 꽂숫달에 잡아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줄음에줄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가운뎃줄

202113	얼레	실패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
202116	감다[捲]	*
202117	개미[연놀이]	*
202118	퇴김	*
202119	그네[鞦韆]	*
202120	밀싯개	*
202121	굴렁쇠	*
202122	구르다[轉]	굴르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자전거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

###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엄
202128	선하품	*
202129	기지개	*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정기하다
202132	놀라다[驚]	놀라다
202133	졸음	졸음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랍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푸대, 줌푸대기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치다
202144	트림	트림
202145	딸꾹질	툄구지
202146	채채기	허깅이
202147	개치네췌	허쉬
202148	방귀	방귀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
202151	구린내	똥내
202152	노린내	기시린내
202153	사레들다	스레들다
202154	감기	고뻘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불거리
202157	학질	*
202158	천연두	마마
202159	곰보	곰보
202160	비듬	*
202161	기계총	*
202162	독창	*
202163	두부백선	*
202164	웃	웃
202165	버짐	버짐
202166	마른버짐	군버짐
202167	진버짐	츄버짐
202168	주근깨	주근깨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말축
202171	여드름	여드름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퍼렇 <sup>ㅎ</sup> 다
202174	굳은살	구진슬
202175	부스럼	부시럼, 허물
202176	종기	종기
202177	습종	*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
202180	다대	*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
202183	낫다[癩]	낫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표적
202186	생인손	*

202187	얇다[痛]	얇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띠
202190	소경	봉사
202191	청맹과니	*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애꾸눈이
202194	사팔뜨기	*
202195	다래끼	개좃(우에), 개씹(아래)
202195-1		*
202195-2		*
202196	언칭이	얼챙이
202197	외언칭이	외얼챙이
202198	쌍언칭이	쌍얼챙이
202199	귀떡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마구리
202201	병어리	말모레기
202202	말더듬이	말버벅이
202203	혀짤배기	세짤레기
202204	입비똥이	입토래기
202205	구안괘사	*
202206	가납사니	*
202207	곰배팔이	*
202208	곱사등이	곱세
202209	절뚝발이	절뚝발이
202210	얏은뱅이	얏은뱅이
202211	문둥이	문둥이

###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부지
203002	어머니	어무니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할아부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무니, 할망

203007	남편	남편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부부
203010	싫다[厭]	싫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막녕이, 막둥이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네 번째아덜
203012-9	막내아들	막녕이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친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심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심딸
203018	자식	즈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손
203021	어비딸	이세끼
203022	어비아들	에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이딸
203025	어이아들	이세끼
203026	말이	큰거
203027	막내	막녕이
203028	형	성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언니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단아덜
203034	외딸	단딸
203035	쌍둥이	글루기
203036	다르다[異]	달르다
203037	같다[如]	글다
203038	양자	양재
203038-1		*
203038-2		*
203039	처녀	처녀, 애기씨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사주보다
203044	중신	중신
203045	권당	퀸당
203045-1		*
203045-2		*
203046	얏은잔치	*
203046-1	암창개	암창개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며느리
203049	시아버지	씨아부지
203050	시아머니	씨어머니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멍
203053	외할아버지	웨할아부지
203054	외할머니	웨할무니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아지방
203057	아주머니	아주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늙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쿨롱팔십
203063	병추기	*
203064	거동하다	으뎡ㅎ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녀딸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외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외탁
203071	내척	성펜
203072	외척	외펜
203073	종내기	종내기
203074	시누이	시누이
203075	올케	시누이
203076	큰아버지	큰아버지
203077	큰어머니	큰어머니
203078	작은아버지	죽은아버지
203079	작은어머니	죽은어머니
203080	조카	조캐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할아버지
203087	넋할머니	넋할머니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아방
203092	친어머니	친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심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심어멍
203095	웁딸	*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눔

#### 4. 의복

#####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감
204002	끓다	끈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실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줄어볼다
204007	무명	민영
204008	무명실	민영실
204009	닷새무명	*
204010	옛새무명	*
204011	생목	*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매
204016	솜	소게
204017	풀솜	*
204018	솜틀	*
204019	솜틀집	*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드레기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
204024	번데기	*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닙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산뽕낭
204029	오디	오디
204030	다듬잇돌	다듬잇돌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듬잇방멩이
204032	펴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계꿈
204035	물거품	물계꿈
204036	빨랫돌	빨랫팡
204037	빨랫방망이	마깨
204038	빨랫바구니	빨랫구덕
204039	행구다	행구다
204040	빨랫줄	빨래줄, 서답줄
204041	마르다[乾]	므르다
204042	바지랑대	*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걷다
204045	바래다[褪]	브래다
204046	형끓	헌벽세기
204047	찢다[裂]	찢다
204048	나부랭이	형끓세기

####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랭이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매
204053	치맛자락	치맷즈락
204054	풀치마	깍치매
204055	옷고름	곰
204056	옷깃	옷짓
204057	옷섶	옷섰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므작
204060	동정	동정
204061	소매	소매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포
204066	두루마기	두루마기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쟁이
204069	토시	토시
204070	누더기	누더기
204071	거지	동냥바치
204072	구두쇠	뺏쟁이
204073	잠방이	잠뱅이
204074	허리띠	허리끈
204074-1		
204075	주머니	주멍기
204076	호주머니	계쌈
204077	넣다[入]	들여놓다
204078	버선	브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브선등체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뽀족한 부분	*

204079	길목버선	*
204080	버선발	브선발
204081	대님	다림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홀옷
204084	겹옷	*
204085	숨옷	소게옷
204086	얹다	얹루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잇
204091	홀이불	홀이불
204092	겹이불	*
204093	사이	*
204094	누비이불	누비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대기
204096	보풀	보푸레기

204097	홀청	홀청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옷잇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자부동
204104	앉다[座]	앉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갯잇
204107	베갯머리	*
204108	베갯모	*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밀랑패랭이
204112	유건	*
204113	병거지	*
204114	밀짚모자	밀랑패랭이
204115	미사리	*
204116	짚신	초신, 짚신
204117	제충박이	*
204118	딴충박이	깍신
204119	미투리	*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죽신	가막창신
204123	부르트다	북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설피
204126	문수	*
204127	부채	선재
204128	미선	*
204129	부치다[扇]	부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질고리	바농상지
204131	가위	ㄱ새

204132	마르다[裁]	몰르다
204133	골무	골미
204134	실	실
204135	실꾸리	*
204136	실패	실패
204137	바늘	바농
204138	찌르다[刺]	찌르다
204139	바늘겨레	*
204140	바늘귀	바농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깎다	주다
204143	실밥	실밥
204144	접다	*
204145	굽치다	*
204146	휘잡치다	감치다
204147	재봉틀	미싱
204148	다리미	다리미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누르다
204153	씨아	씨아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췌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깔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앉는 앉을개	*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
204153-5	씨아손	손잡이	*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

204154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자세 \*

## 5. 음식

###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괴다
205007	빼다[湯水]	빼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팔밥	풀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밥
205013	고두밥	고들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룽지, 누룽이
205016	눌은밥	눌은밥
205017	더운밥	뜨신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파래밥	프레밥
205020	밥보	밥푸대
205021	밥술	숯가락, 수저
205022	밥알	밥개
205023	끼니	때
205024	늦다[晩]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밥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냥	승냥
205029	화독내	그끈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느멀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데기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팔죽	폴죽
205042	섞다[混合]	섞으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강이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 부식

205047	반찬	출레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느멀짐치
205051	무김치	늬뻬짐치
205052	열무김치	열무짐치

205053	물김치	물집치
205054	나박김치	나박집치
205055	갓김치	갓집치
205056	파김치	파집치
205057	깍두기	깍두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동그다
205060	간장	간장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된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
205066	간	간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간하다
205069	콩나물	콩주름
205070	숙주나물	눅디주름
205071	무나물	늪빼늪멸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늪멸
205074	고사리밥	*
205075	꺾다[切]	꺾다
205076	곳[場所]	*
205077	고비	*
205078	미나리	미나리
205079	부추	세우리
205080	상추	상추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
205083	오이	외
205084	물외	물외
205085	참외	참외
205086	수세미외	수세미
205087	말물	챗물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

205090	원두막	원두막
205091	갯잎	펜잎, 유잎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풋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치ㄱ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즉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
205099	호박잎	호박닙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더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시리
205110	부스러기	보시레기
205111	송편	곤떡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래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두
205117	가루	ㄱ루
205118	국수	국수
205119	칼국수	칼국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즈베기
205122	물다[淡]	물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볶다
205126	붕지	붕다리
205127	과줄	과즐
205128	엿기름	골
205129	감주	감주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막걸리
205133	붓다[注]	붓다
205134	기울다[傾]	지울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마시다
205137	준(罇)	*
205138	엮다	엮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대
205140	술독	술항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숨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싸다
205146	갑시다	가게마씨
205147	지짐이	지짐이
205148	누름적	*
205149	산적	적깔

####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정지문
205152	불때다	불때다
205153	불등걸	잉경
205154	불뚝	불뚝
205155	부엌비	정지 비차락
205156	내[煙氣]	네
205157	낮다[低]	낮다
205158	높다[高]	높다
205159	그을음	그스림

205160	검댕	검댕이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재	재
205163	모으다[集]	모으다
205164	부뚜막	*
205165	붓돌	숫덕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
205168	무쇠솔	무쇠솔
205169	끓다[沸]	끓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이
205171	솔귀	*
205172	솔전	솔전
205173	솔바닥	숫강알
205174	솔밑	*
205175	솔검정	숫검댕이
205176	부삽	*
205177	군손	*
205178	군일	*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깻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방석
205182	성냥	성냥
205183	성냥개비	성냥살
205184	성냥갑	성냥곽
205185	부시	부시
205186	부싷돌	*
205187	부싷깃	불찍
205188	부시쌈지	*
205189	부시통	불통
205190	등잔	등잔
205191	관솔	관솔
205192	호룽	호룽
205193	남포등	남포등
205194	젍싷불	젍싷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숫	숫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가매
205199	뜬숯	*
205200	숯검정	숯검댕이
205201	불타다	불습다
205202	탄내	끄시렁내
205203	불태우다	불스르다
205204	불티	불똥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불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청동화리
205209	붕당	*
205210	화룻불	*
205211	불찌다	불추다
205212	화상(火傷)	화상
205213	부손	*
205214	부젓가락	불하시
205215	다리쇠	시발쇠
205216	석쇠	적쇠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
205217-2		*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피우다
205220	용고뚜리	*
205221	담뱃대	담뱃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떨이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눗그릇
205233	사발	사발
205234	뚜껑	뚜껍이
205235	접시	젍시
205236	굽달이	정반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기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
205241	숟가락	숟그락
205242	젓가락	젓가락
205243	수저통	수제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구진물
205246	도시락	도시락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클락박세기
205250	박	꼭
205251	뒤옹박	뒤렁박
205252	조롱박	꼭
205253	쪽박	쪽박
205254	양푼	냥푼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뚝배기	*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
205260	시룻번	*
205261	경그레	징
205262	함지박	도구리
205263	바구니	구덕
205264	소쿠리	차룽
205265	대[竹]	대낭
205266	이대	족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솜대(분죽)	수럿대

205269	제주조릿대	*
205270	굳은대	*
205271	무른대	*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
205277	식칼	돔베칼
205278	빼다[拔]	빼다
205279	무디다[鈍]	무디다
205280	갈다[磨]	갈다
205281	숫돌	신돌
205282	날카롭다	느실다
205283	행주	행주
205284	번철	*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밥주걱, 우금
205287	죽젓광이	배수기
205288	수세미	수세미
205289	떡살	떡살
205290	밀판	*
205291	밀개	*
205292	소줏고리	*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
205292-4	(받이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

205293	빚다	술등그다
205294	풍로	*
205295	삼발이	시발쇠
205296	달이다	딸리다

## 6. 가옥

###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가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낡다[古]	낡다
206007	기와집	지와집
206008	흙집	혁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오막살이
206011	외채	단채
206012	안채	안꺼리
206013	바깥채	밖꺼리
206014	안팎채	안팎꺼리
206015	문간채	모꺼리
206016	결채	목꺼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항독
206019	덮다[蓋]	덮다
206020	장독대	장항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왕, 쉐막
206023	잃다[失]	잃다
206024	마구간	마구간
206025	변소	벤소
206026	부출돌	*
206026-1	부출	*
206027	기척	기척
206028	맞서다[拮]	맞서다
206029	냄새	내움살
206030	맡다[臭]	맡다
206031	울담	담
206032	울안	*
206033	터알	우영밭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릿눌
206036	짚가리	짚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가리다
206039	사닥다리	사드래
206040	이영	주쟁이
206041	주저리	*
206042	엮다[編]	엮다

###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채
206043-1		*
206043-2		*
206044	디딤돌	팡
206045	난간	무똥
206046	마루	마루, 상방
206047	마루문	상방문
206047-1	‘호령창’	셋문
206048	마룻널	*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다
206053	구들직장	구들백이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웃목
206057	아랫목	아랫목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닿다
206060	윗바람	웃브름
206061	안방	안방
206062	방문	방문
206063	비[帚]	비차락, 비
206064	빗자루[柄]	비차락, 빗즈룩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버리다
206067	바람벽	브롬벽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시렁
206071	선반	살레
206072	헛대	헛대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얄	폴비
206075	폴비	*
206076	찾방	챗방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두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간수하다
206081	안뒤결	*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
206084	지붕물매	*
206085	이다[蓋]	이다
206086	평고대	*
206087	처마	처마
206088	처맛기슭	*
206089	낙숫물	*
206090	댓돌	신들
206091	흙	혁
206092	진흙	*
206093	찰흙	출흙
206094	흙덩이	흙병에
206095	새벽	동새백이
206096	흙길	*
206097	이기다[汲]	*
206098	산자(撒子)	*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
206101	뒷기둥	*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
206105	용마루	*
206106	보	*
206107	대들보	대들보
206108	반자틀	*
206109	귀틀	*
206110	외(椽)	*
206111	인방	*
206112	문설주	*
206113	문곶도리	*
206114	문얼굴	*
206115	문틀	문트멍
206116	문머리	*
206117	문흙	*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
206120	닫다[閉]	닫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3	창호지	창호지
206124	뛰창문	*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닫이	*
206127	여닫이	*
206128	살문	*
206129	널문	*
206130	덧문	*
206131	문틈	*
206132	들찌귀	*
206133	암틀찌귀	*
206134	수틀찌귀	*
206135	문고리	*
206136	배목	*
206137	퀘	퀘
206138	열다[開]	열다
206139	장식	*

206140	자물쇠	통쇠
206141	열쇠	열쇄
206142	부수다[碎]	부시다
206143	서랍	서랍

####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
206146	거도	*
206147	틀툽	*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옥자귀
206151	노루발장도리	*
206152	못뽑이	*
206153	박다[釘]	*
206154	배척	*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방맹이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뿔다[鑿]	뿔르다
206162	곱자	*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
206167	쇠흙손	*
206168	나무흙손	*
206169	흙받기	*
206170	돌물레	*
206171-1		*

## 7. 생업

### 농업

207001	농사	용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염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드륙
207006	병작(並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잡대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지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뺀 나간 나무	벧받침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뺀 나무	*
207008-5	좀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쇧조각	보습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쇧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
207008-9	‘뚝’	좀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

207009	옥보다	*
207010	겨리	*
207011	벧밥	*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양명에
207014	밭두둑	*
207015	밭고랑	고령
207016	밭이랑	이령
207017	거웃	고지
207018	극쟁이	*
207019	씨레	*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뾰족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팽이	팽이
207022	곡팽이	곡팽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쇠시랑
207025	삽	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앗
207030	알씨	*
207031	백씨	*
207032	뿌리다[撒]	뿌다
207033	망태기	망탱이
207034	꿈계	섬피
207035	남태	남태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벌매기
207040	두벌매기	두벌매기
207041	세벌매기	식벌매기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
207043	호미	굴갱이
207044	홍아기	사대소리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삿	놉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중석
207050	폼앗이	수눌음
207051	삼태기	굴채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
207052-3	낫쟁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늘

207053	베다[刈]	베다
207054	새뺨기	*
207055	새끼	노끈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막작
207058	노	노끈애기
207059	끈	끈
207060	참바(바[索])	*
207061	짐바	*
207062	질빵	질빵, 베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쇠질메
207066	말길마	말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둥산 모양의 나무	*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
207066-5	등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207066-6	경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
207066-7	경거리끈	경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
207066-8	경거리막대	경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
207066-9	배뎛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

207067 멩에 멩에

207067-1	목대	멩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멩에줄
207067-2	붓줄	멩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소래줄
207067-3	한태	붓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등대줄
207067-4	(오리목)	붓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오리목
207067-5	비겨미	붓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붓줄에 꿰는 막대기	털대

207068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겟다리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뺨어 나간 가지	지겟가지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지게셋냥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지게등태
207068-5	지게꼬리 (밀뻬)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지게줄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게막대기

- 207069 바지게 \*
- 207070 발채 \*
- 207071 물지게 \*
- 207072 이삭 ママ리
- 207072-1 \*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
207075	개상	*
207076	벼훑이	*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보리ㄴ고리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산디ㄴ고리

207078	타작하다	도깨질한다, 타작하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진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힘
207083	겨를	겨를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즈룩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녀	도깨몽치

207085	여물	여물
207086	쭈정이	꺾줄
207087	꼴	출
207088	꼴밭	출왓
207089	꼴꾼	*
207090	꼴단	출뭇
207091	싣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구루마
207093	북두	*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
207096	거적	거적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즂진체, ㄴ는체

207099	굽은체	거름체, 대체
207100	말총체	*
207101	챗바퀴	*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래미	얼맹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푸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솔박’	즘팍
207109	풍구	*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되
207112	되	되
207113	관되	*
207114	사삿되	사삿되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
207115-2	모말	*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다
207118	고무래	당그네
207119	불당그래	굴묵당그네
207120	떡등구미	맥, 망탱이
207121	가마니	가맹이
207122	꿇다[引]	꿇다
207123	곡석	곡석
207124	흩다[散]	흩다
207125	자루[袋]	푸대
207126	부대(負袋)	*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계으름	간세다리
207129	노라리	*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207132	누리다[黃]	누리다
207133	밟다	뽀다



207134	까끄라기	ㄴ시락
207135	보리쌀	보리솔
207136	보릿겨	보릿겨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솔보리
207139	맥주보리	맥주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낭
207141	매끼	*
207142	감부기	감비약
207143	귀리	대오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슈다	슈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서속
207151	비비다	비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재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짖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ㄴ고리
207157	볍씨	볍씨
207158	못자리	못자리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ㄴ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왓
207162	밭벼쌀	산디솔
207163	밭벼짚	산디짚
207164	맷돌	ㄴ래

207164-1	맷돌짜	맷돌의 위아래 돌	ㄴ래착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짜	웃돌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짜	아랫돌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짜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짜 한가운데 박힌 물건	죃똥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ㄴ래즈록

207165	맷방석	ㄴ랫방석
207166	매함지	*
207167	풀맷돌	풀ㄴ래
207168	풀매	*
207169	썰기	*
207170	방아	방애
207171	쌍방아	두콜방애
207171-1		식콜방애
207171-2		네콜방애
207171-3		다섯콜방애
207172	방아확	돌혹
207173	방앗간	방앗간
207174	븨비다	븨비다
207175	방앗공이	방애끼, 방애콧
207176	남방아	남방애
207177	연자매	연자매
207178	방앗돌	방앗돌
207179	연자맷간	연자맷간
207180	절구	남방애
207181	절긋공이	방애끼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뉘	니
207184	고르다[擇]	고르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
207189	기름콩	주름콩
207190	콩깍지	콩닙

207191	콩짚	콩짚
207192	꼬투리	콩깍지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둠비물
207195	뜨겁다	뜨겁다
207196	비지	비재
207197	찌꺼기	찌끄레기
207198	완두	보리콩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팔	폴
207202	팔알	폴방울
207203	팔밥	폴밥
207204	녹두	논디
207205	깨(참깨)	꽤
207206	들깨	들꽤
207207	참기름	참지름
207208	깻묵	*
207209	고소하다	코시롱ㅎ다
207210	메밀	모멸
207211	메밀밭	모멸밭
207212	나깨	*
207213	메밀껍질	모멸껍줄
207214	메밀국수	모멸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모멸즈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모멸칼국
207217	메밀떡	모멸떡
207218	메밀묵	모멸묵
207219	무르다[軟]	물르다
207220	고구마	감재
207221	절간고구마	빼대기
207222	찌다[蒸]	찌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실
207225	마늘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농대가리

207225-3	마늘중	마늘쫑
207226	마늘장아찌	마늘지
207227	파	꽤마늘
207227-1	파밑동	꽤마늘불리
207228	무	늬뻬
207229	무청	무청
207230	시래기	시래기
207231	장다리무	*
207232	열무	열무
207233	배추	배추
207234	고갱이(배추)	배추속
207235	나물	늬물
207236	채소	승키
207237	겉대	피대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대죽부레기, 강냉부레기
207240-1	옥수수	옥수수
207241	수수	수수
207242	쌀수수	*
207243	비목수수	빫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탕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

####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네
207247	물길	*
207248	물웃	물속곳, 소중이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큰눈
207249-2		작은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재기
207255	뜰채	쪽배기, 사들

207256	그물	그물
207257	돛단배	돛배
207258	이물	고물
207258-1	이물간	고물칸
207258-2	이물사공	이물사공
207259	고물	이물
207259-1	고물간	이물칸
207259-2	고물사공	고물사공
207260	돛	돛
207261	마룻대(돛대)	*
207262	마룻줄(용총줄)	*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네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네앞
207270	노뒤	네뒤
207271	노손	*
207272	눅구멍	*
207273	눅줄	*
207274	돛	돛
207275	돛가지	돛가지
207276	돛줄	돛줄
207277	돛돌	*
207278	돛걸이	*
207279	키[舵]	키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
207284	떼[浮筏]	테

기타

207285	이웃	*
207286	더불다[與]	어울리다
207287	마을	막실
207288	고을[村]	골
207289	누리[世]	시상
207290	윗마을	웃드르, 산간
207291	옮다[移]	옮다
207292	아랫마을	갯갯, 해각
207293	마을가다	막실가다
207294	밤마을	밤마실
207295	가게	점방, 상점
207296	구멍가게	구멍가게
207297	다녀오다	댕겨오다
207298	심부름	심부름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우수리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우수리
207302	있다[有]	잇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나머지
207307	흥정	흥정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벤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대장
207313	풀무	불미
207314	손풀무	*
207315	모루	*
207316	모루채	*
207317	갓양태(양태)	*
207318	망건	망건
207319	망건골	*
207320	탕건	탕건

207321	견다[編]	준다
207322	사냥	사능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사농바치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핑바치
207327	고	*
207328	올가미	코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나누다
207331	갖다[持]	죄다

##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요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요덥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스물	스물
208004-2	(30)서른	서른
208004-3	(40)마흔	마흔
208004-4	(50)쉰	쉰
208004-5	(60)예순	예순
208004-6	(70)일흔	일흔
208004-7	(80)요든	요든
208004-8	(90)아흔	아흔
208004-9	(100)백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되	흔말
208005-2	(2/두)	두되	두말
208005-3	(3/서, 석)	석되	석말
208005-4	(4/너, 녀)	녀되	녀말
208005-5	(5/닷)	다섯되	다섯말
208005-6	(6/엿)	말가웃	요섯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개	흔두되	흔두말
208006-2	(2-3/두세)	두세개	두석되	두서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개	두서녀되	두서녀말
208006-4	(3-4/서너)	서너개	서녀되	서녀말
208006-5	(4-5/네댓)	너댓개	너댓되	너댓말
208006-6	(5-6/대여섯)	대여섯	대엿되	대엿말
208006-7	(6-7/예닐곱)	예실곱개	예실곱되	예실곱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요덟개	일고요덟되	일고요덟말
208006-9	(8-9/여덟아홉)	*	*	*

208007 여남은 여남은개 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개 남은

단위



208009 뺨                    혼뺨  
 208010 집게뺨                혼조리  
 208011 밭[單位]            혼밭  
 208012 밟다                    재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민영
208014-2	명주	맹주
208014-3	광목	광목
208014-4	베	베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  
 208016 못                        못  
 208017 묶다[束]                묶다  
 208018 나르다[移]                나르다  
 208019 동                        \*  
 208019-1                    \*  
 208020 조짐                    \*  
 208021 바리(종류)            \*  
 208021                        \*

208021-1	보리	6못(웃못)
208021-2	조(이삭 있음)	*
208021-3	콩	*
208021-4	밭벼	산디
208021-5	꿀	출18못
208021-6	띠	새
208021-7	각단	*
208021-8	어욱	*

208022 모금                    \*  
 208023 섬                        섬  
 208023-1                    \*  
 208024 덩이                    덩어리  
 208025 포기                    포기

208026	그루	그루
208027	돌이(양태)	*
208028	마리	므리
208028-1	두[頭]	두
208028-2		*
208029	축	축
208030	퀘미	*
208031	쌍(돼지)	흔자리
208032	채(집)	채
208033	장(무덤)	*
208034	결레(신)	결레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못	못
208037	죽	*

## 9. 민속

###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아기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싱할망
209004	깃저고리	*
209005	배냇머리	*
209006	돌	돌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시방
209009	가마	가매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개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개보내다
209014	함	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
209017	신부상	신부상
209018	휘다[椽]	휘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조
209021	사돈	사돈
209021-1	안사돈	안사돈
209021-2	바깥사돈	바깥사돈
209022	겹사돈	가시사돈
209023	상갓집	상집
209024	수의	수의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상주
209028	만상제	만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매
209031	상장(喪杖)	상장
209031-1		*
209031-2		*
209032	짚동	*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조문하다
209035	뒗자리	뒗자리
209036	지관	지관
209037	패철	*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여
209040	보장(寶帳)	*
209041	계(契)	계
209042	상두꾼	상두꾼
209043	장삿날	장시날
209044	장지	장지
209045	광중	*
209046	횡대	*
209047	호충	*
209048	무덤	무덤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
209053	마치다[終]	막치다
209054	벌초	벌초
209054-1	소분	소분
209055	묘위전	*
209056	고총	*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갯집
209059	편틀	*
209060	퇴물	튼물
209061	메	메
209062	갱(羹)	게영국
209063	제육	제육
209064	제편	*
209065	인절미	인절미
209066	절편	절편
209067	웃기떡	곤떡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태우다
209070	몫	반
209071	면례(緬禮)	*

#### 세시풍속

209072	설날	설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맹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검줄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구
209079	설장구	살장구
209080	팽과리	깡매기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
209084	모래찜질	모살뜸질
209085	추석	추석

##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안택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판
210008	명두	맹두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슬다
210012	살(煞)	살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살방
210014	도깨비	도채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채비
210016	허깨비	허깨비
210017	어둑서니	기신세
210018	무섭다	막습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고사
210021	고수레	고시레
210022	포제	포제

## 11. 자연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화
211004	불다[點火]	불다
211005	내[川]	넛창
211006	넛가	넛ㄱ
211007	물가	물ㄱ

211008	따르다[從]	따르다
211009	건너다[渡]	건너다
211010	낭떠러지	낭떠러지
211011	다리[橋]	다리
211012	가깝다[近]	가깝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불
211014-1	가시덤불	가시왕
211015	돌무더기	돌무더기
211016	갈림길	*
211017	묻다[問]	묻다
211018	비탈길	비탈길
211019	벼랑길	벼랑길
211020	내리막길	*
211021	오르막길	*
211022	길가	질ㄱ
211023	큰길	한길
211024	분화구	분화구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
211028	산바람	*
211029	산꼬대	*
211030	상고대	*
211031	구렁	*
211032	고랑창	고랑창이
211033	건너가다	건너가다
211034	넘어지다	넘어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
211037	숲	숲
211038	성(城)	성

####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갯갯디
211041	바닷물	바닷물

211042	바닷바람	바닷브름
211043	깊다[深]	짚다
211044	얕다[淺]	얕다
211045	물먹다	복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작지
211049	갯가	갯것
211050	펼	뺨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돏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너울
211056	굵뉘	*
211057	물결	물절
211058	잔물결	즌물절
211059	무수기	*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	*
211059-2	두무날	*	*
211059-3	서무날	*	*
211059-4	너무날	*	*
211059-5	다섯무날	*	*
211059-6	여섯무날	*	*
211059-7	일곱무날	*	*
211059-8	여덏무날	*	*
211059-9	아홏무날	*	*
211059-10	열무날	*	*
211059-11	열한무날	*	*
211059-12	열두무날	*	*
211059-13	(열서무날)	*	*
211059-14	아끈췌기	*	*
211059-15	췌기	*	*
211059-16	한조굸	*	스무사흘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든물
211064	물써다	물싸다
211065	썰물	싼물

#### 시후

211066	오늘	오널
211067	내일	닐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닐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즈낙날
211072	어제	어저께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그적아시날
211075	새벽[曉]	새벽
211076	꼭두새벽	동새벽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벧
211079	아침	아척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즈낙
211082	저녁거리	즈낙꼬심
211083	초저녁	초즈낙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리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은하수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
211095	초승달	초승들



211096	보름달	보름달
211097	그믐달	그믐달
211098	햇무리	*
211099	무지개	무지개
211100	쌍무지개	*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가을
211104	겨울	겨울
211105	입춘	입춘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그믐

211110-1	하루	하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새
211110-6	엿새	엿새
211110-7	이레	일레
211110-8	여드레	요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댓새	너댓새
211113	대엿새	대엿새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
211119	선달	셋달
211120	올해	올해

211121	내년	내년
211122	내후년	내후년
211123	작년	작년
211124	재작년	재작년

####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살
211127	따스하다	따뜻ㅎ다
211128	땡별	즈작벧
211129	가을별	ㄱ실벧
211130	양지받이	*
211131	아지랑이	아지랭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캐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브름우이
211137-2	바람아래	브름아래
211138	맞바람	맞브름
211139	바람받이	바람ㄱ지
211140	바람살	브름쌀
211141	회오리바람	도깡이브름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마포름
211144	서풍	서갈브름, 갈바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줄기
211149	장마	마
211149-1	봄장마	5월장마
211149-2	가을장마	ㄱ실장마
211150	곰팡이	곰팡이
211151	소나기	소나기

211152	여우비	*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선선하다
211156	도롱이	도롱이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가뭄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안개
211162	번개	번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함박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스락이눈
211170	도둑눈	*
211171	내리다[降]	ㄴ리다
211172	희다	희다
211173	춡다	춡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고드름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굽다	굽다
211180	진눈깨비	진눈깨비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이
211183	뒤	두이
211184	결	결이
211185	옆	옆이
211186	위	우이

211187	아래	아래
211188	밝다[明]	븨다
211189	어둡다[暗]	어둑ㅎ다
211190	왼쪽	왼쪽
211191	오른쪽	ㄴ단쪽
211192	밑	밑
211193	흐르다[流]	흐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밖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서리
211198	가[邊]	ㄱ
211199	가장자리	에엌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곧다

## 12. 동물

### 가축

212001	소[牛]	쇠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쇠
212004	수소	숫쇠
212005	쇠소	쇠소
212006	불까다	불븨르다
212007	불알	불
212008	황소	부렁이
212009	얼룩소	석쇠
212010	부리망	망울
212011	쇠고삐	콧줄
212012	끌다	끌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벵작쇠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릅(1)	*	*
212015-2	이듭/두습(2)	*	*
212105-3	사릅(3)	사릅	*
212015-4	나릅(4)	나릅	*
212015-5	다습(5)	*	*
212015-6	여습(6)	*	*
212015-7	이릅(7)	*	*
212015-8	여듭(8)	*	*
212015-9	아습/구릅(9)	*	*
212015-10	열릅/담불(10)	*	*

212016	작두	작두
212017	쇠죽	쇄죽
212018	구유	도구리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암말
212023	수말	숫말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
212026	청총마/총이말	*
212027	절따말/적다마	*
212028	얼룩말	얼룩말
212029	유마	*
212030	백마	백마
212031	고라말	*
212032	곰배말	*
212033	조랑말	조랑말
212034	달리다[走]	달리다
212035	마소	마소
212036	글쟁이	글쟁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말고삐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짚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비루
212048	비루떡다	비루떡다
212049	고양이	고냉이
212050	암코양이	암고냉이
212051	수고양이	숫고냉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냉이
212053	살쟁이	살쟁이
212054	닭	닭
212055	암닭	암닭
212056	수닭	장닭, 숫닭
212057	멀떠구니	멍터과리
212058	산떡	*
212059	닭의어리	*
212060	닭장	닭망
212061	달걀	득세기
212061-1	노른자위	노른자
212061-2	흰자위[卵]	흰자
212062	끓다[腐]	끓다
212063	빙아리	빙애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숫도새기
212067	암돼지	암도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하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괴기
212071	일솨씨	일성머리
212072	생둥이	*
212073	새끼 돼지	애기도세기, 새끼도세기
212074	돼지우리	돛통시
212075	돼지고기	돛괴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관(푸줏간)	*
212080	기르다	기르다
212081	둘치	지시랭이
212081-1	둘암소	*
212081-2	둘암말	*
212081-3	둘암돼지	*
212081-4	둘암캐	*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오리

###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쉬	쉬
212087	쉬슬다	쉬싸다
212088	가시	가시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쇠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각다귀
212096	장구벌레	*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蟪]	니
212099-1	서캐	서캐
212100	서캐훤이	*
212101	지렁이	지렁이
212102	회충	개우리
212103	거머리	거머리
212104	바구미	*
212105	콩바구미	*
212107	땅강아지	*

212108	그리마	*
212109	쥐며느리	삼동버렁지
212110	노래기	노래기
212111	지네	주녕이
212112	진딧물	진시
212113	진딧물내리다	진딧물누리다
212114	하루살이	흐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달팽이
212117	민달팽이	*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왕게염지
212121	불개미	*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심방말축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극주애기
212126	귀뚜라미	말축
212127	풍뎅이	두메기
212128	장수풍뎅이	*
212129	무당벌레	*
212130	쇠똥구리	*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늘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비비산태
212140	고추잠자리	*
212141	장수잠자리	*
212141-1		*
212142	매미	재열
212143	매미허물	*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매미
212145	쓰르라미	*
212145-1		*
212146	소금쟁이	*
212147	방개	방개
212148	반딧불이	불란디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꿀벌
212151	꿀	꿀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말벌
212154	붓다[腫]	*
212155	진드기	진드기
212155-1		*
212155-2		*
212156	송충이	소낭버랭이
212157	개구리	글개비
212158	올챙이	멘주기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테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띠
212161-2	뱀허물	베염허물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띠
212163	도마뱀	도마뱀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똥줄레

#### 들짐승

212166	여우	여우
212167	노루	노루
212168	염소	염송애기
212169	토끼	튀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중이
212172	꿩	꿩

212173	쥐구멍	중이고망
212174	박쥐	박쥐
212175	다람쥐	다람쥐
212176	오소리	오소리
212176-1		*
212177	지달(이)	지달이
212178	지달피	*
212179	멧돼지	멧돼지
212180	원숭이	원숭이
212181	원숭이띠	원숭이띠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띠
212184	꼬리	꼴랭이

####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꿩	*
212187	깃[羽]	깃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새가심
212190	참새	참생이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생이
212193	매	소로기
212194	참매	참매
212195	술개	*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마귀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빠꾸기	빠꾸기
212200	종달새	종달새
212201	올빼미	오뺨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까투리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뉘새기
212206	꺼병이	꿩새끼

212207	두루미	두루미
212208	기러기	기러기
212209	갈매기	갈매기

#### 바다 동물

212210	고등	구쟁이
212211	개울타리고등	*
212212	명주고등	*
212213	눈알고등	*
212214	밤고등	*
212215	팽이고등	*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
212218	대수리	*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롱뿔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북손	배차기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굵벚
212225-1		*
212226	진주담치	*
212227	소라	구쟁기
212227-1		*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
212228-2		*
212229	전복갑	*
212230	오분자기	오분재기
212231	게	강이
212232	마위게	*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참강이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

212238	그물무늬금계	*
212239	집게발	아강발, 어금발
212240	갯장구	*
212241	말미잘	말미잘
212242	성게	구살
212243	말뚝성게	숨
212244	군소	물토새기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고냉이방석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
212248	해파리	해프리
212249	낙지	메꾸럭
212250	문어	물꾸럭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닷괴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흐리다
212257	잘다[細]	잘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배타다
212261	생선(生鮮)	생선
212262	미끼	미겁
212263	갯지렁이	갯지렁이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낙싯대
212266	만들다[造]	맹글다
212267	낙싯줄	낙싯줄
212268	붕돌	뽕돌
212269	참대	춤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지느레미
212274	아가미	아가미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보리멜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
212279	베도라치	*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랭놀래기	*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옥돔
212288	흑돔	*
212289	돌돔	돌돔
212290	감성돔	감성돔
212291	벙에돔	벙에돔
212292	황돔	황돔
212293	자리돔	자리돔
212293-1		*
212294	고등어	고등어
212295	전갱이	각채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지에
212299-1		*
212300	붉바리	붉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쥐치	깍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볼락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
212307	독가시치	*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사에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괭이상어	*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곰수기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

### 13. 식물

#### 풀

213001	가라지	그라지
213002	갈대	갈대
213003	억새	어욱
213004	새풀	*
213005	화승(火繩)	*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
213009	빨기	뽕이
213010	사초	*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
213013	쇠무릎	*
213014	바랭이	*
213015	민바랭이	*
213016	조개풀	*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

213019	솔새	*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
213023	원추리	*
213024	메꽃	*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
213027	쇠비름	쇠비름
213028	개비름	*
213029	참비름	*
213030	땅빈대	*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
213034	질경이	질경이
213035	쭈	쭈
213036	캐다[採]	*
213037	쭈떡	쭈떡
213038	토끼풀	튀끼풀
213039	개자리	*
213040	냉이	난시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
213043	여뀌	*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귀	소쟁이
213046	췌기풀	*
213047	수크령	*
213048	망초	*
213049	별꽃	*
213050	병풀	*
213051	깨풀	*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
213054	땅파리	*
213055	피막이풀	*

213056	도깨비바늘	가마귀바늘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
213059	왕모시풀	*
213060	천남성	*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
213063	살갈퀴	*
213064	차풀	*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
213067	하늘타리	하늘래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
213069	부처손	*
213070	방가지뚱	*
213071	닭의장풀	*
213072	배풍등	*
213073	취	취
213074	취덩굴	*
213075	취뿌리	취불리
213076	댕댕이덩굴	*
213077	노박덩굴	*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
213083	송악	송악
213084	인동	인동
213085	멀꿀	*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
213090	수영(승아)	*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



213093	땀싸리	*
213094	명아주	*
213095	갓	갓
213096	달래	평마농
213097	씀바귀	*
213098	고들빼기	고들빼기
213099	박하	*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
213104	구릿대	*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익모초
213107	피마자	*
213108	뉴질랜드삼	*
213109	양하	양엣간
213110	파초	*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
213119	채송화	채송화
213120	민들레	민들레
213121	봉선화	봉선화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
213123	분꽃	분꽃
213124	할미꽃	할미꽃
213125	붓꽃	붓꽃
213126	참나리	*
213127	맨드라미	맨드라미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쑥부쟁이	*
213133	수국	수국
213134	산수국	산수국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제비꽃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수선화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불리
213142	잔뿌리	즌불리
213143	줄기	줄기
213144	가지	가지
213145	잎	잎상귀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하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잎
213151	솔가리	*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땃감	삭다리, 지들커, 땃감
213154	마디다	*
213155	갈퀴	*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풍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동박낭
213160	붉다[赤]	별경ㅎ다
213161	멀구슬나무	떡구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낭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아카시아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
213167	삼나무	쑥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사오기
213170	왕벗나무	*
213171	사옥	*
213172	느티나무	굴목이
213173	주목	*
213174	종려나무	*
213175	윤노리나무	윤유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
213178	굴거리나무	*
213179	생달나무	*
213180	굴나무	미깡낭
213181	따다[摘]	따다
213182	광굴나무	*
213183	유자나무	유자낭
213184	비자나무	비저낭
213185	치자나무	치자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
213189	배롱나무	*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
213192	팡팡나무	*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매죽나무	*
213195	마가목	*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느릅낭
213198	두릅나무	두릅낭
213199	향나무	*

213200	웃나무	웃낭
213201	소리나무	*
213202	솔비나무	*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
213205	돈나무	*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쥐똥나무	*
213208	섬쥐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뽕낭
213217	덜꿩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
213220	좀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
213222	말오줌때	*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
213227	천선과나무	*
213228	실거리나무	*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
213233	박달나무	*
213234	떡갈나무	*
213235	상수리나무	*
213236	참나무	*

213237	산딸나무	산딸낭
213238	초피나무	*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저슬사리
213242	모람	*
213243	누리장나무	*
213244	아왜나무	*
213245	순비기나무	순비기낭
213246	붉나무	*
213247	협죽도	협죽도
213248	담팔수	*

#### 열매

213249	과일	과실
213250	겹질	겹줄
213251	깎다	깎그다
213252	벧기다	벧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베염탈
213255	명석딸기	*
213256	복분자딸기	*
213257	줄딸기	*
213258	산딸기	산탈
213259	가시딸기	*
213260	검은딸기	*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머뤄
213264	개머루	*
213265	까마귀머루	*
213266	산머루	산머뤄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시로미
213270	다래	드래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불레낭
213273	보리수	불레
213274	보리장나무	*
213275	앵두나무	앵도낭
213276	앵두	앵도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화
213279	밀감	밀감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탕주
213282	탱자나무	개탕주낭
213283	감	감
213284	뽕다[柿]	초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시
213287	곶감	곶감
213288	청미래덩굴	청미래덩굴
213289	맹감	*
213290	찐레나무	찐레낭
213291	영실	*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게낭, 도애낭
213303	복숭아	복숭게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즐갱이
213307	오미자	오미자

##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넙메역
213310	미역쇠	메역췌
213311	김	김
213312	파래	프래
213313	톳	툄
213314	패	페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층이	*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몐
213321	청각	청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